

주해(註解)

보성(寶城)소리 수궁가(水宮歌)

석민 편(編)

석민(奭民)

방안통소(포랑광대)

사회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김경아 명창께 춘향가 적성가 대목부터 십장가 대목까지 사사

『강산제 심청가·박동실제 유관순 열사가』 (공편)

주해(註解) 보성(寶城)소리 수궁가(水宮歌)

발 행 | 2023년 9월 22일

저 자 | 석민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 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410-4555-5

www.bookk.co.kr

© 석민 2023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주
해

보
성
소
리

수
궁
가

석민 편

서문

정응민 명창과 정권진 명창을 거쳐 정희석 명창에게 이어진 수궁가, 일명 ‘보성(寶城)소리 수궁가’ 사설을 주해(註解)한 것이 이 책이다. 고(故) 정응민 명창은 20세기 중반기까지 활약했던 판소리 명창이다. 『논어(論語)』에 나온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표현처럼, 판소리의 전통을 현대로 이은 큰 스승이다. 그의 아들이자 무형문화재 제5호 심청가 초대 보유자가 고(故) 정권진 명창이다. 정응민 명창의 손자이자 정권진 명창의 아들이자 무형문화재 제5호 심청가 보유자가 정희석 명창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3대(代)에 이르고, 정응민 명창의 윗대인 고(故) 정재근 명창까지 하면 4대에 이르는 판소리 명문가이다. 이 명창 집안의 수궁가를, 중시조(中始祖) 정응민 명창이 은거했던 보성(寶城) 지역의 이름을 따 ‘보성소리 수궁가’로 부르는 셈이다.

이 책의 주해는, 『토끼전 전집』 1~6권(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박이정출판사, 1997~2003)에서 150여 년 전부터의 사설을 두루 발췌독 하며 그 문맥에 기초해서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100여 년 전 유성기 음반의 복각 녹음에 실증적으로 기초하기도 했다. 끝으로, 중국철학서전자화계획 누리집(ctext.org)과 한국 고전종합 DB 누리집(db.itkc.or.kr)과 각종 백과사전과 어학 사전 등에서 총체적으로 용례를 검증하기도 했다.

물론, 허성도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님께서 판소리 사설 주해에 있어 한시(漢詩)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배연형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알려주신 것도 중요한 계기였다. 정희석·조정희가 탈초(脫草) 하고 배연형이 감수한 「〈부록 1〉 정응민 〈수궁가〉 창본 (1935)」이 정희석의 「정응민 가계 〈수궁가〉의 음악적 특징과 전승양상」(한양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2014)에 실려 있었다.

안 팔리는 책인데도 기회를 주신 부르크의 배려에 대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의 은혜에 대해, 『당시별재집』 1~6권(심덕잠 엮음, 서성 옮김, 소명출판, 2013)과 『조선 사람이 좋아한 당시』(이종묵 평역, 민음사, 2022)와 『토끼전 전집』 1~6권 등등의 논저에 대해 감사한 마음뿐이다. 끝으로, 참고 문헌을 각주로 대신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2023년 9월 21일 목요일에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 2층에서

차례

서문 4쪽

보성(寶城)소리 수궁가(水宮歌)

1. 7쪽

2. 별 주부 45쪽

3. 세상으로 57쪽

4. 토끼 97쪽

5. 용궁으로 132쪽

6. 세상으로 163쪽

부록 188쪽

차용 한시 모음(작가 가나다 순 - 작품 가나다 순,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차용 어구)

보성(寶城)소리 수궁가(水宮歌)

1.

[아니리]

갑신년(甲申年)¹⁾ 중하(仲夏)²⁾ 월(月)에 남해 광리왕(廣利王)³⁾이 영덕전(靈德殿)⁴⁾ 높이 짓고 대연(大宴)⁵⁾을 배설(排設)하야⁶⁾ 삼해 용왕(龍王)⁷⁾을 청하실 제 군신(群臣)⁸⁾ 빈객(賓客)⁹⁾이 천승(千乘)¹⁰⁾ 만기(萬騎)¹¹⁾요, 강한지장(江漢之將)¹²⁾과 천택지군(川澤之君)¹³⁾이

1) 갑신년(甲申年) : 천간(天干)이 ‘갑(甲)’이고, 지지(地支)가 ‘신(申)’인 해. 육십갑자(六十甲子)로 헤아리면, 스물한 번째 해이다.

2) 중하(仲夏) : 여름이 한창인 때라는 뜻으로, 음력 5월을 달리 이르는 말.

3) 광리왕(廣利王) : 남해(南海) 해신(海神)의 봉호(封號).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천보(天寶) 10년인 751년에 해신을 왕에 봉했는데, 동해신(東海神)은 광덕왕(廣德王), 남해신(南海神)은 광리왕, 서해신(西海神)은 광윤왕(廣潤王), 북해신(北海神)은 광택왕(廣澤王)에 봉했다.

4) 영덕전(靈德殿) : 광리왕이 새로 지었다는 궁전. 명(明)의 구우(瞿佑)가 지은 단편 소설집인 『전등신화(剪燈新話)』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 나온다.

5) 대연(大宴) : 큰 규모로 벌인 잔치.

6) 배설(排設)하야 : 연회나 의식(儀式)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아.

7) 용왕(龍王) : 바다에 살며 비와 물을 맡고 불법을 수호하는 용 가운데의 임금.

8) 군신(群臣) : 많은 신하.

9) 빈객(賓客) : 귀한 손님.

10) 천승(千乘) : 천 대의 병거(兵車)라는 뜻으로, 제후를 이르는 말.

11) 만기(萬騎) : 많은 기마.

일시에 모여들어 중악(衆樂)이 필진(畢陳)¹⁴⁾ 허고 궤주교착(觥籌交錯)¹⁵⁾이라. 이삼일 노니더니, 남해 용왕이 해전¹⁶⁾ 열풍(熱風)¹⁷⁾을 복중에 과(過)히¹⁸⁾ 쏘여 졸연(猝然)¹⁹⁾ 득병(得病)하여,²⁰⁾ 약방 도제조(都提調)²¹⁾를 불러 주야(晝夜)로²²⁾ 약을 쓰되, 만무회춘지망(萬無回春之望)²³⁾이로구나.

[진양조]

-
- 12) 강한지장(江漢之將) : 큰강을 지킨다는 신.
 13) 천택지군(川澤之君) : 시내와 못을 지킨다는 신.
 14) 중악(衆樂)이 필진(畢陳) : 모든 음악이 함께 베풀어지고. “중악필진 궤주교착”은 구우의 『전등신화』 수궁경회록에서 따온 것이다.
 15) 궤주교착(觥籌交錯) : 별로 먹이는 술의 술잔과 잔 수를 세는 산가지가 뒤섞인다는 뜻으로, 연회가 성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해전 : 해가 지기 전. ‘해천(海川)’이나 ‘해천(海天, 바다와 하늘을 아울러 이르는 말)’일 수도 있다. 참고로, 「가람본 <별토가>」(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2, 박이정출판사, 1998)가 ‘해천(海天)’을 쓴다.
 17) 열풍(熱風) : 뜨거운 바람. 또는, 열풍(烈風)이나 열풍(列風, 해풍·천풍 등의 줄지은 바람)일 수도 있다.
 18) 과(過)히 : 정도가 지나치게.
 19) 졸연(猝然/卒然) : 갑작스럽게.
 20) 득병(得病)하여 : 득병(得病)하여. 병에 걸리어.
 21) 도제조(都提調) : 조선 시대에, 승문원, 봉상시, 사역원, 훈련도감 따위의 으뜸 벼슬. 정승이 겸임하거나 정승을 지낸 사람을 임명하였으나, 실무를 보지는 않았다.
 22) 주야(晝夜)로 :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3) 만무회춘지망(萬無回春之望) : 병을 나을 가망이 전혀 없다.

영덕전 높은 궁궐 벗 없이 홀로 누워, 애통허여 울음 운다. 천무열풍(天無烈風)²⁴⁾ 좋은 시절의 해불양파(海不揚波)²⁵⁾ 태평(太平)헌디,²⁶⁾ 괴이한 병을 얻어 신음 중(中)의²⁷⁾ 누웠으니, 날 구혈 이가 뉘 있드란 말인가. 애통허여 울음을 운다.

[옛모리]

하로난 현운(玄雲)²⁸⁾ 흑무(黑霧)²⁹⁾ 하로난 현운 흑무. 궁중을 뒤덮으며 폭풍 세우(細雨)³⁰⁾가 사면을 두루더니, 어떠한 청의(青衣)³¹⁾ 도사(道士)³²⁾ 몸에난³³⁾ 장삼(長衫)³⁴⁾ 포(袍)³⁵⁾요, 손에 옥을 쥐고 궁중으로 내려와 재배이진(再拜而進)³⁶⁾ 왈, “약수(弱水)³⁷⁾ 삼천(三

24) 천무열풍(天無烈風) : 하늘에 거센 바람이 없다.
 25) 해불양파(海不揚波) :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는다는 뜻으로, 임금의 선정(善政)으로 백성이 편안함을 이르는 말.
 26) 태평(太平)헌디 : 태평(太平)한데. ‘-니디’는, ‘-은데’의 옛말.
 27) 중(中)의 : 중(中)에.
 28) 현운(玄雲) : 검은 구름.
 29) 흑무(黑霧) : 검은 안개.
 30) 세우(細雨) :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보다는 좀 굵다.
 31) 청의(青衣) : 푸른 빛깔의 옷.
 32) 도사(道士) : 도를 갈고닦는 사람.
 33) 몸에난 : 몸에는.
 34) 장삼(長衫) : 승려의 옷.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든다.
 35) 포(袍) : 한복의 바지와 저고리 위에 입는 겹옷.
 36) 재배이진(再拜而進) : 두 번 절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37) 약수(弱水) :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

千) 리(里) 해당화(海棠花)³⁸⁾ 구경과 백운 요지연(瑤池宴)³⁹⁾의 천년 벽도(碧桃)⁴⁰⁾를 얻으랴⁴¹⁾ 지하에 왔삽더니, 풍편(風便)⁴²⁾에 듣자온 즉,⁴³⁾ 대왕의 병세가 만만(萬萬)⁴⁴⁾ 위중타 허읍기의 뵈옵고져 왔나 이다.”

[아니리]

왕이 왈 “도사 이리 오시기는 하늘의 도움이라. 원컨대 도사는 황황(惶惶)⁴⁵⁾ 나의 병세를 자세히 짐작허사 선약(仙藥)⁴⁶⁾을 가르쳐

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한다.

38) 해당화(海棠花) :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1~1.5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우상 복엽인데 잔잎은 긴 타원형이고 잎 뒤에 선점과 잔털이 있다. 5~8월에 붉은 자주색 꽃이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가장과로 8월에 붉게 익는다. 꽃은 향수 원료로 쓰고 열매는 약용하거나 식용한다. 관상용이고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산기슭에 나는데 한국, 일본, 사할린, 만주, 캄차카 반도 등지에 분포한다.

39) 요지연(瑤池宴) : 요지(瑤池)는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거주하던 곤륜산(崑崙山)의仙境이고, 요지연(瑤池宴)은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서왕모를 찾아가 요지에서 함께 연회(宴會)를 가졌던 데서 온 말이다. 『열자(列子)』 3편 「주목왕(周穆王)」에 이르기를, “마침내 서왕모의 빈이 되어, 요지 가에서 연회를 가졌다(遂賓于西王母 觴于瑤池之上)”라고 하였다.

40) 벽도(碧桃) :仙境(仙境)에 있다는 전설상의 복숭아.

41) 얻으랴 : 얻으려. ‘-랴’는, ‘-려’의 옛말.

42) 풍편(風便) : 어떤 말을 누구에게랄 것 없이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를 이르는 말.

43) 듣자온즉 : ‘듣사오니’의 예스런 표현.

44) 만만(萬萬) :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선 상태로.

주옵소서.” 도사 왈, “우선 맥(脈)⁴⁷이나 보사이다.” 도사가 왕의 맥을 보라 할 제, 만물의 영장(靈長)⁴⁸인 사람으로 둔신(遁身)하여⁴⁹ 꼭 사람과 같은 진맥(診脈)⁵⁰을 허것다.

[자진모리]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 맥을 본다. 심(心),⁵¹ 소장(小腸)⁵²은 화(火)⁵³요, 간담(肝膽)⁵⁴은 목(木)⁵⁵이요, 폐, 대장(大腸)⁵⁶은 금(

45) 황황(遑遑)한 :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게 급한.

46) 선약(仙藥) : 효험이 썩 좋은 약. 또는, 신선이 만든다고 하는 장생불사의 영약.

47) 맥(脈) : 심장의 박동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얇은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동맥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 맥박의 빠르기나 강하고 약함 따위로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

48) 영장(靈長) :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사람’을 이르는 말.

49) 둔신(遁身)하여 : 둔갑(遁甲)하여. 술법으로 자기 몸이 감추어지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

50) 진맥(診脈) : 병을 진찰하기 위하여 손목의 맥을 짚어 보는 일.

51) 심(心) : 심장(心臟). 주기적인 수축에 의하여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는, 순환 계통의 중심적인 근육 기관.

52) 소장(小腸) : 위(胃)와 큰창자 사이에 있는, 대롱 모양의 위창자관. 썩창자, 빈창자, 돌창자로 나뉜다.

53) 화(火) : 오행(五行)의 하나. 방위로는 남쪽, 계절로는 여름, 빛깔로는 적색을 가리킨다.

54) 간담(肝膽) : 간과 쓸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55) 목(木) : 오행의 하나. 방위로는 동쪽, 계절로는 봄, 빛깔로는 청색을 가

金)⁵⁷이요, 신(腎),⁵⁸ 방광(膀胱)⁵⁹은 수(水)⁶⁰요, 비위(脾胃)⁶¹난 토(土)⁶²라. 간목(肝木)⁶³이 태과(太過)하여⁶⁴ 목극토(木克土)⁶⁵ 하니 비위가 상하옵고, 담성(痰聲)⁶⁶이 심하니 신경(腎經)⁶⁷이 미약(微弱)허고⁶⁸ 폐, 대장이 왕성(旺盛)허니⁶⁹ 간담경(肝膽經)⁷⁰이 자

리킨다.

56) 대장(大腸) : 작은창자의 끝에서부터 항문에 이르는 소화 기관. 막창자·잘록창자·곧창자·항문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은창자보다 굵고 짧다.

57) 금(金) : 오행의 하나. 방위로는 서쪽, 계절로는 가을, 빛깔로는 백색을 가리킨다.

58) 신(腎) : 척추동물의 비뇨 기관과 관련된 장기의 하나.

59) 방광(膀胱) : 콩팥에서 흘러나오는 오줌을 저장하였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요도를 통하여 배출시키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

60) 수(水) : 오행의 하나. 방위로는 북쪽, 계절로는 겨울, 빛깔로는 흑색을 가리킨다.

61) 비위(脾胃) : 지라와 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62) 토(土) : 오행의 하나. 방위로는 중앙, 계절로는 철마다 18일이 있어 그 때를 토왕(土旺)이라 하며, 빛깔로는 황색을 가리킨다.

63) 간목(肝木) : 오장(五臟)과 오행의 상관관계에서 간은 목에 해당하므로, 흔히 간을 ‘간목’이라고 표현한다.

64) 태과(太過)하여 : 매우 지나치어.

65) 목극토(木克土/木剋土) : 음양오행설에서, 나무가 흙을 이긴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나무와 흙은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66) 담성(痰聲) : 가래가 목구멍에서 끓는 소리.

67) 신경(腎經) : 콩팥에 속하고 방광에 이어지는 경맥.

68) 미약(微弱)허고 : 미미하고 약하고.

69) 왕성(旺盛)허니 : 왕성(旺盛)하니. 한창 성하니.

70) 간담경(肝膽經) : 간과 쓸개의 경맥.

진(自盡)⁷¹⁾이라. 방서(方書)⁷²⁾에 일렀으되 비내일신지조종(脾乃一身之祖宗)⁷³⁾이요, 담(膽)은 내일신지표본(乃一身之標本)⁷⁴⁾이라. 심정(心靜) 즉(則) 만병(萬病)이 식(息)⁷⁵⁾ 허고 심동(心動) 즉 만병이 생(生)⁷⁶⁾하오니, 심경(心經)⁷⁷⁾이 상하오면 무슨 병이 아니 날까. 오로칠상(五勞七傷)⁷⁸⁾ 급하오니 보중탕(補中湯)⁷⁹⁾으로 잡수시오. 숙지황(熟地黃)⁸⁰⁾ 주초(酒炒)⁸¹⁾하야 닷 돈이요, 산사육(山查肉),⁸²⁾ 천문

71) 자진(自盡) : 기운 등이 저절로 다하거나 없어지다.

72) 방서(方書) : 약방문을 적은 책.

73) 비내일신지조종(脾乃一身之祖宗) : 비장은 곧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74) 담(膽)은 내일신지표본(乃一身之標本) : 쓸개는 곧 몸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75) 심정(心靜) 즉(則) 만병(萬病)이 식(息) : 마음이 고요하면 온갖 병이 사라지다.

76) 심동(心動) 즉(則) 만병(萬病)이 생(生) : 마음이 움직이면 온갖 병이 생긴다.

77) 심경(心經) : 심중(心中)으로부터 시작하여 심계(心系)에 속하며 소장(小腸)에 이어지고 새끼손가락 끝에서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으로 이어지는 경맥.

78) 오로칠상(五勞七傷) : 오로는, 오장(五臟)이 허약하여 생기는 다섯 가지 허로. 또는, 병의 원인이 되는 다섯 가지 과로. 구시(久視), 구와(久臥), 구좌(久坐), 구립(久立), 구행(久行)을 이른다. 칠상은, 몸에 허손증이 생기는 일곱 가지 원인. 또는, 남자의 신기가 허약하여 생기는 일곱 가지 증상.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등으로 치료한다.

79) 보중탕(補中湯) :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인 듯하다. 비위(脾胃)를 보하여 원기를 돕는 데 쓰는 처방. 약재는 황기(黃芪), 인삼(人蔘), 백출(白朮), 감초(甘草), 당귀신(當歸身), 진피(陳皮), 승마(升麻), 시호(柴胡)가 대표적이다.

80) 숙지황(熟地黃) : 생지황을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려서 만든 약재. 보

동(天門冬),⁸³⁾ 세신(細辛)⁸⁴⁾을 거토(去土)⁸⁵⁾ 하고 육종용(肉蓯蓉),⁸⁶⁾ 택사(澤瀉),⁸⁷⁾ 앵속화(罌粟花)⁸⁸⁾ 각 한 돈, 감초(甘草)⁸⁹⁾ 각 칠 폰, 수일승전반(水一升煎半)⁹⁰⁾ 연용(連用)⁹¹⁾ 이십여 첩을 쓰되,

혈(補血)·보음(補陰)하는 효능이 있어 여러 가지 허손(虛損)과 통경(通經)의 치료와 강장제로 쓰인다.

81) 주초(酒炒) : 약재를 법제하는 방법의 하나. 약재를 술에 적셔서 볶는 것을 이른다.

82) 산사육(山査肉) : 씨를 발라낸 산사의 열매. 건위 소화제로서 탄산(呑酸), 두진(痘疹), 산증(疝症) 따위에 쓴다.

83) 천문동(天門冬) : ‘천문동’의 뿌리. 성질이 조금 차고 맛이 단 약재로, 허파와 위를 보호하여 허열을 내리며, 해수·담·변조에 쓴다.

84) 세신(細辛) : 족두리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감기, 두통, 코 막힘, 담음(痰飲) 따위의 증상에 쓴다.

85) 거토(去土) : 흙을 없애다.

86) 육종용(肉蓯蓉) : 열당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15~30cm이며, 잎은 뭉쳐나고 비늘 모양으로 뱀 가죽 같다. 7~8월에 꽃이 피고 열매는 삭과(蒴果)로 통째로 말리어 강장제로 쓴다. 백두산에 분포하며, 두메오리나무 뿌리에 붙어 산다.

87) 택사(澤瀉) : ‘택사’의 덩이줄기. 이뇨 작용과 열 내리는 작용이 있어 오줌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데나 수종(水腫) 따위에 쓰인다.

88) 앵속화(罌粟花) : 양귀비의 꽃.

89) 감초(甘草) : 콩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1~1.5미터이며, 모가 나 있다. 잎은 겹잎으로 어긋나며, 여름에 나비 모양의 쪽빛을 띤 보라색 꽃이 핀다. 붉은 갈색의 뿌리는 단맛이 나는데 먹거나 약으로 쓴다. 중국의 동북부, 몽골이 원산지로서 세계 각지에서 약초로 재배한다.

90) 수일승전반(水一升煎半) :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될 때까지 달이다.

91) 연용(連用) : 약물을 반복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

효무동정⁹²⁾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백출탕(加減白朮湯)⁹³⁾으로
 잡수시오. 백출(白朮)⁹⁴⁾을 초구(炒灸)⁹⁵⁾ 하여 두 돈이요, 사인(沙
 仁)⁹⁶⁾을 초구 하여 서 돈이요, 백복령(白茯苓),⁹⁷⁾ 산약(山藥),⁹⁸⁾ 오
 미자(五味子),⁹⁹⁾ 당귀(當歸),¹⁰⁰⁾ 천궁(川芎),¹⁰¹⁾ 강활(羌活),¹⁰²⁾ 목

92) 효무동정 : ‘소무동정(少無動靜)’인 듯하다. 조금도 차도가 없다는 뜻.

93) 가감백출탕(加減白朮湯) : 약재를 더하거나 감해서 만든 백출탕(白朮湯). 백출탕은, 가래·기침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처방. 『동의보감(東醫寶鑑)』 잡병편(雜病篇) 5권 해수문(咳嗽門)에 있는 처방으로 습수(濕嗽)를 치료하는 데 응용되었다. 처방 내용으로는 백출(白朮) 11.25g, 반하(半夏)·굴홍(橘紅)·백복령(白茯苓)·오미자(五味子) 각 5.625g, 감초 1.875g, 생강 5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임상에서 습수증상에 담(痰)이 많고, 몸이 무거운 증상에 응용한다.

94) 백출(白朮) : 삼주의 덩이줄기를 말린 약재.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따뜻 한데, 비기를 보하고 입맛을 돕고 음식물의 소화를 도우며 이뇨 작용을 한다.

95) 초구(炒灸) : 미초(微炒)를 써서 구(灸)한다. 예컨대 향부자(香附子), 삼릉(三棱) 등을 이 방법으로 구제(灸製)한다.

96) 사인(沙仁/砂仁) : 축사(縮沙)의 씨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비위(脾胃)의 기(氣)가 소통되지 않거나 구토, 설사 또는 소화 불량에 쓴다.

97) 백복령(白茯苓) : 색깔이 흰색인 복령. 오즙이 잘 나오게 하고 담병, 부종(浮腫), 습증 따위를 다스리거나 몸을 보하는 데 쓰인다.

98) 산약(山藥) : 마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강장제로서 유정(遺精), 대하, 소갈, 설사 따위를 치료하는 데에 쓴다.

99) 오미자(五味子) : 오미자나무의 열매. 기침과 갈증 또는 땀과 설사를 멎게 하는 데에 쓰인다.

100) 당귀(當歸) : 신감채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보혈 작용이 뛰어나 부인병에 쓴다.

101) 천궁(川芎) : 궁궁이의 뿌리를 한방(漢方)에서 이르는 말. 혈액 순환을 도와주어 여자의 월경이 순조롭지 못한 데나 타박상, 두통 따위에 쓴다.

통(木通),¹⁰³⁾ 감초 칠 폰, 수일승전반 연용 삼십여 첩을 쓰되 효무 동정이라. 양감(兩減)¹⁰⁴⁾이 급하오니 가미강활탕(加味羌活湯)¹⁰⁵⁾으로 잡수시오. 마황(麻黃)¹⁰⁶⁾ 두 돈, 진피(陳皮),¹⁰⁷⁾ 강활, 방풍(防風),¹⁰⁸⁾ 백지(白芷),¹⁰⁹⁾ 천궁(川芎),¹¹⁰⁾ 창출(蒼朮),¹¹¹⁾ 승마(升麻

102) 강활(羌活) : 산형과의 두해살이풀 또는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2미터 이상이며, 잎은 갈라지고 어긋나며 깃 모양이다. 8~9월에 작고 흰 꽃이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타원형이다. 도라지와 비슷한 뿌리는 한방에서 해열제와 진통제로 쓰인다. 산지(山地)에 나는데 강원, 경기, 경북, 평북, 함경 등지에 분포한다.

103) 목통(木通) : ‘목통’의 줄기를 말린 것. 성질이 차고 오줌을 잘 누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임질(淋疾)과 부종(浮腫)에 쓴다.

104) 양감(兩減) : 양감상한(兩感傷寒). 상한표리(表裏) 관계에 있는 양경(陽經)과 음경(陰經)이 동시에 병드는 것. 오한, 발열 따위의 표증(表症)과 변비, 구갈 따위의 이증(裏症)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이른다.

105) 가미강활탕(加味羌活湯) : 다른 약재를 첨가한 강활탕.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은 강활, 방풍 따위 아홉 가지 약재를 넣어서 달여 만드는 탕약. 감기 치료에 쓴다.

106) 마황(麻黃) : ‘마황’의 줄기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땀을 내게 하는 작용이 강하여 오한, 두통, 기침에 약으로 쓴다.

107) 진피(陳皮) : 말린 귤의 껍질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오래 묵을수록 약효가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위(胃)를 보호하여 소화를 돕고, 담(痰)을 삭이는 데 쓴다.

108) 방풍(防風) : ‘방풍’이나 갯방풍의 이년생 뿌리. 감기, 두통, 발한 따위에 쓴다.

109) 백지(白芷) : 구릿대의 뿌리. 감기로 인한 두통이나 요통, 비연(鼻淵) 따위에 쓰며 종기에 외과약으로도 쓴다.

110) 천궁(川芎) : 궁궁이의 뿌리를 한방(漢方)에서 이르는 말. 혈액 순환을 도와주어 여자의 월경이 순조롭지 못한 데나 타박상, 두통 따위에 쓴다.

),¹¹²⁾ 갈근(葛根),¹¹³⁾ 세신 각 한 돈, 감초 칠 폰 수일승전반 연용 사십여 첩을 쓰되 효무동정이라. 신농씨(神農氏)¹¹⁴⁾ 백초(百草)¹¹⁵⁾ 약을 갖가지로 다 쓰랴다는 지레 먼저 죽을 테니 백약(百藥)¹¹⁶⁾을 한테¹¹⁷⁾ 모아 작두에 모다 썰어 가마에 많이 다려 한 번에 먹어 보자. 약을 한테 모일 적의 인삼은 미감(味甘)¹¹⁸⁾ 허니 대보원기(大補元氣)¹¹⁹⁾ 허고 지갈생진(止渴生津)¹²⁰⁾ 허여 조영양위(調榮養衛)¹²¹⁾로다. 백출은 감온(甘溫)¹²²⁾ 허니 건비강위(健脾強胃)¹²³⁾ 허고 지사

111) 창출(蒼朮) : 당삼주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소화 불량, 설사, 수종(水腫) 따위에 쓴다.

112) 승마(升麻) : ‘승마’의 뿌리줄기. 풍열(風熱)로 인한 두통과 치통, 기함(氣陷)으로 인한 자궁 처짐, 위 처짐 따위에 쓴다.

113) 갈근(葛根) : ‘칠틈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열을 내리고 땀을 내는 데 예나 갈증(渴症), 두통, 요통, 항강(項強) 따위에 쓴다

114) 신농씨(神農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농업·의료·악사(樂師)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이며, 또 역(易)의 신, 상업의 신이라고도 한다.

115) 백초(百草) : 온갖 풀.

116) 백약(百藥) : 모든 약. 또는 여러 가지 약.

117) 한테 : 한데. 한곳이나 한군데.

118) 미감(味甘) : 맛이 달다. “인삼미감(人蔘味甘) 대보원기(大補元氣) 지갈생진(止渴生津) 조영양위(調榮養衛)”는 『제중신편(濟衆新編)』 약성가(藥性歌)에 나오는 글귀이다.

119) 대보원기(大補元氣) : 원기를 크게 보(補)하다.

120) 지갈생진(止渴生津) : 갈증을 그치고 진액을 나게 하다.

121) 조영양위(調榮養衛) : 영혈(榮血)과 위기(衛氣)를, 영기(榮氣)와 위기(衛氣)를 보살피다.

제습(止瀉除濕)¹²⁴⁾ 허며 겸구담비(兼驅痰痞)¹²⁵⁾로다. 감초도 감온
 허나 구즉온중(灸則溫中)¹²⁶⁾ 허고 생즉사화(生則瀉火)¹²⁷⁾로다. 청심
 환(淸心丸),¹²⁸⁾ 소합환(蘇合丸),¹²⁹⁾ 팔미환(八味丸),¹³⁰⁾ 육미환(六味
 丸),¹³¹⁾ 경옥고(瓊玉膏),¹³²⁾ 자음경옥고(滋陰瓊玉膏),¹³³⁾ 백고약(白
 膏藥),¹³⁴⁾ 대황(大黃),¹³⁵⁾ 망초(芒硝),¹³⁶⁾ 창출, 백출, 승마, 갈근,

122) 감온(甘溫) : 맛이 달고 (약성이) 따듯하다. “백출감온(白朮甘溫) 건비강
 위(健脾強胃) 지사제습(止瀉除濕) 겸구담비(兼驅痰痞)”는 『동무유고(東武遺
 稿)』 동무선사(東武先師) 사상약성(四象藥性) 상험고가(嘗驗古歌)에 나오는
 구절이다.

123) 건비강위(健脾強胃) :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위를 강하게 하다.

124) 지사제습(止瀉除濕) : 설사를 그치게 하고 습을 제거하다.

125) 겸구담비(兼驅痰痞) : 겸하여 답답증을 구축(驅逐)하다. 또는 겸거담비
 (兼祛痰痞, 겸하여 답답증을 제거하다).

126) 구즉온중(灸則溫中) : 구워서 쓰면 속을 덥게 하다. “구즉온중(灸則溫
 中) 생즉사화(生則瀉火)”는 『동무유고(東武遺稿)』에 나오는 구절이다.

127) 생즉사화(生則瀉火) : 생으로 쓰면 열을 내리다.

128) 청심환(淸心丸) : 심경(心經)의 열을 푸는 환약.

129) 소합환(蘇合丸) : 사향(麝香), 주사(朱沙) 따위를 갈아서 빻어 만든 환
 약. 위장을 맑게 하고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데에 쓴다.

130) 팔미환(八味丸) : 육미지황원에 육계(肉桂)와 부자(附子)를 더하여 만드
 는 환약. 양기가 허약한 데에 쓴다.

131) 육미환(六味丸) : 가루로 만든 육미탕을 꿀에 반죽하여 만든 환약.

132) 경옥고(瓊玉膏) : 생지황(生地黃), 인삼, 백복령(白茯苓), 백밀(白蜜) 따
 위를 넣어서 달여 만드는 보약. 혈액 순환을 고르게 해 준다.

133) 자음경옥고(滋陰瓊玉膏) : 약재로 음기를 기르는 효력을 더한 경옥고.

134) 백고약(白膏藥) : 모든 부스럼과 종독(腫毒)을 아물게 하고 농(膿)을 흘
 어지고 흘러나오게 하는 처방.

세신, 진피, 계피(桂皮),¹³⁷⁾ 반하(半夏),¹³⁸⁾ 육계(肉桂),¹³⁹⁾ 천산갑(穿山甲),¹⁴⁰⁾ 천문동, 맥문동(麥門冬),¹⁴¹⁾ 호황련(胡黃蓮),¹⁴²⁾ 당황련(唐黃連),¹⁴³⁾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¹⁴⁴⁾ 청서육화탕(淸暑六和湯),¹⁴⁵⁾ 이원¹⁴⁶⁾ 익기탕(益氣湯),¹⁴⁷⁾ 강활탕(羌活湯),¹⁴⁸⁾ 도인탕(桃

135) 대황(大黃) : ‘대황’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성질이 차고 맛이 쓰며 대소변 불통(不通), 헛소리, 잠꼬대, 적취(積聚), 징가(癥瘕), 어혈(瘀血) 따위에 쓰인다.

136) 망초(芒硝) : 박초(朴硝)를 두 번 달여서 만든 약재. 맛은 짜고 쓰며 성질은 찬데, 실열(實熱)로 인한 변비·적취(積聚) 따위에 쓴다.

137) 계피(桂皮) : 육계나무 껍질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감기 해열제로 쓰며 지절통이나 복통에도 쓴다.

138) 반하(半夏) : ‘반하’의 덩이줄기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맛이 맵고 독성이 있으며 담(痰), 해수(咳嗽), 구토 따위를 치료하는 데에 쓴다.

139) 육계(肉桂) : 5~6년 이상 자란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건위제와 강장제로 쓴다.

140) 천산갑(穿山甲) : ‘천산갑’의 껍질을 말린 것. 경폐나 어혈로 인한 징가, 나력과 젖이 잘 나오지 않는 데 쓴다.

141) 맥문동(麥門冬) : ‘맥문동’이나 소엽맥문동의 뿌리.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약간 쓰다. 마른기침, 열이 나고 답답한 데, 강장제(強壯劑) 따위로 쓴다.

142) 호황련(胡黃蓮) : 미나리아재빗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10~30cm이며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우상 복엽인데 잎자루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른 봄에 흰 꽃이 핀다. 뿌리는 약용한다. 산지의 나무 그늘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한다.

143) 당황련(唐黃連) : 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황련의 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던 말. 열을 내리고 습기를 없애 주는 작용을 하며 건위제(健胃劑)로 쓰인다.

144) 가미군자탕(加味君子湯) : 심간신(心肝腎)이 허해서 생긴 정충(怔忡)을 치료하는 처방.

仁湯),¹⁴⁹⁾ 백사주(白蛇酒)¹⁵⁰⁾ 위령탕(胃苓湯),¹⁵¹⁾ 황금 인분탕, 두꺼비 오줌, 곰 쓰래¹⁵²⁾까지 각가지로 다 먹어도 백약이 무효로구나. 침구(鍼灸)¹⁵³⁾로 다스리자. 동침(銅鍼),¹⁵⁴⁾ 은침(銀鍼)¹⁵⁵⁾ 빼어 들고 혈(穴)¹⁵⁶⁾을 잡아서 침질혈¹⁵⁷⁾ 제, 천지지상경(天地之常經)¹⁵⁸⁾이니

145) 청서육화탕(淸暑六和湯) : 황련(黃連) 3.0~3.5g을 가한 육화탕(六和湯). 육화탕은 여름철의 더위병에 사용하는 처방.

146) 이원 : 익원(益元). 익원탕(益元湯). 열(熱)이 나고 얼굴이 붉으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금의 증상은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147) 익기탕(益氣湯) :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인 듯하다.

여기서는 ‘익원 익기탕’으로 보아 익원탕과 익기탕으로 풀이했지만, 몇몇 사설에서는 이원익기탕으로 정리하고 예외적으로는 理毛益氣湯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148) 강활탕(羌活湯) : 파상풍(破傷風)이 반표반리(半裏半表)에 있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또는 두창(痘瘡)과 간열(肝熱)로 인한 경광(驚狂)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149) 도인탕(桃仁湯) : 산후(産後)에 오로(惡露)가 흐르다가 갑자기 멎으면서 허리와 배가 아프다가 허벅지와 사타구니 까지 번지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150) 백사주(白蛇酒) : 흰 뱀을 넣고 담근 약술. 백사수(白蠟樹, 물푸레나무)의 변형일 수도 있다. 물푸레나무의 껍질을 한방에서 진피(陳皮)라고 이른다.

151) 위령탕(胃苓湯) : 습사(濕邪)를 빼내서 설사를 멎게하는 처방.

152) 쓰래 : ‘쓸개’의 강원, 경북, 전남, 충남 방언.

153) 침구(鍼灸) : 침과 뜸을 아울러 이르는 말.

154) 동침(銅鍼) : 동(구리)으로 만든 침.

155) 은침(銀鍼) : 은으로 만든 침.

156) 혈(穴) : 14 경맥(經脈)에 속해 있는 혈(穴)을 이르는 말. 경락(經絡)의 기혈(氣血)이 신체 표면에 모여 통과하는 부위로, 침을 놓거나 뜸을 떠서 자

유주(流注)¹⁵⁹로 주어보고 갑일(甲日)¹⁶⁰ 갑술시(甲戌時)의 담경(膽經)¹⁶¹ 규음(竅陰)¹⁶²을 주고, 을일(乙日)¹⁶³ 유시(酉時)¹⁶⁴의 대장

극을 내부 장기(臟器)로 전달하기도 하고 내부 장기의 징후를 드러내기도 한다.

157) 침칠혈 : 병을 치료하려고 침을 놓을.

158) 천지지상경(天地之常經) : 천지의 변함없는 법규이다. 『한서(漢書)』 등에 나오는 “천지지상경 고금지통의(古今之通義, 고금의 보편적인 도리이다)”에서 따온 것이다.

159) 유주(流注) : 자오유주법(子午流注法). 침구보사법(鍼灸補瀉法) 중 시간보사침법(時間補瀉鍼法)의 한 가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encykorea.aks.ac.kr) ‘침구술(鍼灸術)’ 항목 참고)

자오유주법은, 인체의 기혈이 십간일(十干日)과 십이시진(十二時辰)에 따라 전신을 순환하는 법칙에 의하여 치료경락과 경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자오(子午) 두 글자는 시간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양의 성쇠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하루 가운데 음기(陰氣)가 가장 왕성한 자시(子時)에 양기(陽氣)가 생기기 시작하고, 양기가 가장 왕성한 오시(午時)에 음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자오 두 글자로 나타낸 것이다.

인체의 기혈도 시간의 흐름처럼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순환 유주하며 이러한 법칙을 치료에 응용하면 마치 물의 흐름을 따라 배가 가는 식으로 신속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오유주법은 모든 병에 널리 사용되는 침법이지만 특히 급성병에 효과가 있다. 자오유주법은 십이정경의 오수혈에 일진과 시진의 운행을 배합하여 치료에 사용할 경맥과 경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160) 갑일(甲日) : 천간(天干)이 갑(甲)으로 된 날.

161) 담경(膽經) : 담(膽)에 속하고 간(肝)에 이어지는 경맥.

162) 규음(竅陰) : 족규음(足竅陰). 족소양담경의 경혈로서 정금혈(井金穴)에 해당하고 4번째 발가락 가 쪽 발톱뿌리 각에서 가 쪽으로 1푼 되는 곳에 위치한다.

경(大腸經)¹⁶⁵ 상양(商陽)¹⁶⁶을 주고 영구(靈龜)¹⁶⁷로 주어 보자.

그리고, 정혈(井穴)이 열리는 것은 다음과 같다. “甲日戌時膽竅陰(갑일 갑술시 담경 규음) 乙日酉時肝大敦(을일 유시 간 대둔) …… 己日巳時隱白始(기일사시은백시) 庚日辰時商陽居(경일진시상양거) ……”(「서씨자오유주축일안시정혈가(徐氏子午流注逐日按時定穴歌)」)

163) 을일(乙日) : 천간(天干)이 을(乙)로 된 날.

164) 유시(酉時) : 십이시(十二時)의 열째 시. 오후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이다.

참고로, 「이선유 창본 수궁가」는 해당 부분을 “갑일갑술시에 단경지음을 주고 갑기 합하니 지으은 맥을 주어라 을경이 합하니 대장경산약을 주어라”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1, 박이정출판사, 1997, 99쪽)로 쓰고 있다. 이는, ‘갑일 갑술시에 단경 규음을 주고 갑기합(甲己合) 하니 비 은백을 주어라 을경(乙庚)이 합(合)하니 대장경 상양을 주어라’라는 뜻인 듯하다.

따라서, 「이선유 창본 수궁가」의 ‘갑기합토(甲己合土) 하니 비경 은백을 주어라 을경합금(乙庚合金) 하니’ 부분이 ‘을일 (을)유시에’ 정도로 변형된 셈이다.

165) 대장경(大腸經) : 둘째 손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대장(大腸)에 속하고 폐에 이어지는 경맥.

166) 상양(商陽) :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에 속하는 혈(穴). 둘째 손가락의 엄지손가락 쪽 손톱 뒤 모서리에서 한 푼 뒤에 있다.

167) 영구(靈龜) : 영구팔법(靈龜八法). 침구보사법(鍼灸補瀉法) 중 시간보사침법(時間補瀉鍼法)의 한 가지다.

영구팔법은, 기경팔맥(奇經八脈)의 교회혈과 『주역(周易)』의 팔괘(八卦)를 배합시켜놓고 일진과 시진에 있는 간지를 모두 숫자로 환산하여 합한 다음 양간(陽干)의 날에는 9로, 음간(陰干)의 날에는 6으로 그 숫자를 나누어 그 나머지 숫자와 상응하는 괘(卦)를 찾은 다음 그 괘에 배합되어 있는 경혈과 그 경혈에 상응하는 다른 팔맥교회혈 하나를 골라 모두 2개의 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 신맥(申脈),¹⁶⁸⁾ 이 조해(照海),¹⁶⁹⁾ 삼 외관(外關),¹⁷⁰⁾ 사 임읍(臨泣),¹⁷¹⁾ 오 소해(少海),¹⁷²⁾ 육 공손(公孫),¹⁷³⁾ 칠 후계(後谿),¹⁷⁴⁾ 팔 내관(內關),¹⁷⁵⁾ 구 열결(列缺),¹⁷⁶⁾ 삼기(三奇)¹⁷⁷⁾ 붙여 팔문(八

168) 신맥(申脈) : 족태양방광경에 속하는 혈. 바깥 복사뼈의 조금 아래에 있다.

169) 조해(照海) : 족소음신경에 속하는 혈. 안쪽 복사뼈 아래의 우묵한 곳이다.

170) 외관(外關) : 수소양삼초경에 속하는 혈. 손등 쪽 손목 가로금의 중간에서 위로 두 치 올라간 부위이다.

171) 임읍(臨泣) : 족소양담경에 속한 혈. 머리와 발에 있으며, 머리 혈은 눈동자를 지나는 수직선상에서 앞 머리카락 경계로부터 조금 뒤에 있고, 발의 혈은 발등에서 새끼발가락이 갈라지는 곳에 있다.

172) 소해(少海) : 수소음심경에 속하는 혈.

173) 공손(公孫) : 족태음비경에 속하는 혈. 발 안쪽에서 엄지발가락 아랫부분의 도드라진 뼈의 조금 뒤에 있다.

174) 후계(後谿) : 소장경(小腸經)에 속하는 혈(穴). 주먹을 가볍게 질 때 손바닥의 옆모서리에 생기는 금 끝에 있다.

175) 내관(內關) : 심포경에 속하는 혈. 손바닥 쪽 손목 금의 중간점에서 두 치 위에 있다.

176) 열결(列缺) : 수태음폐경에 속하는 혈. 손목의 가로금에서 한 치 반 위 바깥쪽 부위이다.

177) 삼기(三奇) : 홀수로 이루어진 간지(干支)를 지칭하는 것으로, 갑인(甲寅)·무인(戊寅)·경인(庚寅) 등이 그것이다.

중국 고대의 술수서 『기문둔갑(奇門遁甲)』 기문(奇門), 육임(六壬), 태을(太乙)의 3 대(大) 비보(秘寶) 가운데 최대의 비술(秘術)로 꼽히며, 구천현녀(九天玄女)가 창시하였다고 전하는 기문이 바로 ‘삼기와 팔문(八門)’이다.

팔문은, 음양이나 점술에 능한 사람이 구궁에 맞추어서 길흉을 점치는 여덟 문(門). 휴문(休門), 생문(生門), 상문(傷門), 두문(杜門), 경문(景門), 사문(死

門)¹⁷⁸과 좌맥(左脈)¹⁷⁹을 눌러주고 효험이 없으니, 임맥(任脈)¹⁸⁰과 독맥(督脈)¹⁸¹과 십이(十二) 경(經)¹⁸² 주어 봐 승장(承漿),¹⁸³ 염천(廉泉),¹⁸⁴ 천돌(天突),¹⁸⁵ 구미(鳩尾),¹⁸⁶ 거궤(巨闕),¹⁸⁷ 상완

門), 경문(驚門), 개문(開門)을 이른다.

178) 팔문(八門) : 여기서 팔문은, 기경팔맥 교회혈(交會穴). 십이(十二) 경맥(經脈)의 수혈(腧穴,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자리) 중, 기경팔맥의 맥기(脈氣)와 상통(相通)하고 있는 8개의 중요한 혈(穴)을 이른다.

기경팔맥은, 인체 경맥의 하나. 십이 경맥과 달리 오장육부와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여덟 가지 종류의 경맥을 이르는데, 십이 경맥의 기혈 순행을 돕는다.

179) 좌맥(左脈) : 여기서는, 좌촌맥(左寸脈). 좌촌맥은 왼팔의 손목에서 맥을 살피는 부위의 하나. 심장과 소장을 진찰한다.

따라서 좌맥 곧 좌촌맥은, 심중(心中)으로부터 시작하여 심계(心系)에 속하며 소장에 이어지고 새끼손가락 끝에서 수태양소장경으로 이어지는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의 “오 소해”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듯하다. 바로 앞의 팔문은, “일 신맥 …… 사 임읍”과 “육 공손 …… 구 열결”의 기경팔맥 교회혈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고 말이다. 『東便制 水宮歌 唱本』(송순섭 창본/소리, 예술인마을, 2007) 131쪽 각주 96 등을 참고하라.

180) 임맥(任脈) : 기경 팔맥의 하나. 회음(會陰)에서 시작하여 몸 앞쪽의 중심선을 따라 아랫입술 밑의 혈(穴)인 승장(承漿)에 이르는 경락(經絡)이다.

181) 독맥(督脈) : 기경팔맥의 하나. 회음부에서 시작하여 등의 척추 중앙선을 따라 위로 올라 목을 지나 머리 정수리를 넘어 뒷머리의 중앙에 이르는 경맥이다.

182) 십이(十二) 경(經) : 십이(十二) 정경(正經) 또는 십이(十二) 경맥(經脈). 인체의 기본이 되는 열두 가지 경맥.

183) 승장(承漿) : 임맥(任脈)에 속하는 혈. 아랫입술 아래쪽에서 가장 오목한 신체부위.

184) 염천(廉泉) : 임맥에 속하는 혈. 목뿔뼈의 끝부분에 있다.

(上腕),¹⁸⁸⁾ 중완(中腕),¹⁸⁹⁾ 하완(下腕),¹⁹⁰⁾ 신궤(神闕),¹⁹¹⁾ 단전(丹田),¹⁹²⁾ 곤륜(崑崙)¹⁹³⁾을 주고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¹⁹⁴⁾ 각 대둔(大敦),¹⁹⁵⁾ 삼음교(三陰交),¹⁹⁶⁾ 음릉천(陰陵泉)¹⁹⁷⁾을 주어 보자. 아

185) 천돌(天突) : 임맥에 속하는 혈. 앞 정중선 상에서 흉골병(胸骨柄)의 경절흔으로부터 위로 5푼 뒤는 우묵한 곳에 위치한다.

186) 구미(鳩尾) : 임맥에 속하는 혈. 사람의 복장뼈 아래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급소의 하나이다.

187) 거궤(巨闕) : 임맥에 속하는 혈. 배의 가운데 선에서 배꼽 위로 6촌인 곳에 자리한다.

188) 상완(上腕) : 임맥에 속하는 혈. 배꼽에서 다섯 치 위에 있다.

189) 중완(中腕) : 임맥에 속하는 혈. 배꼽 위 네 치쯤 되는 곳으로 위가 있는 부위에 있다.

190) 하완(下腕) : 임맥에 속하는 혈.

191) 신궤(神闕) : 임맥에 속하는 혈. 배꼽의 중심 부위이다.

192) 단전(丹田) : 삼단전의 하나. 도가(道家)에서 배꼽 아래를 이르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배꼽 아래 한 치 다섯 푼 되는 곳으로 여기에 힘을 주면 건강과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

여기서는, 정혈(精血)이 저장되는 곳을 뜻하는 관원(關元) 곧 하단전(下丹田)을 뜻하는 듯하다.

193) 곤륜(崑崙) :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에 속하는 혈(穴)이다. 발의 바깥 복사뼈와 아킬레스건을 연결하는 수평선 중점의 오목한 곳에 있다.

194)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 십이 경맥의 하나. 비(脾)에 속하고 위(胃)에 이어진다.

195) 대둔(大敦) : 간경(肝經)에 속하는 혈(穴)의 이름. 엄지발가락 발톱의 바깥쪽 위 모서리에서 조금 뒤에 해당하는 곳이다.

족태음비경에 속하는 혈인 ‘대도(大都)’의 변형인 듯하다.

196) 삼음교(三陰交) : 족태음비경에 속하는 혈(穴). 발 안쪽 복사뼈의 중심에서 위로 세 치 올라간 곳에 있다.

무리 약과 침핍(針砭)¹⁹⁸ 허되 병세 점점 위중(危重)허니,¹⁹⁹

[아니리]

용왕이 어이없어 “도사 맥을 더 착실히 보아 주옵고, 내 병명이나 가르쳐 주오.” 도사가 다시 정신을 차려 용왕의 기세를 요만히고 살 펴보더니마는,

[중모리]

도사 다시 맥을 본다. “맥이 경동맥(驚動脈)²⁰⁰이라, 비위(脾胃) 맥(脈)²⁰¹이 상하오니 복중(腹中)²⁰²에서 난 병이요, 복중이 절려²⁰³ 아프기는 화증(火症)²⁰⁴에서 난 병인디, 음황(陰黃)²⁰⁵ 풍병(風

197) 음릉천(陰陵泉) : 족태음비경에 속하는 혈(穴). 굽은 정강이뼈 안쪽 위의 우묵한 부위이다.

198) 침핍(針砭) : 의료 활동에 사용하는 쇠로 만든 침과 돌로 만든 침으로 경계 또는 교훈이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99) 위중(危重)허니 : 위중(危重)하니. 병세가 위험할 정도로 중하니.

200) 경동맥(驚動脈) : 놀라서 병이 된 데 나타나는 동맥(動脈). 동맥은, 관부(關部)에서 나타난다.

201) 비위(脾胃) 맥(脈) : ‘지라와 위’의 맥. 우관맥(右關脈, 오른팔의 손목에서 맥을 살피는 부위의 하나)에서 진찰한다.

202) 복중(腹中) : 배 속.

203) 절려 : 결려. 숨을 크게 쉬거나 몸을 움직일 때에, 몸의 어떤 부분이 뜨끔뜨끔 아프거나 빠근한 느낌이 들어.

204) 화증(火症) : 걸핏하면 화를 알각 내는 증세.

205) 음황(陰黃) : 황달의 하나. 대개 만성에 속하는 것으로, 피부가 누런빛

病)²⁰⁶이라. 여섯 가지 기운(氣運)²⁰⁷이 동(動)하야²⁰⁸ 감계신진(坎癸申辰)²⁰⁹은 정양(淨陽)²¹⁰이요, 진경해미(震庚亥未)²¹¹는 정음(淨陰)²¹²이라. 음허화동(陰虛火動)²¹³의 황달(黃疸)²¹⁴을 겸하였으니, 진세(塵世)²¹⁵ 산간(山間)²¹⁶ 토끼 간을 얻으면 차효(差效)²¹⁷가 있

을 띠면서 다소 거무스레하고 피로와 권태를 느끼고 식욕이 없으며 옆구리가 은근히 아프다.

206) 풍병(風病) : 중추 신경 계통에서 일어나는 현기증, 졸도, 경련 따위의 병증을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풍사(風邪)를 받아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207) 여섯 가지 기운(氣運) : 육기(六氣). 음양(陰陽)의 여섯 가지 기운. 한(寒), 서(暑), 조(燥), 습(濕), 풍(風), 화(火)를 이른다. 다음 백과(100.daum.net) ‘오운육기(五運六氣)’ 항목을 참고하라.

208) 동(動)하야 : 어떤 욕구나 감정 또는 기운이 일어나.

209) 감계신진(坎癸申辰) : 정음정양법(淨陰淨陽法)에서 정양(淨陽)이 되는 괘(卦) 가운데 하나. 정음정양법은, 나경패철에 있는 24방위를 팔괘(八卦)에 배속시켜 팔괘의 음양(陰陽)을 가리는 것. 사실에 따라, ‘손계신진’을 쓰기도 한다.

210) 정양(淨陽) : 팔괘 중에서 가운데 효(爻)를 뺀 다음, 아래 효와 위 효가 서로 같으면 정양이 된다.

211) 진경해미(震庚亥未) : 정음정양법에서 정음(淨陰)이 되는 괘(卦) 가운데 하나.(『선택기요(選擇紀要)』 등 참고)

212) 정음(淨陰) : 팔괘 중에서 가운데 효(爻)를 뺀 다음, 아래 효와 위 효가 서로 다르면 정음이 된다.

213) 음허화동(陰虛火動) : 몸에 음기(陰氣)가 부족하여 열과 땀이 심하고 식욕이 줄며 기력이 쇠약하여지는 현상. 쉽게 화를 내고, 얼굴이 붉어지며, 입이 마르고, 성욕이 병적으로 높아진다.

214) 황달(黃疸) : 담즙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온몸과 눈 따위가 누렇게 되는 병. 온몸이 노곤하고 입맛이 없으며 몸이 여위게 된다.

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라대왕(閻羅大王)²¹⁸이 동성(同姓)²¹⁹ 삼촌이요, 동방삭(東方朔)²²⁰이가 조상이 되어도, 누루 황(黃)²²¹ 새암²²² 천 돌아갈 귀(歸).”²²³

[아니리]

왕이 왈 “신농씨(神農氏) 백초(百草) 약은 어찌 약이 아니 되옵고, 조그막헌²²⁴ 토끼 간이 약이 되오리까?” 도사 이른 말이 “대왕은 진(辰)²²⁵이요, 토끼는 묘(卯)²²⁶라. 묘을손(卯乙巽)은 음목(陰

215) 진세(塵世) : 정신에 고통을 주는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216) 산간(山間) : 산과 산 사이에 산골짜기가 많은 곳.

217) 차효(差效) : 병이 조금씩 나아가는 정도.

218) 염라대왕(閻羅大王) : 저승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지은 생전의 선악을 심판하는 왕. 지옥에 살며 십팔 장관(十八將官)과 팔만 옥졸을 거느리고 저승을 다스린다. 불상(佛像)과 비슷하고 왼손에 사람의 머리를 붙인 깃발을 들고 물소를 탄 모습이었으나, 뒤에 중국옷을 입고 노기를 띤 모습으로 바뀌었다.

219) 동성(同姓) : 같은 성.

220) 동방삭(東方朔) : 중국 전한(前漢)의 문인(기원전 154?~기원전 93?). 자는 만천(曼倩). 해학·변설(辯舌)·직간(直諫)으로 이름이 났다.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였으므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이른다.

221) 누루 황(黃) : 누를 황(黃).

222) 새암 : ‘쌈’의 경기, 경남, 전라, 충남 방언.

223) 돌아갈 귀(歸) : 황천(潢川)으로 돌아가다. 죽게 된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24) 조그막헌 : ‘조그마한’의 전남 방언.

225) 진(辰) : 십이지(十二支)의 다섯째. 용을 상징한다.

木)²²⁷이요, 간진술(良辰戌)은 양토(陽土)²²⁸라. 갑인진손대강수(甲寅辰巽大江水)²²⁹요, 진간사산원속목(震艮巳山元屬木)²³⁰이라. 목극토 허고 수생목(水生木)²³¹ 허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용왕이 이 말 듣더니마는 탄식(歎息/嘆息)하여²³² 우는 말이,

[진양조]

“연(然)하다²³³, 수연(雖然)이나²³⁴ 창망(悵惘)현²³⁵ 진세 간의 벽

226) 묘(卯) : 십이지(十二支)의 넷째 지지(地支). 토끼를 상징한다.

227) 묘을손(卯乙巽)은 음목(陰木) : 묘(卯)와 을(乙)은 정오행(正五行) 목(木)에 속하고, 팔괘의 손(巽)은 오행 음목(陰木)이다. 참고로, 정오행은 풍수지리설에서 24방위에 대하여 음양오행을 배분하는 한 가지 방식.

228) 간진술(良辰戌)은 양토(陽土) : 진(辰)과 술(戌)은 정오행 토(土)에 속하고, 팔괘의 간(艮)은 오행 양토(陽土)이다.

229) 갑인진손대강수(甲寅辰巽大江水) : 갑(甲), 인(寅), 진(辰), 손(巽)은 큰 강의 물이다. “갑인진손대강수 …… 진간사산원속목(震艮巳山元屬木)”은 홍범오행(洪範五行)에서 따온 것이다. ‘홍범오행’은, 풍수지리설에서 24방위에 대하여 음양오행을 배분하는 한 가지 방식.

230) 진간사산원속목(震艮巳山元屬木) : 진(震), 간(艮), 사(巳)는 본래 목(木)에 속하다. 진간사삼원속목(震艮巳三原屬木)이나 묘간사삼원속목(卯艮巳三原屬木) 등으로 쓰기도 한다.

231) 수생목(水生木) : 음양오행설에서, 물에서 나무가 생긴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32) 탄식(歎息/嘆息)하여 : 탄식(歎息/嘆息)하여. 한탄하여 한숨을 쉬어.

233) 연(然)하다 : 그러하다.

234) 수연(雖然)이나 : 비록 그러하나.

235) 창망(悵惘)현 : 창망한. 근심과 걱정으로 경황이 없는.

해(碧海)²³⁶ 만경(萬頃)²³⁷ 밖의 백운(白雲)이 구만리(九萬里)²³⁸ 요, 여산(驪山)²³⁹ 송백(松柏)²⁴⁰ 울울창창(鬱鬱蒼蒼)²⁴¹ 삼 척(尺)²⁴² 고분(孤墳)²⁴³ 황제 묘라. 석자(昔者)²⁴⁴ 진시황(秦始皇)²⁴⁵ 은 만승천자(萬乘天子)²⁴⁶ 위엄으로 동남동녀(童男童女)²⁴⁷ 오백인을 불사약(不死藥)²⁴⁸ 구허라 허송(虛送)²⁴⁹ 삼산(三山)²⁵⁰ 한 연

236) 벽해(碧海) : 길푸른 바다.

237) 만경(萬頃) : 아주 많은 이량이라는 뜻으로,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이르는 말.

238) 구만리(九萬里) : 아득하게 먼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9) 여산(驪山) : 리산(驪山, 여산). 중국 장안의 동북쪽, 현재의 시안시(西安市) 린퉁구(臨潼區)에 있는 산. 당나라 때 현종이 이궁(離宮)을 세워서 온천궁(溫泉宮)으로 하고, 뒤에 화청궁(華淸宮)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높이는 1,274미터.

진시황릉(秦始皇陵) 또한 이곳에 있다.

240) 송백(松柏) : 소나무와 잣나무를 아울러 이르는 말.

241) 울울창창(鬱鬱蒼蒼) : 울울창창(鬱鬱蒼蒼)하다. 큰 나무들이 아주 뻗뻗하고 푸르게 우거져 있다.

242) 척(尺) : 길이의 단위. 한 척은 한 치의 열 배로 약 30.3cm에 해당한다.

243) 고분(孤墳) : 외로운 묘.

244) 석자(昔者) :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난 오래전 때.

245) 진시황(秦始皇) : 중국 진(秦)나라의 제1대 황제(기원전 259~기원전 210). 이름은 정(政).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고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였다.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도량형·화폐의 통일, 만리장성의 증축, 아방궁의 축조, 분서갱유 따위로 위세를 떨쳤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247~기원전 210년이다.

246) 만승천자(萬乘天子) : ‘천자’를 높여 이르는 말.

247) 동남동녀(童男童女) :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후의 일발청산(一髮靑山)²⁵¹의 종적이 없었으니 못 구하고 붕(崩)허시며,²⁵² 만고(萬古)²⁵³ 영웅 한(漢) 무제(武帝)²⁵⁴도 승로반(承露盤)²⁵⁵이 허사가 되어, 육십삼 세의 붕허시니 성쇠흥망(盛衰興亡)²⁵⁶이 때가 있고, 수요장단(壽夭長短)²⁵⁷ 재천(在天)²⁵⁸이라. 토

248) 불사약(不死藥) :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약.

249) 허송(虛送) :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

250) 삼산(三山) :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 방장산(方丈山), 영주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진시황과 한 무제가 불로불사약을 구하기 위하여 동남동녀수천 명을 보냈다고 한다. 이 이름을 본떠 우리나라의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이라 이르기도 한다.

251) 일발청산(一髮靑山) : 한 오라기 푸른 산. 『전등신화(剪燈新話)』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 나오는 시구 “一髮靑山浮翠色(일발청산부취색, 한 올 머리카락 같은 푸른 산에 비치색이 아른거리다)”을 따온 것일 수 있다. 참고로, “청산일발(靑山一髮, 실낱같은 푸른 산)”이라는 어구가 송(宋)나라 문인(文人) 소식(蘇軾)의 시 ‘징매역통조각(澄邁驛通潮閣, 징매역의 통조각에서)’ 등에 나오기도 한다. (한시 - 9. 2. 참고)

252) 붕(崩)허시며 : 붕하시며. 임금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253) 만고(萬古) : 세상에 비길 데가 없다.

254) 한(漢) 무제(武帝) : 중국 전한(前漢) 제7대 황제(기원전 156~기원전 87). 성은 유(劉). 이름은 철(徹). 묘호는 세종(世宗).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흉노를 외몽골로 내쫓는 등 여러 지역을 정벌하였으며,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동서 교류를 왕성하게 하였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141~기원전 87년이다.

255) 승로반(承露盤) : 하늘에서 내리는 장생불사의 감로수를 받아먹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쟁반.

256) 성쇠흥망(盛衰興亡) : 성하고 쇠함과 흥하고 망함. 흥망성쇠(興亡盛衰).

257) 수요장단(壽夭長短) : ‘수요(壽夭, 오래 살다와 일찍 죽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끼라 허는 짐생은 해외(海外)²⁵⁹ 일월(日月) 밝은 세상의 백운 청산 무정처(無定處)²⁶⁰로 시비(柴扉)²⁶¹ 없이 다니는 짐생을 내가 어이 구허드란 말이오.”

[아니리]

이렇듯 탄식허니 도사 이른 말이 “태산지간(泰山之間)²⁶²의 유백금지사(有百金之士)²⁶³ 허고 요순지군(堯舜之君)²⁶⁴의 유고요직설(有皐陶稷契)²⁶⁵이라. 대왕의 성덕(聖德)²⁶⁶으로 어찌 충의지신(忠義之臣)²⁶⁷이 없사오리까? 이제라도 수부(水府)²⁶⁸ 조정 만조백관(滿朝

258) 재천(在天) : 하늘에 달려 있다.

259) 해외(海外) : 바다의 밖. “하해(河海, 큰 강과 바다를 아울러 이르는 말)”의 변형인 듯.

260) 무정처(無定處) : 일정하게 정해진 곳이 없다.

261) 시비(柴扉) : 사립짝을 달아서 만든 문.

262) 태산지간(泰山之間) : 태산(泰山)의 사이에.

263) 유백금지사(有百金之士) : 백금지사가 있다. 백금지사(百金之士)는, 백금의 값을 하는 선비나 무사(武士)라는 뜻이다. 어진 선비나 큰 공을 세운 무장(武將)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64) 요순지군(堯舜之君) : 요순(堯舜,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과 같은 임금.

265) 유고요직설(有皐陶稷契) : 고요직설이 있다. 고요직설(皐陶稷契)은 고기직설(皐夔稷契). 순(舜) 임금 때의 신하였던 고요(皐陶), 기(夔), 후직(后稷), 설(契)로 현신(賢臣)을 가리킨다.

266) 성덕(聖德) : 임금의 덕(德)을 높여 이르는 말.

267) 충의지신(忠義之臣) : 충성스럽고 절의 있는 신하.

268) 수부(水府) : 전설에서,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의 궁전.

百官)²⁶⁹)을 불러 일체 하교하여 보옵소서.” 말이 지자 인홀불견(因忽不見)²⁷⁰) 간 곳 없겠다. 왕이 도사 말을 옹계 여겨 수궁(水宮)²⁷¹) 만조제신(滿朝諸臣)²⁷²)들을 일시에 불러들이난디, 이 세상 같으면 일품(一品)²⁷³) 재상(宰相)²⁷⁴)님네가 들어오실 것이로되, 수궁이라 허는 곳은 맞진²⁷⁵) 고기가 지천(至賤)²⁷⁶)이 되야 수궁 만조백관인들이 모다 물고기 등물(等物)²⁷⁷)이었다. 모다 어명(御命)²⁷⁸)을 받고 들어오는디,

[자진모리]

승상(丞相)²⁷⁹)은 거북, 승지(承旨)²⁸⁰) 도미, 판서(判書)²⁸¹) 민어, 주

269) 만조백관(滿朝百官) :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270) 인홀불견(因忽不見) :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지다.

271) 수궁(水宮) : 물속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궁전.

272) 만조제신(滿朝諸臣) : 만정제신(滿廷諸臣).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273) 일품(一品) : 고려·조선 시대에 둔, 문무관 품계의 첫째. 정일품과 종일품의 구별이 있었다.

274) 재상(宰相) :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본디 ‘재(宰)’는 요리를 하는 자, ‘상(相)’은 보행을 돕는 자로 둘 다 수행하는 자를 이르던 말이었으나, 중국 진(秦)나라 이후에 최고 행정관을 뜻하게 되었다.

275) 맞진 : 맛있는. 음식의 맛이 좋은.

276) 지천(至賤) : 매우 흔하다.

277) 등물(等物) : 같은 종류의 물건.

278) 어명(御命) : 임금의 명령을 이르던 말.

279) 승상(丞相) : 옛 중국의 벼슬. 우리나라의 정승에 해당한다.

서(注書)²⁸²⁾ 오징어, 한림(翰林)²⁸³⁾ 박대,²⁸⁴⁾ 대사성(大司成)²⁸⁵⁾ 도
루묵,²⁸⁶⁾ 방첩사(防僉使)²⁸⁷⁾ 조개, 해원군²⁸⁸⁾ 방계,²⁸⁹⁾ 감목관(監牧

280) 승지(承旨)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 속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정삼품의 당상관. 정원이 6명으로,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가 있었다.

281) 판서(判書) : 조선 시대에 둔, 육조의 으뜸 벼슬. 정이품 벼슬로 태종 5년(1405)에 베풀어서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282) 주서(注書)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 속한 정칠품 벼슬. 승정원의 기록, 특히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맡아보았다.

283) 한림(翰林) : ‘예문관 검열’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284) 박대 : 참서뱃과의 바닷물고기. 몸은 혀 모양으로 타원형이고 눈이 없는 쪽의 비늘은 둥글고 작다. 한국,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285) 대사성(大司成) : 고려·조선 시대에 둔, 성균관의 으뜸 벼슬. 정삼품의 벼슬이다. 사설에 따라, ‘대사헌(大司憲)’이나 ‘대사간(大司諫)’ 등을 쓰기도 한다.

286) 도루묵 : 도루묵. ‘도루묵’은 도루묵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25cm 정도이고 옆으로 편평하며, 등은 누런 갈색이고 배는 흰 은빛이다. 입과 눈이 크며 비늘이 없다. 100~400미터 깊이의 바다에서 사나 알을 낳기 위하여 2미터 정도의 얕은 곳으로 올라온다. 한국, 일본, 캄차카 반도 등지에 분포한다.

287) 방첩사(防僉使) : 방어사와 첩절제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

288) 해원군 : 방계가 속한 종류인 ‘게 해(蟹)’ 자(字)를 써서 붙인 이름인 듯하다. 사설에 따라, ‘해원군(蟹原君)’이나 ‘해운군(海運君)’이나 ‘해운공(蟹運公/海雲公)’이나 ‘해(海) 용군(用軍, 군사를 부리다)’ 등을 쓰기도 한다.

‘해(海) 오공(蜈蚣, 지네강의 절지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가능성이 없다. ‘바다의 지네’라는 뜻으로, 뒤에 나오는 ‘방계’를 옆두에 두었다는 가설이지만 말이다. 절지동물에, 수중 생활을 하는 절지동물인 갑각류에 방계가 속하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에

官)²⁹⁰ 수달피(水獺皮),²⁹¹ 유수(留守)²⁹² 광어, 병사(兵使)²⁹³ 청어, 군수(郡守)²⁹⁴ 해구(海狗),²⁹⁵ 현감(縣監)²⁹⁶ 홍어, 부서²⁹⁷ 찰

(baike.baidu.com/item/%E6%B5%B7%E8%9C%88%E8%9A%A3/5220901)에 따르면 해오공(海蜈蚣)이 사잠(沙蠶/砂蠶, 참갯지렁이)을 뜻한다. 따라서, ‘해 오공’이 방게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다.

289) 방게 : 바위갯과의 하나. 등딱지의 길이는 3cm, 폭은 3.5cm 정도이며, 어두운 초록색이고 몸은 사각형으로 우툴두툴하고 다리에 털이 적다. 등에 ‘H’ 자 모양의 홈이 뚜렷하며 집게발은 수컷이 암컷보다 역세다. 식용하며 해변에서 가까운 민물에 사는데, 한국·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290) 감목관(監牧官) : 조선 시대에,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의 무관 벼슬.

291) 수달피(水獺皮) : ‘수달(水獺/水獾, 족제빗과의 포유류)’인 듯하다. 수달피는 수달의 가죽.

292) 유수(留守) : 조선 시대에, 수도 이외의 요긴한 곳을 맡아 다스리던 정이품의 외관(外官) 벼슬. 개성·강화·광주·수원·춘천 등지에 두었다.

293) 병사(兵使) : 조선 시대에, 각 지방의 병마를 지휘하던 종이품의 무관 벼슬.

294) 군수(郡守) : 조선 시대에 둔, 지방 행정 단위인 군의 으뜸 벼슬. 종사품으로 군의 행정을 맡아보았다.

295) 해구(海狗) : 물갯과의 바다짐승. 몸의 길이는 수컷은 2미터, 암컷은 1미터 정도이며, 새끼 때는 검고 자라면 등은 회색을 띤 흑색이며 배는 붉은 갈색이다. 몸에는 솜털이 나 있고 귓바퀴와 꼬리가 작으며, 네 다리는 짧고 오리 발처럼 되어 헤엄치기에 알맞다. 수컷은 30~50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물고기, 연체동물 따위를 잡아먹는다. 북태평양 특산으로 가을에는 한국, 일본으로도 남하한다.

296) 현감(縣監) : 조선 시대에 둔, 작은 현(縣)의 수령. 품계는 종육품으로 고려 시대의 감무(監務)를 태종 13년(1413)에 고친 것인데 감무보다는 권한이 강하였다.

방(察訪),²⁹⁸ 어사 승어, 좌랑(佐郎)²⁹⁹ 병치,³⁰⁰ 대장(大將)³⁰¹ 범치,³⁰² 조 부장(部將)³⁰³ 조구,³⁰⁴ 비변랑(備邊郎)³⁰⁵ 청(靑)달내가오리,³⁰⁶ 금군(禁軍)³⁰⁷ 나졸(邏卒),³⁰⁸ 좌우 순령수(巡令手),³⁰⁹ 대원수(大元帥)³¹⁰ 고래, 수피(水皮)³¹¹ 해구(海狗),³¹² 모조리,³¹³ 원

297) 부서 : ‘보구치’의 경기 방언. ‘보구치’는, 민어과의 바닷물고기.

298) 찰방(察訪) : 조선 시대에, 각 도의 역참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외직(外職) 문관의 벼슬. 중종 30년(1535)에 역승을 고친 것으로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299) 좌랑(佐郎) : 조선 시대 육조의 정육품 벼슬.

300) 병치 : ‘병어’의 전남 방언.

301) 대장(大將) : 조선 후기에, 도성을 지키던 각 영(營)의 장수.

302) 범치 : ‘망둥이’의 경북 방언.

303) 조 부장(部將) : ‘부장 벼슬을 하는 조기’라는 뜻인 듯하다. ‘부장’은 조선 시대에, 오위(五衛)에 속한 종육품 무관 벼슬.

304) 조구 : ‘조기’의 경남, 전라, 평안 방언.

305) 비변랑(備邊郎) : 조선 시대에, 비변사에 속하여 나라 안팎의 군사 기밀을 맡아보던 종육품 벼슬.

306) 청(靑)달내가오리 : 색가오릿과의 바닷물고기. 몸은 매끈하고 폭이 길이보다 길며 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307) 금군(禁軍) : 고려·조선 시대에,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경비하던 친위병.

308) 나졸(邏卒) : 조선 시대에, 포도청(捕盜廳)에 속하여 관할 구역의 순찰과 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맡아 하던 하급 병졸.

309) 순령수(巡令手) : 대장의 전령과 호위를 맡고, 순시기·영기(令旗) 따위를 받들던 군사.

310) 대원수(大元帥) : 국가의 전군(全軍)을 통솔하는 최고 계급인 원수를 더 높여 이르는 말.

(龜) 참군(參軍)³¹⁴ 남생이,³¹⁵ 모래무지,³¹⁶ 주부(主簿)³¹⁷ 자
래,³¹⁸ 병어, 전어, 대구, 명태, 눈치,³¹⁹ 준치,³²⁰ 삼치, 쫄치, 갈치,

311) 수피(水皮) : 수달의 가죽. 갓옷, 옷깃 따위의 털붙이로 쓴다.

312) 해구(海狗) : 물개과의 바다짐승. 몸의 길이는 수컷은 2미터, 암컷은 1미터 정도이며, 새끼 때는 검고 자라면 등은 회색을 띤 흑색이며 배는 붉은 갈색이다. 몸에는 솜털이 나 있고 귓바퀴와 꼬리가 작으며, 네 다리는 짧고 오리 발처럼 되어 헤엄치기에 알맞다. 수컷은 30~50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물고기, 연체동물 따위를 잡아먹는다. 북태평양 특산으로 가을에는 한국, 일본으로도 남하한다.

313) 모조리 : 모조리상어. 모조리상어는, 돛발상엇과에 속한 바닷물고기. 몸 길이는 60~70센티미터 정도이며, 주둥이가 짧고 그 끝이 뾰족하다. 가슴지느러미가 길며 곱상어와 비슷하나 몸에 흰 점이 없다. 우리나라,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또는, ‘돌묵상어’의 제주 방언 ‘모조리’로 볼 수도 있다.

314) 원(龜) 참군(參軍) : 참군 벼슬의 남생이. ‘참군’은 조선 시대에 한성부에 둔 훈련원의 정칠품 벼슬.

315) 남생이 : 남생잇과의 하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진한 갈색의 딱지로 되어 있고 네발에는 각각 다섯 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다. 6~8월에 모래 속에 구멍을 파고 4~6개의 알을 낳는다. 냇가나 연못에 사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316) 모래무지 : 잉엇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5cm 정도이며, 은백색이다. 등과 옆구리에 얽은 황갈색의 반점이 있으며 배는 희다. 머리가 크고 입가에 한 쌍의 수염이 있다. 강의 모랫바닥에 사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317) 주부(主簿) : 조선 시대에, 각 아문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육품 벼슬.

318) 자래 : ‘자라’의 강원, 경상, 전라, 충북, 평안, 함경, 중국 길림성, 중국 요령성, 중국 흑룡강성 방언.

319) 눈치 : ‘정어리’의 강원 방언. 또는, ‘송사리’의 경상 방언.

물메기,³²¹⁾ 미끈덕³²²⁾ 뱀장어, 정원사령(政院使令)³²³⁾ 짜개사리,³²⁴⁾ 돌 밑에 꺾지,³²⁵⁾ 산 냇물의 중고기,³²⁶⁾ 깊은 물에는 금잉어,³²⁷⁾ 빛 좋은 피리,³²⁸⁾ 망둥이,³²⁹⁾ 짱뽕이,³³⁰⁾ 송둥이,³³¹⁾ 올챙이, 개고리,

320) 준치 : 준치과의 바닷물고기. 뱀뱀이와 비슷한데 몸의 길이는 50cm 정도이고 옆으로 납작하며, 등은 어두운 청색, 배는 은백색이다. 살에는 가시가 많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321) 물메기 : 꼼치과의 바닷물고기. 메기와 비슷하며, 반투명하고 연한 푸른 갈색 바탕에 그물 모양의 얼룩무늬가 있다. 배와 등이 지느러미로 둘러 있다. 한국 동해,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322) 미끈덕 : 미끈덕한[미끈둥한].

323) 정원사령(政院使令)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정언(正言) 사령(使令)’을 쓰기도 한다.

324) 짜개사리 : ‘자가사리’의 전남 방언.

325) 꺾지 : 꺾짓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20cm 정도이고 모양은 옆으로 납작하며, 옆은 녹색 바탕에 7~8개의 검은 가로무늬가 있다. 입과 주둥이가 크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약간 길다. 식욕이 왕성한 육식어이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맑은 계류의 바위틈이나 자갈 틈에 산다.

326) 중고기 : 잉엇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10~13cm이고 가늘며, 옆으로 납작하다. 등 쪽은 어두운 녹색, 배 쪽은 흰 은색이고 옆구리 가운데 암색 세로띠가 있다. 한국,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327) 금잉어 : 잉어를 관상용으로 개량한 사육종. 빛깔이 다른 여러 품종이 있다. 옛표기는 금이어/금리어(金鯉魚)이다. 아니면 아예 금린어(錦鱗魚, 쏘가리)로 볼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크지 않다.

328) 피리 : ‘피라미’의 강원, 경기, 충남 방언.

329) 망둥이 : 망둥이.

330) 짱뽕이 : ‘짱뽕어’의 전남 방언.

331) 송둥이 : ‘송어 동어’의 변형인 듯하다. ‘동어(漁)’는, 송어의 새끼를 이르는 말.

송사리, 눈쟁이³³²까지 그저 꾸역꾸역 들어와 대왕 전(前)의 복지(伏地)³³³ 청령(聽令)허니.³³⁴

[아니리]

병든 용왕이 이만히고 내려다보더니마는, “짐이 경들을 본즉 용왕이 아니라 세상 팔월 대목장(場)³³⁵ 어물전(魚物廬)³³⁶ 도영수(都領首)³³⁷가 되었구나. 병중에 내 입맛만 당그었지.³³⁸ 경들 중에 세상에 나가 토끼를 구해 과인의 병을 즉효(卽效)³³⁹ 할 자 뉘가 있을꼬?³⁴⁰” 좌우 면면상고(面面相顧)하고³⁴¹ 묵묵부답(默默不答)³⁴²이

332) 눈쟁이 : ‘송사리’의 경남, 전남, 제주 방언.

333) 복지(伏地) : 땅에 엎드리다.

334) 청령(聽令)허니 : 청령(聽令)하니. 명령을 주의 깊게 듣더니.

335) 대목장(場) : 큰 명절을 바로 앞두고 서는 장.

336) 어물전(魚物廬) : 생선, 김, 미역 따위의 어물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 조선 시대에는 내어물전과 외어물전의 구별이 있었다.

337) 도영수(都領首) : 도영위(都領位). ‘도영위’는 조선 시대에 둔, 육두비전에 속한 도중(都中)의 으뜸 임원. 도원(都員)의 선거로 선출되었다. ‘대행수(大行首)’를 쓸 수도 있겠다. 대행수는, 조선 시대에 둔 육주비전의 각 전의 대표자를 이르던 말. 도중(都中)의 사무를 총괄하였으며 도원(都員)의 선거로 선출하였다.

338) 당그었지 : ‘당기었지’의 전남 방언.

339) 즉효(卽效) : 곧 반응을 보이는, 약 따위의 효험.

340) 있을꼬 : ‘있을까’의 옛말.

341) 면면상고(面面相顧)하고 :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342) 묵묵부답(默默不答) : 잠자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

로구나.

[중모리]

용왕이 기가 막혀 또 탄식을 허는구나. “할고(割股)³⁴³⁾ 사군(事君)³⁴⁴⁾ 개자추(介子推)³⁴⁵⁾와 광초(誑楚)³⁴⁶⁾ 망신(忘身)³⁴⁷⁾ 기신(紀信)³⁴⁸⁾ 이는 죽을 임군 살렸으니 군신유의(君臣有義)³⁴⁹⁾ 중할시고, 원통(冤痛)타³⁵⁰⁾ 우리 수궁 만여지중(萬餘之衆)³⁵¹⁾의 일충신(一忠

343) 할고(割股) : 허벅지의 살을 베어 내다.

344) 사군(事君) : 임금을 섬기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공자(公子) 중이(重耳)가 국외로 망명하여 여기저기를 유랑하였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개자추(介子推)가 자기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그에게 먹였다.

345) 개자추(介子推) : 중국 춘추(春秋) 전국(戰國) 시대(時代)의 은사(隱士). 어려운 시기에 모셨던 진 문공(文公, 공자 중이)이 뒤늦게 깨닫고 불렀으나 끝내 산속에서 불에 타죽었다. 이 개자추를 애도하기 위해 찬밥을 먹는 습관에서, 우리나라 사대(四大) 명절의 하나인 한식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346) 광초(誑楚) : 초를 속여 거짓 항복을 하다.

347) 망신(忘身) : 제 한 몸을 잊다. 참고로, ‘남원고사’나 송서(誦書) ‘짜타령’에는 “광초구군 망사보국”이라는 사설이 나오기도 한다.

348) 기신(紀信) : 중국 한나라 고조 때의 무장(기원전 ?~기원전 ?). 항우의 군사에게 포위당한 고조를 도망치게 한 후 살해되었다.

349) 군신유의(君臣有義) : 오륜(五倫)의 하나.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는 의리에 있음을 이른다.

350) 원통(冤痛)타 : 분하고 억울타.

351) 만여지중(萬餘之衆) : 만여 명의 무리. 참고로, 『통감절요(通鑑節要)』 정도에 만여지중(萬餘之衆)을 사용한 예가 있다.

臣)³⁵²이 없었으니 어느 뉘라 날 살릴거나?” 자탄(自歎/自嘆)³⁵³을
마잔허니³⁵⁴

[아니리]

신자지도리(臣子之道理)³⁵⁵로 저이들끼리 공론이 분운(紛紜)헐³⁵⁶
제. “승어 너 어떠허뇨?” “나는 세상에 나가고 싶다마는 헛감도 좋
거니와 제찬(祭饌)³⁵⁷으로 제일 위주(爲主)³⁵⁸ 허니 나갈 수 있나?”
“도미 너는 어떠허뇨?” “춘삼월(春三月)³⁵⁹ 호시절(好時節)³⁶⁰의 풋
고사리 막 난 판에 원통³⁶¹ 찌개 거리³⁶²로 나 죽기 싫다. 뉘 아들
놈이 얹어 죽지 나가서 죽어야?” 이렇듯 서로 안 가기로만 걱정허
니,

352) 일충신(一忠臣) : 한 명의 충신.

353) 자탄(自歎/自嘆) : 자기의 일에 대하여 탄식하다.

354) 마잔허니 : 마지않으니.

355) 신자지도리(臣子之道理) : 신하된 도리. 사설에 따라, ‘군자지도리(君子之道理)’를 쓰기도 한다.

356) 분운(紛紜)헐 : 분운(紛紜)할.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을.

357) 제찬(祭饌) : 제사 음식.

358) 위주(爲主) : 으뜸으로 삼다.

359) 춘삼월(春三月) : 봄 경치가 한창 무르익는 음력 3월.

360) 호시절(好時節) : 좋은 때.

361) 원통 : ‘온통’의 경기, 전남, 평안, 함경 방언.

362) 거리 : 내용이 될 만한 재료.

[단중모리]

정언(正言)³⁶³ 잉어가 여짜오되³⁶⁴ 정언 잉어가 여짜오되, “세상이
라 허는 곳은 인심이 소박(疏薄)하여³⁶⁵ 수궁 신하(臣下)가 얼른허
면³⁶⁶ 잡아먹기 위주(爲主) 허니, 지혜 용맹 없는 자는 보내지 못하
리라.” “수문장(守門將)³⁶⁷ 물메기가 어떠허뇨?” “물메기는 장수구
대(長鬚口大)³⁶⁸ 허고 호풍신(好風神)³⁶⁹ 수염 좋으나 식량(食
量)³⁷⁰이 장이³⁷¹ 넓어 조그막한 산천수(山川水)³⁷² 요기감 얻으랴
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립(蓑笠)³⁷³ 쓴 저 어옹(漁翁)³⁷⁴ 사풍세우
불수귀(斜風細雨不須歸)³⁷⁵라. 입감³⁷⁶ 꺾어 던진 낚시 탐식(貪食)

363) 정언(正言) : 조선 시대에, 사간원에 속한 정육품 벼슬. 태종 1년(1401)
에 문하부의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할 때 습유를 고친 것이다.

364) 여짜오되 : 여쭙되.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리되.

365) 소박(疏薄)하여 : 소박(疏薄)하여. 인격을 무시하고 모질게 대하여.

366) 얼른허면 : 얼른하면[얼씬하면]. 조금 큰 것이 눈앞에 잠깐 나타났다 없
어지면.

367) 수문장(守門將) : 각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 벼슬.

368) 장수구대(長鬚口大) : 수염이 길고 입이 크다.

369) 호풍신(好風神) : 좋은 풍채. 또는 좋은 풍채를 가진 사람.

370) 식량(食量) : 음식을 먹는 분량.

371) 장이 : ‘장히’의 변형인 듯하다.

372) 산천수(山川水) : 산속 냇물.

373) 사립(蓑笠/蓑笠) : 도롱이와 삿갓을 아울러 이르는 말.

374) 어옹(漁翁) : 고기를 잡는 노인.

375) 사풍세우불수귀(斜風細雨不須歸) : 비낀 바람 가랑비에 굳이 돌아갈 것
없네. 당(唐)나라 장지화(張志和)가 쓴 시 ‘어부(漁父)’에서 “청약립(靑蓑笠,
푸른 삿갓 쓰고) 녹사의(綠蓑衣, 초록색 도롱이 걸쳤으니) 사풍세우불수귀(斜

히여³⁷⁷) 집어먹고 단불요대(斷不饒貸)³⁷⁸) 죽게 되면, 세상의 이질(痢疾)³⁷⁹) 복질(腹疾)³⁸⁰) 배아피,³⁸¹) 술병, 설사 난 디 국 끓여 보(補)하기³⁸²) 약만 되니 보내지는 못하리라.” “군수(郡守) 해구는 어떠허뇨?” “해구는 신경(腎經)이 너무 좋아 호색(好色)³⁸³)을 허는 고로 색필망신(色必亡身)³⁸⁴)이라, 보내지 못하리라.” “하(鰕) 낭청(假郎廳)³⁸⁵) 새우는 어떠허뇨?” “낭청(郎廳)³⁸⁶) 새우는 용맹이 초등(超等)하여³⁸⁷) 뛰기는 잘 하오나 안정(眼睛)³⁸⁸)이 삼긴³⁸⁹) 것이 단명

風細雨不須歸”을 따온 것이다. (한시 - 19. 1. 참고)

376) 입감 : ‘미끼’의 전남, 충남 방언.

377) 탐식(貪食)히여 : 탐식(貪食)하여. 음식을 탐내어. 또는 탐내어 먹어.

378) 단불요대(斷不饒貸) : 단연코 용서하지 아니하다.

379) 이질(痢疾) : 변에 곱이 섞여 나오며 뒤가 잦은 증상을 보이는 법정 전염병. 세균성과 원충성으로 구별한다.

380) 복질(腹疾) : 복부(腹部)의 병. 배앓이, 설사병 따위가 있다.

381) 배아피 : ‘이질’의 충남 방언.

382) 보(補)하기 :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나 약을 먹어 몸의 건강을 돕기.

383) 호색(好色) : 여색을 몹시 좋아하다.

384) 색필망신(色必亡身) : 호색하면 반드시 망신을 당한다는 뜻인 듯하다.

385) 하(鰕) 낭청(郎廳) : 낭청 벼슬을 하는 새우.

386) 낭청(郎廳) : 조선 후기 비변사·선혜청·준천사(濬川司)·오군영 등의 실무 담당 종6품 관직.

관서에 따라 정규직으로 직제화 되기도 하고 겸직으로 충원되기도 하였다. 본래 낭관(郎官)과 같은 뜻으로 각 관서의 당하관을 지칭했으나, 1555년(명종 10)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되어 12인의 낭청을 두면서부터 관직명의 하나로 쓰였다.

387) 초등(超等)하여 : 일반 등급을 뛰어넘어.

이라 보내지 못하리라.” 해운공 방계가 썩 나서며 살살 기어 복지주왈(伏地奏曰).³⁹⁰⁾

[아니리]

이놈은 중고제(中古制)³⁹¹⁾로 아뢰난디,

[중중모리]

“신의 고향은 세상이라, 신의 고향은 세상이라.³⁹²⁾ 청림벽계(靑林碧溪)³⁹³⁾ 산천수 모래 속의 잠신(潛身)허여³⁹⁴⁾ 수십 년을 사울 적의, 월중퇴[月中兔]³⁹⁵⁾ 망월퇴[望月兔]³⁹⁶⁾ 안면이 있사오니, 소신을 보내시면 소신의 엄지발³⁹⁷⁾로 토끼 놈의 가는 허리를 덩씩 집어 잡아 다 대왕 전의 바치리다.”

388) 안정(眼睛) : 눈알의 한가운데에 있는, 빛이 들어가는 부분. 검게 보이며, 빛의 세기에 따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홍채로 크기가 조절된다.

389) 삼긴 : ‘생긴’의 옛말.

390) 복지주왈(伏地奏曰) : 땅에 엎드려 아뢰어 올리다.

391) 중고제(中古制) :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 전승되는 판소리 소리제.

392) 세상이라 : 물이라.

393) 청림벽계(靑林碧溪) : 푸른 숲의 맑은 계곡.

394) 잠신(潛身)허여 : 잠신(潛身)하여. 몸을 숨기고 나타내지 아니하여.

395) 월중퇴[月中兔] : 월중토(月中兔). 달 속의 토끼.

396) 망월퇴[望月兔] : 망월토(望月兔). 보름달 속의 토끼.

397) 엄지발 : 다섯 발가락 가운데 첫째 발가락. 가장 크고 굵다.

2. 별 주부

[아니리]

왕이 왈 “너는 십 각³⁹⁸)이 구존(具存)하여³⁹⁹) 걸음은 잘 걸으나, 인적이 얼른하면 퇴불여전(退不如前)⁴⁰⁰) 뒷걸음질을 잘하기로 당대사(當大事)⁴⁰¹) 믿지 못하여 보내지 못하리라.” 이렇듯 공론이 미결(未決)할⁴⁰²) 제,

[엇중모리]

영덕전(靈德殿)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은목단족(隱目短足)⁴⁰³)이요 장경오훼(長頸烏喙)⁴⁰⁴)라. 국궁(鞠躬)⁴⁰⁵) 재배(再拜)하고⁴⁰⁶) 상

398) 각(脚) :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

399) 구존(具存)하여 : 구존(具存)하여. 빠짐없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400) 퇴불여전(退不如前) : 이전보다 후퇴하다. 중한사전에서, ‘원불여전(遠不如前, 이전보다 훨씬 못하다)’이라는 속어를 참고하였다.

401) 당대사(當大事) : 큰일에 해당되다.

402) 미결(未決)할 : 미결(未決)할. 아직 결정하거나 해결하지 아니할

403) 은목단족(隱目短足) : 눈이 작고 다리가 짧다.

404) 장경오훼(長頸烏喙) : 관상에서, 목이 길고 입이 뾰족한 상(相). 참을성이 많아 고생을 이겨 내지만 잔인하고 욕심이 많으며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 강하여 안락을 누리기 어렵다고 한다.

405) 국궁(鞠躬) : 윗사람이나 위패(位牌) 앞에서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히다.

406) 재배(再拜)하고 : 재배(再拜)하고. 두 번 절하고.

소(上疏)⁴⁰⁷를 올리거날,

[아니리]

그 상소 받아보니 별(鼈)⁴⁰⁸ 주부(主簿) 자래로서 그 상소에 허였으
되, 황공복지(惶恐伏地)⁴⁰⁹ 신(臣) 진(進) 주상(主上)⁴¹⁰ 전하(殿
下)⁴¹¹ 하노이다. 신은 본시 수국 충신지후예(忠臣之後裔)⁴¹²로 추
처낭중(錐處囊中)⁴¹³의 탈령이출(脫穎而出)⁴¹⁴ 허든 모수(毛遂)⁴¹⁵
의 재조(才操/才調)⁴¹⁶와 탄탄위아(呑炭爲啞) 허고 행걸어시(行乞
於市)⁴¹⁷ 허든 예양(豫讓)⁴¹⁸의 충성과 육국(六國)⁴¹⁹을 종합(從合/

407) 상소(上疏) :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또는 그 글. 주로 간관(諫官)이
나 삼관(三館)의 관원이 임금에게 정사(政事)를 간하기 위하여 올렸다.

408) 별(鼈) : 자라.

409) 황공복지(惶恐伏地) : 황공히 땅에 엎드린다.

410) 주상(主上) : ‘임금’을 달리 이르는 말.

411) 전하(殿下) : 조선 시대에, 왕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

412) 충신지후예(忠臣之後裔) : 충신의 후예. 후예(後裔)는,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

413) 추처낭중(錐處囊中) : 송곳이 주머니에 있으면 그 끝이 밖으로 뚫고 나
오는 것과 같이 재능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그 재능이 알려지기 마련임을 비
유적으로 이르는 말.

414) 탈령이출(脫穎而出) : 이삭이 껍질을 벗고 밖으로 드러난다는 뜻으로,
모든 재능이 완전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415) 모수(毛遂) : 중국 전국 시대 조나라 사람(기원전 ?~기원전 ?). 평원군
(平原君)의 식객으로 고사성어 ‘낭중지추’로 유명하다. 조나라에 협약을 맺는
데 큰 공을 세워 조나라를 진나라의 위기로부터 구해 내었다.

416) 재조(才操/才調) : ‘재주’의 원말.

縱合)허던⁴²⁰ 소진(蘇秦)⁴²¹의 구변(口辯)⁴²²과 맹획(孟獲)⁴²³을 칠
종칠금(七縱七擒)⁴²⁴ 허던 공명(孔明)⁴²⁵의 지모(智謀)⁴²⁶ 없사오나

417) 탄탄위아(呑炭爲啞) 허고 행걸어시(行乞於市) : 숯을 입에 물고 병어리
처럼 하고 시장에서 걸인 행세를 하다.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
記)』의 자객열전(刺客列傳)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중국 진(晉) 제후
인 지백(智伯)을 섬기던 신하 예양이 지백을 멸망케 한 조(趙)의 양자(襄子)
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옷칠을 하여 문둥이처럼 보이게 하고, 숯을 삼켜 병
어리처럼 보이게 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418) 예양(豫讓) : 중국 진(晉)나라의 의사(기원전 ?~기원전?). 자신이 섬기
던 지백(智伯)이 조양자(趙襄子)에게 피살되자 복수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자살하였다.

419) 육국(六國) : 중국 전국 시대의 제후국(諸侯國) 가운데 진(秦)나라를 제
외한 여섯 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이른다.

420) 종합(從合/縱合)허던 : 합종(合從/合縱)하던. 굳게 맹세하여 서로 응하
던.

421) 소진(蘇秦) : 중국 전국 시대의 유세가(遊說家)(기원전 ?~기원전 ?). 진
(秦)에 대항하여 산둥(山東)의 6국인 연(燕), 조(趙), 한(韓), 위(魏), 제(齊),
초(楚)의 합종(合從)을 설득하여 성공했다.

422) 구변(口辯) :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423) 맹획(孟獲) : 중국 삼국 시대 촉한 건녕(建寧) 사람이다. 남중(南中)의
호강(豪強)으로, 유비(劉備)가 죽은 뒤 촉나라에 모반해 제갈량(諸葛亮)이 남
정(南征)해 산 채로 잡았다가 풀어 주었다. 칠종칠금(七縱七擒)하고 나서야
다시 모반하지 않았다. 정사(正史)에서는 옹개(雍闓)와 협력한 인물로 그 성
명만 등장할 뿐 자세한 인적 사항은 모두 미상이다.

424) 칠종칠금(七縱七擒) :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중
국 촉나라의 제갈량이 맹획(孟獲)을 일곱 번이나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
주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425) 공명(孔明) : '제갈량'의 자.

당차옥체미령지시(當此玉體靡寧之時)⁴²⁷⁾ 하와 기감불충도보(豈敢不忠圖報)⁴²⁸⁾ 허오리카? 차의성상지위령(此依聖上之威靈)⁴²⁹⁾과 무궁지조화(無窮之造化)⁴³⁰⁾로 광피사해(光被四海)⁴³¹⁾ 하시니 하왕불리(何往不利)⁴³²⁾며 하구부득(何求不得)⁴³³⁾으로 진세(塵世)⁴³⁴⁾ 일개(一介)⁴³⁵⁾ 퇴[兔]를 하난착래(何難捉來)⁴³⁶⁾리카? 복원(伏願)⁴³⁷⁾ 성상(聖上)⁴³⁸⁾은 파탈(擺脫)⁴³⁹⁾ 하생(下生)⁴⁴⁰⁾ 불린지덕(不吝之德)⁴⁴¹⁾

426) 지모(智謀) : 슬기로운 꾀.

427) 당차옥체미령지시(當此玉體靡寧之時) : 임금께서 몸이 편찮으신 때를 당하다.

428) 기감불충도보(豈敢不忠圖報) : 어찌 감히 충성으로 보답하기를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429) 차의성상지위령(此依聖上之威靈) : 이는 임금님의 위엄이 있는 신령에 의지한 것이다.

430) 무궁지조화(無窮之造化) : 끝이 없는 조화.

431) 광피사해(光被四海) : 빛이 사해에 비치다.

432) 하왕불리(何往不利) : 어디를 가든 이롭게 않겠는가?

433) 하구부득(何求不得) :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는가?

434) 진세(塵世) : 정신에 고통을 주는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435) 일개(一介) : 보잘것없는 한 날.

436) 하난착래(何難捉來) : 잡아오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437) 복원(伏願) : 웃어른에게 엎드려 공손히 원하다.

438) 성상(聖上) : 살아 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439) 파탈(擺脫) : 어떤 구속이나 예절로부터 벗어나다.

440) 하생(下生) :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이가윗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441) 불린지덕(不吝之德) : 개과불린(改過不吝). 잘못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히시고, 즉령(則令)⁴⁴² 소신(小臣)⁴⁴³으로 사속출세(使速出世)⁴⁴⁴케 하옵시면 진세 일개(一介)⁴⁴⁵ 퇴를 착지어정(捉至於庭)⁴⁴⁶ 하여 옥체(玉體)⁴⁴⁷ 평복(平復)하심을⁴⁴⁸ 신(臣) 소원야(所願也)⁴⁴⁹로소이다. 왕이 왈, “영준지신(英俊之臣)⁴⁵⁰이요, 충직지언(忠直之言)⁴⁵¹이라. 미재(美哉)⁴⁵²라! 미재라! 오늘날 주석지신(柱石之臣)⁴⁵³을 보았구나! 그러나 여 앓어 들으니 세상 양반께서 자래탕(湯)⁴⁵⁴을 제일 별미로 안다 하니 나가서 죽으면 그 아니 원통허뇨?” 별 주부 황공대왈(惶恐對曰)⁴⁵⁵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목을 우무렸

않다.(『서경(書經)』)

442) 즉령(則令) : 곧 영을 내리다. 증령(曾令)이나 즉령(卽令) 등을 쓸 수도 있겠다.

443) 소신(小臣) : 신하가 임금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444) 사속출세(使速出世) : 빨리 세상에 나가게 하다.

445) 일개(一介) : 보잘것없는 한 날.

446) 착지어정(捉至於庭) : 잡아서 조정에 이르게 하다.

447) 옥체(獄體) : 임금의 몸.

448) 평복(平復)하심을 :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되심을.

449) 소원야(所願也) : 원하는 바이다.

450) 영준지신(英俊之臣) : 영민하고 준수한 신하. 영준지사(英俊之士).

451) 충직지언(忠直之言) : 충직한 말.

452) 미재(美哉) : 아름답도다.

453) 주석지신(柱石之臣) : 나라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신하.

454) 자래탕(湯) : ‘자라탕(湯)’의 강원 방언.

455) 황공대왈(惶恐對曰) : 위엄이나 지위 따위에 눌리어 두려운 상태로 대답하여 이르기름.

다⁴⁵⁶) 늘였다 진퇴(進退)⁴⁵⁷)를 맘대로 하옵고, 홍문연(鴻門宴)⁴⁵⁸)
 변쾌(樊噲)⁴⁵⁹) 쓰던 도리⁴⁶⁰) 방패 같사옵고,⁴⁶¹) 또한 수족이 너⁴⁶²)
 이오라, 강상의 등덩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잘하와⁴⁶³) 인간 봉패(逢
 敗)⁴⁶⁴)는 없사오나, 해중지소생(海中之所生)⁴⁶⁵)으로 토끼 얼굴을 모
 르오니, 그 화상(畫像)⁴⁶⁶)이나 자세히 그려주옵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중중모리]

화공(畫工)⁴⁶⁷)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 불러들여 토끼 화상

456) 우무렸다 : 우므렸다. 물체의 거죽을 안으로 오목하게 패어 들어가게 했
 다.

457) 진퇴(進退) :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다.

458) 홍문연(鴻門宴) : 중국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패공이 홍구의 군문에서
 가진 잔치.

459) 변쾌(樊噲) : 중국 한나라 고조 때의 공신(기원전 ?~기원전 189). 기원
 전 206년에 홍문(鴻門)의 회합에서 위급한 처지에 놓였던 유방을 구하여 후
 에 유방이 왕위에 오르자 장군이 되었다.

460) 도리 : ‘둘레’의 옛말인 듯하다.

461) 같사옵고 : 사설에 따라, ‘졌사옵고’를 쓰기도 한다.

462) 너 : 그 수량이 넷임을 나타내는 말. 넷.

463) 잘하와 : ‘-와’는 공손함을 나타내는 어미 ‘-오-’에 어미 ‘-아’가 결합
 한 말.

464) 봉패(逢敗) : 낭패를 당하다.

465) 해중지소생(海中之所生) : ‘해중소생(海中所生)’인 듯하다. 바다에서 나
 는 생물.

466) 화상(畫像) :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형상.

을 그린다. 연(燕) 소왕(昭王)⁴⁶⁸ 황금대(黃金臺)⁴⁶⁹ 미인 그리던
 화공. 남극⁴⁷⁰ 천자(天子)⁴⁷¹ 능허대(凌虛臺)⁴⁷² 일월(日月) 그리던
 명화사(名畫師).⁴⁷³ 동정유리(洞庭琉璃)⁴⁷⁴ 청홍연(靑紅硯),⁴⁷⁵ 금

467) 화공(畫工) : 예전에, ‘화가’를 이르던 말.

468) 연(燕) 소왕(昭王) : 소양왕(昭襄王) 희직(姬職, 기원전 ?~기원전 279).
 중국 전국 시대의 연나라 군주이다. 즉위 초에 황금대를 짓고 인재를 구했다.
 악의(樂毅) 등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연나라를 부흥하였다.

469) 황금대(黃金臺) : 중국 베이징 부근에 있던 높은 대(臺). 전국 시대에
 연나라의 소왕이 구축하여 그 건물 안에 천금(千金)을 두고 천하의 현자(賢
 者)를 불러들였다.

470) 남극 : ‘남극노인(南極老人)’일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남극성(南極星)
 의 화신(化身)이라고 생각한 노인. 남극성이 나타나면 태평하고 나타나지 않
 으면 전란이 있으며, 사람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였다.

사실에 따라, ‘난거(鸞車)’ 등을 쓰기도 한다. 특히, 중국의 순(舜)임금이 타
 던 수레를 ‘난거’라고 한다.

471) 천자(天子) : ‘월궁천자(月宮天子)’일 수 있다. 월궁전 속에 살며 아래를
 지키는 신. 달을 차지하여 사천하(四天下)를 비추며 많은 천녀(天女)를 거느
 린다고 한다. 또는, ‘일광천자(日光天子)’일 수 있다. 십이천에서 아래를 지키
 는 신.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일륜(日輪)을 궁전으로 한다. 살빛은 붉으며,
 하늘 옷을 입고 양손에 연꽃을 쥐고, 오적마(五赤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온
 천하를 돌아본다고 한다.

참고로, 안동 봉정사 지조암 칠성전 벽화에 ‘남극노인’과 ‘월궁천자’가 ‘북극
 진군(北極眞君)’과 ‘일궁천자(日宮天子, 일광천자)’와 마주해 그려져 있다.(노
 재학, 『산사 명작』, 불광출판사, 2022, 398~399쪽 등 참고)

472) 능허대(凌虛臺) : 송(宋)나라 진희량(陳希亮)이 봉상의 태수로 있을 때
 관사 후원에 지은 누대로, 이곳에서 남산(南山)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고 기러
 기를 쏘며 풍악을 즐겼는데, 그때의 광경을 묘사한 것으로 소식(蘇軾)의 ‘능
 허대기(凌虛臺記)’가 전한다.

수추파(錦水秋波)⁴⁷⁶ 거북 연적(硯滴),⁴⁷⁷ 오징어로 먹 갈아 양두(兩頭) 화필(畫筆)⁴⁷⁸을 덩뻑 풀어 단청(丹青) 채색(彩色)을 두루 문혀 백릉설화간지상(白綾雪花簡紙上)⁴⁷⁹의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 명산 승지(勝地)⁴⁸⁰ 간에 경개(景概)⁴⁸¹ 보던 눈 기려,⁴⁸² 난초 지초(芝草) 윈갓⁴⁸³ 향초(香草)⁴⁸⁴ 꽃 따먹던 입 그리고, 두견(杜

473) 명화사(名畫師) : 이름난 화사(畫師). ‘화사’는 예전에, ‘화가’를 이르던 말.

474) 동정유리(洞庭琉璃) : 동팅호(洞庭湖, 동정호)처럼 맑고 아름다운 유리. 사설에 따라, ‘동정옥 유리’를 쓰기도 한다.

아니면, ‘동작와(銅雀瓦)’나 ‘동작연(銅雀硯)’이나 ‘동작와연(銅雀瓦硯)’의 변형일 수도 있다. 중국 삼국 시대에, 조조가 쌓은 동작대(銅雀臺)의 지붕을 이었던 기와. 잣물을 덮어 만들었는데 이것을 벼루로 하여 먹을 갈면 물이 전혀 스미지 않으므로 보배롭게 여겼다.

475) 청홍연(靑紅硯) : 청색에 홍색이 섞인 벼루.(이희승, 「朝鮮文學研究鈔 (1) 歌詞「토끼화상」의解說」, 『문장』 제1권 제1호, 문장사, 1939 등 참고)

476) 금수추파(錦水秋波) :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조선(朝鮮) 이세귀(李世龜)의 시에서 “금수추파함백빈(錦水秋波涵白蘋, 비단 같은 가을 물결이 흰 마름꽃을 적시다)”을 따온 듯하다. (한시 - 15. 1. 참고)

477) 연적(硯滴) : 벼루에 먹 갈 때 쓰는, 물을 담아 두는 그릇. 보통은 도자기로 만들지만 석불이나 옥, 돌 따위로도 만든다.

478) 양두(兩頭) 화필(畫筆) : 화필이 양쪽으로 달린 붓.

479) 백릉설화간지상(白綾雪花簡紙上) : 흰빛의 얇은 비단과 설화지의 좋은 편지 종이 위.

480) 승지(勝地) : 경치가 좋은 곳.

481) 경개(景概) :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

482) 기려 : ‘그려’의 경기, 경남 방언.

鶻)485) 앵무(鸚鵡)486) 지지 울 제 소리 듣던 귀 그려, 봉래(蓬萊)487) 방장(方丈)488) 운무(雲霧)489) 중의 내490) 잘 말던 코 그리고, 만화방창(萬化方暢)491) 화림(花林)492) 중 뛰어가든 발 그려, 대한엄동설한풍(大寒嚴冬雪寒風)493) 방풍(防風)허든494) 털 그리고, 신농씨(神農氏) 백초(百草) 약의 이슬 털든 꼬리 그려, 두 귀는 종긋,495) 두 눈 도리도리, 허리 늘씬, 콩지 묘뚝, 좌편은 청산(靑山)이

483) 원갓 : ‘온갓’의 강원 방언.

484) 향초(香草) : 향기로운 풀.

485) 두견(杜鵑) : 두견과의 새. 편 날개의 길이는 15~17cm, 꽂지는 12~15cm, 부리는 2cm 정도이다. 등은 회갈색이고 배는 어두운 푸른빛이 나는 흰색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다. 여름새로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휘파람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휘파람새가 새끼를 키우게 한다.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486) 앵무(鸚鵡) : 앵무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487) 봉래(蓬萊) : 중국 전설에서 나타나는 가상적 영산(靈山). 동쪽 바다의 가운데에 있으며, 신선이 살고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한다.

488) 방장(方丈) :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동해에 있다고도 하며 지리산이라고도 한다.

489) 운무(雲霧) : 구름과 안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490) 내 :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갓 기운.

491) 만화방창(萬化方暢) : 따뜻한 봄날에 온갓 생물이 나서 자라 흐드러지다.

492) 화림(花林) : 꽃나무로 이루어진 숲.

493) 대한엄동설한풍(大寒嚴冬雪寒風) : 대한(大寒) 철에 드는 몹시 추운 눈보라.

494) 방풍(防風)허든 : 방풍(防風)하던. 바람을 막던.

495) 종긋 : ‘종긋’의 경남 방언.

요, 우편은 녹수(綠水)되, 녹수청산(綠水靑山)⁴⁹⁶에 에굽은⁴⁹⁷ 장송(長松) 휘늘어진 양류(楊柳) 속, 들랑날랑⁴⁹⁸ 오락가락 앙그주춤 섰는 모양. 아미산월(峨眉山月)의 반륜(半輪)되⁴⁹⁹들 이여서⁵⁰⁰ 더할 쏘냐. 아나, 별 주부야 니 가지고 나가거라.

[아니리]

토끼 화상(畫像) 간수(看守)할⁵⁰¹ 제, 목을 쭉 빼어 뒷덜미에 넣고 딱 오무라노니,⁵⁰² 물 한 점 젖을쏘냐? 왕이 어주(御酒)를 내려 허신 말씀. “경(卿)⁵⁰³이 세상에 나가 토끼를 잡아 과인의 병을 즉효(卽效) 혈진대,⁵⁰⁴ 수국을 반분(半分)한들⁵⁰⁵ 무슨 한이 있을꼬?”

496) 녹수청산(綠水靑山) : 푸른 산과 푸른 물이라는 뜻으로,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을 이르는 말.

497) 에굽은 : 약간 휘우듬하게 굽은.

498) 들랑날랑 :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499) 아미산월(峨眉山月)의 반륜(半輪)되 : 어메이산(峨眉山, 아미산)의 가을 반달 속 토끼. 당(唐) 이백(李白)의 시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에 나오는 “아미산월반륜추(峨眉山月半輪秋, 어메이산의 가을 달은 반달인데) 영입평강 강수류(影入平羌江水流, 평강강에 비친 달 강물과 함께 흐르누나)”를 변형했다. (한시 - 14. 4. 참고)

500) 이여서 : 이어서. ‘이어서’는, ‘이에서’의 울산 지역어. 『고향말여행.com』 참고. [방언에 관해 가르쳐 주신 은사(恩師)님께 감사 드린다.]

501) 간수(看守)할 : 물건 따위를 잘 보호하거나 보관할.

502) 오무라노니 : 오무리노니. 물체의 거죽을 안으로 오목하게 패어 들어가게 하노니.

503) 경(卿) : 임금이 이품 이상의 신하를 가리키던 이인칭 대명사.

504) ㄹ진대 : -ㄹ진대. 앞 절의 일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뒤 절 일의 조건이

별 주부 황공대왈(惶恐對曰), “어쨌든 신의 충성 보옵소서.” 사배하직(四拜下直)하고,⁵⁰⁶⁾ 저의 집 돌아와 이별을 허는디

[세마치]

“여보소 마누라.” “예이.” “나는 봉명사신(奉命使臣)⁵⁰⁷⁾으로 토끼를 구하러 세상에 나가되 마누라를 잊지 못하고 가네. 이웃집 남생이⁵⁰⁸⁾란 놈이 나와 똑같이 생겼고, 그놈이 우명하기⁵⁰⁹⁾ 짝이 없으니, 대관절 가까이 붙이들 말소.” 별 주부 암 자래⁵¹⁰⁾ 거동(舉動)⁵¹¹⁾ 보소. 물뿌리⁵¹²⁾ 같은 콧궁기⁵¹³⁾로 숨을 쉬고, 녹두(綠豆)

나 이유, 근거로 삼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장중한 어감을 띤다.

505) 반분(半分)한들 : 절반으로 나눈들.

506) 사배하직(四拜下直)하고 : 사배하직(四拜下直)하고. 네 번 절하고 작별을 고하고.

507) 봉명사신(奉命使臣) :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신.

508) 남생이 : 남생잇과의 하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진한 갈색의 딱지로 되어 있고 네발에는 각각 다섯 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다. 6~8월에 모래 속에 구멍을 파고 4~6개의 알을 낳는다. 냇가나 연못에 사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509) 우명하기 : ‘의명하기’의 평북 방언.

510) 자래 : ‘자라’의 강원, 경상, 전라, 충북, 평안, 함경, 중국 길림성, 중국 요령성, 중국 흑룡강성 방언.

511) 거동(舉動) : 몸을 움직이다. 또는 그런 짓이나 태도.

512) 물뿌리 : ‘물부리’의 울산, 의령 지역어인 듯하다. 『고향말여행.com』 등을 참고하라. ‘물부리’는, 담배를 끼워서 빠는 물건. 사설에 따라, ‘물뿌리(물에 떠 있는 식물이 물속에 내리고 있는 뿌리로 개구리밥의 뿌리 따위가 있다)’로 보기도 한다.

같은 두 눈을 깜짝거리며 책(責)하여⁵¹⁴ 이른 말이, “나리⁵¹⁵님 체(體)⁵¹⁶ 위중하시고 연기로(年既老)⁵¹⁷ 중하시거날 소년(少年) 경박자(輕薄子)⁵¹⁸의 비루(鄙陋)허신⁵¹⁹ 말씀으로 못 잊고 간다 하시니, 마음이 도리어 미안이오.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나가시면 조그막한 아녀자(兒女子)를 잊지 못하고 간단 말이 조정의 발론(發論)⁵²⁰이 되면, 만조제신(滿朝諸臣)들의 웃음 될 줄을 모르시고 노류장화(路柳牆花)⁵²¹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나리]

별 주부 대소(大笑)허며,⁵²² “충신지자(忠臣之子)⁵²³는 충신(忠臣)

513) 콧궁기 : ‘콧구멍’의 제주, 충남, 함경 방언.

514) 책(責)하여 :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어.

515) 나리 : 지체가 높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516) 체(體) : 여기서는, 귀체(貴體). 주로 편지글에서,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의 몸을 높여 이르는 말. 「〈부록 1〉 정응민 〈수궁가〉 창본(1935)」 145쪽이 “귀체”를 쓰고 있다. 이 자료는 정회석·조정희가 탈초(脫草) 하고 배연형이 감수하여, 정회석의 「정응민 가계 〈수궁가〉의 음악적 특징과 전승양상」(한양대 박사 학위 논문, 한양대, 2014)에 실린 것이다.

517) 연기로(年既老) : 나이가 이미 늙다.

518) 경박자(輕薄子) : 경박한 사람.

519) 비루(鄙陋)허신 : 비루(鄙陋)하신.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러우신.

520) 발론(發論) : 제안(提案) 또는 의논거리 따위를 말하여 드러내다.

521) 노류장화(路柳牆花) :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창녀나 기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22) 대소(大笑)허며 : 대소(大笑)하며. 크게 웃으며.

이요, 열녀지가(烈女之家)⁵²⁴의 열녀(烈女)로다. 가중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니, 내 세상에 나가 토끼잡기 무슨 걱정이 될꼬? 내 만사를 잊고 다녀오리다.” 별 주부 암 자래 문밖에까지 나오며, “창망한 진세(塵世)⁵²⁵ 간(間) 부디 평안(平安)히 다녀오오.” “그러나 이웃집 남생이를 꼭 조심하렸다.”

3. 세상으로

[중중모리]

수정문(水晶門)⁵²⁶ 밖 썩 나서 경계 무궁(無窮)⁵²⁷ 좋다. 고고천변 일륜홍(皐皐天邊一輪紅/皐皐天邊日輪紅)⁵²⁸ 부상(扶桑)⁵²⁹의 등실 높이 떠, 양곡(陽谷)⁵³⁰의 잣은⁵³¹ 안개 월봉(月峯)⁵³²으로 돌고 돌아, 예장촌(豫章村)⁵³³ 개 짓고, 회안봉(回雁峯)⁵³⁴ 구름이 떠, 노화

523) 충신지자(忠臣之子) : 충신의 자식.

524) 열녀지가(烈女之家) : 열녀의 가문.

525) 진세(塵世) : 티끌세상.

526) 수정문(水晶門) : 수정으로 만든 용궁의 문.

527) 무궁(無窮) :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 없다.

528) 고고천변일륜홍(皐皐天邊一輪紅/皐皐天邊日輪紅) : 통틀 무렵 하늘가에 떠 있는 붉은 해.

529) 부상(扶桑) : 해가 뜨는 동쪽 바다.

530) 양곡(陽谷) : 해가 처음 뜨는 곳.

531) 잣은 : ‘뻑뻑한’의 제주 방언.

532) 월봉(月峯) : 달이 뜨는 봉아리.

(蘆花)⁵³⁵ 날아서 눈 되고, 부평(浮萍)⁵³⁶은 물에 둥실 어룡(魚龍)⁵³⁷은 잠자고, 잘새⁵³⁸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洞庭如天)의 파시추(波始秋)⁵³⁹ 금수추파(錦水秋波)가 여기라. 앞밭로 벽파(碧波)⁵⁴⁰를 짚어 당겨, 뒷밭로 창랑(滄浪)⁵⁴¹을 탕탕(蕩蕩),⁵⁴² 이리 저리 저리 요리 양금⁵⁴³ 둥실 높이 떠 사면 바라봐. 지광(地廣)⁵⁴⁴

533) 예장촌(豫章村) : 예장(豫章). 한(漢)나라 때 현재 장시성(江西省, 강서성)에 설치되었던 군 이름.

534) 회안봉(回雁峯) : 중국 형산(衡山, 형산) 남쪽에 있는 봉우리, 이 봉우리가 매우 높으므로 기러기가 가을이면 이곳에 와서 이 봉우리를 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535) 노화(蘆花) : 갈대의 꽃. 솜과 같은 흰 털이 많고 부드럽다.

536) 부평(浮萍) : 개구리밥과의 여러해살이 물풀. 초록색의 작은 타원형의 모양으로, 논이나 못에서 물 위에 떠서 산다.

537) 어룡(魚龍) : 물속에 사는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538) 잘새 : 밤이 되어 자려고 등우리를 찾아드는 새.

539) 동정여천(洞庭如天)의 파시추(波始秋) : 하늘 같은 동팅호 물결이 가을을 알린다. 조선(朝鮮) 신광수(申光洙)의 시 ‘등악양루탄관산용마(登岳陽樓歎關山戎馬)’에서 “청포일상만리선(靑袍一上萬里船, 푸른 도포로 한번 만 리 뱃길에 오르니) 동정여천파시추(洞庭如天波始秋)”를 차용한 것이다. (한시 - 10. 1. 참고)

참고로, 당(唐)나라 유종원(柳宗元)의 시 ‘별사종제일(別舍弟宗一)’에 “계령장래운사묵(桂嶺瘴來雲似墨, 계령의 더운 기운 먹장구름을 일으키고) 동정춘진수여천(洞庭春盡水如天, 동팅호는 봄 가도록 물과 하늘이 닿았구나)”이라는 구절이 있기도 하다.

540) 벽파(碧波) : 푸른 파도. 또는 푸른 물결.

541) 창랑(滄浪) : 넓고 큰 바다의 맑고 푸른 물결.

542) 탕탕(蕩蕩) : ‘탕탕하다’의 어근.

은 칠백(七百) 리⁵⁴⁵ 파광(波光)은 천일색(天一色)⁵⁴⁶ 천외(天外) 무산(巫山)⁵⁴⁷ 십이봉(十二峰)⁵⁴⁸은 구름 밖에가 멀고, 해외 소상(瀟湘)⁵⁴⁹은 일천(一千) 리 눈앞의 경개(景概)로다. 오초(吳楚)는 어이허여⁵⁵⁰ 동남(東南)으로 벌였고, 건곤(乾坤)은 어이허야 일야(日夜)의 등실 높이 떠,⁵⁵¹ 낙포(洛浦)⁵⁵²로 가는 저 배, 조각달 무관

543) 양금 : 양금양금. ‘양금양금’은, 작은 동작으로 느리게 걸거나 가는 모양.

544) 지광(地廣) : 땅이 넓다. 또는 땅의 넓이.

545) 지광(地廣)은 칠백(七百) 리 : ‘동정호 칠백 리’의 변형인 듯하다. ‘동정호 칠백 리’는 막힌 곳이 없이 매우 넓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546) 천일색(天一色) : 하늘과 한 색이로다. 당나라 왕발(王勃)이 지은 ‘등왕각서(滕王閣序)’의 “낙하여고목제비(落霞與孤鶩齊飛, 지는 놀은 짝 잃은 따오기와 나란히 날고) 추수공장천일색(秋水共長天一色, 가을 강물은 끝없는 하늘과 한 색이로다)”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표현이다.

547) 무산(巫山) : ‘우산’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548) 십이봉(十二峰) : 우산(巫山, 무산) 십이봉(十二峰). 우산 십이봉은 망하(望霞)·취명(翠屏)·조운(朝雲)·송만(松巒)·집선(集仙)·취학(聚鶴)·정단(淨壇)·상승(上昇)·기운(起雲)·비봉(飛鳳)·등룡(登龍)·성천(聖泉)인데, 바로 선경을 말한다.(『방여승람(方輿勝覽)』)

시(詩) ‘무산고(巫山高)’ 등에 “무산 십이봉”이라는 어구가 나오기도 한다.

549) 소상(瀟湘) : 샹오상(瀟湘, 소상). 중국 후난성(湖南省, 호남성) 동팅호(洞庭湖) 남쪽에 있는 샹오수이강(瀟水江, 소수강)과 샹장강(湘江江, 상강강)을 아울러 이르는 이름. 부근에 경치가 아름다운 샹오상(瀟湘) 팔경(八景)이 있다.

550) 어이허여 : 어이하어. ‘어찌하어’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551) 오초(吳楚)는 어이허여 동남(東南)으로 벌였고, 건곤(乾坤)은 어이허야 일야(日夜)에 등실 높이 떠 : 당 두보(杜甫)의 ‘등악양루(登岳陽樓)’에서 “오

(武關)⁵⁵³ 속에 초(楚) 회왕(懷王)⁵⁵⁴의 원혼(冤魂)이요, 모래 속에
가만히 엮져⁵⁵⁵ 천봉만악(千峯萬嶽)⁵⁵⁶을 바라봐. 만경대(萬景
臺)⁵⁵⁷ 구름 속 학선(鶴仙)⁵⁵⁸이 놀아 있고 칠보산(七寶山)⁵⁵⁹ 비

초동남탁(吳楚東南坼 오나라 초나라가 동쪽과 남쪽에 갈라섰고) 건곤일야부
(乾坤日夜浮,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호수에 뜨네)”를 따왔다. (한시 - 7. 1.
참고)

552) 낙포(洛浦) : 낙수(洛水). 중국 허난성(河南省, 하남성) 서부에 있는 강
이름. 산시성(陝西省, 섬서성)의 동부 친링산맥(秦嶺山脈, 진령산맥)에서 발원
한 후 동류(東流)하여 허난성을 지나 황허(黃河, 황하)로 흘러 들어가며, 연안
에는 뤼양(洛陽, 낙양)과 같은 고도가 있어 사적으로도 유명하다.

553) 무관(武關) : 관문 이름. 형주 남양군(南陽郡)에 속한다. 북쪽으로는 높
은 산이 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깊은 계곡이 놓여 있어 군사상 요충지였다. 지
금의 산시성(陝西省) 상현성(商縣城) 동남쪽에 있다.

554) 초(楚) 회왕(懷王) : 회왕(懷王)은 기원전 328년에 즉위하여 기원전
296년까지 재위한 초(楚)나라 군주다. 초 회왕 30년, 진(秦)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여 8개성을 빼앗자 회왕은 내쫓았던 굴원(屈原)을 불러들였고 굴원은
제(齊)나라와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진 소왕(昭王)은 초 회왕에게
우관(武關, 무관)에서 맹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한다. 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 회왕은 우관으로 갔다가 바로 연금되고 끝내 초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진나라에서 사망한다.

555) 엮져 : ‘엮더’의 전라 방언.

556) 천봉만악(千峯萬嶽) : 높고 낮은 수많은 산봉우리.

557) 만경대(萬景臺) : 온갖 경치를 볼 수 있는 누대. 『北關酬唱錄(북관수창
록)』이라는 칠보산(七寶山) 유람 시화첩 등을 참고하면, 함경북도 칠보산의
만경대일 수도 있다.

558) 학선(鶴仙) : 학을 탄 선인(仙人).

559) 칠보산(七寶山) :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혼한 산 이름이다. 함경북도 동
해안의 남부에 있는 명산, 칠보산일 수도 있다.

로봉(毗盧峯)⁵⁶⁰은 허공에 솟아 계산파무울차아(稽山罷霧鬱嵯峨) 산은 층층 높고 경수무풍(鏡水無風)의 야자파(也自波)⁵⁶¹ 물은 출렁⁵⁶² 깊었네. 만산(滿山)⁵⁶³은 울울(鬱鬱)⁵⁶⁴ 국화는 점점(點點)⁵⁶⁵ 낙화는 동동⁵⁶⁶ 장송(長松)은 낙락(落落)⁵⁶⁷ 늘어진 잡목(雜木), 평퍼진⁵⁶⁸ 떡갈잎,⁵⁶⁹ 다리 몽동,⁵⁷⁰ 칩닝쿨,⁵⁷¹ 머루,⁵⁷² 다래,⁵⁷³ 으름닝쿨,⁵⁷⁴ 능수버들,⁵⁷⁵ 벗낭구,⁵⁷⁶ 오미자(五味子),⁵⁷⁷

560) 비로봉(毗盧峯) :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혼한 봉우리 이름이다. 『北關酬唱錄(북관수창록)』이라는 칠보산 유람 시화첩 등을 참고하면, 함경북도 칠보산의 비로봉일 수도 있다.

561) 계산파무울차아(稽山罷霧鬱嵯峨) 산은 층층 높고 경수무풍(鏡水無風)의 야자파(也自波) : 안개가 걷힌 회계산 울창하고도 높고 험해(稽山罷霧鬱嵯峨) 거울 같은 물 바람 없이도 절로 물결 인다(鏡水無風也自波). 당나라 시인 하지장(賀知章)의 ‘채련곡(採蓮曲)’에서 따온 것이다. (한시 - 24. 1. 참고)

562) 출렁 : ‘술렁’으로 부르기도 한다.

563) 만산(滿山) : 온 산에 가득하다. 또는 그린 산.

564) 울울(鬱鬱) : 울울(鬱鬱)하다. 나무가 뻗뻗하게 들어서 매우 무성하다.

565) 점점(點點) : 점을 찍은 듯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양.

566) 동동 : 작은 물체가 떠서 움직이는 모양.

567) 낙락(落落) : 낙락(落落)하다. 큰 소나무의 가지 따위가 아래로 축축 늘어져 있다.

568) 평퍼진 : 옆으로 퍼진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널찍한.

569) 떡갈잎 : 떡갈나무의 잎.

570) 다리 몽동 : 다래 망울. 다래 몽울, 다래몽두리, 다래몽디이. ‘다래몽디이’는, ‘다래나무의 순’을 뜻하는 경북 방언.

571) 칩닝쿨 : 칩의 벌은 닝쿨.

572) 머루 : 포도과의 낙엽 활엽 덩굴나무.

치자(梔子),⁵⁷⁸⁾ 감과(柑果),⁵⁷⁹⁾ 대추,⁵⁸⁰⁾ 갖은⁵⁸¹⁾ 과목(果木)⁵⁸²⁾ 얼크러지고⁵⁸³⁾ 뒤틀어져서⁵⁸⁴⁾ 구부⁵⁸⁵⁾ 칭칭 감졌다. 또 한 경개를 바라봐. 치어다보니⁵⁸⁶⁾ 만학천봉(萬壑千峰)⁵⁸⁷⁾이요, 내려 굽어보니 백

573) 다래 : 다래과의 낙엽 활엽 덩굴나무.

574) 으름덩굴 : 으름덩굴. 으름덩굴과의 낙엽 활엽 덩굴나무.

575) 능수버들 : 버드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10~20미터이고 가지가 길게 늘어지며, 잎은 피침 모양 또는 좁은 피침 모양이다. 4월에 꽃이 피고 열매는 삭과(蒴果)로 여름에 맺는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개울가나 들에 난다.

576) 뽕나무 : 뽕나무. ‘낭구’는, ‘나무’의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충청, 평안, 함경, 황해 방언.

577) 오미자(五味子) : 오미자나무의 열매. 기침과 갈증 또는 땀과 설사를 멎게 하는 데에 쓰인다.

578) 치자(梔子) : 치자나무의 열매.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 여러 가지 출혈증과 황달, 오줌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증세에 쓴다.

579) 감과(柑果) : 액과(液果)의 하나. 속 과피의 일부가 주머니처럼 생기고 속에 액즙이 들어 있는 과일을 이른다. 귤, 유자 따위가 있다.

580) 대추 : 대추나무의 열매. 모양이 새알 같으며 속에 단단한 씨가 들어 있다. 익으면 껍질이 붉어지며 맛이 달다.

581) 갖은 : 골고루 다 갖춘. 또는 여러 가지의.

582) 과목(果木) :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꾸는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583) 얼크러지고 : 일이나 물건 따위가 서로 얽히고.

584) 뒤틀어져서 : 휘거나 비뚤어져서.

585) 구부 : ‘굽이’의 경남 방언.

586) 치어다보니 : ‘쳐다보니’의 본말.

587) 만학천봉(萬壑千峰) : 첩첩이 겹쳐진 깊고 큰 골짜기와 수많은 산봉우리.

사지(白沙地)⁵⁸⁸라. 허리 굽고 늙은 장송 광풍(狂風)⁵⁸⁹을 못 이기
 어 우줄우줄⁵⁹⁰ 춤을 출 제, 또 한 경개를 바라봐. 원산(遠山)⁵⁹¹은
 암암(巖巖)⁵⁹² 근산(近山)⁵⁹³은 중중(重重)⁵⁹⁴ 기암(奇巖)⁵⁹⁵은 층
 층(層層)⁵⁹⁶ 뒤편이⁵⁹⁷ 울어 천 리 시내는 청산(靑山)으로 돌고, 이
 골물⁵⁹⁸이 쭈루루루 저골물이 팔팔 열의 열두 골물이 한데⁵⁹⁹로
 합수(合水)쳐⁶⁰⁰ 천방(天方)자 지방(地方)자⁶⁰¹ 얼터져⁶⁰² 굽부
 쳐⁶⁰³ 방울이 버름져⁶⁰⁴ 건너 병풍석(屏風石)⁶⁰⁵에다 마주 광광 마

588) 백사지(白沙地) : 흰모래가 깔려 있는 땅.

589) 광풍(狂風) :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

590) 우줄우줄 : 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가볍게 울동적으로 자꾸 움직이는
 모양.

591) 원산(遠山) : 멀리 있는 산.

592) 암암(巖巖) : 암암(巖巖)하다. 솟은 모양이 높고 험하다.

593) 근산(近山) : 가까이 있는 산.

594) 중중(重重) : 중중(重重)하다. 겹겹으로 겹쳐져 있다.

595) 기암(奇巖) : 기이하게 생긴 바위.

596) 층층(層層) :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인 층.

597) 뒤편이 : 메사니. ‘메아리’의 경남, 전남 방언.

598) 골물 :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599) 한데 : 한곳이나 한군데.

600) 합수(合水)쳐 : 여러 갈래의 물이 한데 모여 세차게 흘러.

601) 천방(天方)자 지방(地方)자 : 천방지방(天方地方). 너무 급하여 허둥지
 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602) 얼터져 : 얼터구져. 굴곡져. ‘얼터구’는, ‘굴곡’의 전라 방언.

603) 굽부쳐 : 구부져, 굽이져. ‘구부’는, ‘굽이’의 경남 방언.

604) 버름져 : 거품져. ‘버름’은, ‘거품’의 경상, 전라, 충남 방언.

주 때려 산이 울렁거리려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 있나, 아마도 네 로구나 이런 경계가 또 있나.

[아나리]

그때여 별 주부는 운천경(雲千頃)⁶⁰⁶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전후불견수목처(前後不見樹木處)⁶⁰⁷의 분간(分揀)할⁶⁰⁸ 길이 전혀 없고, 허다(許多)히⁶⁰⁹ 기는 짐생⁶¹⁰ 상면부지⁶¹¹ 허니, 토끼 얼굴을 알 수 있나, 한편을 바라본즉, 날짐생⁶¹²들이 모두 모아서 저희들끼리 상좌(上座)⁶¹³ 다툼을 하고 노는디, 봉황(鳳凰)새⁶¹⁴ 나왔으

605) 병풍석(屏風石) : 능(陵)을 보호하기 위하여 능의 위쪽 둘레에 병풍처럼 둘러 세운 긴 네모꼴의 넓적한 돌. 곁에 12신(神)이나 꽃무늬 따위를 새긴다.

606) 운천경(雲千頃) : 천 이랑의 구름. 사설에 따라, ‘운층경’을 쓰기도 한다.

607) 전후불견수목처(前後不見樹木處) : 전혀 보지 못한, 나무가 있는 곳.

608) 분간(分揀)할 : 사물이나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따위와 그 정체를 구별하거나 가려서 알.

609) 허다(許多)히 : 수효가 매우 많게.

610) 짐생 : 짐승.

611) 상면부지 : 생면부지(生面不知).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그런 관계.

612) 날짐생 : ‘날짐승’의 전남 방언.

613) 상좌(上座) : 윗사람이 앉는 자리.

614) 봉황(鳳凰)새 : 예로부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수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고 하는데, 성천자(聖天子) 하강의 징조로 나타난다고 한다. 전반신은 기린, 후반신은 사슴, 목은 뱀, 꼬리는 물고기, 등은 거북, 턱은 제비, 부리는 닭을 닮았다고 한다. 깃털에는 오색 무늬가

며⁶¹⁵) 허는 말이,

[중모리]

이내⁶¹⁶) 한 말 들어 보소, “순(舜)인금⁶¹⁷) 남훈전(南薰殿)⁶¹⁸)의 오현금(五絃琴)⁶¹⁹) 가지시고 소소구성(韶簫九成)⁶²⁰) 노래할 제, 봉산(鳳山) 높은 봉(峰) 아침별에 내가 날아 울음을 울어⁶²¹) 팔백년 문물(文物)⁶²²)이 울울(鬱鬱)할⁶²³) 제, 주(周) 문무(文武)⁶²⁴) 나 계시

있고 소리는 오음에 맞고 우렁차며, 오동나무에 깃들이어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영천(靈泉)의 물을 마시며 산다고 한다.

615) 나았으며 : 안에서 밖으로 또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616) 이내 : ‘나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617) 순(舜)인금 : 순(舜)임금. 중국 태고(太古)의 천자 ‘순’을 임금으로 받들어 이르는 말.

618) 남훈전(南薰殿) : 당(唐) 나라 때에 있었던 대궐 이름으로 순(舜) 임금이 지은 시가(詩歌)의 ‘남풍지훈(南風之薰)’에서 따온 명칭이다.

619) 오현금(五絃琴) : 다섯 줄로 된 고대 현악기의 하나. 중국의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하며, 칠현금의 전신이다.

620) 소소구성(韶簫九成) : 소소는 순(舜)의 음악 이름이고, 구성은 9장으로 연주한다는 말이다. 『서경(書經)』 익직(益稷)에 “소소의 아홉 악장을 연주하자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다(簫韶九成, 鳳凰來儀)”라는 내용이 보인다.

621) 봉산(鳳山) 높은 봉(峰) 아침별에 내가 날아 울음을 울어 : 봉명조양(鳳鳴朝陽). 봉황새가 산의 동쪽에서 운다는 뜻으로, 천하가 태평할 길조(吉兆)를 이르는 말.

『시경(詩經)』 권아(卷阿)에 “봉황명의(鳳凰鳴矣, 봉황새가 울어대니) 우피고강(于彼高岡, 저 높은 뫄이로다) 오동생의(梧桐生矣, 오동나무가 자라나니) 우피조양(于彼朝陽, 저 별바른 양지쪽이로다)”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한시 - 1. 1. 참고)

고, 만고(萬古) 대성(大聖)⁶²⁵ 공부자(孔夫子)⁶²⁶가 내 앞에서 탄생
 하고, 천 길이나 높이 날아 기불탁속(飢不啄粟)⁶²⁷ 하여 있고, 영주
 산(瀛洲山)⁶²⁸ 높은 봉을 기엄기엄⁶²⁹ 기어올라 소상반죽(瀟湘斑
 竹)⁶³⁰ 좋은 열매 내 양식을 삼았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아니리]

까마귀 나왔으며, “그 다음 내가 상좌 앉을 일이 있소.” 부영이 꾸
 짓어 허는 말이, “네 이놈 온 몸동이⁶³¹ 시켜면 니가 어디 상좌를
 헌단 말이냐?” 까마귀 들은 체도 아니 하고,

622) 팔백년 문물(文物) :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256년까지 중국을 지배
 하던 주나라의 문물.

『국어(國語)』 주어(周語)에 “주나라가 일어날 때에 기산에서 봉황이 울었
 다(周之興也 鸞鷲鳴於岐山)”라고 하였다. 문왕은 기산 아래에서 주나라 왕업
 을 일으켰다.

623) 울울(鬱鬱)할 : ‘울창(鬱蒼)할’의 뜻인 듯하다. 매우 아름답고 왕성했다
 는 비유인 듯하다.

624) 주(周) 문무(文武) : 주나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

625) 대성(大聖) : ‘공자’를 높여 이르는 말.

626) 공부자(孔夫子) : ‘공자’를 높여 이르는 말.

627) 기불탁속(飢不啄粟) : (봉황은) 좁쌀을 쪼아 목지 않는다.

628) 영주산(瀛洲山) :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산. 이 이름을 본떠 우리나라의
 한라산을 영주산이라 이르기도 한다.

629) 기엄기엄 : 자꾸 기어가거나 기는 듯이 움직이는 모양.

630) 소상반죽(瀟湘斑竹) : 중국 샹오상(瀟湘) 지방에서 나는, 아롱무늬가 있
 는 대.

631) 몸동이 : ‘몸뚱이’의 경남 방언.

[엇모리]

“이내 근본 들어라, 이내 근본 들어라. 내 입부리⁶³²가 길기는 월왕(越王) 구천(句踐)⁶³³이 방불(彷彿)하고,⁶³⁴ 이 몸이 검기는 산음(山陰)땅⁶³⁵ 지내다가 왕희지(王羲之)⁶³⁶ 세연지(洗硯池)⁶³⁷의 풍덩 빠져 먹물 들어 이 몸이 검어 있고, 은하수(銀河水) 생긴 후의 견우 직녀(牽牛織女)⁶³⁸ 건네주고, 오난 길의 적벽강(赤壁江)⁶³⁹ 성희(星

632) 입부리 : ‘부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633) 구천(句踐) :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월(越)나라의 제후. 재위 기원전 496~기원전 465. 아버지 합려(闔閭)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던 오(吳)나라의 왕 부차(夫差)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뒤 쓸개를 맛보며 국력을 키워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634) 방불(彷彿)하고 : 방불(彷彿)하고. 거의 비슷하고.

635) 산음(山陰)땅 : 산음현(山陰縣). 지금의 저장성(浙江省, 절강성) 소흥시(紹興市). 월나라가 자리잡고 있던 땅이었다. 왕희지(王羲之)가 ‘난정서(蘭亭序)’를 썼던 곳이기도 하다.

636) 왕희지(王羲之) : 중국 진(晉)나라의 서예가(307~365). 자는 일소(逸少). 우군 장군(右軍將軍)을 지냈으며 해서·행서·초서의 3체를 예술적 완성의 영역까지 끌어올려 서성(書聖)이라고 불린다. 작품에 「난정서(蘭亭序)」, 「상란첩(喪亂帖)」, 「황정경(黃庭經)」, 「악의론(樂毅論)」 따위가 있다.

637) 세연지(洗硯池) : 벼루를 씻은 연못. 왕희지는 글씨 연습을 못가에서 하고, 연못의 물로 벼루를 씻었는데, 그 횃수가 하도 많아서 연못물이 시커멓게 됐다고 한다.

638) 견우직녀(牽牛織女) : 견우와 직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639) 적벽강(赤壁江) : ‘적벽(赤壁)’은 후베이성(湖北省,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동북쪽, 양쯔강(揚子江, 양자강)의 남안(南岸)에 있는 절벽이다. 이곳에서 삼국(三國) 시대에 주유(周瑜)가 조조(曹操)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稀)⁶⁴⁰헐 제, 남비(南飛)⁶⁴¹ 둥실 떠 삼국(三國)⁶⁴² 흥망(興亡)을 의론(議論)허고,⁶⁴³ 천하지(天下之)⁶⁴⁴ 반포은(反哺恩)⁶⁴⁵을 내 홀로 알았으니 효도(孝道)는 나뿐이라, 아이고 서른지고⁶⁴⁶ 아이고 서른지고.”

[자진모리]

부영이 허허 웃고, “니 암만 그런데도 네 심정(心情) 불측(不測)허여⁶⁴⁷ 과붓집 남기⁶⁴⁸ 앓어 까옥까옥⁶⁴⁹ 또락또락 괴이(怪異)한⁶⁵⁰

640) 성희(星稀) : 월명성희(月明星稀). 달이 밝으니 별이 드물다. 어진 사람이 나오면 소인들은 숨어 버린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조조의 ‘단가행(短歌行)’에 나오는 “월명성희 오작남비(烏鵲南飛)” 구절에서 유래한다. (한시 - 21. 1. 참고)

641) 남비(南飛) : 오작남비(烏鵲南飛). 까막까치는 남으로 날아오누나. 조조의 ‘단가행(短歌行)’ 구절에서 유래한다. (한시 - 21. 1. 참고)

642) 삼국(三國) : 중국 후한 말기에 일어난 세 나라. 위, 오, 촉을 이른다.

643) 의론(議論)허고 : 의론(議論)하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하고.

644) 천하지(天下之) : 천하의.

645) 반포은(反哺恩) : 반포보은(反哺報恩).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보답한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함으로써 효를 행함을 이르는 말.

646) 서른지고 : 서른지고. ‘서러운지고’의 강원, 경상, 전남, 충청 방언.

647) 불측(不測)허여 : 불측(不測)하여.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꾀뚝하고 영큼하여.

648) 남기 : ‘나무’의 경기, 경북, 전남, 충남, 함남 방언.

649) 까옥까옥 : 까마귀가 잇따라 우는 소리.

음성으로 수절(守節)⁶⁵¹ 과부(寡婦)⁶⁵²를 유인(誘引)⁶⁵³하고, 네 소리 짹짹 나면 세상 인간이 미워라 돌을 들어 날리울⁶⁵⁴ 제, 너 날자 배 떨어지니⁶⁵⁵ 세상의 미운 놈은 너밖에 또 있느냐? 공동묘지나 찾어가지 이 좌석이 부당하다.”

[아니리]

까마귀 무색(無色)을 당해 나왔으며, “내 죄상(罪狀)⁶⁵⁶이 그런다⁶⁵⁷ 허드라도 이 만좌(滿座)⁶⁵⁸ 중(中)에 그런 망신(亡身)이 어디가 있단 말이오?” 또 한편을 바라본즉, 그 곳에는 모다⁶⁵⁹ 길짐생⁶⁶⁰들이 모여드는디,

[단중모리]

650) 괴이(怪異)한 : 정상적이지 않고 별나며 괴상한.

651) 수절(守節) : 정절을 지키다.

652) 과부(寡婦) :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

653) 유인(誘引)하고 : 유인(誘引)하고.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끌어내고.

654) 날리울 : 날릴.

655) 너 날자 배 떨어지니 :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656) 죄상(罪狀) :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657) 그런다 : ‘그리한다’의 준말.

658) 만좌(滿座) : 모든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

659) 모다 : ‘모두’의 전남 방언.

660) 길짐생 : 길짐승. 기어 다니는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소슬양풍석양춘(蕭瑟涼風夕陽春)⁶⁶¹의 여러 짐생 다 모인다. 공부자(孔夫子)⁶⁶² 작춘추(作春秋) 절필(絶筆)허든 기린(麒麟)⁶⁶³이며, 삼군(三軍)⁶⁶⁴ 삼영(三營)⁶⁶⁵ 거동(舉動) 시 천자(天子)⁶⁶⁶ 옥련(玉輦)⁶⁶⁷의 코끼리, 옥경(玉京)⁶⁶⁸ 선관(仙官)⁶⁶⁹ 승필⁶⁷⁰ 허니 풍채

661) 소슬양풍석양춘(蕭瑟涼風夕陽春) : 으스스하고 쓸쓸하며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봄. 사설에 따라, ‘소슬양풍석양천(蕭瑟涼風夕陽天, 으스스하고 쓸쓸하며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을 쓰기도 한다.

662) 공부자(孔夫子) : ‘공자’를 높여 이르는 말.

663) 작춘추(作春秋) 절필(絶筆)허든 기린(麒麟) : ‘획린(獲麟)’이란 일구(一句)에서 붓을 놓은 것은 획린에 느낌이 일어 『춘추』의 저작(著作)을 시작하셨으니 ‘획린’으로 끝을 맺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다(絶筆於獲麟之一句者 所感而起 固所以爲終也). (「春秋左氏傳序(춘추좌씨전서)」)

664) 삼군(三軍) : 중국 주나라 때, 대국(大國)의 제후가 가진 군대.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665) 삼영(三營) :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세 군영(軍營)의 문.

666) 천자(天子) : 천제(天帝)의 아들, 즉 하늘의 뜻을 받아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군주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이르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또는 왕(王)이라고 하였다.

667) 옥련(玉輦) : ‘연’을 높여 이르던 말.

668) 옥경(玉京) : 하늘 위에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가상적인 서울.

669) 선관(仙官) : 선경(仙境)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신선.

670) 승필 : 승피(乘彼)의 변형인 듯. ‘승피’는, 승피백운(乘彼白雲). 『장자(莊子)』 「천지(天地)」에 “저 흰 구름을 타고 상제의 고향에 이른다(乘彼白雲 至於帝鄉)”라는 구절이 보인다.

사설에 따라, ‘승필(乘匹, 주나라의 수레)’이나 ‘승필(承弼, 보필)’을 쓰기도 한다. ‘승필(承弼)’은, 『서경(書經)』 「경명(罔命)」에 나오는 말이다. 임금의 뜻을 받들면서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직책을 말하며, 보통은 시종신(侍從臣)을 가리킨다.

(風采) 좋은 사자(獅子)로구나. 출림(出林)⁶⁷¹ 풍종(風從)⁶⁷² 표범이며, 비웅비표(非熊非豹)⁶⁷³ 곰이요,⁶⁷⁴ 복희씨(伏羲氏/伏犧氏)⁶⁷⁵ 양희생(養犧牲)⁶⁷⁶의 길러 내든 노양(老羊),⁶⁷⁷ 산양,⁶⁷⁸ 창해력사(倉海力士) 박랑사(博浪沙)⁶⁷⁹ 저격(狙擊)허든⁶⁸⁰ 다람이⁶⁸¹며, 강

671) 출림(出林) : 숲속에서 나다.

672) 풍종(風從) : 운종룡(雲從龍), 풍종호(風從虎).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른다. 즉, 용이 있는 곳에는 구름이 일어나고, 호랑이가 가는 곳에는 바람이 일어난다는 뜻. 『주역(周易)』 건괘(乾卦) 문언(文言)의 한 구절이다.

사실에 따라, ‘풍조(風操)’를 쓰기도 한다. ‘풍조’는, 높은 지조.

673) 비웅비표(非熊非豹) : 비웅비비(非熊非羆)의 변형.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등의 “비룡비리 비웅비비(非龍非虵 非熊非羆, 용도 아니요 이무기도 아니요 곰도 아니요 큰 곰도 아니오)”에서 따왔다.

주 문왕(周文王)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가면서 점을 쳐보니, 점사(占辭)에, “용도 아니요 이무기도 아니요 범도 아니요 큰곰도 아니오(非龍非虵 非虎非羆), 얻을 것은 패왕의 보배다”라고 했는데, 과연 웨이수이(渭水, 위수) 가에서 강태공(姜太公)을 만나 그를 후거(後車)에 싣고 돌아왔던 데서 온 말.(『사기(史記)』 참고)

674) 곰이요 : 비웅비비에 나오는 그 웅(熊, 곰)이라는 뜻.

675) 복희씨(伏羲氏/伏犧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676) 양희생(養犧牲) : 희생(가축)을 기르다. 양희생이포주(養犧牲以庖廚) 고왈포희(故曰庖犧), 희생(犧牲)을 길러 포주(庖廚)를 담당했으므로 포희씨로 하였다고 한다. 당(唐)나라 사마정(司馬貞)의 삼황본기(三皇本紀) 등 참고.

677) 노양(老羊) : 늙은 양.

678) 산양 : 소양(小羊, 새끼 양)의 변형인 듯.

679) 창해역사(滄海力士) 박랑사(博浪沙) : 장량(張良)이 한(韓)나라의 정승

수동류원야성(江水東流猿夜聲)⁶⁸² 슬피 우는 잔나비,⁶⁸³ 꼬 많은 여우, 뿔 좋은 사슴, 돈피,⁶⁸⁴ 사피(斜皮),⁶⁸⁵ 산양, 노루,⁶⁸⁶ 날담부,⁶⁸⁷ 길담부,⁶⁸⁸ 날랜 토끼, 너구리, 오소리, 멧돌⁶⁸⁹까지 모두 다

의 아들로서 한나라가 진시황(秦始皇)에게 멸망당한 것을 원한으로 여겨, 그 원수를 갚으려고 창해역사(滄海力士)라는 힘센 장사를 시켜 진시황이 지방을 순행하면서 박랑사(博浪沙)를 지날 때, 모래 속에 얹드렸다가 별안간 일어나서 큰 철퇴로 진시황이 탄 마차를 쳐부셨으나 불행히도 그것은 진시황이 탔던 마차가 아니었다.

680) 저격(狙擊)히든 : 저격(狙擊)하던. 일정한 대상을 노려서 치거나 총을 쏘던.

681) 다람이 : 다람쥐의 전라도 사투리인 듯.

682) 강수동류원야성(江水東流猿夜聲) : 시선(詩仙) 이백(李白)의 ‘양양가(襄陽歌)’에서 “양왕운우금안재(襄王雲雨今安在, 양왕의 운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강수동류원야성(江水東流猿夜聲,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원숭이는 밤에 슬피 우누나)”을 따왔다. (한시 - 14. 5. 참고)

683) 잔나비 : ‘원숭이’의 강원, 제주, 충북 방언. 제주 지역에서는 ‘즌나비’로도 적는다.

684) 돈피 : ‘담비’의 옛말. 또는, ‘담비 털가죽’의 옛말. 한편, ‘돈피(獬皮)’는 사피(斜皮)의 유의어이기도 하다.

685) 사피(斜皮) :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고급 모피로 인정받고 있으며 품질에 따라 검은담비의 모피인 ‘잘’을 상등으로 치고, 노랑담비의 모피인 ‘돈피’와 유럽소나무담비의 모피인 ‘초서피’를 중등으로 치며, 흰담비의 모피인 ‘백초피’를 하등으로 친다.

사실에 따라, ‘산피(山皮)’나 ‘서피(黍皮,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를 쓰기도 한다.

686) 산양, 노루 : ‘사향(麝香)노루’의 변형인 듯.

687) 날담부 : 날담비. ‘담부’는, ‘담비’의 강원, 충북 방언.

688) 길담부 : 길담비. ‘담부’는, ‘담비’의 강원, 충북 방언.

모일 적의 이런 장관이 또 있느냐?

[아니리]

“자 좌중(座中)⁶⁹⁰에 통할 말 있소. 우리가 연년(年年)이 얹어 노는 자리에 상좌 없어 무미(無味)허고,⁶⁹¹ 석양쯤 되면 어른 존장 몰라 보고 서로 물고, 차고, 뜯고, 수라장이 벌어지니, 오날은 연치(年齒)⁶⁹²를 따져 상좌(上座)⁶⁹³ 한 분으로 모셔놓고 좀 규모 있게 놀다 갈립시다.” “그 옳은 말씀이오. 그러면 우리가 나이 자랑을 해 봐야제, 저기 장(獐) 도감(都監)⁶⁹⁴ 노루는 언제 낫소?” 노루가 깡깡⁶⁹⁵ 뛰어 나왔더니, 나이 자랑을 허것다.

[중모리]

“이내 나이 들어 보소. 이내 나이를 들어 보소. 기경선자(騎鯨仙

689) 멧뜰 : ‘멧돼지’의 전남, 제주 방언.

690) 좌중(座中) :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 또는 모여 앉은 여러 사람.

691) 무미(無味)허고 : 무미(無味)하고. 재미가 없고.

692) 연치(年齒) : ‘나이’의 높임말.

693) 상좌(上座) :윗사람이 앉는 자리.

694) 장(獐) 도감(都監) : ‘도감 노릇을 하는 노루’라는 뜻으로, 노루를 의인화한 표현. 또는, 장도감(張都監)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큰 말쑥이나 풍파를 이르는 말. 『수호지』에 나오는 장도감의 집이 풍파를 만나서 큰 피해를 입고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695) 깡깡 : 짧은 다리를 모으고 가볍게 내뛰는 모양. ‘강장’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子)⁶⁹⁶ 이태백(李太白)⁶⁹⁷이 날과 둘이 동접(同接)하야⁶⁹⁸ 광산(匡山)⁶⁹⁹ 십년(十年) 글을 짓다, 태백은 인재로서 옥경(玉京)으로 승천(昇天)하고,⁷⁰⁰ 나는 미물(微物) 짐생으로 이미 미천(微賤)허계⁷⁰¹ 되었으나, 태백과 날과 연갑(年甲)⁷⁰²이 되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아니리]

달(獺)⁷⁰³ 파총(把摠)⁷⁰⁴ 너구리 썩 나왔더니마는, “자네 나이 들어 보니 내 큰아들하고 벗 못 하게 생겼네.” “아니 그러면 달 파총은 언제 낫는가?”

696) 기경선자(騎鯨仙子) : 기경상천(騎鯨上天)한 선자(仙子). ‘기경상천’은, 시인의 죽음을 형용한 것이다. 이백(李白)이 일찍이 술에 취해 채석강(采石江)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물속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뛰어 들었다가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온 말이다.

697) 이태백(李太白) : ‘이백’의 성과 자를 함께 이르는 말.

698) 동접(同接)하야 :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하여.

699) 광산(匡山) : 중국 쓰촨성(四川省)에 있는 산 이름. 이백(李白)이 이곳에서 머리가 희어지도록 글을 읽었다고 한다.

700) 승천(昇天)하고 : 승천(昇天)하고, 하늘에 오르고.

701) 미천(微賤)허계 : 미천(微賤)하게. 신분이나 지위 따위가 하찮고 천하게.

702) 연갑(年甲) : 어떤 범위에 속하는 나이. 또는 그런 사람. 주로 성인에 대하여 이른다.

703) 달(獺) : 수달(水獺).

704) 파총(把摠) : 조선 선조 27년(1594)에 각 군영에 둔 종사품 무관 벼슬.

[진양조]

“이내 나이 들어 보소, 이내 나이를 들어 보소. 동작대(銅雀臺)⁷⁰⁵ 높은 집이 좌편(左便)은 청룡각(靑龍閣)이요, 우편(右便)은 금봉루(金鳳樓)라.⁷⁰⁶ 이교(二喬)⁷⁰⁷의 뜻을 품고⁷⁰⁸ 조자건(曹子建)⁷⁰⁹의

705) 동작대(銅雀臺) : 중국 후한 건안 15년 겨울에 조조가 업(鄴)의 서북쪽에 지은 누대(樓臺). 구리로 만든 봉황으로 지붕 위를 장식한 데에서 생긴 말이다.

706) 좌편(左便)은 청룡각(靑龍閣)이요, 우편(右便)은 금봉루(金鳳樓)라 :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동작대부(銅雀臺賦)」라며 인용한 시 구절을 다시 변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문 구절이나 『삼국지연의』의 “입쌍대어좌우혜(立雙臺於左右兮, 좌우에 대를 쌍으로 세웠으니) 유옥룡여금봉(有玉龍與金鳳, 옥룡과 금보이도다)”이나 모두 조식(曹植)의 「동작대부」에는 없는 구절이다.

707) 이교(二喬) : 중국 삼국 시대에, 재색을 겸비한 것으로 유명한 오나라의 대교(大喬)와 소교(小喬) 자매. 대교는 손책(孫策)의, 소교는 주유의 아내가 되었다.

708) 뜻을 품고 :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연의』에서 제갈공명(諸葛孔明)이 “남이교어동남혜(攬二喬於東南兮, 동남쪽에서 두 교 씨를 잡아와), 악조석지여공(樂朝夕之與共, 조석으로 그녀들과 함께 즐기리라)”으로 시 구절을 삽입해, 조조가 이교(二喬)에게 ‘뜻을 품고’ 있다며 소교의 남편인 주유(周瑜)를 격동(激動)케 한 장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촉과 오가 연합하여 ‘적벽대전(赤壁大戰)’에서 조조와 맞선다는 것이다.

참고로, 조조(曹操)가 동작대를 완성한 것은 ‘적벽대전’ 이후였다. 동작대의 남쪽에 ‘금호대(金虎臺)’를 새로 건축하였고, 동작대의 북쪽에 ‘빙정대(冰井臺)’를 건설하여 이를 ‘삼대(三臺)’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각각의 건물은 높게 설치한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고 말이다.

709) 조자건(曹子建) : 조식(曹植). 중국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인(192~232). 자는 자건(子建). 위나라 무제 조조의 아들로, 붓만 들면 곧 문장이 되었다는

글씨를 빌어 동작대부(銅雀臺賦)⁷¹⁰ 운(韻)허든⁷¹¹ 조맹덕(曹孟德)⁷¹² 조부(祖父)⁷¹³와 연갑(年甲)이 되니 내가 상좌(上座)를 못 하겠나?”

[아니리]

멧돌이 꺼시렁⁷¹⁴ 눈을 끔적끔적거리고⁷¹⁵ 나발⁷¹⁶ 같은 주둥이를 이리저리 두르고 입맛을 짹짹 다시며 나오더니마는, “자네 나이 들어 보니 내 큰손자⁷¹⁷하고도 벗 못 하겠다.” “아니 그람 저(猪)⁷¹⁸

「칠보시(七步詩)」의 고사(故事)는 유명하다. 시문집에 『조자건집』이 있다.

710) 동작대부(銅雀臺賦) : 「등대부(登臺賦)」라고도 한다. 조식(曹植)이 건안(建安) 17년(212) 봄에 지었다고 한다.

711) 운(韻)허든 : 운(韻)하던. 시 짓던.

또는, 분운(分韻)하던. 운자(韻字)를 정하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집어서 그 잡힌 운자로 한시를 짓던. 참고로, ‘분운’은 ‘부운(賦韻)’이라고도 칭한다.

712) 조맹덕(曹孟德) : 조조(曹操).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조(始祖)(155~220). 자는 맹덕(孟德). 황건의 난을 평정하여 공을 세우고 동탁(董卓)을 벤 후 실권을 장악하였다. 208년에 적벽(赤壁) 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여 중국이 삼분된 후 216년에 위왕(魏王)이 되었다. 권모에 능하고 시문을 잘하였다.

713) 조부(祖父) : 아버지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714) 꺼시렁 : ‘거스러미’의 경북 방언.

715) 끔적끔적거리고 : 끔적거리고. 큰 눈이 자꾸 슬쩍 감졌다 뜨였다 하고. 또는 그렇게 되게 하고.

716) 나발 : 옛 관악기의 하나. 늦쇠로 긴 대롱같이 만드는데, 위는 가늘고 끝은 퍼진 모양이다. 군중(軍中)에서 호령하거나 신호하는 데 썼다.

717) 큰손자 : 둘 이상의 손자 가운데 맏이인 손자를 이르는 말.

낭청(郎廳)⁷¹⁹은 언제 나셨소?” 멧돌 나왔으며 허는 말이,

[중중모리]

이내 나이 들어봐라, 이내 나이 들어 보소. “한(漢)⁷²⁰나라 사람으로 흉노국(匈奴國)⁷²¹에 사신 갔다, 위국충절⁷²² 십구 년에 수발(鬚髮)이 진백(盡白)⁷²³ 허여 고국산천(故國山川)⁷²⁴ 험한 길 허유허유⁷²⁵ 돌아오던 소(蘇) 중랑(中郎)⁷²⁶과 연갑(年甲)이 되니 내가 상

718) 저(猪) : 멧돼지.

719) 낭청(郎廳) : 조선 시대에, 정오품 통덕랑 이하의 당하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720) 한(漢) : 중국에서,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세운 나라. 기원후 8년 왕망이 스스로를 ‘신(新)’의 황제로 칭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기원후 25년에 유수가 한(漢) 왕조를 부흥시키며 후한(後漢)으로 이어진다.

721) 흉노국(匈奴國) : 흉노(匈奴). 중국의 이민족인 오호(五胡) 가운데 진(秦)나라·한(漢)나라 때에 몽골 고원에서 활약하던 기마 민족. 기원전 3세기 말에, 목돌 선우가 모든 부족을 통일하여 북아시아 최초의 유목 국가를 건설하고, 최성기(最盛期)를 맞이하였으나, 한나라 무제의 잦은 침공으로 쇠약해져, 1세기경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722) 위국충절(爲國忠節) :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절개.

723) 수발(鬚髮)이 진백(盡白) :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었음을 이른다.

724) 고국산천(故國山川) : 고국의 산과 물이라는 뜻으로, ‘고국’을 정겹게 이르는 말.

725) 허유허유 : 허위허위.

726) 소(蘇) 중랑(中郎) : 한(漢) 나라의 충신인 소무(蘇武, 기원전 ?~기원전 60). 한 무제 때인 기원전 100년에 중랑장(中郎將)으로서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있었다.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자, 기러기의 발목에 소식을 적은 비단 형짚을 매어 고향으로 날려 보내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렸다고

좌(上座)를 못 하겠나?” 토끼가 듣고 나았으며, 토끼 듣고 나았으며. “재 낭청(郎廳)⁷²⁷도 내 아랄세?”

[자진모리]

“한광무(漢光武)⁷²⁸ 시절(時節)에 간의대부(諫議大夫)⁷²⁹를 마다하고 부운(浮雲)⁷³⁰을 차일(遮日)⁷³¹ 삼고 남시질 힘써 허든 엄자릉(嚴子陵)⁷³²의 시조(始祖)⁷³³와 연갑(年甲)이 되니 내가 상좌(上座)를 못 하겠나?”

한다. 19년 만에 돌아가게 되었다.

727) 재 낭청(郎廳) : ‘저 낭청’의 변형인 듯.

728) 한광무(漢光武) : 광무제(光武帝, 기원전 6~기원후 57). 중국 후한(後漢)의 초대 황제. 재위 25~57. 신(新) 나라 왕망(王莽)의 군대를 격파하고 후한을 세웠다. 왕망의 가혹하였던 정치를 폐지하고 전조(田租)를 인하하는 등 통일국가의 기초를 다졌으며, 후한의 특색이 되는 예교주의(禮敎主義)의 기초를 다졌다.

729) 간의대부(諫議大夫) : 고려 시대에, 문하부(門下府)에 속하여 임금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간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예종 11년(1116)에 사의대부로 고쳤다.

730) 부운(浮雲) :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731) 차일(遮日) :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

732) 엄자릉(嚴子陵) : 엄광(嚴光). 중국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의 은자. 벼으로 지내던 광무제가 왕이 된 뒤 간의대부(諫議大夫)로 불렀으나 나가 지 않고 부춘산(富春山)에 들어가 양가죽으로 만든 갓을 입고 은둔하였다 한다.

733) 시조(始祖) : 한 겨레나 가계의 맨 처음이 되는 조상.

[아니리]

“그라면 그 토(兔) 선생(先生)이 상좌(上座)로 앉으시오.” 토끼를 상좌(上座)로 앉혀노니,⁷³⁴⁾ 체소(體小)한⁷³⁵⁾ 데다가 이놈이 경솔(輕率)하기⁷³⁶⁾ 짝이 없어 앞밭로 귀를 떨고 야단이 났는디, 때마침 호랭이⁷³⁷⁾가 한 삼사일 주린 놈인디, “내가 어디로 가서 이 주린 구복(口腹)⁷³⁸⁾을 채울꼬?” 하고 먹이를 찾으⁷³⁹⁾ 돌아다니는 판인디, 마침 이놈들을 만나노니 어찌 반갑든지 그저 쏘 살 들어오듯, 수르르 어형 으르르르르. 달려드니 그저 좌우 짐생들이 똥오줌을 별별 별별 싸며, “아이고 장군(將軍)님! 어디 갔다 인자⁷⁴⁰⁾ 오시오?” “음! 너 이놈들 지금 무엇들 하고 있느냐? 대관절⁷⁴¹⁾ 너이⁷⁴²⁾들이 똥을 하고 있기에 나를 이렇게 시장케⁷⁴³⁾ 했느냐?” 토끼 나앉으며 “애 저이⁷⁴⁴⁾들끼리 상좌(上座) 다툼을 하고 놉니다.” “네 이놈들 차산(此山)⁷⁴⁵⁾ 중의 어른은 나 하나뿐인디, 너희들끼리 상좌(上座)니

734) 앉혀노니 : 앉히노니.

735) 체소(體小)한 : 몸이 작은.

736) 경솔(輕率)하기 :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볍기.

737) 호랭이 : ‘호랑이’의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중국 길림성 방언.

738) 구복(口腹) : 먹고살기 위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입과 배.

739) 찾으 : 찾으러.

740) 인자 : ‘이제’의 경남, 전남 방언.

741) 대관절 : 여러 말 할 것 없이 요점만 말하건대.

742) 너이 : 너희.

743) 시장케 : 배고프게.

744) 저이 : ‘저희’의 경기, 평안, 중국 길림성, 중국 요령성 방언.

중좌(中座)니 하좌(下座)니 허고 논단 말이냐?”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은 용맹이 하도 출천(出天)허신께⁷⁴⁶⁾ 어제 나셨더라도 그냥 상좌(上座)로 앉으시오. 그란디⁷⁴⁷⁾ 그 속이나 알게 생신(生辰)⁷⁴⁸⁾이나 좀 압시다, 대관절 언제 나셨소?” “글랑 그리 허여라.”

[중모리]

“이놈들 내 나이 들어봐라. 너 이내 나이를 들어 봐라. 혼돈미분(混沌未分)⁷⁴⁹⁾ 태극(太極)⁷⁵⁰⁾ 초(初)의 사정없이 넓은 하늘 한편 짝이 모자라야 광석 따듬어⁷⁵¹⁾ 하날⁷⁵²⁾을 때우시던 여왜씨(女媧氏)⁷⁵³⁾와 연갑이 되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으르르릉 어형 허고 달려드

745) 차산(此山) : 이 산.

746) 출천(出天)허신께 : 하늘이 내신께.

747) 그란디 : ‘그런데’의 전남 방언.

748) 생신(生辰) : ‘생일’을 높여 이르는 말.

749) 혼돈미분(混沌未分) : 혼연일체(渾然一體)의 세상. “천지가 시초에 혼돈하여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는 아마 단지 물과 불 둘만 있었을 것이다(天地始初混沌未分時 想只有水火二者).”(『주자어류(朱子語類)』)

750) 태극(太極) :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이전의 세상 만물의 원시 상태. 또는, 중국 철학에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실체.

751) 따듬어 : ‘다듬어’의 강원, 경상, 전라, 충북, 평북 방언.

752) 하날 : ‘하늘’의 강원, 경기, 전라, 충청 방언.

753) 여왜씨(女媧氏) : 여왜(女媧). 중국의 천지 창조 신화에 나오는 여신. 오색 돌을 빚어서 하늘의 갈라진 곳을 메우고 큰 거북의 다리를 잘라 하늘을 떠받치고 갈짚의 재로 물을 빨아들이게 하였다고 한다. 사람의 얼굴과 뱀의 몸을 한 여신으로 알려졌다.

니, 좌우 짐생들이 깜짝 놀래며, “장군님 상좌(上座)로 앉으시오.”

[아니리]

호랭이가 상좌로 앉고, 살찐 멧돌, 노루, 사슴, 너구리, 오소리 등을 요구감⁷⁵⁴ 내 놓고, 옹골지계⁷⁵⁵ 논일⁷⁵⁶ 판인디, 이때의⁷⁵⁷ 별 주부는 한편에 은신(隱身)허여⁷⁵⁸ 이 광경을 보고, “저렇게 많은 짐승들이 모였는디, 어찌 토끼가 없을쏘냐? 어쨌든 불러 볼 밖에 수가 없다.” 자래⁷⁵⁹가 토끼를 부르랴고 할 제, 수로만리(水路萬里)⁷⁶⁰ 거친 파도를 아래턱으로만 밀고나와 어찌 뻗뻗 회불러⁷⁶¹ 논⁷⁶² 것이 토(兔) 짜⁷⁶³가 호(虎) 짜로 살짝 미끄러졌것다. “저기 저기 토 토 호 생원(生員)!⁷⁶⁴” 허고 불러노니, 첩첩산중(疊疊山中)⁷⁶⁵에

754) 요구감 : ‘떡잇감’의 뜻. ‘요구’는, ‘요기’의 강원, 경북, 전남 방언.

755) 옹골지계 : ‘옹골지계’의 경남 방언.

756) 논일 : 노닐. 참고로, 「국민대 소장 61장본 <별토문답>」(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6, 박이정출판사, 2003)에서 ‘논일’로 ‘노닐’을 표기하는 경우를 꽤 볼 수 있다.

757) 이때의 : 이때에.

758) 은신(隱身)허여 : 은신(隱身)하여. 몸을 숨기어.

759) 자래 : ‘자라’의 강원, 경상, 전라, 충북, 평안, 함경, 중국 길림성, 중국 요령성, 중국 흑룡강성 방언.

760) 수로만리(水路萬里) : 매우 먼 뱃길.

761) 회불러 : 미상(未詳). 사설에 따라, ‘해불러’ 등을 쓰기도 한다.

762) 논 : 놓은.

763) 짜 : 자(字).

764) 생원(生員) : 예전에,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여 이르던 말.

서 호랭이란 놈이 생원 짜 말 듣기는 전후(前後) 불견(不見)⁷⁶⁶ 초문(初聞)⁷⁶⁷이라. 상좌(上座)로 앉고 보니 즉시 생원으로 존칭(尊稱)이 되는지라. 이 말이 어찌 반갑든지 만나보기로 작정을 하고 내려올라고⁷⁶⁸ 허는디, 거기 있는 짐생들한테 당부를 허것다. “네 이놈들 저 밑에서 나를 찾는 손님이 계시니 그 손님을 맞이해 올 때까지 여기 가만있어야 망종⁷⁶⁹이제, 너 이놈들 한 놈이라도 간 놈이 있으면, 돌아온 모음⁷⁷⁰ 통⁷⁷¹에 사지(四肢)를 찢어 방(榜)⁷⁷²을 내걸고 팔족(八族)⁷⁷³을 멸하리라! 반가운 손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공부자(孔夫子)의 도리니라. 그 손님을 모시고 올 때까지 여

765) 첩첩산중(疊疊山中) :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

766) 전후(前後) 불견(不見) : 전혀 보지 못한.

767) 초문(初聞) : 어떤 일에 관하여 처음으로 듣다. 또는 그런 말.

768) 내려올라고 : 내려오려고.

769) 망종 : ‘망정(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의 변형인 듯. 또는, 망종(亡終, 일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770) 모음 : 미상(未詳). ‘모름’일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작다. ‘모름’은, ‘마음 먹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뜻하는 하동 지역어. 『고향말여행.com』 참고.

771) 통 : 어떤 일이 벌어진 환경이나 판국.

772) 방(榜) : 어떤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나 많이 모이는 곳에 써 붙이는 글.

773) 팔족(八族) : ‘구족(九族)’의 변형인 듯. 구족은, 고조·증조·조부·부친·자기·아들·손자·증손·현손까지의 동종(同宗)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자기를 본 위로 직계친은 위로 4대 고조, 아래로 4대 현손에 이르기까지이며, 방계친은 고조의 4대손이 되는 형제·종형제·재종형제·삼종형제를 포함한다.

구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encykorea.aks.ac.kr) 해당 항목을 참고하라.

그⁷⁷⁴⁾ 가만히 있으렸다.” 당부를 해 놓고 내려오는다, 이놈이 끌고 내려오든가 보더라.

[엇모리]

범 내려온다,⁷⁷⁵⁾ 범 내려온다. 장림(長林)⁷⁷⁶⁾ 깊은 골로 대 한⁷⁷⁷⁾ 짐생이 내려온다. 몸은 얼썩덜썩,⁷⁷⁸⁾ 꼬리는 잔뜩 한 발⁷⁷⁹⁾이나 넘고, 누에머리⁷⁸⁰⁾를 흔들며, 전동⁷⁸¹⁾ 같은 앞다리, 동아⁷⁸²⁾ 같은 뒷

774) 여그 : ‘여기’의 전라 방언.

775) 내려온다 : ‘내려온다’의 제주 방언.

776) 장림(長林) : 길게 뻗어 있는 숲.

777) 대 한 : 대(大) 한. “大者 날여오되”(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가람본 <별토가>」, 『토끼전 전집』 2, 박이정출판사, 1998, 77쪽)나 “딴단흔 즈마 내려오던이라”(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가람본 <별토가>」, 『토끼전 전집』 4, 박이정출판사, 2001, 388쪽)를 참고할 수 있겠다.

‘대(對)한’일 수도 있다. 「국민대 소장 61장본 <별토문답>」(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6, 박이정출판사, 2003) 36쪽에서 “어형 딴답히고 영금영금 느려올 식”라는 표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778) 얼썩덜썩 : 여러 가지 빛깔로 된 큰 점이나 줄이 고르지 아니하게 뒤섞여 무늬를 이룬 모양.

779) 발 : 길이의 단위. 한 발은 두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 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이다.

780) 누에머리 : 산봉우리의 한쪽이 누에의 머리 모양으로 쭉 솟은 산꼭대기.

781) 전동 : 화살을 담아 두는 통.

782) 동아 : 활과 화살을 꽂아 넣어 등에 지도록 만든 물건. 흔히 가죽으로 만드는데, 활은 반만 들어가고 화살은 아랫부분만 들어가도록 만든다. 사설에 따라, ‘동개’를 쓰기도 한다.

발로, 양귀 찌어지고,⁷⁸³⁾ 새 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王)모래⁷⁸⁴⁾를 차르르⁷⁸⁵⁾ 흘리며, 주홍(朱紅) 입 떡 벌리고 어리렁⁷⁸⁶⁾ 허는 소리 태산(泰山)이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난⁷⁸⁷⁾ 듯, 자래 정신 없이 목을 움추리고⁷⁸⁸⁾ 가만히 었졌것다.⁷⁸⁹⁾

[아나리]

호랭이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며, “거 뉘가 날 불렀나? 근래에 귀 밝은 것이 장⁷⁹⁰⁾ 우환(憂患) 되드라.⁷⁹¹⁾” 잔말을 하여 가며, 발밑을 살펴보니, 꼭 쇠똥⁷⁹²⁾ 말라진 것 같은 것이 있것다. “이것이 날 불렀나? 꼭 도리방석⁷⁹³⁾ 같이도 생겼고, 아니 이것이 목기(木器)⁷⁹⁴⁾인가? 목기 같으면 굽이 있을 것인데, 그도 아니고, 아 이것이 방구부채⁷⁹⁵⁾가 있으면 자리⁷⁹⁶⁾가 있을 것인데 그도 아니고, 오

783) 찌어지고 : 찢어지고. 사설에 따라 ‘찌여지고’ 등을 쓰기도 한다.

784) 왕(王)모래 : 굽은 모래.

785) 차르르 : ‘차르륵’의 변형인 듯.

786) 어리렁 : ‘아르렁’의 변형인 듯.

787) 꺼지난 : 꺼지는.

788) 움추리고 : ‘움츠리고’의 경북 방언.

789) 었졌것다: ‘었똥것다’의 전라 방언.

790) 장 : ‘아주’의 전남 방언. 또는, ‘장(壯)히(매우 또는 몹시)’의 변형.

791) 되드라 : 되더라.

792) 쇠똥 : 소의 똥.

793) 도리방석 : ‘도래방석’의 전남 방언.

794) 목기(木器) : 나무로 만든 그릇.

795) 방구부채 : 단선. 비단이나 종이 따위로 둥글게 만든 부채.

이것이 하느님 똥이로구나. 하느님 똥 먹으면 장생불로(長生不老)헌다더라.⁷⁹⁷⁾ 크나큰 발로 자래 복판을 째득이⁷⁹⁸⁾ 눌러노니 자래가 못 전디어,⁷⁹⁹⁾ “게⁸⁰⁰⁾가 뉘라시오?⁸⁰¹⁾” “아이고 요것이 나보고 통성명(通姓名)⁸⁰²⁾을 허잔다.⁸⁰³⁾ 그래 나는 백수지장(百獸之長)⁸⁰⁴⁾ 호생원이다. 너는 무엇이냐?” 자래가 호생원이란 말을 듣고 자초(自招)⁸⁰⁵⁾ 재화(災禍)⁸⁰⁶⁾로 잘 죽는구나. 어찌 무섭고 겁이 나든지 바로 제 이름을 대 버리난디, “예, 나는 남해(南海) 수국(水國) 자래 새끼요.”

[중모리]

호랑이 반겨 들고, “얼씨구나 내 복이야, 얼씨구나 내 복이야. 내 평생 먹은 마음 왕배탕⁸⁰⁷⁾을 원했더니 자래라니 먹어보자.” 자래가

796) 자리 : ‘자루’의 강원, 경상 방언.

797) 장생불로(長生不老)헌다더라 : 늙지 아니하고 오래 산다더라.

798) 째득이 : ‘잔득이’의 센말.

799) 전디어 : 견디어. 견디어.

800) 게 : ‘거기’의 준말.

801) 뉘라시오 : 뉘라 하시오.

802) 통성명(通姓名) : 처음으로 인사할 때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 주다.

803) 허잔다 : 하잔다.

804) 백수지장(百獸之長) : 모든 짐승들의 우두머리.

805) 자초(自招) : 어떤 결과를 자기가 생기게 하다. 또는 제 스스로 끌어들이다.

806) 재화(災禍) : 재앙(災殃)과 화난(禍難)을 아울러 이르는 말.

807) 왕배탕 : ‘자라탕’인 듯하다. 배에 왕(王) 자(字)가 새겨진 자라를 넣고

먹자는 소리에 기겁(騎劫)하여,⁸⁰⁸⁾ “아이고 소(小)⁸⁰⁹⁾는 자래 아니 오.” “그러면 무엇이냐?” “먹고 죽는 철남생이⁸¹⁰⁾요.” “남생이란 말이 더욱 좋다. 습개(濕疥)⁸¹¹⁾에는 단약(單藥)⁸¹²⁾이요, 치담(治痰)⁸¹³⁾ 치습(治濕)⁸¹⁴⁾ 한다 하니 약으로만 먹어보자.” “아이고 내가 두꺼비 오.” “두꺼비란 말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 불에 살어⁸¹⁵⁾ 술에 타서 먹고 보면 만병(萬病)⁸¹⁶⁾ 회춘(回春)⁸¹⁷⁾ 명약(名藥)⁸¹⁸⁾이라더라. 그저 먹어보자.” 으르릉, 자래가 더욱 기가 막혀 속으로 탄식(歎息)⁸¹⁹⁾ 제, “못 살것네, 못 살것네. 이제는 꼭 죽었네. 내의⁸²⁰⁾ 충성

끓인 탕(湯)이라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듯.

808) 기겁(騎劫)하여 : 기겁(騎劫)하여. 숨이 막힐 듯이 갑작스럽게 겁을 내며 놀라.

809) 소(小) : 소어(小魚). 여기서는, 자래.

810) 철남생이 : ‘철남생이’의 변형인 듯. ‘철남생이’는, 천남성의 전남 방언. 천남성은, 천남성의 덩이줄기를 말린 것. 담(痰)과 해수(咳嗽), 중풍, 간질 따위에 약재로 쓴다.

811) 습개(濕疥) : 환처가 열감이 있으면서 가렵고 아픈 피부병. 긁어 상처를 내면 노란 물이 나온다.

812) 단약(單藥) : 단방약(單方藥, 한 가지 약재로 조제된 약).

813) 치담(治痰) : 담(痰)으로 인하여 생긴 병을 치료하는 일.

814) 치습(治濕) : 병의 원인이 되는 습기를 다스리다. 또는 그런 일.

815) 살어 : 살리.

816) 만병(萬病) : 온갖 병.

817) 회춘(回春) : 중한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다.

818) 명약(名藥) : 효험이 좋아 이름난 약.

819) 탄식(歎息)힐 : 한탄하여 한숨을 쉰.

820) 내의 : 나의.

이 부족(不足)턴가,⁸²¹⁾ 이 죽엄⁸²²⁾이 웬일이냐? 나 죽기는 설참으
나⁸²³⁾ 영덕전(靈德殿)⁸²⁴⁾ 병든 용왕(龍王)⁸²⁵⁾ 어느 뉘라 살려 주며
옥빈홍안(玉鬢紅顏)⁸²⁶⁾ 젊은 처자 뉘라 의탁(依託)⁸²⁷⁾을 허잔 말이
냐?” 슬피 통곡(痛哭/慟哭)⁸²⁸⁾으로 울음을 운다.

[아니리]

아서라, 내가 기왕(既往) 죽을 배⁸²⁹⁾ 있어서는 패술⁸³⁰⁾이나 마지막
씨 볼 밖에 수가 없다. 움친⁸³¹⁾ 목을 길게 빼어 고성(高聲)⁸³²⁾으로

821) 부족(不足)턴가 :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
다.

822) 죽엄 : 죽음.

823) 설참으나 : 설참으나(‘설참으나’의 비규범 표기). 섭지 않으나. 원통하고
슬프참으나.

824) 영덕전(靈德殿) : 광리왕이 새로 지었다는 궁전. 명의 구우가 지은 단편
소설집인 『전등신화』 수궁경회록에 나온다.

825) 용왕(龍王) : 바다에 살며 비와 물을 맡고 불법을 수호하는 용 가운데
의 임금.

826) 옥빈홍안(玉鬢紅顏) :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아
름다운 젊은이를 이르는 말.

827) 의탁(依託) :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다.

828) 통곡(痛哭/慟哭) : 소리를 높여 슬피 울다.

829) 배 : 의존 명사 ‘바’에 부사격 조사 ‘에’의 전남, 제주 방언인 ‘이’가 붙
어서 준 말인 듯.

830) 패술 : 패술(霸術, 패업을 이루는 수단)인 듯. 또는, 패설(悖說, 사리에
어긋나게 말하다 또는 그런 말)의 변형일 수도 있다. 사설에 따라, ‘흔변’이나
‘하교’나 ‘피’나 ‘패술(悖術)’ 등을 쓰기도 한다.

히는 말이, “네 이놈 니가 내 성명을 잘 모르리라. 나는 남생이도 아니요, 두꺼비도 아니요, 남해(南海) 수궁 자랑⁸³³⁾ 별 나리⁸³⁴⁾로 다.” 호랑이 무식하여 자래 ‘별(鬘)’ 모르고, “별 나리, 별 나리, 그것 참 풍신(風神)⁸³⁵⁾ 보고, 직품(職品)⁸³⁶⁾ 들으니 안암밖⁸³⁷⁾으로 꼴 불견이로구나. 허, 그렇다면 별 나리께서 여기를 무엇허러 오셨으며, 모가지는 들어갔다 나왔다 으째⁸³⁸⁾ 그리 방정맞게 삼겼는고?⁸³⁹⁾”
 “네 이놈 니가 네 목 근본(根本)을 잘 모르리라.”

[자진모리]

“우리 수궁 퇴락(頽落)하여⁸⁴⁰⁾ 영덕전(靈德殿) 높은 집을 천여 간(間) 지었으되, 추녀 끝 돌아가다, 한발 자칫 미끄러져 어허 목으로 내려져 이 모양이 되었더니, 명의(名醫)⁸⁴¹⁾다려⁸⁴²⁾ 문의(問議)⁸⁴³⁾를

831) 움친 : ‘움츠린’의 준말.

832) 고성(高聲) : 크고 높은 목소리.

833) 자랑 : ‘좌랑(佐郎, 조선 시대 육조의 정육품 벼슬)’의 변형인 듯.

834) 나리 : 당하관을 높여 부르던 말.

835) 풍신(風神) :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836) 직품(職品) : 벼슬의 품계.

837) 안암밖 : 안아팍. ‘안팍’의 전남 방언.

838) 으째 : ‘어찌’의 전남 방언.

839) 삼겼는고 : ‘생겼는고’의 옛말.

840) 퇴락(頽落)하여 : 퇴락(頽落)하여. 낡아서 무너지고 떨어져.

841) 명의(名醫) : 병을 잘 고쳐 이름난 의원이나 의사.

842) 다려 : 드려. ‘더러’의 옛말.

843) 문의(問議) : 물어서 의논하다.

허니 호랭이 쓸개⁸⁴⁴를 열 보⁸⁴⁵만 먹으면 즉효(卽效)⁸⁴⁶ 약(藥)이 된다 허기에, 우리 수궁서 호랭이 귀신을 잡아 타고 함경도(咸鏡道)로 내려가 백두산(白頭山) 호랭이 잡아먹고, 서울로 집어⁸⁴⁷ 올라 삼각산(三角山)⁸⁴⁸ 호랭이 잡아먹고, 이 산중 들어가 너를 보니 반가워라. 너 하나만 먹었으면 열 번을 다 채우니 어찌 아니 반가우랴? 호랭이 귀신 거⁸⁴⁹ 있느냐? 비수(匕首)⁸⁵⁰ 검(劍)⁸⁵¹으로 호랭이 배 밧비⁸⁵² 가르고 쓸개 내오너라! 식기 전에 맛을 보자!” 이렇듯 말을 허고 앙금앙금⁸⁵³ 앙금앙금 앙금거려⁸⁵⁴ 달려들어 모진 이 빨로 호랭이 뒷다리 가운데 달랑달랑한⁸⁵⁵ 놈을 짹 물고 어찌 뽕뽕

844) 쓸개 :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을 일시적으로 저장·농축하는 주머니. 샘창자 안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쓸개즙을 내어 소화를 돕는다.

845) 보 : 응답이나 저담 따위를 세는 단위.

846) 즉효(卽效) : 곧 반응을 보이는, 약 따위의 효험.

847) 집어 : ‘짚어’인 듯.

848) 삼각산(三角山) : ‘북한산’의 다른 이름.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있어 이렇게 부른다.

849) 거 : ‘거기’를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처소격 조사 ‘에’가 붙을 때에는 ‘계’로 형태가 바뀐다.

850) 비수(匕首) : 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

851) 검(劍) : 무기로 쓰는 크고 긴 칼.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을 이른다.

852) 밧비 : ‘바삐’의 옛말.

853) 앙금앙금 : 작은 동작으로 느리게 걷거나 가는 모양.

854) 앙금거려 : ‘엇금거려’의 작은 말.

855) 달랑달랑한 : 작은 방울이나 매달린 물체 따위가 계속 흔들리는. 또는 그렇게 되게 하는.

이⁸⁵⁶)를 쳐 났던지, “아이고 조금만 놓으시오! 제일 오장(五臟)⁸⁵⁷이 땡겨⁸⁵⁸ 못 살것소. 쯤조끔만 노시오!”

[아니리]

그 용맹(勇猛)⁸⁵⁹이 출천(出天)⁸⁶⁰한 호랑이가 꼼짝 딸짝 못 하고, 그대로 엎드려져 한바탕⁸⁶¹ 비는디,

[진양조]

“비나이다, 비나이다. 별 나리 전의 비나이다. 나는 오대(五代) 차(次)⁸⁶² 독신(獨身)⁸⁶³이오. 삼십이 넘어 사십이 장근(將近)토록⁸⁶⁴ 슬하(膝下)⁸⁶⁵ 일점혈육(一點血肉)⁸⁶⁶이 없어, 내가 만일 이 자리에

856) 땡겨 : ‘매암’의 경상 방언. ‘매암’은, ‘땡’의 본말.

857) 오장(五臟) :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다섯 가지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858) 땡겨 : ‘당겨’의 강원, 경상, 전라, 충청, 평안, 중국 길림성, 중국 요령성, 중국 흑룡강성 방언.

859) 용맹(勇猛) : 용감하고 사납다.

860) 출천(出天) : 하늘이 내다.

861) 한바탕 : 크게 한 판.

862) 차(次) :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말.

863) 독신(獨身) :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

864) 장근(將近)토록 : 거의 가깝도록.

865) 슬하(膝下) :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아버지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른다.

866) 일점혈육(一點血肉) : 자기가 낳은 단 하나의 자녀.

서 죽게 되면 우리 가문(家門)⁸⁶⁷은 영 문 닫쳐 버리오. 차라리 이것 때고⁸⁶⁸ 내 왼 눈이나 빼 잡수시오.” “이놈 안 될 말이로구나.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⁸⁶⁹ 허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놓아라.” “아이고, 여기를 놓아야 쓸개를 드리지요. 제발 덕분의 살려를 주오.”

[아니리]

이렇듯 통곡을 허니 자래 생각건대, 이만 했으면 이놈을 반 이상은 휘어⁸⁷⁰ 놓았겠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도 이놈한테 힘이 모자라 도리어 봉변(逢變)⁸⁷¹을 볼까 싶어 그저 실그머니⁸⁷² 놓고 툇 떨어져노니, 이놈이 그저 도망(逃亡)⁸⁷³을 허는디,

[휘모리]

호랑이 몽크렀다,⁸⁷⁴ 별쩍⁸⁷⁵ 뛰어 달아난다. 큰 싸움의 화살 나

867) 가문(家門) :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 또는 그 사회적 지위.

868) 때고 : 때고. 사설에 따라, ‘대신(代身)’이나 ‘대(代)로’를 쓰기도 한다.

869)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 : 내가 산 연후에 남을 죽이다.

870) 휘어 : 남의 의지를 꺾어 뜻을 굽히게 하여.

871) 봉변(逢變) : 뜻밖의 변이나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다. 또는 그 변.

872) 실그머니 : ‘슬그머니’의 전남 방언.

873) 도망(逃亡) :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나다.

874) 몽크렀다 : ‘몽그렀다(높이 쌓인 물건이 무너져서 주저앉았다)’의 충북 방언. 또는, ‘몽구렀다(어떤 일을 하려고 오랫동안 계획했다)’의 전남 방언.

듯⁸⁷⁶) 조총(鳥銃)⁸⁷⁷)의 철환(鐵丸)⁸⁷⁸) 나뒸 추가성(楚歌聲)⁸⁷⁹)의 놀랜⁸⁸⁰) 패왕(霸王)⁸⁸¹) 귀위남출(潰圍南出)⁸⁸²) 허난 격(格)⁸⁸³)으로 태산(泰山)⁸⁸⁴)을 넘어 강수(江水)⁸⁸⁵) 지내여⁸⁸⁶) 인홀불견(因忽不見)⁸⁸⁷) 간 곳 없다.

[아니리]

겹짐⁸⁸⁸)에 어찌 뛰었든지, 해남(海南) 관(館)머리⁸⁸⁹)에서 이 지경

875) 별쩍 : 별쩍별쩍. 누워 있거나 자빠져 있는 몸을 일으키려고 자꾸 팔다리를 힘껏 움직이는 모양.

876) 나뒸 : 날 듯.

877) 조총(鳥銃) : ‘화승총’을 달리 이르는 말.

878) 철환(鐵丸) : ‘처란’의 원말.

879) 추가성(楚歌聲) : 초나라의 노랫소리. 사면초가(四面楚歌).

880) 놀랜 : ‘놀란’의 강원, 경상 방언.

881) 패왕(霸王) : 초패왕(楚霸王). ‘항우’의 다른 이름. 진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이 되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882) 귀위남출(潰圍南出) : 포위를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나왔다. 귀위남출(潰圍南出, 포위를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나왔다) 치주(馳走, 달려서 빨리 갔다). (『사기』) 사설에 따라, 기음장중(起飲帳中, 막사에서 일어나 마시다) 놀란 패왕(霸王)이 추가성(楚歌聲)에 포위를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나왔다고 길게 표현하기도 한다.

883) 격(格) : ‘셈’, ‘식’의 뜻을 나타내는 말.

884) 태산(泰山) : 높고 큰 산.

885) 강수(江水) : 강에 흐르는 물.

886) 지내여 : 지나여.

887) 인홀불견(因忽不見) :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지다.

(地境)⁸⁹⁰을 당했는데, 의주(義州) 압록강(鴨綠江)⁸⁹¹ 변(邊)⁸⁹²까지 뛰었제.⁸⁹³ 이때의 별 주부난 곰곰이 생각헌즉 내의 충성(忠誠)이 부족하야 아마 산신령(山神靈)⁸⁹⁴이 변화(變化)하여 이리 된 것 같어 산제(山祭)⁸⁹⁵나 착실히 모시리라 생각허고 산제 지낼 채비⁸⁹⁶를 허는데,

[중모리]

반송(盤松)⁸⁹⁷ 가지 꺾어 내려 광석(廣石)⁸⁹⁸ 암상(巖上)⁸⁹⁹을 살살 쓸고, 추풍낙엽(秋風落葉)⁹⁰⁰으로 자리 삼어 정히 깔고, 떨어진 산

888) 겁짐 : ‘엥겁걸’의 제주 방언.

889) 관(館)머리 : (해남) 관두(館頭). 해남의 관두량(館頭梁), 관두포(館頭浦) 지역을 이른다.

890) 지경(地境) : ‘경우’나 ‘형편’,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891) 압록강(鴨綠江) :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계를 이루는 강.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황해로 흘러든다. 수풍 발전소가 유명하다. 길이는 790km.

892) 변(邊) : 물체나 장소 따위의 가장자리.

893) 뛰었제 : 뛰었지.

894) 산신령(山神靈) :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

895) 산제(山祭) : 산신령에게 드리는 제사.

896) 채비 : 어떤 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가 미리 갖추어져 차려지거나 그렇게 되게 하다. 또는 그 물건이나 자세.

897) 반송(盤松) :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898) 광석(廣石) : 넓은 돌.

899) 암상(巖上) : 바위 위.

900) 추풍낙엽(秋風落葉) :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과(山果)⁹⁰¹⁾ 목실(木實)⁹⁰²⁾ 삼색(三色)⁹⁰³⁾으로 주어다가 좌홍우백(左紅右白)⁹⁰⁴⁾ 갈라 괴고,⁹⁰⁵⁾ 맑고 맑은 석간수를 제주(祭酒)⁹⁰⁶⁾ 삼어 부어 놓고 석하(石下)⁹⁰⁷⁾의 쾌좌(跪坐)허여⁹⁰⁸⁾ 분향재배(焚香再拜) 독축(讀祝)⁹⁰⁹⁾을 허였으되,

[축문]

“갑신(甲申)⁹¹⁰⁾ 팔월 계유(癸酉)⁹¹¹⁾ 삭(朔)⁹¹²⁾ 초칠일(初七日)⁹¹³⁾ 기묘(己卯)⁹¹⁴⁾ 남해(南海) 신 별 주부 감소고우(敢昭告于)⁹¹⁵⁾ 산신

901) 산과(山果) : 산에서 나는 과실.

902) 목실(木實) : 나무의 열매.

903) 삼색(三色) : 제사 지낼 때에, 상에 올려놓는 세 가지 과실. 밤·대추·잣 또는 밤·대추·감을 이른다.

904) 좌홍우백(左紅右白) : 제사상을 차릴 때에 붉은 과실은 왼쪽에 흰 과실은 오른쪽에 놓는 일.

905) 괴고 : 의식이나 잔칫상에 쓰는 음식이나 장작, 풀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906) 제주(祭酒) : 제사에 쓰는 술.

907) 석하(石下) : 돌 아래. 사설에 따라, ‘석하(席下)’를 쓰기도 한다.

908) 쾌좌(跪坐)허여 : 쾌좌(跪坐)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

909) 독축(讀祝) : 축문(祝文)을 읽다.

910) 갑신(甲申) : 육십갑자의 스물한째.

911) 계유(癸酉) : 육십갑자의 열째.

912) 삭(朔) : 매달 음력 초하룻날.

913) 초칠일(初七日) : 매달 초하룻날부터 헤아려 일곱째 되는 날.

914) 기묘(己卯) : 육십갑자의 열여섯째.

915) 감소고우(敢昭告于) : 감히 밝히어 아뢰웁니다.

(山神)⁹¹⁶ 국수(國首)⁹¹⁷ 전(前)⁹¹⁸ 하노니다. 남해 용왕(龍王)이 우연(偶然) 득병하여 백약(百藥)⁹¹⁹이 무효(無效)트니,⁹²⁰ 명의(名醫)가 지시(指示)허되 진세(塵世)⁹²¹ 퇴⁹²² 간(肝)⁹²³을 쓰면 비단(非但)⁹²⁴ 신병지거근야(身病之去根也)⁹²⁵라. 겸차(兼且)⁹²⁶ 연년익수(延年益壽)⁹²⁷ 운운(云云)⁹²⁸ 고(故)로⁹²⁹ 도월(渡越)⁹³⁰ 원해(遠海)⁹³¹ 삼만 리 하여 신궁자도⁹³² 차산(此山)의 비금주수(飛禽走

916) 산신(山神) :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

917) 국수(國首) : 나라의 우두머리.

918) 전(前) : ‘앞’의 높임말.

919) 백약(百藥) : 모든 약. 또는 여러 가지 약.

920) 무효(無效)트니 : 보람이나 효과가 없더니.

921) 진세(塵世) : 정신에 고통을 주는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922) 퇴 : 토(兔).

923) 간(肝) : 가로막 바로 밑의 오른쪽에 있는 기관.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단백질이나 당의 대사를 조절하며, 해독 작용을 한다.

924) 비단(非但) :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말.

925) 신병지거근야(身病之去根也) : 몸에 생긴 병의 근원을 없애다.

926) 겸차(兼且) : 겸해서.

927) 연년익수(延年益壽) : 수명을 더욱더 오래 늘여 나가다.

928) 운운(云云) : 글이나 말을 인용하거나 생략할 때에, 이리이러하다고 말함의 뜻으로 쓰는 말.

929) 고(故)로 : 문어체에서, ‘까닭에’의 뜻을 나타내는 말.

930) 도월(渡越) : 넘어가다.

931) 원해(遠海) : 거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932) 신궁자도 : ‘신궁재도(身躬纔到, 신이 몸소 겨우 도착하다)’의 변형인 듯. ‘신궁자도(身躬自到, 신이 몸소 스스로 도착하다)’를 쓸 수도 있다.

獸)⁹³³가 만산(滿山)⁹³⁴ 왕래(往來)⁹³⁵이 본시海中지소생(海中之所生)⁹³⁶으로 난변(難辨)퇴자⁹³⁷ 허여 자감민박지경(茲敢憫迫之情)⁹³⁸을 대강(大綱) 양고(仰告)하오니⁹³⁹ 복걸(伏乞)⁹⁴⁰ 신령(神靈)⁹⁴¹은 하감(下鑑)⁹⁴² 주부지충(主簿之忠)⁹⁴³ 하사⁹⁴⁴ 차산 중(中) 노퇴⁹⁴⁵ 일 수(首)⁹⁴⁶를 즉이(卽以)⁹⁴⁷ 치국⁹⁴⁸ 하옵심을 근이 청작(謹以清酌)⁹⁴⁹ 지천우신(祇薦于神)⁹⁵⁰ 복유(伏惟)⁹⁵¹ 상향(尙

933) 비금주수(飛禽走獸) : 날짐승과 길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실에 따라, ‘비금(飛禽)유수’를 쓰기도 한다.

934) 만산(滿山) : 온 산에 가득하다. 또는 그런 산.

935) 왕래(往來) : 가고 오고 하다.

936)海中지소생(海中之所生) : ‘海中소생(海中所生)’인 듯. 바다에서 나는 생물.

937) 난변(難辨)퇴자 : 난변토자(難辨免者). 토끼라는 것을 분간하기 어렵다.

938) 자감민박지경(茲敢憫迫之情) : 이에 감히 애타고 절박한 심정.

939) 양고(仰告)하오니 : 우러러보고 아뢰오니.

940) 복걸(伏乞) : 엎드려 빌다.

941) 신령(神靈) :

942) 하감(下鑑) : 아랫사람이 올린 글을 윗사람이 보다.

943) 주부지충(主簿之忠) : (별) 주부의 충성.

944) 하사 : 하시어.

945) 노퇴 : 노토(老兔). 늙은 토끼.

946) 수(首) : 닭이나 소 등의 일부 동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947) 즉이(卽以) : 곧.

948) 치국 : ‘지급(支給)’의 변형인 듯.

949) 근이청작(謹以清酌) : 삼가 맑은 술 한 잔으로.

950) 지천우신(祇薦于神) : 신께 공경하여 바칩니다.

饗).952)”

4. 토끼

[아니리]

재배하고 일어나 좌우를 살펴보니 지성이면 감천으로 대차⁹⁵³⁾ 토끼 한 마리가 내려오는디,

[중중모리]

그임⁹⁵⁴⁾ 청택⁹⁵⁵⁾ 요임[瑤林]⁹⁵⁶⁾ 중(中), 그임 청택 요임 중 한 짐생

951) 복유(伏惟) : 삼가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952) 상향(尙饗) : ‘적지만 흠향하옵소서’의 뜻으로, 축문(祝文)의 맨 끝에 쓰는 말.

953) 대차 : ‘과연’의 전라 방언인 듯.

954) 그임 : 그림(‘구름’의 강원 방언)인 듯하다. 또는, 구림(‘구름’의 경북, 전남, 함경, 중국 길림성 방언)인 듯. 뒤 단어의 뜻인 듯한 ‘천택(天澤)’과 함께, ‘운천택(雲天澤, 성대한 은혜)’이나 ‘운천택패(雲天澤沛, 성대한 은혜가 패연하다)’의 꼴로 쓰인다.

아니면, ‘그림(매우 아름다운 광경이나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일 수도 있다.

955) 청택 : ‘천택(天澤, 하늘의 은혜)’인 듯. 앞 단어의 뜻인 듯한 ‘운(雲, 구름)’과 함께, ‘운천택(雲天澤)’이나 ‘운천택패(雲天澤沛)’의 꼴로 쓰인다.

또는, ‘천태(天臺, 텐타이)’의 변형일 수도 있다. ‘천태’, ‘천태산(天台山, 텐타이산)’은 중국 저장성에 있는 천태종의 불교성지이다. 선경(仙境)으로 유명하다.

한편, 「가람본 <별토가>」처럼 “한 곳절 받아보니 絶壁天泰 바회 틈의 妙

이 내려온다. 저 짐생 생긴 모양 정신이 씩씩하고 이목(耳目)⁹⁵⁷이 정즉허여⁹⁵⁸ 월중퇴⁹⁵⁹ 기상이라. 자래 목의 화상 내어 토끼보고 화상 보니 월중퇴 망월퇴⁹⁶⁰ 안면(顔面)⁹⁶¹이 있구나. “옳다, 저것 토끼로다 아까는 내가 늦게 붙여 호랑이 만나 봉패(逢敗) 보았으나, 이번은 되게⁹⁶² 붙여 불러 보리라. 저기 저기 퇴 퇴 퇴 퇴 생원.” 하고 불러노니, 토끼가 듣고서 반긴다, 토끼가 듣고서 반긴다. “거 뉘가 날 찾나, 거 뉘가 날 찾나? 날 찾을 이 없건마는 그 누구가 날 찾아? 기산(箕山)⁹⁶³ 영수(潁水)⁹⁶⁴ 소부(巢父)⁹⁶⁵ 허유(許

한 김싱 안자시되”(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2, 박이정출판사, 1998, 81쪽)라고 표현하는 또 다른 경우도 있고 말이다.

956) 요림[瑤林] : 요림. 옥으로 된 숲. ‘요림(瑤林)’은, ‘요림경수(瑤林瓊樹)’에서 온 말로 옥으로 만든 숲과 옥으로 만든 나무라는 뜻이다. 고매한 인품이나 훌륭한 가문을 비유하기도 한다. 『진서(晉書)』 권43 왕용열전(王戎列傳)에 “왕연의 모습이 고매함은 마치 요림의 경수와도 같다(王衍神姿高徹 如瑤林瓊樹)”라고 하였다.

957) 이목(耳目) : 귀와 눈을 중심으로 한 얼굴의 생김새.

958) 정즉허여 : 미상(未詳). 사설에 따라, ‘정직허여’를 쓰기도 한다.

959) 월중퇴 : 월중토(月中兔). 달 속의 토끼

960) 망월퇴 : 망월토(望月兔). 보름달 속의 토끼.

961) 안면(顔面) : 서로 얼굴을 알 만한 친분.

962) 되게 : 아주 몹시.

963) 기산(箕山) : 중국 허난성 덩핑 현(登封縣)의 동남쪽에 있는 산. 요(堯) 임금 때의 은자(隱者)인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이곳에 숨어 살아 기산지절(箕山之節), 기산지지(箕山之志) 등의 고사가 전한다.

964) 영수(潁水) : 중국 허난성(河南省)의 기산(箕山) 아래로 흐르는 물. 요(堯) 임금으로부터 천하를 거절하고 은둔한 허유(許由)와 소부(巢父)가 이 물

由)⁹⁶⁶ 세이(洗耳)⁹⁶⁷ 가자고 날 찾나? 계명산(雞鳴山)⁹⁶⁸ 통소⁹⁶⁹
불어 팔천(八千) 병(兵)⁹⁷⁰을 흠으랄 제 풍의⁹⁷¹ 청병(請兵)⁹⁷² 날

에 귀를 씻은 고사로 유명하다.

965) 소부(巢父) : 요임금으로부터 나라를 다스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영수(潁水)로 가 귀를 씻던 허유에게 진정한 은둔에 대해 논했다.

966) 허유(許由) : 중국 하(夏) 나라의 은자. 청렴하고 덕이 높아 요임금이 천하를 양보하려 하자 거절하고 기산에 숨었으며, 또 그를 불러 구주(九州)의 장(長)으로 삼으려 하자 영수 물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 한다.

967) 세이(洗耳) : 귀를 씻다. 중국 고대의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양보하려 하자, 하수(河水)에서 귀를 씻었다. 소부가 보고서 그 연유를 물은 다음 “내가 소에게 물을 먹이려는데 우리 소의 입을 더럽히게 되겠다”라며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가 먹인 고사.

968) 계명산(雞鳴山) : 중국 장쑤성(江蘇省)의 남경 서쪽에 있는 산.

969) 통소 : 가는 대로 만든 목관 악기. 세로로 내려 불고 앞에 다섯 개의 구멍, 뒤에 한 개의 구멍이 있다. 본디 아악기인 소(簫)를 개량한 것으로, 아래위로 통하는 소(簫)라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향악(鄉樂)의 독주 악기로 널리 쓴다.

970) 팔천(八千) 병(兵) : 팔천 명의 군사. 항우(項羽)가 처음 강동(江東)에서 8,000명의 군사로 일어났다.

971) 풍의 : ‘풍(豐, 패현 풍읍)’인 듯. 『사기(史記)』과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나오는 “욕청병이공풍(欲請兵以攻豐, 풍을 공격하기 위해 병사를 청하다)”이라는 구절을 염두에 둔 듯하다. 웅치(雍齒)에게 배신을 당한 유방이 풍읍(豐邑)을 탈환하기 위해 병사를 얻으러 갔다가, 장량을 만나 그를 자신의 휘하에까지 두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에 따라, ‘풍의’를 쓰기도 한다.

972) 청병(請兵) : 군대의 지원을 청하거나 출병하기를 청하다. 또는 청하여 온 군대.

초한 시절 유방이 항우를 섬멸하려고 공격할 때 고릉(하남)에서 한신과 팽월

찾나? 도화(桃花) 유수(流水)⁹⁷³⁾ 무릉(武陵)⁹⁷⁴⁾ 가자 거주촉객(舉酒屬客)⁹⁷⁵⁾이 날 찾아? 건넌 산 과부(寡婦)⁹⁷⁶⁾ 토끼가 연분을 맺자고 날 찾아.” 이리로 깡충⁹⁷⁷⁾ 저리로 깡충 거덜거리고 내려온다.

[아니리]

토끼는 위에서 내려오고, 자래는 밑에서 올라가고 서로 찌웃찌웃허다가⁹⁷⁸⁾ 이마와 코를 마주 쳐노니, “아이고, 이마야!” “아이고, 코

을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자, 유방은 장량의 권유에 따라 초나라 땅을 한신에게, 양나라 땅을 팽월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다. 이에 한신과 팽월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다. 경포(黥布)도 뒤에 합세하여 대군으로 항우를 해하 성까지 몰아넣어 무찔렀는데, 이 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973) 도화(桃花) 유수(流水) : 동양화에서, 물가에 있는 복숭아꽃을 다룬 화제.

974) 무릉(武陵) : 우링((武陵, 무릉). ‘창터’의 옛 이름. 여기서는, 무릉도원(武陵桃源). 동진(東晉)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이상향, 별천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진(晉)나라 때 후난(湖南, 호남) 무릉의 한 어부가 배를 저어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핀 수원지로 올라가 굴속에서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하도 살기 좋아 그동안 바깥세상의 변천과 많은 세월이 지난 줄도 몰랐다고 한다.

975) 거주촉객(舉酒屬客) : 술을 들어 손에게 권하다. 소식(蘇軾)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서 “거주촉객 송명월지시 가요오지장(舉酒屬客 誦明月之詩 歌窈窕之章, 술을 들어 손에게 권하며 명월의 시를 외고 요조의 장을 노래하더니)”을 따왔다. (한시 - 9. 1. 참고)

976) 과부(寡婦) :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

977) 깡충 : 짧은 다리를 모으고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 ‘강중’보다 세고 거센 느낌을 준다.

978) 찌웃찌웃허다가 : ‘기우똥기우똥하다가’의 전남 방언. 사설에 따라, ‘짜

야!” “여보, 초면(初面)에 남의 이마는 어찌 당소?” “오, 오비이락(烏飛梨落)⁹⁷⁹이오. 인역⁹⁸⁰ 이마 아픈 줄만 알았지, 남의 코 아픈 줄은 모른단 말씀이오?” 자래 호랭이에게 놀랜 터라, 목을 우무리고⁹⁸¹ 넙죽 엮졌으니,⁹⁸² 토끼 보고 허는 말이, “이것 두리방석⁹⁸³ 같다. 한번 앉어보자!” 팔짝 뛰어 앉어노니, 자래라 허난 게 등을 누르면 목이 나오것다. 목이 실그머니 나오니 토끼 깜짝 놀래, “왔다, 이것 무엇이냐?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어떤 놈이 도리춤치⁹⁸⁴ 속에 배암⁹⁸⁵을 잡아 넣었다. 이제 나오나 보다.” 자래 못 견디어 등을 뜰씩허니⁹⁸⁶ 토끼 팔짝⁹⁸⁷ 자빠지며, “아따, 그놈의 나무 접시 같은 것이 등 심⁹⁸⁸은 대단허다.” “거 뉘라시오?” 토끼 대답허 되, “예, 나는 천상(天上) 월궁(月宮)⁹⁸⁹의 이음양(理陰陽)⁹⁹⁰ 순사

웃짜웃허다가(갸웃갸웃허다가)’를 쓰기도 한다.

979) 오비이락(烏飛梨落)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980) 인역 : 인넉. ‘자기’의 전남 방언.

981) 우무리고 : 우므리고.

982) 엮졌으니 : ‘엮뒸으니’의 전북 방언.

983) 두리방석 : 도리방석. ‘도래방석’의 전남 방언.

984) 도리춤치 : 도리주먼치. ‘두루주머니’의 전남 방언.

985) 배암 : 뱀.

986) 뜰씩허니 : 뜰씩하니. 어깨나 엉덩이 따위가 한 번 들리니.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니. ‘뜰씩하니’보다 센 느낌을 준다.

987) 팔짝 : 갑자기 가볍고 힘 있게 뛰어오르거나 날아오르는 모양.

988) 심 : ‘힘’의 강원 방언.

시(順四時)⁹⁹¹ 하며, 대소월(大小月)⁹⁹²을 가림하며, 회초(晦初)⁹⁹³를 분별(分別)허든 예부상서(禮部尙書)⁹⁹⁴ 월중되려니, 도약(擣藥)⁹⁹⁵ 취중(醉中)⁹⁹⁶의 장생약(長生藥)⁹⁹⁷ 그릇 짓고 상제(上帝)⁹⁹⁸ 전(前) 득죄(得罪)하여,⁹⁹⁹ 차산(此山) 중의 적하(謫下)함에,¹⁰⁰⁰ 세상에서 이르기를 퇴 공(公)¹⁰⁰¹ 선생(先生)이라! 대접(待

989) 월궁(月宮) : 전설에서, 달 속에 있다는 궁전.

990) 이음양(理陰陽) : 음양(陰陽)을 다스리다.

991) 순사시(順四時) : 사시(四時)를 순조(順調)롭게 하다.

992) 대소월(大小月) : 열두 달 가운데에서 큰달과 작은달을 아울러 이르는 말.

993) 회초(晦初) : ‘회초간(晦初間)’의 변형. ‘회초간’은 그믐계부터 다음 달 초승까지의 사이. 사실에 따라, ‘현망회삭(弦望晦朔, 반달 보름달 그믐 초하루)’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심정순·곽창기 창본 수궁가」(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1, 박이정출판사, 1997) 70쪽이 그렇다.

994) 예부상서(禮部尙書) : 고려 시대에 둔 예부(禮部)의 으뜸 벼슬.

995) 도약(擣藥) : 환약 재료를 골고루 섞어 반죽을 한 후 찼어 부드럽게 하는 일. 사실에 따라, ‘도약주(擣藥酒)’를 쓰기도 한다.

996) 취중(醉中) : 술에 취한 동안.

997) 장생약(長生藥) : 오래 살게 한다는 약.

998) 상제(上帝) :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서 각각의 종교에 따라 여러 가지 고유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불가사의한 능력으로써 선악을 판단하고 길흉화복을 인간에게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99) 득죄(得罪)하여 : 남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죄를 얻어.

1000) 적하(謫下)함에 : 귀양을 감에.

1001) 공(公) : 남자의 성이나 성명, 시호(諡號) 뒤에 쓰여, 그를 높여 가리키는 말.

接)을 받고 사요. 게는 뉘라시오?” “예, 나는 남해 수궁 자랑¹⁰⁰²⁾ 별 나리러니 즉문진세지서명¹⁰⁰³⁾ 하고 불원천리이래(不遠千里而來)¹⁰⁰⁴⁾렸다. 피차(彼此)¹⁰⁰⁵⁾ 이리 만나기는 천만몽외(千萬夢外)¹⁰⁰⁶⁾요, 구양(久仰)¹⁰⁰⁷⁾ 성화(聲華)¹⁰⁰⁸⁾러니 하산경지¹⁰⁰⁹⁾ 매하달¹⁰¹⁰⁾이오.” 토끼 욱 먹난지 모르고, “거 우리 두 문장(文章)¹⁰¹¹⁾ 만났으니 문자 저름¹⁰¹²⁾이나 한번 합시다.” “그릅시다.” “피차(彼此)

1002) 자랑 : ‘좌랑(佐郎, 조선 시대 육조의 정육품 벼슬)’의 변형인 듯.

1003) 즉문진세지서명 : ‘즉문진세지성명(卽聞塵世之姓名, 티끌세상의 이름을 금방 듣다)’이나 ‘증문진세지상망(曾聞塵世之相忘, 티끌세상과 서로 잊음을 일찍 듣다)’이나 ‘즉문진세지서명(卽聞塵世之誓命, 티끌세상에 대한 임금의 경계를 금방 듣다)’의 변형인 듯.

1004) 불원천리이래(不遠千里而來) : 천 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오다.

맹자가 양(梁)나라 혜왕(惠王)을 만나러 갔을 때, 혜왕이 대뜸 “노인께서 천 리를 멀리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라고 묻자, 맹자가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라고 대답하였다. 『맹자(孟子)』 양혜왕 상(梁惠王上) 참고.

1005) 피차(彼此) : 이쪽과 저쪽의 양쪽.

1006) 천만몽외(千萬夢外) :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상태.

1007) 구양(久仰) : 오래전부터 우러러 존경해 왔다. 상대방을 처음 대면하여 인사할 때 쓰는 말이다.

1008) 성화(聲華) :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성.

1009) 하산경지 : ‘하상견지만야(何相見之晚也, 어찌 이렇게 늦게 서로 만났던가)’의 변형인 듯.

1010) 매하달 : ‘내 아들’의 변형인 듯.

1011) 문장(文章) : 글을 뛰어나게 잘 짓는 사람.

1012) 저름 : ‘결움’의 옛말. ‘결움’은, 일이나 기술 따위가 익어서 몸에 배다.

이리 만나기는 출가외인(出嫁外人)¹⁰¹³이요, 양상화매(兩相和賣)¹⁰¹⁴요, 법지불행(法之不行)¹⁰¹⁵은 장고(杖鼓/長鼓)¹⁰¹⁶ 통 속이요, 막비왕토(莫非王土)¹⁰¹⁷요, 우이독경(牛耳讀經)¹⁰¹⁸이요, 여필종부(女必從夫)¹⁰¹⁹요, 숙불환생(熟不還生)¹⁰²⁰이요, 여담절각¹⁰²¹이요, 세모방천(防川)¹⁰²²이요, 아가사창(我歌查唱)¹⁰²³이요, 어동육서

또는, ‘겨름’의 방언.

1013) 출가외인(出嫁外人) :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1014) 양상화매(兩相和賣) :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서로 잘 의논하여서 물건을 팔고 사다.

1015) 법지불행(法之不行) : 법지불행(法之不行,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자상범지(自上犯之, 위에서부터 어기기 때문이다).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 참고. 사실에 따라, ‘법치불행’을 쓰기도 한다.

1016) 장고(杖鼓/長鼓) : ‘장구’의 원말.

1017) 막비왕토(莫非王土) :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

1018) 우이독경(牛耳讀經) : 쇠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

1019) 여필종부(女必從夫) :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말.

1020) 숙불환생(熟不還生) : 한번 익힌 음식은 날것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 그대로 두면 썩데없다는 뜻으로, 장만한 음식을 남에게 권할 때 쓰는 말.

1021) 여담절각 : 너의 집 담이 아니었으면 내 소의 뿔이 부러졌겠느냐는 뜻으로, 남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억지를 쓰는 말. 유의어는 여장절각(汝牆折角).

1022) 세모방천(防川) : 모래로 방천(防川)한다. 수고는 하나 아무런 보람이 없는 헛일을 함을 이르는 말.

‘심어방천(甚於防川)’의 변형일 수도 있다. 방민지구 심어방천(防民之口 甚於防川,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시내를 막는 것보다 심하다). 『사기(史記)』 주본기(周本紀) 등 참고.

(魚東肉西)¹⁰²⁴요, 흥동백서(紅東白西)¹⁰²⁵요, 좌포우혜(左脯右醢)¹⁰²⁶요, 친사돈통가문(親查頓通家門)¹⁰²⁷이요, 일구이언(一口二言)허는¹⁰²⁸ 자(者)는 삼천억부지자(三千億父之子)¹⁰²⁹요.” 토끼 육을 많이 먹건마는 모르고, “그 나도 유식(有識)허려니와¹⁰³⁰ 별 주부도 문장이오그려.” “그런디 퇴 서방(書房)¹⁰³¹ 어찌 왔소?” “아, 불르기에¹⁰³² 왔지요. 별 주부는 어찌 왔소?” “세상이 좋다기로 구경차(次)로 나왔으나 별(別) 흥미(興味)를 모르겠으니 퇴 공(公) 좀 일러주오?” 토끼란 놈, 이 말을 듣고 지¹⁰³³ 몸을 자충¹⁰³⁴ 추어 자

1023) 아가사창(我歌查唱) :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는 뜻으로, 자기가 할 말을 상대방에서 먼저 함을 이르는 말.

1024) 어동육서(魚東肉西) : 제사상을 차릴 때에 생선 반찬은 동쪽에 놓고 고기반찬은 서쪽에 놓는 일.

1025) 흥동백서(紅東白西) : 제사상을 차릴 때에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 일.

1026) 좌포우혜(左脯右醢) : 제사상을 차릴 때에 육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놓는 일.

1027) 친사돈통가문(親查頓通家門) : 친가와 사돈집이 서로 대문이 통해 있다.

1028) 일구이언(一口二言)허는 : 일구이언(一口二言)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1029) 삼천억부지자(三千億父之子) : ‘이부지자(二父之子, 아버지가 둘이다)’의 과장인 듯.

1030) 유식(有識)허려니와 : 유식(有識)하러니와. 학문이 있어 견문과 학식이 높으려니와.

1031) 서방(書房) : 벼슬이 없는 사람의 성 뒤에 붙여 이르는 말.

1032) 불르기에 : ‘부르기에’의 전남 방언.

량삼어 허는 말이,

[중모리]

“이내 몸이 한가(閑暇)하야¹⁰³⁵⁾ 일모(日暮) 황혼(黃昏)¹⁰³⁶⁾ 잠이 들어 월출(月出)¹⁰³⁷⁾ 동령(東嶺)¹⁰³⁸⁾ 잠을 깨어 진세(塵世) 간(間) 배회(徘徊)할¹⁰³⁹⁾ 제, 임자 없는 녹수청산(綠水靑山)¹⁰⁴⁰⁾ 내 집 삼어 왕래(往來)¹⁰⁴¹⁾ 값없는 산과(山果)¹⁰⁴²⁾ 목실(木實)¹⁰⁴³⁾ 양식(糧食) 삼어 포식(飽食)허니¹⁰⁴⁴⁾ 신여부운무시비(身與浮雲無是非)¹⁰⁴⁵⁾라.

1033) 지 : ‘제’의 전남, 충북 방언.

1034) 자칭 : ‘자칭(自稱)’의 변형인 듯.

1035) 한가(閑暇)하야 : 한가(閑暇)하여. 겨를이 생겨 여유가 있어.

1036) 황혼(黃昏) :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또는 그때의 어스름한 빛.

1037) 월출(月出) : 달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다.

1038) 동령(東嶺) : 동쪽에 있는 재. ‘월출(月出) 동령(東嶺)’은 동진 도연명의 「잡시(雜詩)」 2에서 “백일윤서아(白日淪西阿, 밝은 해 서쪽 언덕에 지고) 소월출동령(素月出東嶺, 흰 달은 동쪽 산에 뜨는구나)”로 사용된 표현이기도 하다. (한시 - 5. 1. 참고)

1039) 배회(徘徊)할 : 배회(徘徊)할. 특정한 목적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걸어 다닐.

1040) 녹수청산(綠水靑山) : 푸른 산과 푸른 물이라는 뜻으로,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을 이르는 말.

1041) 왕래(往來) : 가고 오고 하다.

1042) 산과(山果) : 산에서 나는 과실.

1043) 목실(木實) : 나무의 열매.

1044) 포식(飽食)허니 : 포식(飽食)하니. 배부르게 먹으니.

1045) 신여부운무시비(身與浮雲無是非) : 몸은 뜬 구름처럼 시비를 따지지

명산(名山)¹⁰⁴⁶ 찾아 완경(玩景)힐¹⁰⁴⁷ 제 여산동남오로봉(廬山東南五老峰)¹⁰⁴⁸과 진국명산(鎭國名山)¹⁰⁴⁹ 만장봉(萬丈峯)¹⁰⁵⁰ 첩고(疊高)¹⁰⁵¹ 무산(巫山)¹⁰⁵² 십이봉(十二峰)¹⁰⁵³ 봉래(蓬萊)¹⁰⁵⁴ 방장(方丈)¹⁰⁵⁵ 영주산(瀛洲山)¹⁰⁵⁶ 태산(泰山)¹⁰⁵⁷ 송산(嵩山)¹⁰⁵⁸ 화

않는다네. 당 잠삼(岑參)의 시 ‘태백호승가(太白胡僧歌)’에서 “심장유수동청정(心將流水同淸淨, 마음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맑고도 깨끗한데) 신여부운무시비(身與浮雲無是非)”를 따왔다. (한시 - 18. 1. 참고)

1046) 명산(名山) : 이름난 산.

1047) 완경(玩景)힐 : 완경(玩景)할. 풍경 따위를 즐길.

1048) 여산동남오로봉(廬山東南五老峰) : 루산(廬山, 여산) 동남의 오로봉은. 당 이백의 시 ‘등여산오로봉(登廬山五老峰)’에서 “여산동남오로봉(廬山東南五老峰) 청천삭출금부용(靑天削出金芙蓉, 푸른 하늘에 깎여 나온 황금 연꽃 같네)”을 따왔다. (한시 - 14. 2. 참고)

1049) 진국명산(鎭國名山) : 진산(鎭山). 도읍지나 각 고을에서 그곳을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으로 정하여 제사하던 산. 조선 시대에는 동쪽의 금강산, 남쪽의 지리산, 서쪽의 묘향산, 북쪽의 백두산, 중심의 삼각산을 오악(五嶽)이라고 하여 주산으로 삼았다.

1050) 만장봉(萬丈峯) : 매우 높은 산봉우리.

1051) 첩고(疊高) : 거듭 높다. ‘초국(楚國)’의 변형일 수도 있다. 『박순호 소장 22장본 <퇴기전>』은 “楚國 巫山 十二峰과”(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3, 박이정출판사, 1998, 227쪽)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1052) 무산(巫山) : ‘우산’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1053) 십이봉(十二峰) : 우산(巫山, 무산) 십이봉(十二峰)은 망하(望霞)·취병(翠屏)·조운(朝雲)·송만(松巒)·집선(集仙)·취학(聚鶴)·정단(淨壇)·상승(上昇)·기운(起雲)·비봉(飛鳳)·등룡(登龍)·성천(聖泉)인데, 바로 선경을 말한다.(『방여승람(方輿勝覽)』)

1054) 봉래(蓬萊) : 중국 전설에서 나타나는 가상적 영산(靈山). 동쪽 바다의 가운데에 있으며, 신선이 살고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한다.

산(華山)¹⁰⁵⁹)이며, 만악¹⁰⁶⁰)의 천태산(天台山)¹⁰⁶¹) 아미산(峨眉山)¹⁰⁶²) 수양산(首陽山)¹⁰⁶³) 동(東) 금강(金剛)¹⁰⁶⁴) 서(西) 구월(九月)¹⁰⁶⁵) 남(南) 지리¹⁰⁶⁶) 북 향산(香山)¹⁰⁶⁷) 가야산(伽倻山)¹⁰⁶⁸) 속

1055) 방장(方丈) :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동해에 있다고도 하며 지리산이라고도 한다.

1056) 영주산(瀛洲山) :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산. 이 이름을 본떠 우리나라의 한라산을 영주산이라 이르기도 한다.

1057) 태산(泰山) : ‘타이산산’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1058) 숭산(嵩山) : 쑹산(嵩山, 숭산). 중국 오악(五嶽) 가운데 하나. 중국 허난성 서북부 뤼양 동쪽에 있다. 높이는 1,600미터.

1059) 화산(華山) : ‘화산산’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1060) 만악 : 만학(萬壑). 첩첩이 겹쳐진 많은 골짜기.

1061) 천태산(天台山) : 텐타이산(天台山). 중국 저장성(浙江省) 텐타이현(天台縣, 천태현)에 있는 명산. 수나라 때에 지의가 천태종을 개설한 곳으로 불교의 일대 도량(道場)이며, 지금도 국청사 따위의 큰 절이 있다.

1062) 아미산(峨眉山) : 어메이산(峨眉山, 아미산). 중국 쓰촨성(四川省) 서남쪽에 있는 산. 대아(大峨)·중아(中峨)·소아(小峨)의 세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봉우리가 마주 보고 있는 것이 아미(峨眉)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는 3,099미터.

1063) 수양산(首陽山) : ‘서우양산’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1064) 금강(金剛) : 강원도의 북부에 있는 명산. 기암괴석이 많고, 곳곳에 폭포와 못이 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내무재의 서쪽을 내금강, 동쪽을 외금강, 바다에 솟아 있는 섬들을 해금강이라 부르며, 특히 외금강에는 신만물초, 구만물초, 내만물초가 있다. 높이는 1,638미터.

1065) 구월(九月) : 구월산(九月山). 황해도 신천군과 은율군 사이에 있는 산. 단군이 은퇴한 ‘아사달’이 이 산이라고 한다. 높이는 954미터.

1066) 지리 : 지리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걸쳐 있는 산. 소백산맥 남쪽에 있는 산으로 청학동(靑鶴洞), 칠불암(七佛菴) 따위가 유명하다. 국

리산(俗離山)¹⁰⁶⁹을 구경허고¹⁰⁷⁰ 무산(巫山)의 낙조(落照) 경(景)과 양곡(陽谷)¹⁰⁷¹의 일출(日出) 경(景)을 역력히 보았으니, 등태산(登太山) 소천하(小天下)¹⁰⁷² 공부자(孔夫子)¹⁰⁷³ 대관(大觀)¹⁰⁷⁴인

립 공원의 하나이다. 최고봉인 천왕봉(天王峯)의 높이는 1,915미터.

1067) 향산(香山) : 묘향산(妙香山). 평안북도 영변군 신현면과 백령면의 경계에 있는 산. 묘향산맥의 주봉으로서, 단군이 내려왔다는 전설로 유명하다. 산속에는 보현사와 서산(西山), 사명(四溟) 두 대사의 원당(願堂)이 있다. 높이는 1,909미터.

1068) 가야산(伽倻山) : 경상북도 성주군과 경상남도 합천군 사이에 있는 산. 국립 공원의 하나로, 해인사·황제 폭포 따위의 명승지가 있다. 높이는 1,430미터.

1069) 속리산(俗離山) :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과 괴산군 및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사이에 있는 산. 소백산맥 가운데 있으며 경치가 좋아 소금강(小金剛)이라고 한다. 호서 지방에서 제일가는 도량(道場)인 법주사가 유명하며, 국립 공원의 하나이다. 높이는 1,058미터.

1070) 구경허고 : 사실에 따라, ‘편답(遍踏, 이곳저곳을 널리 돌아다니다)허고’를 쓰기도 한다.

1071) 양곡(陽谷) : 해가 처음 뜨는 곳.

1072) 등태산(登太山) 소천하(小天下) : 타이산산(泰山,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기시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기시고 타이산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웬만한 물은 물로 여겨지기 어렵고 성인의 문하에서 배운 자에게는 웬만한 말은 말로 여겨지기 어렵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故觀於海者 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 難爲言).”라고 한 구절이 있다. 고요히 바다를 바라본 것을 공자(孔子)가 자연 속에서 높은 기상을 길렀던 것에 견준 것이다.

1073) 공부자(孔夫子) : ‘공자’를 높여 이르는 말.

1074) 대관(大觀) : 크고 넓게 전체를 내다보다. 또는 그런 관찰.

들 이어서¹⁰⁷⁵) 더할쏘냐? 안기생(安期生)¹⁰⁷⁶) 적송자(赤松子)¹⁰⁷⁷)도
내의 제자 삼어 두고 장생불로(長生不老)¹⁰⁷⁸) 가르치며, 이따금 심
심하면 좋아리 땅땅 치니, 이내 호강¹⁰⁷⁹)이 어떠한가?”

[아니리]

자래 그 말 반겨듣고, “참 좋은 말씀이오! 세상의 제일(第一)가
는¹⁰⁸⁰) 호걸(豪傑)¹⁰⁸¹)이오그려. 그러나, 퇴 선비 상(相)¹⁰⁸²)을 잠깐
살펴보니 얼굴은 일색(一色)¹⁰⁸³)이나 미간(眉間)¹⁰⁸⁴)의 화망(火
亡)¹⁰⁸⁵) 살(煞)¹⁰⁸⁶)이 들어 죽을 액(厄)¹⁰⁸⁷)을 꼭 여덟 번 격끄겼

1075) 이어서 : 이어서. ‘이어서’는, ‘이에서’의 울산 지역어. 『고향말여
행.com』 참고.

1076) 안기생(安期生) : 중국 진(秦)나라 시황(始皇) 때의 선인(仙人). 시황이
동쪽으로 순유(巡遊)할 때 그와 사흘 밤을 함께 이야기하고서 황금(黃金)과
백벽(白璧)을 주었는데, 다 두고 가면서 천년 후에 자기를 봉래산(蓬萊山)에
서 찾아달라는 글을 남겼다 한다.

1077) 적송자(赤松子) : 신농씨 때에, 비를 다스렸다는 신선의 이름.

1078) 장생불로(長生不老) : 늙지 아니하고 오래 살다.

1079) 호강 :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다. 또는 그런 생활.

1080) 제일(第一)가는 : 여럿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1081) 호걸(豪傑) :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개와 풍모가 있는 사람.

1082) 상(相) : 관상에서, 얼굴이나 체격의 됃됨이.

1083) 일색(一色) : 뛰어난 미인.

1084) 미간(眉間) : 두 눈썹의 사이.

1085) 화망(火亡) : 불로 망(亡)하다. 사설에 딸, ‘화망(禍亡, 재앙으로 망하
다)’을 쓰기도 한다.

1086) 살(煞) :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

소.¹⁰⁸⁸)” “허, 여보쇼. 내가 설령 그런다 허드라도 그 안전에 그런 박절(迫切)^한¹⁰⁸⁹ 말이 어디 있단 말이오?” “화(火)를 내실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토(兔) 공(公) 상(相)을 일러줄 테니 들어 보시오.”

[자진모리]

“일개(一介)¹⁰⁹⁰ 한(寒)퇴¹⁰⁹¹ 자네¹⁰⁹² 몸이 삼춘(三春)¹⁰⁹³ 구추(九秋)¹⁰⁹⁴ 다 보내고, 대한(大寒) 엄동(嚴冬)¹⁰⁹⁵ 설한풍(雪寒風)¹⁰⁹⁶ 만학(萬壑)¹⁰⁹⁷의 눈 쌓이고 천봉(千峯)¹⁰⁹⁸의 바람 칠 제, 화초(花草)¹⁰⁹⁹ 목실(木實)¹¹⁰⁰ 바이¹¹⁰¹ 없어 어둑한 바우¹¹⁰² 틈,

1087) 액(厄) : 모질고 사나운 운수.

1088) 격끄겼소 : ‘겪으시겠소’의 방언인 듯.

1089) 박절(迫切)한 : 인정이 없고 쌀쌀한.

1090) 일개(一介) : 보잘것없는 한 날.

1091) 한(寒)퇴 : 한토(寒兔). 한빈(寒貧)한 토끼.

1092) 자네 :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이 인칭 대명사. 하계할 자리에 쓴다.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거나 이를 때, 또는 결혼한 남자가 처남을 부르거나 이를 때도 쓸 수 있다.

1093) 삼춘(三春) : 봄의 석 달. 맹춘(孟春), 중춘(仲春), 계춘(季春)을 이른다.

1094) 구추(九秋) : 가을철의 약 90일 동안을 이르는 말.

1095) 엄동(嚴冬) : 몹시 추운 겨울.

1096) 설한풍(雪寒風) : 눈 위로, 또는 눈이 내릴 때에 휘몰아치는 차고 매서운 바람.

1097) 만학(萬壑) : 첩첩이 겹친 많은 골짜기.

1098) 천봉(千峯) : 수많은 산봉우리.

1099) 화초(花草) : 꽃이 피는 풀과 나무 또는 꽃이 없더라도 관상용이 되는

벗 없이 앓은 모냥,¹¹⁰³⁾ 채운편월¹¹⁰⁴⁾ 무관수(武關囚)¹¹⁰⁵⁾의 초(楚) 회왕(懷王)¹¹⁰⁶⁾의 고생(苦生)이요, 일월(一月)¹¹⁰⁷⁾ 고초(苦楚)¹¹⁰⁸⁾

모든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1100) 목실(木實) : 나무의 열매.

1101) 바이 : 아주 전혀.

1102) 바우 : ‘바위’의 강원, 경기, 경상, 전남, 충북 방언.

1103) 모냥 : ‘모양’의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제주, 충남, 황해 방언.

1104) 채운편월 : 천운폐월(天雲閉月, 하늘의 구름이 달을 가리다)의 변형인 듯. 예를 들어, 「가람본 <별토가>」에서 “天雲 閉月 無光 속의”(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2, 박이정출판사, 1998, 86쪽)를 쓴다.

그리고 「<부록 1> 정응민 <수궁가> 창본 (1935)」 152쪽은 “철른핑월”을 쓰고 있다. 이 자료는 정희석·조정희가 탈초(脫草) 하여, 정희석의 「정응민 가계 <수궁가>의 음악적 특징과 전승양상」(한양대 박사 학위 논문, 한양대, 2014)에 실린 것이다.

채운(彩雲, 상서로운 구름) 편월(片月, 음력 초닷셋날 전후와 스무닷셋날 전후에 뜨는, 반달보다 더 이지러진 달)로 풀기도 한다.

1105) 무관수(武關囚) : 우관(武關, 무관)에 갇힌 죄수. ‘우관’은, 관문 이름. 형주 남양군(南陽郡)에 속한다. 북쪽으로는 높은 산이 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깊은 계곡이 놓여 있어 군사상 요충지였다. 지금의 산시성(陝西省) 상현성(商縣城) 동남쪽에 있다.

1106) 초(楚) 회왕(懷王) : 회왕(懷王)은 기원전 328년에 즉위하여 기원전 296년까지 재위한 초(楚)나라 군주다. 초 회왕 30년, 진(秦)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여 8개성을 빼앗자 회왕은 내쫓았던 굴원(屈原)을 불러들였고 굴원은 제(齊)나라와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진 소왕(昭王)은 초 회왕에게 우관(武關)에서 맹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한다. 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 회왕은 우관으로 갔다가 바로 연금되고 끝내 초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진나라에서 사망한다.

1107) 일월(一月) : 사설에 따라, ‘일월(日月)’을 쓰기도 한다. ‘일월(日月)’은,

북해상(北海上)의 소(蘇) 중랑(中郎)¹¹⁰⁹의 곤궁(困窮)이라. 주려¹¹¹⁰ 죽을 자네 몸이 삼동(三冬)¹¹¹¹ 고생(苦生)을 다 보내고, 벽도홍행(碧桃紅杏)¹¹¹² 춘(春) 이월(二月)의 주린 구복(口腹)¹¹¹³을 채우라, 심곡(深谷)¹¹¹⁴ 심산(深山)¹¹¹⁵ 기다릴 제, 골골이¹¹¹⁶ 문헌

‘달과 달’의 뜻으로, ‘세월’을 이르는 말.

또는, ‘이월(二月)’의 변형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람본 <별토가>」에서 “二月 孤村”(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2, 박이정출판사, 1998, 86쪽)을 쓴다. 물론 「이선유 창본 수궁가」 등에서는 “일월동풍”(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1, 박이정출판사, 1997, 111쪽)을 쓰기도 한다.

1108) 고초(苦楚) : 살아가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일이나 상황.

1109) 소(蘇) 중랑(中郎) : 한(漢) 나라의 충신인 소무(蘇武, 기원전 ?~기원전 60). 한 무제 때인 기원전 100년에 중랑장(中郎將)으로서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있었다.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자, 기러기의 발목에 소식을 적은 비단 형짚을 매어 고향으로 날려 보내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렸다고 한다. 19년 만에 돌아가게 되었다.

사실에 따라, ‘백등지위(白登之圍, 백등의 포위)’를 염두에 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한(漢)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흉노(匈奴)를 공격했을 때, 평성(平城) 백등(白登)에서 7일 동안 포위되었다가 풀려났던 일을 말한다. 이는 평성지치(平城之恥, 평성의 치욕)라고도 한다.

1110) 주려 :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를 곯아.

1111) 삼동(三冬) : 겨울의 석 달.

1112) 벽도홍행(碧桃紅杏) : 벽도나무의 꽃과 붉은 살구꽃. 몇몇 시구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이다.

1113) 구복(口腹) : 먹고살기 위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입과 배.

1114) 심곡(深谷) : 깊은 골짜기.

1115) 심산(深山) : 깊은 산.

1116) 골골이 : 골짜기마다.

것 목다래¹¹¹⁷⁾ 엄 착귀¹¹¹⁸⁾요. 지숙¹¹¹⁹⁾으로 도난 것 사냥개 몰이
꾼¹¹²⁰⁾ 험산곡(險山谷)¹¹²¹⁾ 있던 것은 토끼 었난¹¹²²⁾ 아호(餓

1117) 목다래 : 목다리(‘길목’의 경북 방언). 또는, 목 다래. ‘다래’는, 새를 잡는 기구의 하나. 달걀 꾸러미 모양의 짚 꾸러미에 조 이삭을 엮어 비끄러매고, 그 위에 말총 올가미를 여러 개 매달아 겨울철 눈 갠 아침에 나뭇가지에 걸어 놓아 새를 잡는다. 평안북도에서 사용한다.

1118) 엄 착귀 : ‘음 착기’인 듯. ‘음 착기’는, ‘음 창애’의 방언. ‘창애’는, 짐승을 피어서 잡는 틀의 하나.

창애는, 곳에 따라 차구·차기·차깨·착기·음 창아 등으로 부른다. 꿩·비둘기·토끼·오소리·너구리 따위의 작은 짐승을 잡는다. 사냥감에 따라 ‘참새 창애·꿩 창애’라 한다. 참새 따위를 잡는 작은 창애는 나무로 만들지만, 큰 것은 몸체만 나무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쇠붙이를 쓴다. 쇠붙이 창애는 나무 창애의 발전형이다.(김광연, 「한국 재래 사냥구와 사냥법」, 국립민속박물관 편, 『생활문화연구』 18호, 국립민속박물관, 2006, 47쪽)

음 창애는, 길이 50cm, 지름 4cm쯤 되는 나무 두 개를 너비 30cm 정도로 나란히 놓고 이를 기둥 삼아 짧은 작대기를 가로로 촘촘하게 놓고 엮는다. 이 기둥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묶으며, 위쪽에는 지게 작대기를 세장에 걸쳐 듯이 짧은 나무로 받쳐 놓는다. 그리고 좌우 양쪽에 돌을 쌓아서 틀을 고정하며 손갈처럼 생긴 나무, 곧 손갈 대의 한끝에 미끼를 꿰어 두고, 틀 안에 끈을 달아 손갈 대를 팽팽하게 바로 세운다. 짐승이 미끼를 건드리면 손갈 대 끈이 벗겨지면서 틀이 내려 앉는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encykorea.aks.ac.kr) ‘사냥’ 항목 참고)

1119) 지숙 : 지슌(기슌).

1120) 몰이꾼 :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으로 몰아넣는 사람.

1121) 험산곡(險山谷) : 가파르고 험악한 산곡(山谷, 산과 산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

1122) 었난 : ‘옛는’의 변형인 듯. ‘옛는’은, ‘옛보는’의 옛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옛-’으로 나타난다.

虎)¹¹²³로다. 송하(松下)의 숨은 것 잘 놓는¹¹²⁴ 저 포수(砲手)¹¹²⁵ 오난 토끼를 노랴¹¹²⁶ 허고 왜물(倭物)¹¹²⁷ 조총(鳥銃)¹¹²⁸ 약(藥)¹¹²⁹을 잡아 대돈잡이¹¹³⁰ 철환(鐵丸)¹¹³¹ 넣어 불 박어 손의 들고 은근이¹¹³² 앉졌다가¹¹³³ 토끼 앞의 당도(當到)허면¹¹³⁴ 한 눈 찡그리고 반(半)만 일어서면 불빛에 불 반짝 광 허 총 노니,¹¹³⁵ “아익 그런 총(銃)소리 내지 마오. 우리 삼대가 총으로 다 망(亡)했소.” “그라면 어디로 갈꼬¹¹³⁶ 그라면 어디로 갈꼬, 들로 내려가

1123) 아호(餓虎) : 굶주린 범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험하거나 무서운 대상을 이르는 말.

1124) 놓는 : 총이나 대포를 쏘는.

1125) 포수(砲手) : 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1126) 노랴 : 놓으려. 총이나 대포를 쏘려. 또는 ‘놓으리라’, ‘총이나 대포를 쏘리라’일 수도 있다.

1127) 왜물(倭物) : 일본에서 수입한 물건을 낮잡아 이르는 말.

1128) 조총(鳥銃) : ‘화승총’을 달리 이르는 말.

1129) 약(藥) : 열, 전기, 충격 따위의 가벼운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연소 또는 분해 반응을 일으키고 높은 온도의 열과 압력을 가진 가스를 발생시켜 파괴, 추진 따위의 작용을 행하는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화약(火藥).

1130) 대돈잡이 : ‘대푼쫓잡이’의 변형인 듯. ‘대푼쫓’은, 한 푼의 무게.

1131) 철환(鐵丸) : ‘처란(쇠붙이로 잔 탄알같이 만든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원말.

1132) 은근이 : ‘은근히’의 옛말.

1133) 앉졌다가 : 앉았다가.

1134) 당도(當到)허면 : 당도(當到)하면. 어떤 곳에 다다르면.

1135) 노니 : 놓으니.

제.1137) ” “은(殷) 왕(王) 성탕(成湯)¹¹³⁸⁾ 가신 후의 그 그물¹¹³⁹⁾ 다투
 가 들며 들로 내려 토끼 은신(隱身)¹¹⁴⁰⁾ 숨풀¹¹⁴¹⁾ 속의 막대로 뛰
 다리며¹¹⁴²⁾ 워리¹¹⁴³⁾ 오호 쫓난 것 술 먹은 초동(樵童)¹¹⁴⁴⁾이라. 그
 대 신세(身世/身勢)¹¹⁴⁵⁾ 생각하면 적벽(赤壁)¹¹⁴⁶⁾ 강산(強酸) 전패
 허든 조맹덕(曹孟德)¹¹⁴⁷⁾의 정신(精神)이라. 적은 눈 부릅뜨고 짜
 른¹¹⁴⁸⁾ 꿈지 뒷 찌고 험산고산 절벽상(絶壁上) 바빠 바빠 달아날

1136) 갈꼬 : ‘갈고’의 옛말.

1137) 내려가제 : ‘내려가지’의 경상, 전남 방언.

1138) 성탕(成湯) : ‘탕왕’의 다른 이름.

1139) 그물 :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들판에 수렵하러 나갔다가, 어떤 사람
 이 사방에 그물을 쳐 놓고 빌기를, “하늘로부터 사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
 그물로 들어오라” 하는 것을 보고, 탕 임금의 다시 삼면의 그물을 터놓은 채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되, 내 명을 따르지 않으려거든 그물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였는데, 제후
 들이 이 말을 듣고 “탕왕의 덕이 지극하여 금수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하였다
 는 고사를 가리킨다.(『사기(史記)』 참고)

1140) 은신(隱身) : 몸을 숨기다.

1141) 숨풀 : 수풀의 전라 방언.

1142) 뛰다리며 : 뛰드리며. 뛰뒤리며. ‘뛰드리며’는, ‘뚜드리며’의 평북 방언.
 ‘뛰뒤리며’는, ‘뚜드리며’의 경북, 평북 방언.

1143) 워리 : 개를 부를 때 쓰는 말.

1144) 초동(樵童) : 땔나무를 하는 아이.

1145) 신세(身世/身勢) : 주로 불행한 일과 관련된 일신상의 처지와 형편.

1146) 적벽(赤壁) : 후베이성 가어현(嘉魚縣) 동북쪽, 양쯔강의 남안(南岸)에
 있는 절벽이다. 이곳에서 삼국(三國) 시대에 주유(周瑜)가 조조(曹操)의 군대
 를 대파하였다.

1147) 조맹덕(曹孟德) : 조조(曹操).

제, 목궁기¹¹⁴⁹) 쓴 내¹¹⁵⁰) 나고 밑궁기¹¹⁵¹) 조총(鳥銃) 놀¹¹⁵²) 제
 조생모사(朝生暮死)¹¹⁵³) 자내 신세 한가(閑暇)허다고¹¹⁵⁴) 뉘라 허
 며, 만산(滿山) 풍경(風景) 좋다헌들 무슨 정(情)의 완월(玩月)?¹¹⁵⁵)
 무슨 정(情)의 유산(遊山)헐까?¹¹⁵⁶) 안기생 좋아리 때렸단 그런 거짓말
 일랑 날다려 다시 마소.”

[아니리]

토끼 듣고 녀¹¹⁵⁷)이 없어, “여보 그러면 수궁 풍경(風景) 소식(消
 息) 좀 들어봅시다. 내 세상은 이렇게 복잡(複雜)허려니와 수궁 풍
 경 좀 들어봅시다.” “말이라 허는 것 들으면 병(病)이지요. 이렇게
 팔난(八難)¹¹⁵⁸) 세상(世上) 살든 자네가 수궁 풍경 소식 듣고 가
 기로 하면 내가 한 등짐 헐 터이니 부질없제.” “아 주공, 그 봉우유신

1148) 짜른 : ‘짧은’의 제주 방언.

1149) 목궁기 : ‘목구멍’의 함북 방언.

1150) 내 :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1151) 밑궁기 : ‘똥구멍’의 경남, 함경 방언.

1152) 놀 : 놓을. 총이나 대포를 쏘.

1153) 조생모사(朝生暮死) : 아침에 나고 저녁에 죽다.

1154) 한가(閑暇)허다고 : 한가(閑暇)하다고. 겨를이 생겨 여유가 있다고.

1155) 완월(玩月) : 달을 구경하며 즐기다.

1156) 유산(遊山)헐까 : 유산(遊山)할까. 산으로 놀러 다닐까.

1157) 녀 : ‘넋’의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방언.

1158) 팔난(八難) : 여덟 가지의 괴로움이나 어려움.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란(兵亂)을 이른다.

(朋友有信)¹¹⁵⁹이란 말도 있고 추우강남(追友江南)¹¹⁶⁰이란 말이 있는데 벗은 몰라보고 혼자만 알려코져¹¹⁶¹ 하니 참 무식(無識)하기 짝이 없구만.” 별 주부 속으로 은근이 좋아라고, “오 그렇다면 내 이를 테니 들어 보시오.”

[진양조]

“우리 수궁 장관(壯觀)¹¹⁶²이라. 천양지간(天壤之間)¹¹⁶³의 무변대해(無邊大海)¹¹⁶⁴ 영덕전 높은 집을 천여 단 지였으되, 호박(琥珀)¹¹⁶⁵ 기둥 황금(黃金) 주추¹¹⁶⁶ 산호주¹¹⁶⁷로 난간(欄干/欄

1159) 봉우유신(朋友有信) : 오륜(五倫)의 하나. 벗과 벗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이른다.

1160) 추우강남(追友江南) :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뜻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게 이끌려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

1161) 알려코져 : 알려하고자. ‘-고져’는, ‘-고자’의 옛말.

1162) 장관(壯觀) :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

1163) 천양지간(天壤之間) : 하늘과 땅 사이라는 뜻으로, 이 세상을 이르는 말.

1164) 무변대해(無邊大海) : 끝없이 넓은 바다.

1165) 호박(琥珀) : 지질 시대 나무의 진 따위가 땅속에 묻혀서 탄소, 수소, 산소 따위와 화합하여 굳어진 누런색 광물.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고 광택이 있으며, 불에 타기 쉽고 마찰하면 전기가 생긴다. 장식품이나 절연재 따위로 쓴다.

1166) 주추 : 기둥 밑에 괴는 돌 따위의 물건.

1167) 산호주 : 산호주(珊瑚株)인 듯. ‘산호주(珊瑚株)’는 산호수(珊瑚樹). ‘산호수’는, 자금우과의 상록 소관목. 높이는 5~8cm이며, 잎은 돌려나고 타원형이다. 6월에 흰색 꽃이 산형(繖形) 화서로 피고 9월에 붉은 열매가 익는다.

杆)¹¹⁶⁸ 허여 수궁(水宮) 패궐(貝闕)¹¹⁶⁹은 영롱(玲瓏)허여¹¹⁷⁰ 삼광(三光)을 응(應)허였고,¹¹⁷¹ 곤의수상(袞衣繡裳)¹¹⁷² 황홀(恍惚)허여 오복(五福)을 갖췄으니¹¹⁷³ 우리 용왕(龍王) 즉위(卽位)허사 만조 귀시¹¹⁷⁴허고 백성이 앙덕(仰德)¹¹⁷⁵이라. 앵무금잔(鸚鵡金

관상용이고 낮은 지대의 숲이나 골짜기에 나는데 한국의 제주와 일본에 분포한다.

산호주(珊瑚珠)일 수도 있다. ‘산호주(珊瑚珠)’는, 산호로 만든 구슬. 분홍빛, 붉은빛, 흰빛 따위가 있으며 여러 가지 장식에 쓰인다.

1168) 난간(欄干/欄杆) : 층계, 다리, 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장식으로 설치한다.

1169) 수궁(水宮) 패궐(貝闕) : “주궁패궐(珠宮貝闕)”의 변형이다. “주궁패궐”은, 주궐(珠闕). 진주와 보패로 이룬 궁궐로, 수신(水神)이 사는 곳이다.

1170) 영롱(玲瓏)허여 : 영롱(玲瓏)하여. 광채가 찬란하여.

1171) 삼광(三光)을 응(應)허였고 :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 해와 달과 별빛에 맞다)”의 변형이다.

1172) 곤의수상(袞衣繡裳) : 곤룡포(袞龍袍) 저고리에 수놓은 바지. 『시경』 국풍(國風) 빈풍(豳風) 구역(九罭)에 나오는 “아구지자(我覲之子, 동인들이 주공을 만나보니) 곤의수상(袞衣繡裳, 그 곤의와 수상의 복장을 보는도다)”에서 따온 것이다. 참고로 ‘주공(周公)’은 중국 주나라의 정치가(기원전 ?~기원전 ?). 문왕의 아들로 성은 희(姬). 이름은 단(旦). 형인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였고, 주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예악 제도(禮樂制度)를 정비하였으며, 『주례(周禮)』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1173) 오복(五福)을 갖췄으니 : “비인간지오복(備人間之五福 인간의 오복을 갖추게 하다)”의 변형이다.

“주궁패궐 응천상지삼광 곤의수상 비인간지오복”은 『전등신화(剪燈新話)』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의 구절이다.

1174) 만조 귀시 : “만족귀인(萬族歸仁, 만 겨레가 인에 귀의하고)”의 변형이다. 명의 구우가 지은 단편 소설집인 『전등신화』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표현

羹)¹¹⁷⁶의 천일주(千日酒)¹¹⁷⁷ 천빈옥반(玉盤)¹¹⁷⁸의 불로주(不老酒)¹¹⁷⁹ 빈사과¹¹⁸⁰를 싫도록 자신¹¹⁸¹ 후(後)의 수궁 미색(美色)¹¹⁸² 수십(數十) 명(名)을 좌우(左右)로 늘어세우고 자언거수승거산(自言居水勝居山)¹¹⁸³이라. 요지(瑤池)¹¹⁸⁴로 들어가니 칠백(七

이다.

1175) 백성이 양덕(仰德) : “백령양덕(百靈仰德, 온갖 신령이 덕을 앙모하다)”의 변형이다. 『전등신화』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표현이다.

1176) 앵무금잔(鸚鵡金盞) : 앵무잔(鸚鵡盞). 본디 앵무라(鸚鵡螺)로 만든 술잔을 말하는데, 전하여 일반 술잔의 뜻으로도 쓰인다. 사설에 따라, ‘왕모금잔’ 등을 쓰기도 한다. 이는, “왕모조금정(王母調金鼎, 서왕모는 금 솥에 음식을 장만하고)”의 변형이다.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표현이다.

1177) 천일주(千日酒) : 마시면 천일 동안 취한다는 술.

1178) 천빈옥반(玉盤) : “천비봉옥반(天妃捧玉盤, 천비는 옥반을 받드네)”의 변형이다.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표현이다.

‘천비(天妃)’는, 중국의 남부와 중부의 바닷가 일대와 대만 지방의 민간에서 믿고 있는 바다의 여신.

1179) 불로주(不老酒) : 마시면 늙지 않는다고 하는 술.

1180) 빈사과 : 유밀과의 하나. 강정을 만들 때 나오는 부스러기를 기름에 지져 조청으로 버무리며 멥쌀가루를 섞어서 육면체로 썰거나 틀에 넣어 육면체가 되게 한 후, 여러 가지 색깔로 물을 들인다.

1181) 자신 : ‘먹은’의 높임말. ‘드신’보다 존대의 정도가 높다.

1182) 미색(美色) : 아름다운 여자.

1183) 자언거수승거산(自言居水勝居山) : 雪鬢漁翁住浦間(설빈어옹주포간, 귀밑머리 흰 늙은 어부 물가에 살면서), 自言居水勝居山(물가에 사는 것이 산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 말하네).

「어부가(漁父歌)」는 일찍이 고려 때부터 12장으로 된 장가와 10장으로 된 단가로 전해져 왔는데,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가 이를 개작하여 9장의 장가와 5장의 단가로 만들었다. 이는 9장의 장가 중 제1장의 내

百) 리(里) 군산(君山)¹¹⁸⁵들은 무산(巫山)에 빗겨 있고 삼천사(三千沙)¹¹⁸⁶ 해당화(海棠花)는 약수(弱水)¹¹⁸⁷에 붙어있다. 해내(海內) 태평(太平)하여 월청명(月清明)¹¹⁸⁸ 추강상(秋江上) 어적(漁笛) 소리 화답(和答)하며,¹¹⁸⁹ 경수(涇水)¹¹⁹⁰ 위수(渭水)¹¹⁹¹ 회수(淮水)¹¹⁹² 낙수(洛水)¹¹⁹³ 혹거혹래(或去或來)¹¹⁹⁴ 노닐 적에, 청풍

용이다. 『농암집』 권3에 실려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雪鬢漁翁이住浦間 自言居水이勝居山이라흐는듯다 비떠라비떠라早潮纔落晚潮來흐는라 至菊戀至菊戀於思臥 倚船漁父이一肩이高로다”

1184) 요지(瑤池) :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못. 신선이 살았다고 하며, 주나라 목왕이 서왕모를 만났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1185) 군산(君山) : 군산도(君山島). ‘동정호(洞庭湖, 동팅호) 칠백 리’라는 관용구로도 유명한 ‘동팅호’에 있는 섬이다. 고급 녹차의 일종인 ‘군산은침(君山銀針)’이 이곳에서 난다.

1186) 삼천사(三千沙) : 삼천 리의 명사(名沙, 곱고 부드러운 모래).

1187) 약수(弱水) :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한다.

1188) 월청명(月清明) : 달이 청명(清明)하다. 사설에 따라, ‘월정명’을 쓰기도 한다.

1189) 화답(和答)하며 : 시(詩)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하며.

1190) 경수(涇水) : 중국 산시성(陝西省)에 있는 강 이름. 웨이수이(渭水, 위수)가 맑은 데 비해 탁한 물의 대명사로 곧잘 쓰인다.

1191) 위수(渭水) : 웨이수이(渭水). 중국 황허강(黃河江)의 큰 지류(支流). 간쑤성(甘肅省) 동남부에서 시작하여 산시성(陝西省)으로 흘러 황허강으로 들어간다.

1192) 회수(淮水) : 화이수이(淮水, 회수). ‘화이하강’의 다른 이름.

1193) 낙수(洛水) : 중국 허난성(河南省) 서부에 있는 강 이름. 산시성(陝西省)의 동부 친링산맥(秦嶺山脈)에서 발원한 후 동류(東流)하여 허난성을 지나

(淸風)¹¹⁹⁵ 적벽(赤壁) 소자침(蘇子瞻)¹¹⁹⁶과 애월(愛月)¹¹⁹⁷ 허던 태백(太白)¹¹⁹⁸이도 수궁 풍경 보았으면 세상에 머물쏘냐? 원컨대 퇴 선생도 나 따라 수궁 가면 늙름한 저 풍신(風神)¹¹⁹⁹의 용호대장(龍虎大將)¹²⁰⁰이 틀림없으니 무실차기(無失此機)¹²⁰¹ 따라가세.”

[아니리]

토기 듣고 허난 말이, “수궁 천 리 먼먼 길에 일거소식(一去消息)¹²⁰² 끊어지면 그 아니 원통(冤痛)허오.¹²⁰³” 자래 듣고 또 다시

황허(黃河)로 흘러 들어가며, 연안에는 뒤편과 같은 고도가 있어 사적으로도 유명하다.

1194) 혹거혹래(或去或來) : 혹은 가고 혹은 오다.

1195) 청풍(淸風) : 소식(蘇軾)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나오는 “청풍서래(淸風徐來, 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고)”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한시 - 9. 1. 참고)

1196) 소자침(蘇子瞻) : 소식(蘇軾). 중국 북송의 문인(1036~1101). 자는 자침(子瞻). 호는 동파(東坡).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구법파(舊法派)의 대표자이며, 서화에도 능하였다. 작품에 「적벽부」, 저서에 『동파전집(東坡全集)』 따위가 있다.

1197) 애월(愛月) : 달을 사랑하다.

1198) 태백(太白) : 이태백(李太白). 이백의 자가 태백(太白).

1199) 풍신(風神) :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1200) 용호대장(龍虎大將) : 금군별장(禁軍別將). 조선 후기에, 금군청이나 용호영에 속하여 왕의 친위병을 실제로 통할하던 벼슬. 병조 판서가 겸임하던 대장의 다음 직위로, 품계는 종이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이다.

1201) 무실차기(無失此機) : 이 기회를 놓치지 말다.

1202) 일거소식(一去消息) : 간 뒤의 소식.

구변(口辯)¹²⁰⁴을 내는디,

[중중모리]

“수궁 천 리 머다 마소. 수궁 천 리 머다 마소. 맹자(孟子)¹²⁰⁵도 불원천리(不遠千里)¹²⁰⁶ 양(梁) 혜왕(惠王)을 가보았고,¹²⁰⁷ 궁팔십(窮八十)¹²⁰⁸ 강태공(姜太公)¹²⁰⁹도 은국(殷國)¹²¹⁰을 이별(離別)허

1203) 원통(冤痛)하오 : 분하고 억울하오.

1204) 구변(口辯) :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1205) 맹자(孟子) : 중국 전국 시대의 사상가(기원전 372~기원전 289). 자는 자여(子輿)·자거(子車). 공자의 인(仁) 사상을 발전시켜 ‘성선설’을 주장하였으며, 인의의 정치를 권하였다. 유학의 정통으로 숭앙되며, ‘아성’이라 불린다.

1206) 불원천리(不遠千里) : 불원천리이래(不遠千里而來). 천 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오다.

1207) 양(梁) 혜왕(惠王)을 가보았고 : 맹자가 양(梁)나라 혜왕(惠王)을 만나러 갔을 때, 혜왕이 대뜸 “노인께서 천 리를 멀리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라고 묻자, 맹자가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라고 대답하였다. 『맹자(孟子)』 양혜왕 상(梁惠王上) 참고.

1208) 궁팔십(窮八十) : 가난하게 사는 삶을 이르는 말. 강태공(姜太公)이 여든 살에 주나라 무왕의 정승이 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1209) 강태공(姜太公) : 중국 주나라 초엽의 조신(朝臣)인 ‘태공망’을 그의 성(姓)인 강(姜)과 함께 이르는 말.

1210) 은국(殷國) : 은(殷)나라. 중국 고대에 탕왕이 하나라의 걸왕을 물리치고 세운 나라. 황허강(黃河江)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갑골 문자와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점복(占卜)에 따르는 제정을 행하였는데, 기원전 11세기 무렵 제30대 주왕 때 주의 무왕에게 망하였다.

고 멀고 먼 기주(岐周)¹²¹¹⁾ 가서 문왕(文王) 만나 귀의¹²¹²⁾ 되고, 백리해(百里奚)¹²¹³⁾도 목공(穆公)¹²¹⁴⁾ 따라 진(秦)국¹²¹⁵⁾의 재상(宰相)¹²¹⁶⁾ 되고, 한신(韓信)¹²¹⁷⁾도 소하(蕭何)¹²¹⁸⁾ 따라 한(漢)나

1211) 기주(岐周) : 서주(西周). 서주가 치산(岐山)에서 건국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1212) 귀의 : 귀히. 귀하게.

1213) 백리해(百里奚) : 춘추 시대 진(秦)의 뛰어난 재상. 자는 정백(井伯), 우(虞)나라 사람. 기원전 655년, 진(晉)의 헌공(獻公)이 우(虞)를 멸망시켰을 때 진(晉)나라 군대에 사로잡혔으나 진(秦)의 목공(穆公)이 그 현명함을 듣고 오고양(五羖羊)의 가죽(5장의 암양 가죽)으로 배상하고 구해냈다고 한다. 때문에 오고대부(五羖大夫)라고 불리었다.

1214) 목공(穆公) : 춘추(春秋) 시대 진(秦)나라의 군주(君主). 5패(五霸)의 한 사람. 이름은 임호(任好). 대부(大夫) 백리해(百里奚)를 등용하여 영토를 확대. 서융(西戎)을 쳐서 패자(覇者)가 되었다고 한다.(재위 기원전 660~기원전 621)

1215) 진(秦)국 : 진나라.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 춘추 전국 시대, 지금의 간쑤(甘肅) 지방에서 일어나 기원전 221년 시황제가 주나라 및 육국(六國)을 멸망시키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였는데 기원전 207년 한나라 고조에게 멸망하였다.

1216) 재상(宰相) :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 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본디 ‘재(宰)’는 요리를 하는 자, ‘상(相)’은 보행을 돕는 자로 둘 다 수행하는 자를 이르던 말이었으나, 중국 진(秦)나라 이후에 최고 행정관을 뜻하게 되었다.

1217) 한신(韓信) : 중국 전한의 무장(武將)(기원전 ?~기원전 196). 한(漢) 고조를 도와 조(趙)·위(魏)·연(燕)·제(齊)나라를 멸망시키고 항우를 공격하여 큰 공을 세웠다. 한나라가 통일된 후 초왕에 봉하여졌으나, 여후에게 살해되었다.

1218) 소하(蕭何) : 중국 전한의 정치가(기원전 ?~기원전 193). 유방을 도와

라¹²¹⁹) 대장(大將) 되니, 원컨대 퇴 선생도 염려(念慮)¹²²⁰) 말고 따라가세, 염려 말고 따라가세.”

[아니리]

“그 원일견지(願一見之)¹²²¹) 수궁이라. 그렇다면 갑세.” 따라가기로 작정이 되어 내려가는디,

[중모리]

자래는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충깡충,¹²²²) 원로(遠路)¹²²³) 수변(水邊)¹²²⁴)을 내려갈 제, 건넌 산 바우¹²²⁵) 틈에 깊이 묻힌 여우 썩 나서며, “이에, 토끼야!” “워¹²²⁶)야?” “너 어디 가느냐?” “오냐, 나 별 주부 따라 수궁 간다.” “수궁(水宮)은 뭣¹²²⁷) 하

한(漢)나라의 기틀을 세웠으며, 율구장(律九章)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다.

1219) 한(漢)나라 : 진(秦)나라에 이어 중국을 통일한 왕조. 기원전 202년 유방(劉邦)에 의해 건설되었다. 신(新)나라에 의하여 잠시의 중단이 있었는데, 이를 전후하여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으로 나뉜다.

1220) 염려(念慮) :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 또는 그런 걱정.

1221) 원일견지(願一見之) : 한 번 만나 보기를 바라다.

1222) 깡충깡충 : 깡충깡충.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 ‘강중강중’보다 세고 거센 느낌을 준다.

1223) 원로(遠路) : 먼 길.

1224) 수변(水邊) : 바다, 강, 못 따위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1225) 바우 : ‘바위’의 강원, 경기, 경상, 전남, 충북 방언.

1226) 워 : 웨[왜]. 무슨 까닭으로. 또는 어째서.

러 가느냐?” “훈련대장(訓練大將)¹²²⁸⁾ 허러 간다.” “허허, 자식 어린지고,¹²²⁹⁾ 너희들 수작(酬酌)힐 제, 내 근처(近處) 은신(隱身)허여¹²³⁰⁾ 다 들었다. 가지 말어라, 가지 마라. 수궁에 들어가면 칼 잘 쓰난 위인(衛人)¹²³¹⁾ 형가(荊軻)¹²³²⁾ 역수(易水) 한풍(寒風) 슬픈 소리 장사일거(壯士一去) 제 못 왔고,¹²³³⁾ 소상강(瀟湘江)¹²³⁴⁾ 모운

1227) 뒛 : ‘무엇’의 준말.

1228) 훈련대장(訓練大將) : 조선 시대에 둔, 훈련도감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이품이었다.

1229) 어린지고 : ‘어리석은지고’의 옛말.

1230) 은신(隱身)허여 : 은신(隱身)하여. 몸을 숨기어.

1231) 위인(衛人) : 위(衛)나라 사람.

1232) 형가(荊軻) : 중국 전국 시대의 자객(기원전 ?~기원전 227). 위나라 사람으로, 연나라 태자인 단(丹)의 부탁을 받고 진시황제를 암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1233) 역수(易水) 한풍(寒風) 슬픈 소리 장사일거(壯士一去) 제 못 왔고 : 전국 시대 형가(荊軻)의 “풍소소혜역수한(風蕭蕭兮易水寒, 바람이 소슬함이어 역수 물이 차도다) 장사일거혜불부환(壯士一去兮不復還, 장사가 한번 떠남이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도다)”이라는 시구를 원용(援用)했다. (한시 - 25. 1. 참고)

형가는 원래 위(衛)나라 사람이었는데 연나라로 와서 축(筑)을 잘 타는 고점리(高漸離)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지냈다. 뒤에 연나라 태자 단(丹)의 부탁을 받고 진왕(秦王)을 죽이러 떠날 적에 역수(易水) 가에서 고점리의 반주에 맞추어 ‘역수한풍(易水寒風)’이라는 비장한 노래를 부르고 작별했다는 고사가 유명하다. 『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 형가(荊軻) 참고.

1234) 소상강(瀟湘江) : 샤오상(瀟湘). 중국 후난성(湖南省) 동팅호(洞庭湖) 남쪽에 있는 샤오수이강(瀟水江)과 상장강(湘江江)을 아울러 이르는 이름. 부

(暮雲)¹²³⁵ 간(間)의 제녀(帝女)¹²³⁶도 울어 있고, 연년(年年) 춘초(春草) 푸른 곳의 왕손(王孫)도 귀불귀(歸不歸)¹²³⁷라. 토끼 너도 수궁 가면 돌아오지를 못허리라. 수궁인지 위방(危邦)이라, 위방불입(危邦不入)이요, 난방불거(亂邦不居)¹²³⁸라. 가지 말어라, 가지를 마라. 내말 듣고는 가지를 마라.”

[아니리]

“앗, 차차차 하마트면¹²³⁹ 큰일 날 뻔허였고, 별 주부 잘 가시오. 나는 오든 길로 돌아가며 맹감¹²⁴⁰이나 따 먹지.” 토끼 깡충깡충 돌아가니 별 주부 기맥혀,¹²⁴¹ “여보 토 공, 그 가기는 가소만은 내 말

근에 경치가 아름다운 샤오샹 팔경이 있다.

1235) 모운(暮雲) :

1236) 제녀(帝女) : 요(堯)임금의 두 딸로 순(舜)임금의 왕비가 된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으로, 순 임금 사후에 상강에서 슬피 울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때 흘린 눈물방울이 대나무에 얼룩져서 소상 반죽(瀟湘斑竹)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1237) 연년(年年) 춘초(春草) 푸른 곳의 왕손(王孫)도 귀불귀(歸不歸) : 당(唐) 왕유(王維)의 시 ‘송별(送別)’에 나오는 “춘초명년록(春草明年綠, 저 풀들은 내년 봄에도 다시 푸르겠지만) 왕손귀불귀(王孫歸不歸, 떠나간 그대는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를 변형했다. (한시 - 11. 1. 참고)

1238) 위방불입(危邦不入)이요, 난방불거(亂邦不居) : 危邦不入(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亂邦不居(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말라). 『논어(論語)』 태백(泰伯) 참고.

1239) 하마트면 : 하마터면. 조금만 잘못하였다면. 위험한 상황을 겨우 벗어났을 때에 쓰는 말이다.

1240) 맹감 : 청미래덩굴의 열매.

한자리¹²⁴²)만 듣고 가소. 그런 게 아니라, 저 녀석이 일전(日前)¹²⁴³)에 남해(南海) 수면¹²⁴⁴)으로 가재 사냥 내려 왔다, 실족(失足)하여¹²⁴⁵)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제, 때마침 우리 수궁 대장 범치 세상 구경 나갔다가 저 녀석을 건져 업고 수궁으로 돌아오니, 용왕이 보시고 풍신(風神)이 점잖다고 호반(虎班)¹²⁴⁶) 대장(大將) 허라 허니 마다하고, 궁중(宮中)에 무임(無任)¹²⁴⁷)으로 있다가, 저 방정맞은 것이 시녀(侍女)¹²⁴⁸) 간통(姦通)¹²⁴⁹)을 해서 어전(御前)¹²⁵⁰) 곤장(棍杖)¹²⁵¹) 삼십 도(度)¹²⁵²)에 축출(逐出)하여¹²⁵³) 쫓

1241) 기막혀 : ‘기막혀’의 강원, 경기, 경북, 전남, 평안, 함경, 황해 방언.

1242) 한자리 : ‘한마디’의 전남 방언.

1243) 일전(日前) : 며칠 전.

1244) 수면 : 수변(水邊). 바다, 강, 못 따위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1245) 실족(失足)하여 : 발을 헛디디어.

1246) 호반(虎班) : 무관(武官)의 반열.

1247) 무임(無任) : 공통적인 직무상의 책임 이외에 따로 맡은 임무가 없다.

1248) 시녀(侍女) : 고려·조선 시대에,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를 통틀어 이르던 말. 엄한 규칙이 있어 환관(宦官) 이외의 남자와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며, 평생을 수절하여야만 하였다.

1249) 간통(姦通)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다.

1250) 어전(御前) : 임금의 앞.

1251) 곤장(棍杖) : 예전에,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구. 또는 그 형벌.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었다.

1252) 도(度) : 거듭되는 횟수.

1253) 축출(逐出)하여 : 축출(逐出)하여. 쫓아내거나 몰아내어.

있더니, 저 높이가 남도 못 되게 방해를 치네그려. 그러니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소.” 토끼 생각건대 대차 여우 심사를 아는지라. 그럴 법도 하겠다. “여보 별 주부 같이 갑세. 하여튼 남해 수변 당도하여 물이 발목물¹²⁵⁴만 지면¹²⁵⁵ 가려니와 허리 물만 쳐도 내가 못 가제.” 물은 얇은¹²⁵⁶ 곳이니 어서 내려가세.

[진양조]

남해(南海) 수변(水邊) 당도(當到)허니 세우(細雨)¹²⁵⁷ 중의 뜻을 달고, 도용도용¹²⁵⁸ 떠난 배는 한가(閑暇)한 초강어부(楚江漁父)¹²⁵⁹ 풍월(風月) 실로¹²⁶⁰ 가는 뱃가? 범피창파(泛彼蒼波)¹²⁶¹ 높이 떠서 청강(淸江) 흥미(興味) 무한경(無限景)¹²⁶²을 백구(白鷗) 다려 문답(問答)¹²⁶³을 힐 저,¹²⁶⁴ 소소한풍(蕭蕭寒風)¹²⁶⁵ 추야월

1254) 발목물 : 겨우 발목 정도까지 잠길 만한 얇은 물.

1255) 지면 : 물 따위가 한데 모여 모양을 이루거나 흐르면.

1256) 얇은 : ‘얇은’의 전라 방언.

1257) 세우(細雨) :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보다는 좀 굵다.

1258) 도용도용(滔溶滔溶) : ‘넘실넘실’인 듯하다.

1259) 초강어부(楚江漁父) : 초나라 굴원(屈原)의 시 ‘어부(漁父)’에 나오는 어부(漁父)인 듯하다. (한시 - 3. 1. 참고)

1260) 실로 : 실으러.

1261) 범피창파(泛彼蒼波) : 푸른 물결로 배가 떠간다.

1262) 무한경(無限景) :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경치.

1263) 청강(淸江) 흥미(興味) 무한경(無限景)을 백구(白鷗)다려 문답(問答) : 조선 김정국(金正國)의 “우후청강흥(雨後淸江興, 비 온 뒤의 맑은 강의 흥을) 회두문백구(回頭問白鷗, 머리를 돌려 흰 갈매기에게 물으니)”라는 시구를 변

(秋夜月)¹²⁶⁶의 울고 가는 저 기럭아,¹²⁶⁷ 너 어디로 행(行)하느냐?
소상(瀟湘) 동정(洞庭)¹²⁶⁸ 어데 두고 여관한등¹²⁶⁹ 잠든 나를 니가
어이 깨우느냐? 여산동남¹²⁷⁰ 물결이 위르르르 출렁출렁.

[아나리]

“아이고 이 물 보아라! 바가지 없는 때 물¹²⁷¹ 쓰고 꿈짝달짝 없이,

형했다. (한시 - 4. 1. 참고)

1264) 저 : 제. 적.

1265) 소소한풍(蕭蕭寒風) : 쓸쓸히 부는 차가운 바람. 참고로, “소소한풍취(蕭蕭寒風吹)”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다. 『표옹선생유고권지삼(附錄瓢翁先生遺稿卷之三)』 부록(附錄) 만사(挽辭)[정백창(鄭百昌)] 참고.

1266) 추야월(秋夜月) : 가을밤의 달.

1267) 소소한풍(蕭蕭寒風) 추야월(秋夜月)의 울고 가는 저 기럭아 : 당 유우석(劉禹錫)이 지은 ‘추풍인(秋風引)’에 나오는 “하처추풍지(何處秋風至, 어느 곳에서 가을바람 불어와) 소소송안군(蕭蕭送雁群, 쓸쓸히 기러기 떼 보내는 가)”이라는 시구를 변형한 듯하다. 사실에 따라, “소소추풍(蕭蕭秋風)”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시 - 12. 1. 참고)

1268) 동정(洞庭) : 동팅호(洞庭湖, 동정호).

1269) 여관한등 : 여관의 찬 등불. 당나라 시인(詩人) 고적(高適)이 지은 ‘제야작(除夜作)’의 “여관한등독불면(旅館寒燈獨不眠, 여관의 찬 등불에 홀로 잠 못 자나니) 객심하사전치연(客心何事轉淒然, 나그네 마음 무슨 일로 점점 처연한가)”에서 따온 것이다. (한시 - 2. 1. 참고)

1270) 여산동남 : 「이선유 창본 수궁가」 등에 나오는 ‘여산풍랑(如山風浪, 風浪如山, 풍랑이 산과 같다)’의 변형인 듯하다. 물론, 이백의 ‘등여산오로봉(登廬山五老峰)’에서 “여산동남오로봉(廬山東南五老峰, 루산 동남의 오로봉은)”을 따온 것일 수도 있다. (한시 - 14. 2. 참고)

1271) 바가지 없는 때 물 : ‘관규여측(管窺蠡測, 대롱의 구멍으로 하늘을 살

어복고혼(魚腹孤魂)¹²⁷²이 되것구나. 여 별 주부 잘 가시오. 네 수궁 들어가서 용 되야¹²⁷³도 못 가것네.” 도로 강총강총 올라가니, 별 주부 이제는 저놈의 자식을 한 번 질러 볼 밖에 수가 없다. 호령을 허는디,

[자진모리]

“아따, 이놈아 잘 가거라. 벼슬하러 가자 허니 물 무섭다, 헨단 말과. 장부가 의심이 많으면 대소성사를 못 허는 법이라. 넷의 인중(人中)¹²⁷⁴ 찌룬¹²⁷⁵ 운(運)이 무슨 복(福)이 있으며, 미간(眉間)의 화망(火亡)¹²⁷⁶ 살(煞)¹²⁷⁷이 들어 내일 일모(日暮) 시(時) 김 포수(砲手) 날랜 철환(鐵丸) 한 정수리¹²⁷⁸ 황, 총이나 맞아 뒤져라, 이 녀석아.”

피고, 전복 껍데기로 바닷물의 양을 헤아리다’을 변형한 표현일 수도 있다. 바가지(전복 껍데기)로 헤아릴 수 없는 물, 바닷물 정도로 말이다.

1272) 어복고혼(魚腹孤魂) : 물고기의 배에 장사 지낸 외로운 녀이라는 뜻으로, 물에 빠져 죽은 외로운 녀을 이르는 말.

1273) 되야 : ‘되어’의 옛말.

1274) 인중(人中) : 코와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골이 진 곳.

1275) 찌룬 : 짜룬. ‘짧은’의 전라 방언.

1276) 화망(火亡) : 불로 망(亡)하다. 사설에 딸, ‘화망(禍亡, 재앙으로 망하다)’을 쓰기도 한다.

1277) 살(煞) :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

1278) 정수리 : 머리 위의 솟구멍이 있는 자리.

5. 용궁으로

[아니리]

“여보, 별 주부 수국 들어가면 화살(火煞)¹²⁷⁹ 면(免)¹²⁸⁰하고 사오
리까?” “아 수국과 화살하고는 대상극(大相剋)이라 총(銃)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제.” 토끼 제일 총 없단 말에 반겨듣고 아조¹²⁸¹ 가기로
작정하여, 버드나무 젓가지¹²⁸²를 앞발로 휘어잡고 뒷발을 물에 넣
으니 물은 벌써 턱 밑에 오르난디, 발 밑으로는 수만 길이것다. 겁
을 내어¹²⁸³ 올라오라 힘을 주니 가지는 점점 찌어져 물에 잠기거
날,

[자진모리]

저 차례 거동 보라. 토끼 두 귀를 검쳐¹²⁸⁴ 잡고 그져¹²⁸⁵ 꺾고¹²⁸⁶
들어가니, “이 애 별(鬮) 주부(主簿)야, 쪼금만 놓아라.” “네 이놈
잔말 마라. 짠물이 입에 들면 병어리가 되느니라.” 이 물 고개 저

1279) 화살(火煞) : 화망(火亡) 살(煞).

1280) 면(免)하고 : 어떤 일을 당하지 않게 되고.

1281) 아조 : ‘아주’의 옛말.

1282) 젓가지 : ‘밑가지’의 전남 방언.

1283) 내어 : 내어.

1284) 검쳐 : 한 물체의 두 곳이나 두 물체를 맞대고 걸쳐서 붙여.

1285) 그져 : 그저.

1286) 꺾고 :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힘을 가하고

물 고개 이리저리 들어갈 제, 이놈을 딱 검쳐 업고 등덩실 떠 들어가는디, 소상(瀟湘) 팔경(八景)¹²⁸⁷ 다 구경하며 들어가겠다.

[진양조]

범피중류(泛彼中流)¹²⁸⁸ 등덩실 떠나간다. 망망(茫茫)헌¹²⁸⁹ 창해(滄海)¹²⁹⁰이며, 탕탕(蕩蕩)헌¹²⁹¹ 물결이라. 백빈주(白蘋洲)¹²⁹² 갈매귀는 홍료안(紅蓼岸)¹²⁹³으로 날아들고 삼강(三江)¹²⁹⁴의 기러기는 한수(漢水)¹²⁹⁵로 돌아든다. 요량(嘹亮)한¹²⁹⁶ 남은 소리 어적

1287) 소상(瀟湘) 팔경(八景) : 샹오상 팔경. 중국 후난성 등팅호 남쪽에 있는 샹오상의 여덟 가지 아름다운 경치. 산시청람(山市晴嵐), 어촌석조(漁村夕照), 소상야우(瀟湘夜雨), 원포귀범(遠浦歸帆), 연사만종(煙寺晚鐘), 동정추월(洞庭秋月), 평사낙안(平沙落雁), 강천모설(江天暮雪)을 이른다.

1288) 범피중류(泛彼中流) :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떠간다.

1289) 망망(茫茫)헌 : 망망(茫茫)한. 넓고 먼.

1290) 창해(滄海) : 넓고 큰 바다.

1291) 탕탕(蕩蕩)헌 : 탕탕(蕩蕩)한. 물의 흐름 따위가 거센.

1292) 백빈주(白蘋洲) : 흰 마름꽃이 피어 있는 물가.

1293) 홍료안(紅蓼岸) : 단풍이 들어 빨갱게 된 여뀌 언덕.

1294) 삼강(三江) : 옛날 ‘삼강’이라는 곳이 더러 있었는데, 여기서는 파릉(巴陵) 일대로 장강(長江), 풍강(淸江), 상강(湘江)이 합류하는 곳. 삼강구(三江口)라고도 한다.

1295) 한수(漢水) : 산시성(山西省, 산서성) 영강현(寧強縣) 북쪽 파총산(岢峽山)에서 발원해 동류(東流)하여 후베이성(湖北省)으로 들어가 양변(襄樊)시를 지나 남류(南流)하여 우한(武漢, 무한)에 이르러 장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당 왕유의 시 ‘송우인남귀(送友人南歸)’에 나오는 구절인 “만리춘응진(萬里春應盡, 만 리의 봄은 다해 가고) 삼강안역희(三江雁亦稀, 삼강 일대에는 기

(漁笛)¹²⁹⁷)이 여그런만¹²⁹⁸) 곡종인불견(曲終人不見)의 수봉(數峰)만 푸르렀다.¹²⁹⁹) 애내성중만고수(欸乃聲中萬古愁)¹³⁰⁰)는 날로 두고 이

러기도 드물 제) 연천한수광(連天漢水廣, 하늘에 맞닿은 한수는 넓은데) 고객 영성귀(孤客郢城歸, 외로운 나그네 영성으로 돌아가네)”를 따온 것일 수 있다. 참고로, 이 시는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다른 저자와 다른 제목을 달고 몇 가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1296) 요량(嘹亮)한 : 소리가 맑고 낭랑한.

1297) 어적(漁笛) :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1298) 여그런만 : 여기연만. ‘기언마는’의 변형인 듯하다. ‘기언마는’은, ‘그것이언마는’이 줄어든 말.

1299) 곡종인불견(曲終人不見)의 수봉(數峰)만 푸르렀다 : 당 전기(錢起)의 시 ‘성시상령고슬(省試湘靈鼓瑟)’에서 “곡종인불견(曲終人不見, 곡조 끝나자 사람은 아니 뵈고) 강상수봉청(江上數峰靑, 강 위에 두어 봉만 새파랗구나)”을 따온 것이다. (한시 - 20. 1. 참고)

1300) 애내성중만고수(欸乃聲中萬古愁) : 노 젓는 뱃노래 속에 만고의 근심이 들었어라. 사설에 따라, ‘애내성중만고심(欸乃聲中萬古心, 노 젓는 뱃노래 속에 만고의 마음이 들었어라)’ 등을 쓰기도 한다.

송(宋) 주희(朱熹)의 시 「순희갑진중춘정사한거희작무이도가십수정제동유상여일소(淳熙甲辰中春精舍閒居戲作武夷權歌十首呈諸同遊相與一笑, 순희 갑진년에 중춘 정사에서 한가로이 보내면서 장난으로 무이도가 십수를 지어 함께 노닐던 벗들에게 보여주고 더불어 한번 웃었다)」에서 “임간유객무인식(林間有客無人識, 숲 사이의 나그네를 알아보는 사람 없고) 관내성중만고심(欸乃聲中萬古心, 느리게 노 젓는 소리 속에 만고의 마음이 들었어라)”을 교감(校勘) 등을 해서 쓰는 것이다. (한시 - 22. 1. 참고)

일단, ‘관내성중만고심’에 가까운 사설과 녹음과 원문의 예를 든다. 사설은, “관내성중만고수”(「신재효 심청가」,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심청전 전집』 1, 박이정출판사, 1997, 21쪽)와 “관하성중만고수”(「이선유 창본 심청가」, 같은 책, 71쪽)이다. 녹음은, 이동백 소리의 「소상팔경」(『폴리돌 심청전』 2집, 신나라뮤직, 2004) 등이다. 원문은, 「淳熙甲辰中春精舍閒居戲

름인가? 장사(長沙)¹³⁰¹를 지내가니 가(賈) 태부(太傅)¹³⁰² 간 곳
없고, 멩라수(汨羅水)¹³⁰³를 바라보니 굴(屈) 삼려(三閭)¹³⁰⁴ 어복충

作武夷權歌十首呈諸同遊相與一笑」 6수(線上圖書館 -> 晦菴先生朱文公文
集 -> 晦菴先生朱文公文集五 163쪽 중 36쪽
ctext.org/library.pl?if=gb&file=78419&page=36,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누리집
ctext.org, 2023년 8월 22일 검색) 등이다.

아니면, 당(唐) 유종원(柳宗元)의 「어옹(漁翁)」의 구절인 “연소일출불견인
(煙銷日出不見人, 연기 사라지고 해가 돋더니 사람 보이지 않고) 관내일성산
수록(欸乃一聲山水綠, 느리게 노 젓는 소리에 산수가 온통 푸르기만 하네)”에서
‘관내일성산수록’을 따와서 쓰기도 한다.

끝으로, ‘관내일성산수록’에 가까운 사설과 원문의 예를 든다. 사설은, 『심
청가 낙장 54장』(허홍식 소장본)이 “닷 감년 관아일성 손슈록이 슬푸도다”
(배연형 엮음, 『춘향가 심청가 소리책』,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417쪽)를
쓰고 있다. 참고로, 이 창본은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의 『심청전 전집』 3(박
이정출판사, 1998)에도 실려 있다. 원문은, 「漁翁」(線上圖書館 -> 御定全
唐詩 -> 御定全唐詩卷三百五十二~卷三百五十五 178쪽 중 63쪽
ctext.org/library.pl?if=gb&file=71380&page=63,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누리집
ctext.org, 2023년 8월 18일 검색)이다.

1301) 장사(長沙) : 창사(長沙, 장사). 중국 동팅호 남쪽 상장강(湘江) 하류
의 동쪽 기슭에 있는 도시. 수륙 교통의 요충지이며 후난성의 성도(省都)이
다. 면적은 178km².

1302) 가(賈) 태부(太傅) : 가의(賈誼, 기원전 200~기원전 168). 전한(前漢)
의 학자. 뤼양(洛陽) 출신. 문제(文帝)를 섬기면서 개혁을 제안하여, 장사왕
(長沙王) 및 양희왕(梁懷王)의 태부(太傅)가 되었다.

1303) 멩라수(汨羅水) :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미수이 강’을 이르던 말. 중국
초나라의 굴원이 투신한 강으로 알려져 있다.

1304) 굴(屈) 삼려(三閭) : 삼려대부(三閭大夫) 굴원(屈原). 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의 정치가·시인(기원전 343?~기원전 277?). 이름은 평(平), 자는 원
(原). 초사(楚辭)라고 하는 운문 형식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모함을 입어 자

혼(魚腹忠魂)¹³⁰⁵ 무양(無恙)¹³⁰⁶도 허시든가. 황학루(黃鶴樓)¹³⁰⁷를 당도허니 일모향관하처시(日暮鄉關何處是)요, 연파강상사인수(煙波江上使人愁)¹³⁰⁸난 최호(崔顥)¹³⁰⁹ 유적이오. 봉황대(鳳凰台)¹³¹⁰를 돌아드니 삼산반락청천외(三山半落青天外)요, 이수중분백로주(二水中分白鷺洲)¹³¹¹는 태백(太白)¹³¹²이 노든 데요. 심양강(溇陽

신의 뜻을 펴지 못하다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 작품은 모두 울분이 넘쳐 고대 문학에서는 드물게 서정성을 띠고 있다. 작품에 ‘이소(離騷)’, ‘천문(天問)’, ‘구장(九章)’ 따위가 있다. 삼려대부는 굴원의 관명(官名).

1305) 어복충혼(魚腹忠魂) : 시국을 걱정하며 자결한 굴원의 충혼(忠魂).

1306) 무양(無恙) : 몸에 병이나 탈이 없다.

1307) 황학루(黃鶴樓) : 황허루(黃鶴樓, 황학루). 중국 후베이성 우창(武昌, 무창)에 있는 옛 누각.

1308) 일모향관하처시(日暮鄉關何處是)요, 연파강상사인수(煙波江上使人愁) : 당 최호(崔顥)의 시 ‘황학루(黃鶴樓)’에서 “일모향관하처시(日暮鄉關何處是, 해는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일고) 연파강상사인수(煙波江上使人愁, 강 위의 안개가 시름겹게 하노라)”를 따온 것이다. (한시 - 23. 1. 참고)

1309) 최호(崔顥) : 당나라 변주(汴州) 사람(704?~754). 현종(玄宗) 개원(開元) 때 진사가 되었다. 천보(天寶) 때 태복시승(太僕寺丞)과 사훈원외랑(司勳員外郎)을 지냈다. 일찍이 각지를 떠돌아 넓은 지역에 자취를 남겼다. 시를 잘 지었다. 특히 악부시를 잘 지었고, 민간의 가사를 즐겨 채용했다. 초기에는 부염(浮艷)한 시풍을 보였다가 나중에 변새(邊塞)를 다니면서 시풍도 웅혼(雄渾)하게 바뀌었다. ‘황학루(黃鶴樓)’는 당나라 7언 율시 가운데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1310) 봉황대(鳳凰台) : 지금의 난징시(南京市, 남경시) 평항산(鳳凰山, 봉황산) 위에 있다. 황허루(黃鶴樓), 등왕각(滕王閣), 위양루(岳陽樓, 악양루)와 더불어 ‘강남사대명루(江南四大名樓)’로 꼽히는 곳이다.

1311) 삼산반락청천외(三山半落青天外)요, 이수중분백로주(二水中分白鷺洲)

江)¹³¹³을 당도허니 백낙천(白樂天)¹³¹⁴ 일거(一去)¹³¹⁵ 후(後)으
비파성(琵琶聲)¹³¹⁶이 끊어졌다. 적벽강(赤壁江)을 그쳐 가랴. 소동
파(蘇東坡)¹³¹⁷ 노던¹³¹⁸ 풍월 의구(依舊)하여¹³¹⁹ 있다마는 조맹덕
(曹孟德)¹³²⁰ 일세지웅(一世之雄) 이금(而今)의 안재재(安在哉)¹³²¹

: 당 이백의 시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台)’에서 “삼산반락청천외(三山半落
青天外, 삼산 봉우리 반쯤이 푸른 하늘 밖으로 솟아 있고) 이수중분백로주(二
水中分白鷺洲, 두 강물이 백로주를 가운데 두고 나뉘어 흐른다)”를 따온 것
이다. (한시 - 14. 1. 참고)

1312) 태백(太白) : 이태백(李太白). ‘태백’은 이백의 자(字)이다.

1313) 심양강(溇陽江) : 신양강(潯陽江, 심양강). 양쯔강(揚子江)의 한 지류.
장시성(江西省) 북부, 규장(九江, 구강) 부근을 흐른다.

1314) 백낙천(白樂天) : 백거이(白居易)의 성(姓)과 자를 함께 이르는 이른
것이다.

1315) 일거(一去) : 한 번 가다.

1316) 비파성(琵琶聲) : 비파 통기는 소리. 여기서는, 당 백거이(772~846)의
시 ‘비파행(琵琶行)’을 염두에 둔 것이다.

1317) 소동파(蘇東坡) : ‘소식(1036~1101)’의 성과 호를 함께 이르는 이른
것이다.

1318) 노던 : 놀던.

1319) 의구(依舊)하여 :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이.

1320) 조맹덕(曹孟德) : 조조(曹操, 155~220).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조(始
祖). 자는 맹덕(孟德). 황건의 난을 평정하여 공을 세우고 동탁(董卓)을 벤 후
실권을 장악하였다. 208년에 적벽(赤壁) 대전에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여 중국이 삼분된 후 216년에 위왕(魏王)이 되었다. 권모에 능하고
시문을 잘하였다.

1321) 일세지웅(一世之雄) 이금(而今)의 안재재(安在哉) : 송(宋) 소식의 시
‘전적벽부(前赤壁賦)’에서 “고일세지웅야(固一世之雄也, 진실로 일세의 영웅이

요. 월락오제(月落烏帝) 깊은 밤의 고소성(姑蘇城)에 배를 매니 한산사(寒山寺) 쇠북¹³²²⁾ 소리 객선(客船)의 땡 땡 들리는구나.¹³²³⁾ 진회수(秦淮水)¹³²⁴⁾ 건너가니 격강(隔江)의 상녀(商女)들은 망국한(亡國恨)을 모르고서 연롱한수월롱사(煙籠寒水月籠沙)의 후정화(後庭花)만 푸르는구나.¹³²⁵⁾ 악양루(岳陽樓)¹³²⁶⁾ 높은 집이 호상(湖

러니) 이금안재재(而今安在哉,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따온 것이다. (한시 - 9. 1. 참고)

1322) 쇠북 : ‘종’의 옛말.

1323) 월락오제(月落烏帝) 깊은 밤의 고소성(姑蘇城)에 배를 매니 한산사(寒山寺) 쇠북소리 객선(客船)의 땡 땡 들리는구나 : 당 장계(張繼)의 시 ‘풍교야박(楓橋夜泊)’에서 “월락오제제상만천(月落烏啼霜滿天, 달 지고 까마귀 우는데 서리가 하늘에 가득하네) 강풍어부대수면(江楓漁父對愁眠, 강가 단풍잎도 어부도 시름겨워 잠 못 이루는 나그네 마주하네) 고소성외한산사(姑蘇城外寒山寺, 고소성 밖 한산사) 야반종성도객선(夜半鐘聲到客船, 오밤중 종소리가 객선까지 들려오네)”을 차용한 것이다. (한시 - 17. 1. 참고)

1324) 진회수(秦淮水) : ‘진회(秦淮)’는 남경성 안을 흐르는 작은 강이다.

1325) 격강(隔江)의 상녀(商女)들은 망국한(亡國恨)을 모르고서 연롱한수월롱사(煙籠寒水月籠沙)의 후정화(後庭花)만 푸르는구나 : 당 두목(杜牧)의 시 ‘박진회(泊秦淮)’에서 “연롱한수월롱사(煙籠寒水月籠沙, 찬 강물을 안개가 두르고 모래는 달빛이 두르는데) 야박진회근주가(夜泊秦淮近酒家, 밤들어 진회에 배를 대니 술집이 가깝도다) 상녀부지망국한(商女不知亡國恨, 기녀들은 망국의 한을 모르는지) 격강유창후정화(隔江猶唱後庭花, 아직도 강 건너서 후정화를 부르네)”를 차용한 것이다. (한시 - 6. 1. 참고)

참고로, 후정화는 진(陳) 후주(後主)가 지은 음탕한 궁체시인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 망국(亡國)의 노래이다. 사설에 따라, ‘부르는구나’를 쓰기도 한다.

1326) 악양루(岳陽樓) : 웨양루(岳陽樓, 악양루). 중국 후난성(湖南省) 웨양(岳陽, 악양)에 있는 누각.

上)¹³²⁷의 솟아 있고 무산(巫山)¹³²⁸의 돋는 달은 동정호로 비쳐 오니 상하천광(上下天光)¹³²⁹이 각색(各色)으로만 푸르렀다. 삼협(三峽)¹³³⁰의 잔나비는 자식 찾는 슬픈 소리¹³³¹ 천객(遷客)¹³³² 소인(騷人)¹³³³의 눈물이라. 한곳을 점점 당도하니 악양루와 같은 누각(樓閣)의 황금대자(黃金大字)¹³³⁴로 새겼으되 남해(南海) 영덕전(靈

1327) 호상(湖上) : 호수의 위. 동팅호(洞庭湖)의 위.

1328) 무산(巫山) : ‘우산’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1329) 상하천광(上下天光) : 위아래의 하늘빛. 하늘의 빛과 동팅호에 비친 하늘빛을 가리킨다. 송(宋) 범희문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나오는 표현이다.

1330) 삼협(三峽) : 고당협(瞿塘峽)·무협(巫峽)·서릉협(西陵峽). 쓰촨성(四川省)과 후베이성(湖北省)의 경계인 양쯔강 중류에 있다.

1331) 자식 찾는 슬픈 소리 : “진(晉)나라 환온(桓溫)이 촉(蜀)으로 가다가 장강 중류의 삼협(三峽)을 지나게 되었다.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 왔는데, 그 원숭이 어미가 강안(江岸)에서 울며 백여 리를 뒤따라와 배 위에 뛰어오르자마자 혼절하고 말았다. 원숭이의 배를 가르고 보니, 창자가 모두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환온은 크게 노하여 그 병사를 내쫓아 버렸다.(桓公入蜀, 至三峽中, 部伍中有得猿子者. 其母緣岸哀號, 行百餘里不去, 遂跳上船, 至便絕. 破視其腹中, 腸皆寸寸斷. 公聞之怒, 命黜其人.)” 이 이야기는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온다. ‘단장(斷腸,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이라는 말의 유래이다.

1332) 천객(遷客) : 귀양살이하는 사람.

1333) 소인(騷人) : 시인과 문사(文士)를 통틀어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굴원이 지은 ‘이소부(離騷賦)’에서 나온 말이다.

1334) 황금대자(黃金大字) : 황금빛 큰 글자. 무명씨(無名氏)의 시(詩)에서 “황금대자유화편(黃金大字留華扁, 황금빛 큰 글자가 아름다운 편액에 남았으니 필법삼엄양자양(筆法森嚴仰紫陽, 엄정한 필법 보며 자양 부자 우리르네)”을 따온 듯하다. (한시 - 26. 1. 참고)

德殿) 수정문¹³³⁵)이라. 둥그렸이¹³³⁶) 걸렸거날, 그곳을 점점 들어가니 천지(天地)가 조용하고 엄연한 별세계(別世界)로구나.

[중모리]

자래 등의 선듯 내려 좌우 경개(景概)를 살펴보니, 동을 바라보니 일륜홍(一輪紅)¹³³⁷)이 어려 있고, 서를 바라보니 일발청산(一髮靑山) 층층헌디 비취색(翡翠色)이 어려 있고,¹³³⁸) 북을 바라보니 약수(弱水)¹³³⁹) 삼천(三千) 리(里) 해당화(海棠花) 장이 좋다. 깊기는 깊다마는 들어와 보니 별천지(別天地)¹³⁴⁰)로구나! 이러한 좋은 곳의 글을 한수 못 지어야 훈련대장을 할 수 있나? 토끼 글을 한 수 읊

1335) 수정문 : 사설에 따라, ‘大衛門(대위문)’이나 ‘대안문’이나 ‘수궁문’이나 ‘수령문’이나 ‘수정문(水晶門)’ 등을 쓰기도 한다.

1336) 둥그렸이 : ‘둥두렷이’인 듯. ‘둥두렷이’는, 둥그스름하게 솟아 뚜렷하게.

1337) 일륜홍(日輪紅) :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전등신화(剪燈新話)』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 ‘상량문’의 “拋梁東(포량동) …… 金雞啼罷日輪紅(금계제파일륜홍)”을 원용한 것이다.

1338) 서를 바라보니 일발청산(一髮靑山) 층층헌디 비취색(翡翠色)이 어려 있고 : 수궁경회록 ‘상량문’의 “拋梁北(포량북) 一髮靑山浮翠色(일발청산부취색, 한 올 머리카락 같은 푸른 산에 비치색이 아른거리다)”을 따온 것이다. 참고로, “청산일발(一髮靑山, 실낱같은 푸른 산)”이라는 어구가 소동파 등의 시에 나오기도 한다. (한시 - 9. 2. 참고)

1339) 북을 바라보니 약수(弱水) : 수궁경회록의 “拋梁西(포량서) …… 弱水流沙路不迷(약수유사로불미)”를 변형한 것이다.

1340) 별천지(別天地) : 특별히 경치가 좋거나 분위기가 좋은 곳.

을 적에 “산중(山中) 유객(遊客)이 도용궁(到龍宮)¹³⁴¹ 하니 사해풍광입안중(四海風光入眼中)¹³⁴²이라.”

[아니리]

“여보 토 선생 방금 읊은 그 글이 우리 훈련대장 감¹³⁴³ 글이 분명 허오. 여기 잠깐 앉어 계옵시면 우리 수궁 남여(藍輿)¹³⁴⁴ 내보낼 것이니 그것 타고 들어오시오.” “그리 허오.” 별 주부 충충 들어가 진세(塵世)에 나갔던 별 주부 현신(現身)¹³⁴⁵이오. 용왕이 반기¹³⁴⁶ 허여 “만(萬) 리(里) 원경(遠境)¹³⁴⁷을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잡아왔는가?” “예이, 대왕의 성덕(聖德)¹³⁴⁸으로 만 리 원경을 무사히 왕래(往來)하옵고 진세 일개(一介) 퇴를 생금(生擒)허여¹³⁴⁹ 항우¹³⁵⁰ 수정문 밖에 대령(大令)하였나이다.” “기특타, 주부지충(主簿

1341) 산중(山中) 유객(遊客)이 도용궁(到龍宮) : 산속에서 유람하던 사람이 용궁에 이른다. ‘유객(幽客, 세상일을 피하여 한가하게 사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1342) 사해풍광입안중(四海風光入眼中) : 사해의 풍광이 눈에 들어오다.

1343) 감 :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다. 또는 그런 사람.

1344) 남여(藍輿) :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 승지나 참의 이상의 벼슬아치가 탔다.

1345) 현신(現身)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임. 흔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자신을 보이는 일을 이른다.

1346) 반기 : ‘반가이’의 옛말.

1347) 원경(遠境) :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地域).

1348) 성덕(聖德) : 임금의 덕(德)을 높여 이르는 말.

1349) 생금(生擒)허여 : 생금(生擒)하여. 산 채로 잡아.

之忠)이여!” 어주(御酒)¹³⁵¹를 내려 치하(致賀)하신 후에, “어서 토끼 잡아 들여라” 하고 영을 내려노니, 토끼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 “아차 내가 사지(死地)를 들어왔구나! 내가 이제 도망을 가자한들, 수로(水路) 만 리를 독행(獨行)¹³⁵²으로 갈 수 없고 수국(水國)¹³⁵³ 중에 숨자 허니 내 몸에 표가 나니 아이고 이 일을 어쩔거나.” 자탄하고 있을 적에,

[자진모리]

강신(江神)¹³⁵⁴ 나졸¹³⁵⁵ 별군직(別軍職)¹³⁵⁶과 수많은 도로목, 해(海)¹³⁵⁷ 모지리¹³⁵⁸ 청사(靑絲)¹³⁵⁹ 홍사(紅絲)¹³⁶⁰ 가막쇠¹³⁶¹를

1350) 향우 : 미상(未詳). ‘향오(行伍, ‘군사’를 이르던 말)’의 변형인 듯하다.

1351) 어주(御酒) : 임금의 신하에게 내리는 술을 이르던 말.

1352) 독행(獨行) : 혼자서 길을 가다.

1353) 수국(水國) : 바다의 세계.

1354) 강신(江神) : 강을 지키는 신.

1355) 나졸 : ‘하백(河伯,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의 변형이다. 「박순호 소장 22장본 <퇴기전>」은 “江神 하박”(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3, 박이정출판사, 1998, 232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1356) 별군직(別軍職) : 조선 시대에, 별군직청에 속하여 임금을 호위하며 죄인을 잡아내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1357) 해(海) : ‘해구(海狗, 물개과의 바다짐승)’의 변형인 듯. 「박순호 소장 22장본 <퇴기전>」은 “海狗”(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3, 박이정출판사, 1998, 232쪽)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1358) 모지리 : 모조리. 모조리상어. 모조리상어는, 돛발상엇과에 속한 바닷물고기. 몸길이는 60~70센티미터 정도이며, 주둥이가 짧고 그 끝이 뾰족하다. 가슴지느러미가 길며 곱상어와 비슷하나 몸에 흰 점이 없다. 우리나라, 일본

요하(腰下)¹³⁶²의 빗겨 차고 우르르르 “토끼 계¹³⁶³ 있느냐?” 토끼
 깜짝 놀래 “아이고, 나는 토끼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도둑
 지키는 개요.” “개라니 더욱 좋다. 삼복(三伏)에 너를 잡아 약(藥)
 개장¹³⁶⁴도 좋거니와 장보간이¹³⁶⁵ 더욱 좋다. 이 개 바삐 말아가
 자.¹³⁶⁶” “아이고, 내가 망아지요.” “말이라니 더욱 좋다. 요단항장
 (腰短項長)¹³⁶⁷ 천리마(千里馬)¹³⁶⁸로다. 연인(涓人)도 오 백 금으
 로 죽은 뼈를 사갔으니,¹³⁶⁹ 너를 산 차¹³⁷⁰ 말아다 대왕(大王) 전

등지에 분포한다. 또는, ‘돌묵상어’의 제주 방언 ‘모조리’로 볼 수도 있다.

1359) 청사(靑絲) : 빗갈이 푸른 실.

1360) 홍사(紅絲) : 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에 쓰던, 붉고 굵은 줄.

1361) 가막쇠 : 한쪽 끝을 감아 고리못을 달고 다른 쪽 끝을 갈고리 모양으
 로 구부려 배목에 걸도록 만든 쇠. 흔히 문짝을 잠그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걸어 끼운다.

1362) 요하(腰下) : 바지나 치마처럼 허리가 있는 옷의 허리 안쪽. 곧 그 옷
 과 속옷 또는 그 옷과 살의 사이.

1363) 계 : 거. ‘거기’를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처소격 조사 ‘에’가 붙을 때
 에는 ‘계’로 형태가 바뀐다.

1364) 개장 : 개장국. 개고기를 여러 가지 양념, 채소와 함께 고아 끓인 국.
 옛날부터 삼복(三伏) 때 또는 병자의 보신을 위하여 이를 먹는 풍습이 있었
 다.

1365) 장보간이 : ‘잘량 하니’의 변형인 듯. ‘잘량’은,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질하여 다룬 개의 가죽. 흔히 방석처럼 깔고 앉는 데에 쓴다. 사실에 따
 라, ‘장복(長服)하니’를 쓰기도 한다.

1366) 말아가자 : ‘몰아가자’의 경북 방언인 듯.

1367) 요단항장(腰短項長) : 허리가 짧고 목이 길다.

1368) 천리마(千里馬) :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말.

(前) 바치면은¹³⁷¹⁾ 천금(千金) 상(賞)을 아니 주랴, 이 망아지 말아가자.” “아이고, 내가 송아지요.” “소라니 더욱 좋다. 도우탄(屠牛坦)¹³⁷²⁾에 너를 잡아 양기 두족(頭足),¹³⁷³⁾ 갈비, 양(胙) 횃감¹³⁷⁴⁾ 횃감이 진미로구나. 이 소 바빠 말아가자.” 이런 제기럴 헐 놈들이 동의보감을 얼마나 보았는지 저렇게 아는 놈들은 처음 보았네 “아이고, 내가 너 외할애비다.” 여러 놈이 달려들어 청사 홍사 가막쇠를 이리저리 질끈 묶어 주장(朱杖)대¹³⁷⁵⁾ 쿡 찢러 영덕전 너른 뜰

1369) 연인(涓人)도 오 백 금(金)으로 죽은 뼈를 사갔으니 : 연인(涓人)이 죽은 천리마의 뼈를 500금에 사다.

연 소왕(燕昭王)이 제(齊)에게 패한 뒤에 즉위하여 보다 정치를 잘 해볼 생각으로 곽외(郭隗)에게 어진 사람을 불러 달라고 부탁했더니, 곽외는, “옛날 어느 임금이 연인(涓人, 환관)에게 천금(千金)을 주어서 천리마(千里馬)를 구해 오게 했습니다, 연인은 죽은 천리마의 뼈를 500금에 사 왔더니, 그 임금은 화를 냈습니다, 연인은, ‘죽은 말도 사 왔는데, 하물며 산 말임에랴, 천리마는 곧 나타날 것입니다.’ 하였는데, 1년이 채 못 되어서 천리마가 세 필이나 이르렀다 합니다, 이제 왕께서 어진 사람을 꼭 오게 하시려면, 저부터 대우하십시오, 그러면 저보다 어진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했다. 그래서 연 소왕은 곽외를 스승으로 섬기니, 어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전국책(戰國策)』, 『자치통감(資治通鑑)』)

1370) 차 : 채.

1371) 바치면은 : ‘바치면’의 옛말.

1372) 도우탄(屠牛坦) : 소를 잡는 백정. 참고로, 「이선유 창본 수궁가」의 해당 부분은 “도우탄이 너를 자버”(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1, 박이정출판사, 1997, 116쪽)이다.

1373) 두족(頭足) : 소, 돼지 따위의 머리와 발을 아울러 이르는 말.

1374) 양(胙) 횃감 : ‘양회(胙膾, 소의 양을 찢어서 회로 먹는 음식) 간(肝)’의 변형.

의 대량대량¹³⁷⁶) 들이 매고 동댕이쳐 내던지며 “토끼 잡아들였소.”

[아니리]

용왕이 반기 허여 이만 허고 보시더니 “그것 참 약 되게 생겼다. 듣거라, 내 우연 득병(得病)하여 필사지경(必死之境)¹³⁷⁷)에 이르렀는데, 명의(名醫)가 지시(指示)허되 니 간을 쓰면 즉효(卽效)¹³⁷⁸) 한다 허기에, 어진 신하(臣下)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이에 죽노라 한(恨)을 마라. 너는 일개 녹림초신(綠林草臣)¹³⁷⁹)이요, 짐은 수국왕이라. 니 간을 써 왕명을 보존할진대 무슨 한이 있을꼬. 네가 죽드라도 니 신체는 비단으로 감장(監葬)하여¹³⁸⁰) 칠곽(漆槨)¹³⁸¹)에 정(淨)히 담어 장풍향양(藏風向陽)¹³⁸²) 천리행룡(千里行龍)¹³⁸³) 일석지기¹³⁸⁴) 좋은 자리 분별(分別)해 써 줄 것이요, 또한 정조(正

1375) 주장(朱杖)대 : 주릿대나 무기 따위로 쓰던 붉은 칠을 한 몽둥이.

1376) 대량대량 : ‘대량대량’인 듯.

1377) 필사지경(必死之境) : 반드시 죽을 지경.

1378) 즉효(卽效) : 곧 반응을 보이는, 약 따위의 효험.

1379) 녹림초신(綠林草臣) : 푸른 숲의 초망지신(草莽之臣),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

1380) 감장(監葬)하여 : 장사(葬事) 지내는 일을 돌보다.

1381) 칠곽(漆槨) : 옷칠한 곽.

1382) 장풍향양(藏風向陽) : 바람을 감추고 양지가 바르다. ‘장풍(藏風)’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서, 바람이 운반하는 생기(生氣)는 받아들이고 모인 생기가 바람에 의해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1383) 천리행룡(千里行龍) : 풍수지리에서, 산맥이 높았다 낮았다 하며 힘차게 멀리 뻗다.

朝)¹³⁸⁵ 한식(寒食)¹³⁸⁶ 단오(端午)¹³⁸⁷ 추석(秋夕)¹³⁸⁸ 제사(祭祀)라도 착실(着實)히 분별해 줄 것이니 너 죽는다 한을 마라.” 토끼 하릴없이 죽게 되었구나. 우자천려(愚者千慮)에 필유일득(必有一得)¹³⁸⁹이라. 한 피를 넉넉 생각하여 흠어진 정신을 가다듬어 조금도 안색(顏色)을 변치 않고 천연(天然)히¹³⁹⁰ 여짜오되,

[중모리]

“소퇴[小兔]¹³⁹¹ 한 말씀 아뢰리다. 소퇴 한 말씀 아뢰리다. 회음(淮

1384) 일석지기 : ‘일석지(一席之地, 자리 한 장을 펼 수 있는 자그마한 곳)’의 변형인 듯.

1385) 정조(正朝) : 설날 아침.

1386) 한식(寒食) :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서 4월 5일이나 6일쯤이 되며, 민간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莎草)하는 등 묘를 돌아본다.

1387) 단오(端午) :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5월 5일로, 단오떡을 해 먹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한다.

1388) 추석(秋夕) :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팔월 보름날이다. 신라의 가배(嘉俳)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낸다.

1389) 우자천려(愚者千慮)에 필유일득(必有一得): 어리석은 사람도 천 가지 생각 중에서 반드시 한번은 들어맞는다. 『안자춘추(晏子春秋)』 내편잡하(內篇雜下)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성인도 천 가지 생각 중에서 반드시 한 번은 틀리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 가지 생각 중에서 반드시 한 번은 들어맞는다(聖人千慮 必有一失 愚者千慮 必有一得)”이다.

1390) 천연(天然)히 : 사실에 따라, ‘언연(儼然)히’를 쓰기도 한다.

1391) 쇠퇴[小兔] : 소토(小兔). 소인(小人,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

陰)¹³⁹² 땅 한신(韓信) 이는 소하(蕭何) 따라 파촉(巴蜀)¹³⁹³ 가옴
 기는 한왕(漢王) 섬길 마음이요, 궁팔십(窮八十) 강태공도 주(周)나
 라 가옴기는 문왕(文王) 섬길 마음이요, 남양(南陽)¹³⁹⁴ 땅 제갈량
 (諸葛亮)¹³⁹⁵도 한(漢)나라 가옴기는 현덕(玄德)¹³⁹⁶ 섬길 마음이요,
 소퇴도 별 주부 따라 수궁 들어옴기는 대왕(大王) 섬길 마음이라.
 분골쇄신(粉骨碎身)허울진대 추호(秋毫)¹³⁹⁷ 기망(欺罔)허오리
 까!¹³⁹⁸ 시일갈상(時日曷喪)¹³⁹⁹ 노래 소리 억조창생(億兆蒼生)¹⁴⁰⁰

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토끼.

1392) 회음(淮陰) : 화이인(淮陰, 회음). ‘칭장’의 전 이름.

1393) 파촉(巴蜀) : 파촉. 중국, 파주(巴州)·촉주(蜀州)의 총칭. 파(巴)는 지금
 의 충칭(重慶) 지방, 촉(蜀)은 쓰촨성(四川省) 성도(成都) 지방. 후세에, 쓰촨
 성의 별칭이 된다.

1394) 남양(南陽) : 남양군(南陽郡). 중국 옛 군현제의 군이다. 후한 때, 군의
 치소는 완현(지금의 난양 시 완청 구)에 있었다.

1395) 제갈량(諸葛亮) :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정치가(181~234). 자(字)는
 공명(孔明). 시호는 충무(忠武).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
 라와 연합하여 조조(曹操)의 위(魏)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다. 유비가 죽은 후에 무향후(武鄉侯)로서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 중에 병사하였다.

1396) 현덕(玄德) : 유현덕(劉玄德). 유비(劉備).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
 의 초대 왕(161~223, 재위 221~223). 자는 현덕(玄德)이고, 시호는 소열제
 (昭烈帝)이다. 관우, 장비 등과 의형제를 맺고 황건적을 토벌하여 벼슬에 올
 랐다.

1397) 추호(秋毫) :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98) 기망(欺罔)허오리까 : 남을 속여 넘기리까.

1399) 시일갈상(時日曷喪) : 이 해는 어느 때나 없어질까.

백성이 나라가 망하지 않음을 탄식한다는 말이다. 하(夏)나라의 마지막 임금

원망(怨望) 중의 탐학(貪虐)한¹⁴⁰¹ 상(商)¹⁴⁰² 주(紂)¹⁴⁰³ 인군(人君)¹⁴⁰⁴ 성현(聖賢)¹⁴⁰⁵의 배 속의 칠(七) 궁기¹⁴⁰⁶가 있다 하여 비간(比干)¹⁴⁰⁷의 배 가르니 일곱 궁기가 있더니까? 소퇴도 배를 갈라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내의 목숨 어찌 다시 구허리까? 당장의 배를 따 보옵소서.” 용왕이 듣고 화를 내어¹⁴⁰⁸ “이놈, 네 말이 간괴(奸怪)¹⁴⁰⁹ 허다. 의서(醫書)

인 결(桀)이 매우 무도하였는데 그가 일찍이 “내가 천하를 소유한 것은 마치 하늘에 해가 있는 것과 같으니, 저 해가 없어져야 내가 비로소 망한다”라고 했으므로, 당시에 그의 학정(虐政)을 원망하던 백성들이 “이 해는 어느 때나 없어질까, 내 너와 함께 없어져 버리자(時日曷喪, 予及女偕亡)”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시경(書經)』 탕서(湯誓) 참고.

1400) 억조창생(億兆蒼生) : 수많은 백성.

1401) 탐학(貪虐)한 : 욕심이 많고 포악한.

1402) 상(商) : 중국 은 왕조의 처음 이름.

1403) 주(紂) : 중국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기원전 ?~기원전 ?). 이름은 제신(帝辛). 주(紂)는 시호(諡號). 지혜와 체력이 뛰어났으나, 주색을 일삼고 포악한 정치를 하여 인심을 잃어 주나라 무왕에게 살해되었다.

1404) 인군(人君) :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1405) 성현(聖賢) : 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을 아울러 이르는 말.

1406) 궁기 : ‘구멍’의 강원, 경상, 제주, 충북, 함경, 중국 길림성 방언.

1407) 비간(比干) : 비간. 중국 은(殷)나라 주 왕(紂王)의 제부(諸父, 아버지의 형제). 주왕의 학정(虐政)을 강하게 간했기 때문에 분노를 샀고, 주왕은 성인(聖人)의 가슴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험해본다고 하여 간(干)을 죽여서 그 가슴을 갈랐다고 한다.

1408) 내어 : 사설에 따라, ‘내는디(내는데)’를 쓰기도 한다.

1409) 간괴(奸怪) : 간사하고 괴이하다.

에 일렸으되, 비수병즉구불능식(脾受病則口不能食)¹⁴¹⁰⁾ 히고 담수병 즉설불능언(膽受病則舌不能言)¹⁴¹¹⁾ 히고 신수병즉이불능청(腎受病 則耳不能聽)¹⁴¹²⁾ 히고 간수병즉목불능시(肝受病則目不能視)¹⁴¹³⁾라, 간이 없고 눈으로 어찌 만물을 보느냐?” “예, 소퇴가 아뢰리다. 소 퇴의 간인 즉 월륜(月輪)¹⁴¹⁴⁾ 정기(精氣)로 삼졌삽기로¹⁴¹⁵⁾ 보름이 면 간을 내고 그름이 되면 간을 들입니다. 세상의 병객(病客)들이 소퇴가 얼른허면¹⁴¹⁶⁾ 간 달라기로 보채기로, 간을 내어다가 파춧 잎¹⁴¹⁷⁾에다 가만히 싸서 칩¹⁴¹⁸⁾ 노¹⁴¹⁹⁾로 칭칭 동여,¹⁴²⁰⁾ 영주(瀛

1410) 비수병즉구불능식(脾受病則口不能食) : 지라에 병이 나면 입으로 먹지 못하다.

1411) 담수병즉설불능언(膽受病則舌不能言) : 쓸개에 병이 나면 혀로 말하지 못하다.

1412) 신수병즉이불능청(腎受病則耳不能聽) : 콩팥에 병이 나면 귀로 듣지 못하다.

1413) 간수병즉목불능시(肝受病則目不能視) : 간에 병이 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다.

1414) 월륜(月輪) : 둥근 모양의 달. 또는 그 둘레.

1415) 삼졌삽기로 : ‘생졌삽기로’의 옛말.

1416) 얼른하다 : 얼씬하다. 조금 큰 것이 눈앞에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다.

1417) 파춧잎 : 파초 잎.

1418) 칩 : 콩과의 낙엽 활엽 덩굴성 식물. 잎은 어긋나고 세 쪽 겹잎이다. 8월에 붉은 자주색 꽃이 총상(總狀) 화서로 피고 열매는 협과(莢果)로 9~10월에 익는다. 뿌리의 녹말은 식용하고 뿌리는 약용한다. 산기슭 양지에서 자라는데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1419) 노 : 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 만든 줄.

1420) 동여 : 끈이나 실 따위로 감거나 둘러 묶어.

洲)¹⁴²¹) 석상 늘어진 계수(桂樹)나무 끝 꼬터리¹⁴²²)다 달아두고, 도화(桃花)¹⁴²³) 유수(流水)¹⁴²⁴) 옥계(玉溪)¹⁴²⁵) 변(邊)¹⁴²⁶)에 목욕차(沐浴次)로 내려 왔다, 우연히 주부(主簿)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기로 완경차(玩景次)로 왔나이다.” 용왕이 또 화를 내는되 “이놈, 그 말도 간괴허다. 사람이나 짐생이나 일신지내장(一身之內臟)¹⁴²⁷)은 다를 바가 없는되, 어찌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任意)대로 출입(出入)허는고?” “예, 소퇴가 아뢰리다. 예, 소퇴가 아뢰리다. 대왕은 단지기일(但知其一)¹⁴²⁸)이요 미지기이(未知其二)¹⁴²⁹)로소이다. 복희씨(伏羲氏/伏犧氏)¹⁴³⁰)는 어찌하여 사신인수(蛇身人首)¹⁴³¹)가 되었으며, 신농씨(神農氏)¹⁴³²) 어찌 허여 인신(人身)¹⁴³³) 우수(牛首)¹⁴³⁴)

1421) 영주(瀛洲) : 삼신산의 하나.

1422) 꼬터리 : ‘꼬트머리’의 경남, 전남 방언.

1423) 도화(桃花) : 복사나무의 꽃.

1424) 유수(流水) : 흐르는 물.

1425) 옥계(玉溪) : 옥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의 시내.

1426) 변(邊) : 물체나 장소 따위의 가장자리.

1427) 일신지내장(一身之內臟) : 한 몸의 위, 창자, 간, 콩팥, 이자 따위.

1428) 단지기일(但知其一) : 단지(但只) 하나만 알다.

1429) 미지기이(未知其二) : 둘은 모르다.

1430) 복희씨(伏羲氏/伏犧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1431) 사신인수(蛇身人首) :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라는 뜻으로, 중국 상고 시대의 제왕 복희씨의 괴상한 모양을 이르는 말.

1432) 신농씨(神農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

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 하여 꼬리가 저리 기다란¹⁴³⁵⁾ 허옇고, 소퇴는 무삼 일로 꼬리가 이리 묘뚝허옇고,¹⁴³⁶⁾ 대왕의 옥체(玉體)에는 비늘이 번쩍번쩍, 소퇴 몸에는 털이 요리 송살송살¹⁴³⁷⁾ 가마귀로 두고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개 있고, 오후 까마귀 쓸개 없으니, 인생(人生) 만물(萬物) 비금주수가 모두 다 한가지라 허옇시니 답답치 아니허오리까?”¹⁴³⁸⁾ 용왕이 반(半)이나 옹이¹⁴³⁹⁾ 들고 “그러면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대로 출입허는 표(表)¹⁴⁴⁰⁾가 있느냐?”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그런¹⁴⁴¹⁾ 궁기 서이¹⁴⁴²⁾ 늘어 있거날 “저 궁기는 어떤 내력(來歷)인고?” “아뢰리다. 한 궁기로는 대변(大便)보고, 또 한 궁기로는 소변(小便)을 보고, 남은 궁기로는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로 출입허나이다.” “그러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궁기¹⁴⁴³⁾로 내옴기로, 만물시생(萬物始

로, 농업·의료·악사(樂師)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이며, 또 역(易)의 신, 상업의 신이라고도 한다.

1433) 인신(人身) : 사람의 몸.

1434) 우수(牛首) : 소의 머리.

1435) 기다란 : 매우 길거나 생각보다 긴.

1436) 묘뚝허옇고 : 몽뚝허옇고. 가는 사물의 끝이 아주 짧고 무디옇고.

1437) 송살송살 : 송실송실. 송알송알. 땀방울이나 물방울, 열매 따위가 잘게 많이 뿜힌 모양.

1438) 아니허오리까 : 아니하오리까. ‘얹으오리까’의 본말.

1439) 옹이 : 사리에 맞고 바르게.

1440) 표(表) : 겉으로 드러난 자취.

1441) 빨그런 : 빨그레한. 얹게 빨그스름한.

1442) 서이 : ‘셋’의 경남, 충청, 함경 방언.

生),¹⁴⁴⁴ 동방삼팔목(東方三八木),¹⁴⁴⁵ 서방사구금(西方四九金),¹⁴⁴⁶ 남방이칠화(南方二七火),¹⁴⁴⁷ 북방일육수(北方一六水),¹⁴⁴⁸ 중앙오십토(中央五十土),¹⁴⁴⁹ 천지(天地) 음양(陰陽) 아침 안개, 저녁 이슬
 화해야 입으로 넣고 밀궁기로 내옴기로 으뜸 간이 되나이다. 미련허
 드라 저 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이약을 허였으면 간을 보
 차¹⁴⁵⁰ 가지고 들어와 대왕 병도 즉차(卽瘥)¹⁴⁵¹ 즉효(卽效) 허고
 저도 충신이 나타나 양주¹⁴⁵² 양합¹⁴⁵³이 좋을 텐디, 미련허드라 저

1443) 밀궁기 : ‘밀구멍(항문이나 여자의 음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의 강원, 경상, 제주, 충북, 함경, 중국 길림성 방언.

1444) 만물시생(萬物始生) : 만물이 처음 생기다.

1445) 동방삼팔목(東方三八木) : 하늘의 3이 낳고, 땅의 8이 이룬 목(木)은 동쪽을 가리킨다.(『성재집(省齋集)』 등 참고)

1446) 서방사구금(西方四九金) : 땅의 4가 낳고, 하늘의 9가 이룬 금(金)은 서쪽을 가리킨다. 사설에 따라, ‘남방이칠화(南方二七火)’와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하다.

1447) 남방이칠화(南方二七火) : 땅의 2가 낳고, 하늘의 7이 이룬 화(火)는 남쪽을 가리킨다. 사설에 따라, ‘서방사구금’과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하다.

1448) 북방일육수(北方一六水) : 하늘의 1이 낳고, 땅의 6이 이룬 수(水)는 북쪽을 가리킨다.(『성재집(省齋集)』 등 참고)

1449) 중앙오십토(中央五十土) : 하늘의 5가 낳고, 땅의 10이 이룬 토(土)는 중앙을 가리킨다.(『성재집(省齋集)』 등 참고)

1450) 보차 : 보째. ‘보’는, 응답이나 저담 따위를 세는 단위. ‘-차’는, ‘-째’의 하동 지역어. 『고향말여행.com』 참고.

1451) 즉차(卽瘥) : 병이 곧바로 낫다.

1452) 양주 : ‘양주(兩主)’인 듯하다. 또는, ‘양주(梁柱, 대들보를 받치는 기둥)’일 수도 있다. 특히 ‘양주(梁柱)’는, ‘미생지신(尾生之信,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이 약속만을 굳게 지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춘추 시대에 미생

주부야 만시지탄(晩時之歎)¹⁴⁵⁴이 쓸데없네.”

[아니리]

“그러면 세상에서 네 간을 먹고 즉효 한 사람이 있느냐?” “예, 있지요.”

[중중모리]

“소퇴의 할애비¹⁴⁵⁵ 풍경(風景)을 좋아하여 유산유수¹⁴⁵⁶ 노닐 제, 목욕차로 내려오다 실족(失足)하여¹⁴⁵⁷ 물의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제, 한(漢) 무제(武帝) 제신(諸臣)¹⁴⁵⁸들이 구선(求仙)¹⁴⁵⁹ 하여 나

이라는 자가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한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홍수에도 피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익사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에 나온다.

1453) 양합 : 미상. ‘영합(迎合, 서로 뜻이 맞다)’이나 ‘야합(夜合)’의 변형일 수 있다.

1454) 만시지탄(晩時之歎) :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1455) 할애비 : 할아버지. ‘할아범’의 낮춤말. ‘할아범’은, 지체가 높은 사람에게 대하여 제 할아버지를 이르는 말.

1456) 유산유수 : ‘요산요수(樂山樂水)’의 변형. ‘요산요수’는, 산수(山水)의 자연을 즐기고 좋아하다.

1457) 실족(失足)하여 : 발을 헛디디어.

1458) 제신(諸臣) : 여러 신하.

1459) 구선(求仙) : 선인(仙人)을 두루 찾다.

한(漢) 무제(武帝)가 도가(道家)나 황로사상(黃老思想)을 좋아하자 이소군(李少君)을 시작으로 방사(方士)들이 들끓었는데, 이들이 동해를 오가다 봉래

왔다, 건져 주어 살았기로 그 은혜(恩惠) 난망(難忘)¹⁴⁶⁰ 하여 간 조금 주었더니 동방삭(東方朔)이 투식(偷食)하여¹⁴⁶¹ 삼천갑자(三千甲子)¹⁴⁶²를 살아 있고, 위수로 돌아가다 간 내어 찌었더니 궁팔십(窮八十) 여상(呂尙)¹⁴⁶³이도 낚시질 나왔다가 기갈(飢渴)¹⁴⁶⁴이 자심(滋甚)하여¹⁴⁶⁵ 그 물 조금 떠 마시고 달팔십(達八十) 더 살았고, 안기생(安期生)¹⁴⁶⁶ 적송자(赤松子)¹⁴⁶⁷도 우리 간 얻어먹고 장생불로(長生不老)¹⁴⁶⁸ 하였으니, 원컨대 대왕께서도 소퇴 간 자시면¹⁴⁶⁹

산(蓬萊山)에서 신선 안기생(安期生)을 보았다고 하자 무제는 이들을 파견하여 신선을 찾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 뒤 봉래산도 안기생도 모두 찾는 데 실패하였으나, 신선에 대해 말하는 연(燕)과 제(齊) 지역의 괴탄(怪誕)한 방사들이 수없이 찾아왔다고 한다. 『고금사문류취(古今事文類聚)』 전집(前集) 권(卷)34 선불부(仙佛部) 선(仙) 한제구선(漢武求仙) 등 참고.

1460) 난망(難忘) : 잊기 어렵다.

1461) 투식(偷食)하여 : 투식(偷食)하여. 금이나 공곡(公穀)을 도둑질하여 먹어.

1462) 삼천갑자(三千甲子) : 육십갑자의 삼천 배. 곧 18만 년을 이른다.

1463) 여상(呂尙) : ‘태공망’의 다른 이름. 여(呂)는 그에게 봉해진 영지(領地)이며, 상(尙)은 그의 이름이다.

1464) 기갈(飢渴) :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1465) 자심(滋甚)하여 : 자심(滋甚)하여. 더욱 심하여.

1466) 안기생(安期生) : 중국 진(秦)나라 시황(始皇) 때의 선인(仙人). 시황이 동쪽으로 순유(巡遊)할 때 그와 사흘 밤을 함께 이야기하고서 황금(黃金)과 백벽(白璧)을 주었는데, 다 두고 가면서 천년 후에 자기를 봉래산(蓬萊山)에서 찾아달라는 글을 남겼다 한다.

1467) 적송자(赤松子) : 신농씨 때에, 비를 다스렸다는 신선의 이름.

1468) 장생불로(長生不老) : 늙지 아니하고 오래 살다.

천천만만(千千萬萬)¹⁴⁷⁰ 세(歲)를 태평(太平)으로 누루리다.”

[아니리]

용왕이 토끼에게 아조 돌리어¹⁴⁷¹ “토(免) 선생(先生) 해박(解縛)하라.¹⁴⁷²” 토끼를 해박하여 전상(殿上)¹⁴⁷³의 앉힌 후에 용왕이 인사(人事)하시되 “퇴 공(公)은 거양계(居陽界)¹⁴⁷⁴ 허고 과인은 처수부(處水府)¹⁴⁷⁵ 하야 불상통섭(不相通涉)¹⁴⁷⁶이러니 오날 피차(彼此)이리 만나기는 천만몽외(千萬夢外)로시! 어서 토 선생에게 술 올려라.” 수궁 미색(美色) 전어 단정(端正)히¹⁴⁷⁷ 꿇좌(跪坐)허고¹⁴⁷⁸ 동정춘주(洞庭春酒)¹⁴⁷⁹ 가득 부어 토끼에게 올리니, 토끼 황공대왈

1469) 자시면 : ‘먹으면’의 높임말. ‘들면’보다 존대의 정도가 높다.

1470) 천천만만(千千萬萬) : 횡수나 수량이 많거나 정도가 더할 수 없이 심하다. 또는 그런 모양.

1471) 돌리어 : 그럴듯한 꾀에 속아.

1472) 해박(解縛)하라 : 끈이나 오라 따위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이나 손 따위를 동이어 묶은 것을 풀어 주라.

1473) 전상(殿上) : 전각이나 궁전의 위.

1474) 거양계(居陽界) : 양계(陽界)에 산다. ‘양계’는, 육지 세계를 수중 세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1475) 처수부(處水府) : 수부(水府)에 있다.

1476) 불상통섭(不相通涉) : 서로 사귀어 오고가지 못하다.

1477) 단정(端正)히 : 옷차림새나 몸가짐 따위가 양전하고 바르게.

1478) 꿇좌(跪坐)허고 : 꿇좌(跪坐)하고. 무릎을 꿇고 앉고. 사설에 따라, ‘괴자하고(‘가부좌하고’의 전남 방언)’를 쓰기도 한다.

1479) 동정춘주(洞庭春酒) : 동정춘(洞庭春). 동정굴로 담근 술의 이름. 중국

(惶恐對曰) “대왕이 이다지 관대하시니 뼈를 갈아 드린들 무슨 한이 있으리까? 그러나 소퇴는 과맥전(過麥田)¹⁴⁸⁰ 대취(大醉)¹⁴⁸¹로 소이다.” “퇴 공이 과인을 위하여 원해(遠海) 만 리를 수고로이 왔다가 내 정이 섭섭하니 한 잔만 받게.” 토끼 사양타가 “이렇게 귀하시니 사차불피¹⁴⁸²로소이다.” 일성¹⁴⁸³ 산골 물만 먹든 놈이 동정춘주를 알 수 있나, 한 잔을 맛보더니 “참, 술맛 좋소! 거, 한 잔만 더 주쇼.” 맛에 취해서 십여 잔을 먹어노니 취흥(醉興)¹⁴⁸⁴이 도도(滔滔)하여,¹⁴⁸⁵ 수궁 물이 발목물로 알고 한번 노니는디, 때마침 토(兔) 공(公)¹⁴⁸⁶을 위하여 또한, 수궁 풍류(風流)가 낭자(狼藉)허것다.¹⁴⁸⁷

[옛모리]

수궁의 갖은 풍류 수궁의 갖은 풍류, 왕자진(王子晋)¹⁴⁸⁸의 봉(鳳)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의 글에서 유래한다.

1480) 과맥전(過麥田) : 보리밭을 지나다.

1481) 대취(大醉) : 잔뜩 취하다.

1482) 사차불피 : ‘사차불피(事此不避, 이 일을 피할 수 없다)’인 듯.

1483) 일성 : ‘항상’의 전남 방언.

1484) 취흥(醉興) :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흥취.

1485) 도도(滔滔)하여 : 도도(滔滔)하여. 벽찬 감정이나 주홍 따위를 막을 길이 없다.

1486) 공(公) : 남자의 성이나 성명, 시호(諡號) 뒤에 쓰여, 그를 높여 가리키는 말.

1487) 낭자(狼藉)허것다 :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것다.

피리¹⁴⁸⁹) 나나나나 나나누, 곽(郭) 처사(處士)¹⁴⁹⁰) 죽장구¹⁴⁹¹) 찌지
렁 쿵 쨍 쿵, 장자방(張子房)¹⁴⁹²)의 옥(玉)통소¹⁴⁹³) 밋띠루 띠루, 성
연자(成連子)¹⁴⁹⁴) 거문고 슬기덩지 등딩딩, 혜강(嵇康)¹⁴⁹⁵)의 혜금

1488) 왕자진(王子晉) : 왕자교(王子喬). 중국 주(周) 나라 영왕(靈王)의 태
자. 진(晉)은 이름으로, 직간(直諫)을 하다가 폐세자(廢世子)가 되어 구씨산
(緱氏山)에 들어가 신선(神仙)이 되었다 한다.

1489) 봉(鳳) 피리 : 왕자진(王子晉)이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鳳凰)
의 소리를 잘 내서 그것에 붙인 이름인 듯하다.

1490) 곽(郭) 처사(處士) : 당나라 무종 때의 곽도원(郭道原). 격구(擊甌)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 당나라 때의 시인 온정균(溫庭筠)이 ‘곽처사격구가(郭
處士擊甌歌)’라는 시를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가 널리 애송되었다고
한다.

1491) 죽장구 : 민간에서 사용되는 타악기의 하나. 굵고 긴 대통의 속을 뚫
어 만든 것으로, 세워 놓고 막대기로 쳐서 소리를 낸다. 또는, ‘질장구’의 변
형으로 보기도 한다. 질장구는 우리나라 타악기의 하나. 진흙으로 구워 화로
같이 만든 것으로, 아홉 조각으로 쪼개진 대나무 채로 변죽을 쳐서 소리를 낸
다.

당나라 때의 악기 가운데, 사발 열두 개에다 물의 양이 저마다 다르게 담아
놓고 쇠붙이로 두들겨서 묘한 소리를 내게 한 격구(擊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소리는 우리나라 악기인 질장구의 것과 비슷했다고 한다.

1492) 장자방(張子房) : ‘장양’의 성과 호를 함께 이르는 말.

1493) 옥(玉)통소 : 옥으로 만든 통소.

1494) 성연자(成連子) : 중국 춘추 시대 사람으로 거문고를 잘 탔다고 한다.
참고로, 백아(伯牙)가 성연자(成連子)에게 거문고를 배웠는데 성연자가 말하
기를, “거문고 곡조는 거의 배웠으나 이제는 너의 정(情)을 옮겨 바꾸어야(移
情) 하겠다” 하고, 데리고 바다 섬으로 들어가서는 말하기를, “우리 스승이
저 건너편 섬에 계신데 모시고 올 터이니 기다려라” 하고는 배를 타고 갔다.
백아는 혼자서 10여 일을 기다려도 성연자는 오지 않고 숲에서 물새만 울부

(嵇琴)¹⁴⁹⁶)이며, 격타고(擊鼉鼓) 취용적(吹龍笛)¹⁴⁹⁷ 능파사(凌波詞)¹⁴⁹⁸)의 어부사(漁父詞), 우의곡(羽衣曲)¹⁴⁹⁹ 채련곡(採蓮曲)¹⁵⁰⁰ 곁들어다 노래할 제, 낭자(狼藉)한 풍악(風樂)¹⁵⁰¹ 소리 수궁이 진 동한다. 토끼도 좋아라고, 토끼도 신명내어, “얼시구절시구¹⁵⁰²) 지화

짓었다. 그는 감동되어, “이것이 우리 스승이 나의 정을 바꾸는 것이다” 하고, 거문고를 탔는데 그 곡조를 수선조(水仙調)라 한다.

1495) 혜강(嵇康) : 중국 삼국 시대 위(魏)나라의 문인(223~262). 자는 숙야(叔夜). 죽림칠현의 한 사람으로, 작품에 한시 ‘유분시(幽憤詩)’, 산문 ‘금부(琴賦)’ 따위가 있다. 그는 특히 거문고 타고 시 읊기를 즐기었고, 그가 창제(創製)한 거문고 즉 혜금(嵇琴)도 세상에 전한다고 한다.

1496) 혜금(嵇琴) : 혜강의 금(琴). 사설에 따라, ‘혜금(奚琴)’을 쓰기도 한다.

1497) 격타고(擊鼉鼓) 취용적(吹龍笛) : 악어가죽 북 치고 용의 소리를 내는 피리를 불다. 당 시인 이하(李賀)의 ‘장진주(將進酒)’에서 “취용적(吹龍笛, 용적 불고) 격타고(擊鼉鼓, 악어가죽 북 치니) 호치가(皓齒歌, 하얀 이의 미인 노래하고) 세요무(細腰舞, 가는 허리의 미녀 춤 춘다오)”를 따온 것이다. (한시 - 16. 1. 참고)

1498) 능파사(凌波詞) : 능파곡(凌波曲). 사곡(詞曲) 이름. 『태진외기(太眞外記)』에 “당 명황(唐明皇)이 동도(東都)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 능파지(凌波池)에 산다는 용녀(龍女)의 청으로 능파곡을 지었는데, 능파궁(凌波宮)에 여러 문무(文武)를 모아 놓고 물가에서 이 신곡(新曲)을 연주하자 물결이 모두 솟구쳤다” 하였다.

1499) 우의곡(羽衣曲) :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 신선들의 세계인 월궁(月宮)의 음악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는 곡조.

1500) 채련곡(採蓮曲) : 양 무제(梁武帝)가 지은 강남롱(江南弄) 일곱 곡(曲) 중의 하나로, 가사 중에는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애정에 대한 서술이 많다.

1501) 풍악(風樂) : 예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주로 기악을 이른다.

1502) 얼시구절시구 : 얼씨구절씨구. 흥겨울 때에 장단을 맞추며 변화 있게

자 자 좋을시고, 약일네라,¹⁵⁰³⁾ 약일네라, 내의 간이 약이여. 위수변(渭水邊) 강태공(姜太公)도 내 간을 먹고 궁팔십(窮八十) 달팔십(達八十) 일백 육십을 살았고, 동방삭(東方朔)이 날 만나 간 좀 달라기에 팔알¹⁵⁰⁴⁾만큼 주었더니 삼천갑자(三千甲子) 만 팔천 장생(長生不老) 하였네, 대왕의 환우(患憂)¹⁵⁰⁵⁾도 내의 간 자시면 천천만만세를 태평으로 누릴 터니 어찌 아니 좋을시구 지화자자 좋을 씨고.”

[중중모리]

앞내¹⁵⁰⁶⁾ 버들은 청포장(靑布帳)¹⁵⁰⁷⁾ 두르고 뒷네 수양(垂楊)은 유록장(柳綠帳)¹⁵⁰⁸⁾ 둘러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흔들흔들 우질우질 춤을 출 적에 앞발을 번뜻 추켜들고¹⁵⁰⁹⁾ 출랑출랑¹⁵¹⁰⁾ 노는 구나.

내는 소리.

1503) 약일네라 : ‘약이겠더라’의 옛말.

1504) 팔알 : 팔의 낱알.

1505) 환우(患憂) : ‘환후(患候, 옷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를 쓰기도 한다.

1506) 앞내 : 집이나 마을 앞을 흐르는 내.

1507) 청포장(靑布帳) : 푸른 천으로 만든 휘장.

1508) 유록장(柳綠帳) : 가지가 휘늘어져 늘어선 버들.

1509) 추켜들고 : 치올리어 들고.

1510) 출랑출랑 : 자꾸 가볍고 경망스럽게 까부는 모양. ‘졸랑졸랑’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아니리]

귀 밝은 대장 범치란 놈이 토끼 뒤로 졸졸 따라다니며 노니는 판인 디, 출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토끼란 놈 배 속에 간(肝) 들었다.” 큰소리를 쳐노니, 토끼 깜짝 놀래 “네 이 녀석 내 배 속에 무얼 보고 간 들었다 허느냐? 내 배 속에 무슨 소리를 듣고 간 들었다 허느냐? 내가 너그 수궁 들어와 먹은 것이 뭐 있느냐? 아, 이놈아, 빈 속에 술잔이나 들어가노니, 똥 덩어리 노는 소리 듣고 간 들었다 허는구나.” 토끼 생각허되 군자(君子)는 가기이방(可欺以方)¹⁵¹¹이요 견지이작[見機而作]¹⁵¹²이라. 뻥 짐에 주(走) 짜[字]가 제일 상수지, 뻥 짐에 뻥 수밖에 없다. 대왕 전 아뢰옵되 “병세(病勢)¹⁵¹³ 만만(萬萬) 위중(危重)하오니 소퇴가 어서 세상을 나가 간을 가지고 들

1511) 가기이방(可欺以方) : 그럴듯한 방법으로 남을 속일 수 있다. ‘가기이방(君子可欺以其方)’의 변형.

춘추 시대 정(鄭)나라 대부 자산(子產)에게 어떤 이가 산 물고기 두 마리를 선물로 보내자, 자산이 그것을 차마 죽일 수 없어 교인(校人)을 시켜 고기를 못에 놓아주게 했는데, 교인이 물고기를 삶아 먹어 버리고는 자산에게 복명하기를 “처음 막 놓아주었을 때는 고기가 어릿어릿하더니, 조금 뒤에는 활발해져서 깊은 곳으로 유유히 들어가더이다” 하였다. 그러자 자산이 말하기를 “제 살 곳을 얻었구나, 제 살 곳을 얻었구나”라고 감탄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맹자(孟子)가 “군자는 사리에 닿는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엉뚱한 말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속일 수는 없다(君子可欺以其方 難罔以非其道)”라고 평한 이야기가 있다. 『맹자』 만장 상(萬章上) 참고.

1512) 견지이작[見機而作] : 견기이작(見機而作). 김새를 알아채고 미리 조치하다.

1513) 병세(病勢) : 병의 상태나 형세.

어와 왕명을 보존(保存)하겠네다.¹⁵¹⁴⁾” 용왕이 반기 허사 별 주부를 또다시 진 명(命)을 허니, 별 주부는 토끼란 놈 배 속에 간이 들었는디, 세상에를 다시 나가라고 하니 주달(奏達)¹⁵¹⁵⁾을 허는디,

[진양조]

별 주부 황공대왈 “신의 충성(忠誠) 다 베풀어 원해(遠海) 삼천 리를 겨우 잡어들인 토끼를 배 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낼진대 세상 웃음이 될 것이요, 내가 칠종칠금(七縱七擒)허든 제갈공명(孔明) 지모(智謀)¹⁵¹⁶⁾ 아니어든 한번 놓아 버린 토끼 어찌 다시 구(求)오리까?¹⁵¹⁷⁾ 배만 갈라 보옵소서, 배만 갈라 보옵소서.”

[중중모리]

토끼가 듣고 일어서며, 토끼가 듣고 화를 내어 “왔다, 이놈 별 주부야, 니 말이 당(當)찬허다.¹⁵¹⁸⁾ 왕명이 지중(至重)커늘¹⁵¹⁹⁾ 니가 어

1514) 보존(保存)하겠네다 : ‘보존(保存)하겠네다(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겠나이다)’일 수도 있다.

1515) 주달(奏達) : 임금에게 아뢰던 일.

1516) 지모(智謀) : 슬기로운 꾀.

1517) 구(求)오리까 : 구(求)하오리까. 구(求)하겠습니까. ‘-오리까’는, (예스러운 표현으로) 합쇼할 자리에 쓰여,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 어미.

1518) 당(當)찬허다 : 당(當)찬하다. 당(當)치 않다. 당(當)찮다. 말이나 행동이 이치에 마땅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

1519) 지중(至重)커늘 : 더할 수 없이 귀중커늘.

이 기만(欺瞞)허랴?1520) 옛말을 못 들었나? 상(商) 주(紂)1521)의 몸
 쓸 마음 비간(比干)의 배 가르니 칠구[七竅]1522)도 못 보았고, 하
 (夏)1523) 걸(桀)1524)이 학정(虐政)으로 용봉[龍逢]1525)을 살해(殺害)
 코 미구(未久)1526)에 망국(亡國)을 모르더냐? 너도 이놈 내 배를 갈
 라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내
 의 혼백(魂魄)1527) 수로만리(水路萬里) 갈 수 없고, 너의 나라 원귀
 (冤鬼)1528)되어 연병(染病)1529) 시병(時病)1530) 퍼질진대 너의 용왕 십 년

1520) 기만(欺瞞)허랴 : 기만(欺瞞)하라. 남을 속여 넘기랴.

1521) 주(紂) : 중국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기원전 ?~기원전 ?). 이름은 제신(帝辛). 주(紂)는 시호(諡號). 지혜와 체력이 뛰어났으나, 주색을 일삼고 포악한 정치를 하여 인심을 잃어 주나라 무왕에게 살해되었다.

1522) 칠구[七竅] : 칠구(七竅). 일곱 개의 구멍. 비간(比干)은 상나라 사람으로 주의 숙부이다. 주에게 직간(直諫)하자 주가 성내어 말하기를 “성인의 심장에는 일곱 구멍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吾聞聖人心有七竅)”라며 그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보았다 한다. 『사기』 은본기 참고.

1523) 하(夏) : 치수(治水)에 공로가 있는 우(禹)가 순제(舜帝)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세운 중국 최초의 나라. 기원전 15세기 무렵 은(殷)나라에 망하였다.

1524) 걸(桀) : 하(夏)나라 말기, 폭군의 이름. 폭군의 대명사로도 쓰인다.

1525) 용봉[龍逢] : 용방(龍逢). 중국 하(夏) 나라 걸왕(桀王) 때의 충신. 걸왕의 무도함을 간(諫)하다가 처형된다.

1526) 미구(未久) : 얼마 오래지 아니하다.

1527) 혼백(魂魄) :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 몸이 죽어도 영원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1528) 원귀(冤鬼) : 원통하게 죽어 한을 품고 있는 귀신.

1529) 연병 : 염병(染病,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 듯.

살 것 하루도 못 살터이요, 너의 수국 만조백관(滿朝百官) 한 낮 한 시(時)¹⁵³¹ 모두 다 멸살(滅殺)¹⁵³² 시키리라 아나 배 갈라라 아나 였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 너 보아라.”

6. 세상으로

[아니리]

용왕이 토끼 거동(舉動)을 보고 요망(妖妄)한 짐생이 사(邪)가 되어 그럴 법도 하겠다. “다시 일구이언(一口二言)허는 자(者)는 어망(漁網/魚網)¹⁵³³ 살¹⁵³⁴로 정배(定配)¹⁵³⁵ 출송(黜送)¹⁵³⁶하리라.” 이렇듯 어명(御命)을 하여노니, 별 주부 하릴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다시 나오는데,

1530) 시병(時病) : 때에 따라 유행하는 상한병(傷寒病)이나 전염성 질환.

1531) 한시(時) : 같은 시각.

1532) 멸살(滅殺) : 씨도 없이 다 죽이거나 없애 버리다.

1533) 어망(漁網/魚網) :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1534) 살 : 물고기를 잡는 장치. 싸리, 참대, 장나무 따위를 개울, 강, 바다 따위에 날개 모양으로 둘러치거나 꽃아 나무 울타리를 친 다음 그 가운데에 그물을 달아 두거나 길발, 깃발, 통발과 같은 장치를 하여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도록 한다.

사설에 따라, ‘살(煞)’이나 ‘살매(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초인간적인 위력에 의해 지배된다고 여겨지는 운명)’를 쓰기도 한다.

1535) 정배(定配) :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 또는 그런 형벌.

1536) 출송(黜送) : 쫓아 보내다.

[진양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二水)를 건너 백로주(白鷺洲)¹⁵³⁷를 어서 가자. 고국산천(故國山川)¹⁵³⁸이 어디메뇨. 삼산(三山)을 바라보니 청천외(青天外)¹⁵³⁹ 멀어있고, 일락장사추색원(日落長沙秋色遠) 허니 부지하처조상군(不知何處吊湘君)¹⁵⁴⁰고. 한곳을 당도(當到)허니 한 사람이 나오는데 푸른 옷 입고 검은 관(冠)¹⁵⁴¹을 쓰고 거수(擧手)에 읊(搢)¹⁵⁴²을 하며, “토 공(公)은 수로(水路) 왕래(往來)

1537) 이수(二水)를 건너 백로주(白鷺洲) : 나뉜 강물을 건너 백로주(白鷺洲)로. 당 이백의 시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台)’에 나오는 “삼산반락청천외(三山半落青天外, 삼산 봉우리 반쯤이 푸른 하늘 밖으로 솟아 있고) 이수중분백로주(二水中分白鷺洲, 두 강물이 백로주를 가운데 두고 나뉘어 흐른다)”라는 구절을 변형한 것이다. (한시 - 14. 1. 참고)

1538) 고국산천(故國山川) : 고국의 산과 물이라는 뜻으로, ‘고국’을 정겹게 이르는 말.

1539) 삼산(三山)을 바라보니 청천외(青天外) : 삼산 봉우리를 바라보니 푸른 하늘 밖으로. 이백의 시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台)’에 나오는 “삼산반락청천외(三山半落青天外) 이수중분백로주(二水中分白鷺洲)”라는 구절을 변형한 것이다. (한시 - 14. 1. 참고)

1540) 일락장사추색원(日落長沙秋色遠) 허니 부지하처조상군(不知何處吊湘君) : 해는 장사에 떨어지고 가을빛은 먼데 어디서 상군(湘君)을 조문할까 모르노라. 당 이백의 시 ‘배족숙형부시랑엽급중서가사인지유동정오수’ 1수에서 “일락장사추색원(日落長沙秋色遠) 부지하처조상군(不知何處吊湘君)”을 따온 것이다. (한시 - 14. 3. 참고)

1541) 관(冠) : 검은 머리카락이나 말총으로 엮어 만든 쓰개. 신분과 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

상거(相距)¹⁵⁴³ 천이[千里]라 하이즉차[何以至此]¹⁵⁴⁴오?” 토끼 대
 왈(對曰)¹⁵⁴⁵ “기경청산(靑山)¹⁵⁴⁶ 허니 관불과제관(觀不過諸
 觀)¹⁵⁴⁷이요, 탁족무림¹⁵⁴⁸ 허니 태불과봉황¹⁵⁴⁹이요,¹⁵⁵⁰ 소무지식
 (素無知識)¹⁵⁵¹ 허고 유매평생¹⁵⁵²이라.¹⁵⁵³ 소문¹⁵⁵⁴ 강호지흥미

1542) 읍(揖) :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린다.

1543) 상거(相距) : 떨어져 있는 두 곳의 거리.

1544) 하이즉차[何以至此] : 하이지차(何以至此). 어찌하여 이에 이르렀는가.

1545) 대왈(對曰) : 대답하여 말하다.

1546) 기경청산(靑山) : ‘기적청산(寄跡靑山, 청산에 자취를 붙이다)’의 변형인 듯. 「〈부록 1〉 정응민 〈수궁가〉 창본 (1935)」 162쪽은 “기적청산”을 쓰고 있다. 이 자료는 정희석·조정희가 탈초(脫草) 하고 배연형이 감수하여, 정희석의 「정응민 가계 〈수궁가〉의 음악적 특징과 전승양상」(한양대 박사 학위 논문, 한양대, 2014)에 실린 것이다.

1547) 관불과제관(觀不過諸觀) : 경치마다 정겨워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1548) 탁족무림 : ‘탁족무림(託足無林, 발 붙일 숲이 없다)’인 듯. 사설에 따라, ‘탁신무림’이나 ‘탁신무림’이나 ‘탁족무임(濁足無臨)’ 등을 쓰기도 한다. ‘탁신무인(託身無人, 몸을 의탁할 사람이 없다)’의 변형인 듯.

1549) 태불과봉황 : ‘행불관어봉학(行不關於峰壑, 행이 봉우리 골과 관계가 없다)’의 변형이다. 사설에 따라, ‘태불과봉황(殆不過鳳凰, 봉황을 거의 지나치지 않다)’을 쓰기도 한다.

1550) 태불과봉황이요 : 「이선유 창본 수궁가」는 “탁신무림허니 행록과 어봉황”(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1, 박이정출판사, 1997, 120쪽)으로 쓰고 있다.

「〈부록 1〉 정응민 〈수궁가〉 창본 (1935)」 162쪽은 “탁신무림허니, 흥불려봉호리라”를 쓰고 있다. 이 자료는 정희석·조정희가 탈초(脫草) 하고 배연형이 감수하여, 정희석의 「정응민 가계 〈수궁가〉의 음악적 특징과 전승양상」(한양대 박사 학위 논문, 한양대, 2014)에 실린 것이다.

(江湖之興味) 허고 오복풍경지측차¹⁵⁵⁵로다.” 귀인(貴人)¹⁵⁵⁶이 듣고 평일¹⁵⁵⁷ 장탄(長歎)¹⁵⁵⁸ 왈 “군불견(君不見)¹⁵⁵⁹ 삼려대부(三閭大夫)¹⁵⁶⁰ 어복지혼(魚腹之魂)¹⁵⁶¹의 내 일찍 세상에서 이충사군(以忠事君)¹⁵⁶² 허옵다가 시운(時運)¹⁵⁶³이 불행(不幸)히여 이물¹⁵⁶⁴의

1551) 소무지식(素無知識) : 본디 아는 게 없다. 사설에 따라, ‘필견부지(必見不智)’를 쓰기도 한다.

1552) 유매평생 : ‘오매평생(寤寐平生)’의 변형인 듯. 사설에 따라, ‘소매평생(素昧平生, 견문이 좁고 세상 형편에 어두운 채 지내는 한평생)’이나 ‘유매평생(流魅平生, 떠도는 도깨비 평생)’ 등을 쓰기도 한다.

1553) 태불과봉황이요, 소무지식(素無知識) 허고 유매평생이라 : 참고로, 「가람본 <별토가>」는 “兎屬千山 허니 觀不過 觀이요 托身無人 허니 行不關於峰壑인디 必見不智하고 寤寐平生인디”(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토끼전 전집』 2, 박이정출판사, 1998, 105쪽)라고 이 부분을 표현한다.

1554) 소문 : ‘포문(飽聞, 싫증이 나도록 많이 듣다)’의 변형인 듯.

1555) 오복풍경지측차 : ‘오안풍경지도차(吾眼風景之到此, 풍경을 내 눈으로 보며 여기에 이르다)’의 변형인 듯하다.

1556) 귀인(貴人) :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

아니면, ‘기인(其人, 그 사람)’의 변형. 또는, ‘귀인(貴人)’의 경남 방언인 ‘기인(人)’의 변형.

1557) 평일 : ‘체읍(涕泣,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의 변형.

1558) 장탄(長歎) : 긴 한숨을 지으며 깊이 탄식하는 일.

1559) 군불견(君不見) :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1560) 삼려대부(三閭大夫) : ‘굴원’의 다른 이름. 굴원이 이 벼슬에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1561) 어복지혼(魚腹之魂) : 어복충혼(魚腹忠魂). 시국을 걱정하며 자결한 굴원의 충혼(忠魂).

1562) 이충사군(以忠事君) :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다.

물에 잠겨 영불출세(永不出世)¹⁵⁶⁵ 서른¹⁵⁶⁶ 뜻과 내의 글 외웠다가 추천¹⁵⁶⁷ 일월(日月) 밝은 세상의 음풍영월(吟風詠月)¹⁵⁶⁸ 문장(文章) 재사(才士)¹⁵⁶⁹들께 천고지원(千古之怨)¹⁵⁷⁰ 전해 주소.” 그 글의 허였으되 “제고양지묘예혜(帝高陽之苗裔兮)여 짐황고왈백용(朕皇考曰伯庸)¹⁵⁷¹이라. 유초목지영락혜(惟草木之零落兮)여 공미인(恐美人) 지모(遲暮)¹⁵⁷²로다. 거세개탁(舉世皆濁)이어든 아독청(我獨淸) 허고, 중인(衆人)이 개취(皆醉)어든 아독성(我獨醒)¹⁵⁷³이라.”

1563) 시운(時運) : 시대나 그때의 운수.

1564) 이물 : ‘이수(泥水, 흙이 풀리어 몹시 흐려진 물)’의 변형인 듯.

1565) 영불출세(永不出世) : 집 안에 틀어박히어 영영 세상에 나오지 아니하다.

1566) 서른 : 설은. 설운. ‘서러운’의 방언.

1567) 추천 : 사설에 따라, ‘초천(楚天)’을 쓰기도 한다.

1568) 음풍영월(吟風詠月) :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다.

1569) 재사(才士) : 재주가 뛰어난 남자.

1570) 천고지원(千古之怨) : 아주 오랜 세월 풀지 못한 원한.

1571) 제고양지묘예혜(帝高陽之苗裔兮)여 짐황고왈백용(朕皇考曰伯庸) : 저는 하늘의 신 고양(高陽)의 후손이자 저의 태조는 백용(伯庸)입니다. 초나라 굴원의 ‘이소(離騷)’에서 “帝高陽之苗裔兮(제고양지묘예혜) 朕皇考曰伯庸(짐황고왈백용)”을 따온 것이다. (한시 - 3. 2. 참고)

1572) 유초목지영락혜(惟草木之零落兮)여 공미인(恐美人) 지모(遲暮) : 초목이 시들어 떨어질 것 생각하니 아름다운 분 늙어 가시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초나라 굴원의 ‘이소(離騷)’에서 “惟草木之零落兮(유초목지영락혜) 恐美人之遲暮(공미인지지모)”를 따왔다. (한시 - 3. 2. 참고)

1573) 거세개탁(舉世皆濁)이어든 아독청(我獨淸) 허고, 중인(衆人)이 개취(皆

창연히 생각을 하니 이난 만고(萬古) 충신(忠臣)¹⁵⁷⁴ 굴원(屈原)이
로구나.

[단중모리]

백마주(白馬洲)¹⁵⁷⁵ 바삐 지내 적벽강(赤壁江) 당도(當到)하니, 소
지노화월일선(笑指蘆花月一船)¹⁵⁷⁶ 추강(秋江) 어부(漁父)가 빈 배.
기경선자(騎鯨仙子) 간 이후(然後) 공추월지단단(空秋月之團團
)¹⁵⁷⁷ 자래 등에다 저 달을 실어 우리 고향을 어서 가. 환산농명월
(還山弄明月)¹⁵⁷⁸ 원해근산(遠海近山)이 좋을시고. 위수(渭水)로 돌

醉)어든 아독성(我獨醒) : 온 세상이 모두 흐린데 나만 홀로 맑고, 모든 사람
들이 다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다. 초나라 굴원의 시 ‘어부(漁父)’에서
“거세개탁 아독청(舉世皆濁 我獨清) 중인개취 아독성(衆人皆醉 我獨醒) 시이
견방(是以見放, 이 때문에 추방을 당하였소)”이라는 구절을 따왔다. (한시 -
3. 1. 참고)

1574) 만고(萬古) 충신(忠臣) : 오랜 세월 동안 기억에 남을,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신하.

1575) 백마주(白馬洲) : 후베이성 우한(武漢)에 있다. 백마주의 마총(馬塚)은
동오(東吳)때 장군 노숙(魯肅)이 자신의 말을 묻은 곳이라 한다. 사설에 따라,
백로주(白鷺洲)를 쓰기도 한다.

1576) 소지노화월일선(笑指蘆花月一船) : 갈대꽃과 달 아래 배 웃으면서 가
리키네. 박문창(朴文昌)의 ‘제곽산운흥관화병(題郭山雲興館畫屏)’에서 “객래문
아흥망사(客來問我興亡事, 누가 와서 나에게 흥망의 일 묻기에) 소지노화월일
선(笑指蘆花月一船)”을 따왔다. (한시 - 8. 1. 참고)

1577) 공추월지단단(空秋月之團團) : 빈 가을 하늘엔 밝은 달만 둥글다.

1578) 환산농명월(還山弄明月) : 산에 돌아가 밝은 달이나 희롱하려네. 당나
라 이공좌복(李公佐僕)의 ‘목객(木客)’에서 “성시다효진(城市多囂塵, 도시는

아드니 어조(魚釣)하든¹⁵⁷⁹) 강태공(姜太公)¹⁵⁸⁰) 기주(岐周)로 돌아
들고 은린옥척(銀鱗玉尺)¹⁵⁸¹)뿐이라. 벽해(碧海) 수변을 당도하여
깡총¹⁵⁸²) 뛰어내려 모르는 체로 가는구나.

[아니리]

고고 태산(泰山)¹⁵⁸³)으로 올라가더니마는 “별 주부 어서 이리 올라
오시오, 간(肝) 줄 테니 어서 올라오시오.” 별 주부 딱 쳐다보니 층
암절벽이라. “아이고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오.” “저리
돌아 올라온다 하면 수백 리나 될 것이니, 이리 막 앞으로 기어올라
오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못 올라가겠네.” “오 그러면 좋
은 수가 있소. 내가 칠평쿨을 걷어 가지고 흘롱기¹⁵⁸⁴)를 해서 내려
보낼 테니, 목을 걸고 올라오든지 다리를 걸고 올라오든지 양 가지
로 허소.” “글랑 그리 허오.” 칠평쿨을 걷어 가지고 흘롱기를 해서
내려보냈었다. 별 주부 그저 목을 쑥 빼어 흘롱기 안에다 딱 넣어노
니,

너무 시끄러우니 환산농명월(還山弄明月)”을 따왔다. (한시 - 13. 1. 참고)

1579) 어조(魚釣)하든 : 어조(魚釣)하던. 물고기를 낚던.

1580) 강태공(姜太公) : 중국 주나라 초엽의 조신(朝臣)인 ‘태공망’을 그의
성(姓)인 강(姜)과 함께 이르는 말.

1581) 은린옥척(銀鱗玉尺) : ‘물고기’를 아름답게 이르는 말.

1582) 깡총 : 깡총. 짧은 다리를 모으고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

1583) 태산(泰山) : 높고 큰 산.

1584) 흘롱기 : 흘랭기. ‘올가미’의 경남 방언.

[느린 중모리]

토끼 놈 거동을 보아라. 흘롱기를 쥐여 들고 회회 돌려 젓쳐노니¹⁵⁸⁵) 나무 쟁반 떠나가듯, 해상의 배 떠나듯 공중의 등등 떠 하릴 없이 죽었구나. “네 이놈 별가(鬮哥)¹⁵⁸⁶) 놈아 니가 나를 살살 꼬여 너의 수궁 들어가 내 배를 갈라 간을 내어 너의 용왕 준다 허였더냐? 동풍의 음건(陰乾)허여¹⁵⁸⁷) 뻗뻗 말라 돼지거라.¹⁵⁸⁸) 왕배탕이 좋을시고, 들랑날랑¹⁵⁸⁹) 허는 목을 늘여서 죽이리라!” 흘롱기 측¹⁵⁹⁰) 끈을 낭귀¹⁵⁹¹)다 매고 산천으로만 올라가는구나.

[아니리]

그때여 별 주부는 하릴없이 죽게 되었는데, 목이 딱 찢리어노니¹⁵⁹²) 말인즉 할 수 있으리오마는 속으로 자탄(自歎/自嘆)허는 말이 소리가 되니 듣게 되었던 것이었다. 별 주부 기가 막혀 통곡(痛哭/慟哭)

1585) 젓쳐노니 : 젓혀노니. 젓히노니. ‘젓히노니’의 경남 방언.

1586) 별가(鬮哥) : ‘-가(哥)’는, ‘그 성씨 자체’ 또는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1587) 음건(陰乾)허여 : 음건(陰乾)하여. 겨울 동안에 창고에 보관하였던 씨앗을 봄에 씨뿌리기 전에 꺼내어 퍼서 그늘에서 말리어.

1588) 돼지거라 : ‘죽거라’를 속되게 이르는 말.

1589) 들랑날랑 :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1590) 측 : ‘좃’의 제주 방언인 ‘칙’인 듯.

1591) 낭귀 : ‘나무’의 경상, 충남 방언.

1592) 찢리어노니 : 찢리노니[잘리노니]. ‘잘리노니’는, ‘자르노니(잘록할 정도로 단단히 죄어 매니)’의 피동사.

으로 우는 말이,

[진양조]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나 죽기는 설참으나 내가 만일 죽게 되면 영덕전 병든 용왕 어니 다투 살려 주며, 북당(北堂)¹⁵⁹³의 학발(鶴髮)¹⁵⁹⁴ 양친(兩親)¹⁵⁹⁵ 옥빈홍안(玉鬢紅顏) 젊은 처자를 다투 의탁을 허드란 말이나.”

[아니리]

이렇듯 설리¹⁵⁹⁶ 울 제. 어째 산신(山神)¹⁵⁹⁷님이 살렸던지, 하나님¹⁵⁹⁸이 감동을 허였던지 묘(妙)하게 흘롱기 벗어나서 화해 돌려 내민 돌에 부딪쳐 떨어져노니 등이 난리가 되었구나. 이랬으면 그만 돌아가야 할 일인디, 원체 충성이 지극한 별 주부라. 가는 토끼 다시 불러, “여보 토(兔) 공(公) 아 이렇게 찡찡한 재담(才談)¹⁵⁹⁹ 그

1593) 북당(北堂) : 예전에, 중국에서 집의 북쪽에 있는 당집을 이르던 말. 집안의 주부(主婦)가 거처하는 곳이다.

1594) 학발(鶴髮) :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하얗게 센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

1595) 양친(兩親) : 부친과 모친을 아울러 이르는 말.

1596) 설리 : 서러이. 원통하고 슬프게.

1597) 산신(山神) :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

1598) 하나님 : 개신교에서 신봉하는 유일한 신. 천지의 창조주이며 우주 만물을 섭리로 다스린다.

1599) 재담(才談) :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또는 그런

만히시고 간이나 좀 띠어¹⁶⁰⁰ 주고 가시오.” 가든 토끼 다시 돌아오며 욱을 한번 퍼붓는디 대욕을 허는가 보더라.

[중모리]

“재기¹⁶⁰¹)를 붙고 발기를 헐 녀석. 배 속의 달린 간을 어찌 들이고 내드란 말이냐? 미련허드라 미련허드라 너그 용왕이 미련허드라. 느그 용왕 미련키 날 같고, 나 슬기롭기 느그 용왕 같거들면 영락없이 죽을 것을, 내 밑궁기 서이 아니어든 내 목숨이 어이 살았겄나?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白雲) 청산을 내 돌아간다.”

[아니리]

“내¹⁶⁰²) 이놈 별 주부야! 니 소행을 생각허면, 내 말뒤꿈치로 니 복판 콕콕 밟아 옹구¹⁶⁰³) 짐 뿌시거¹⁶⁰⁴) 놓듯 헐 일이로되, 니가 만(萬) 리(里) 원경(遠境)을 날 업고 왔으니, 그 은혜로 화제(和劑)¹⁶⁰⁵)하나 해줄 터이니 그대로 약 써 보아라. 거 니그 수궁 들어가니 이뿐 암자래 많튼구나, 하루 일천오백 마리씩 집어 다려서 멕

말.

1600) 띠어 : ‘떼어’의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방언.

1601) 재기 : 제기. 언짢을 때에 불평스러워 욱으로 하는 말.

1602) 내 : ‘네’의 변형인 듯.

1603) 옹구 : ‘옹기’의 강원, 전남 방언.

1604) 뿌시거 : 뿌시어. ‘부수어’의 전남 방언.

1605) 화제(和劑) : 한약 처방을 이르는 말.

이고,¹⁶⁰⁶) 그래도 안 낫거든 복장이¹⁶⁰⁷) 가루를 천 적¹⁶⁰⁸)을 만들어 오자대(梧子大)¹⁶⁰⁹)을 지어 무시복(無時服)¹⁶¹⁰)으로 그져 주야로 퍼 먹여 버려라.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일 마쳐 버리리라. 그렇지 않으면 염라대왕(閻羅大王)이 너 할애비라도 살 수가 없다, 이 녀석아!” 토끼는 이려고 올라갔제. 별 주부 기가 막혀 “내가 이리될 줄 알았지. 내가 이제 도경(渡鯨)¹⁶¹¹)으로 수궁을 가자 헌들 무슨 면목(面目)으로 용왕을 배울거나.” 별 주부 하릴없이 탄식하며 도경으로 돌아가고, 토끼란 놈 살아 나왔다고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덜거리고 노니다 토끼 뒷에 딱 걸려노니 “아이고 내가 또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이리될 줄 알았으면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조(正朝), 한식(寒食), 단오(端午), 추석(秋夕) 제사라도 착실히 얻어먹고 백골(白骨)이라도 암장¹⁶¹²)할걸, 이제는 뉘 놈의 배 속의 장사(葬

1606) 맥이고 : ‘떡이다’의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제주, 충청, 평안, 함북, 중국 길림성, 중국 요령성, 중국 흑룡강성 방언.

1607) 복장이 : 복쟁이. 참복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15cm 정도이며, 참복과 비슷하나 조금 짧고 등과 배에는 가시가 촘촘히 나 있다. 등 쪽은 잿빛 검은색에 흰 점이 흩어져 있고 가슴과 등지느러미에 검은 얼룩무늬가 하나씩 있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아니면, ‘올챙이’의 전라 방언.

1608) 적 : ‘석(石)’인 듯. ‘석’은,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1609) 오자대(梧子大) : 오동나무의 열매만큼 큰 덩이.

1610) 무시복(無時服) : 때를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약을 먹다.

1611) 도경(渡鯨) : 도경파(渡鯨波, 거센 파도를 건너다). ‘경파(鯨波)’는, 고래처럼 커다란 물결이라는 뜻으로, 바다에서 이는 큰 파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事)¹⁶¹³)를 허드란 말이냐!” 죽을 것 각오하고 있난디, 때마침 쉬파리¹⁶¹⁴) 때¹⁶¹⁵)가 똥¹⁶¹⁶) 하고 달라들 제 “아이고 쉬 낭청(郎廳) 사촌님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너 일 참 잘 되었구나!” “그저 내 등에 쉬¹⁶¹⁷)나 좀 쓸어¹⁶¹⁸) 주면 살 도리가 있소.” “니 아무리 꾀 많은들 사람의 손을 당할쏘냐. 사람의 내력(來歷)이라는 건 내 일(一) 장중(掌中)¹⁶¹⁹)에 있나니 내가 이를 테니 들어봐라.”

[자진모리]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손이라 허난 게 얹어 노면 하늘¹⁶²⁰) 이요, 뒷세¹⁶²¹) 놓으면 땅인디, 이리저리 금이 있기는 일월(日月) 다니는 길이요, 엄지장가락¹⁶²²)이 두 마디 기는 천지인삼재(天地人

1612) 암장 : ‘안장(安葬, 편안하게 장사 지내다)’이나 ‘감장(勘葬, 장사 치르는 일을 마치다)’의 변형인 듯하다.

1613) 장사(葬事) :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1614) 쉬파리 : 쉬파릿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은빛얼룩쉬파리, 개울쉬파리, 검정쉬파리 따위가 있으며 썩은 고기나 산 동물에 기생한다.

1615) 때 : 떼.

1616) 똥 : 작은 날벌레나 돌팔매 따위가 빠르게 날아가는 소리.

1617) 쉬 : 파리의 알.

1618) 쓸어 : 슬어.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깔기어 놓아.

1619) 장중(掌中) :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테두리의 안.

1620) 하늘 : ‘하늘’의 강원, 경기, 전라, 충청 방언.

1621) 뒷세 : 미상. ‘뒤집어’의 방언인 듯.

1622) 엄지 장가락 : ‘엄지장가락’이나 ‘엄지손가락’의 변형인 듯하다. 아니면 ‘엄지장지(가장 긴 손가락이라는 뜻으로 ‘가운뎃손가락’을 달리 이르는 말)’의

三才)¹⁶²³요, 지가락¹⁶²⁴이 장가락¹⁶²⁵만 못하기는 정월, 이월, 삼월, 장가락이 그 중에 길기는 사월, 오월, 유월이요, 무명지가락¹⁶²⁶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칠월, 팔월, 구월이요, 소지(小指)¹⁶²⁷가 그중에 저릅기¹⁶²⁸는 시월, 동지, 선달인디, 자오묘유(子午卯酉)¹⁶²⁹가 여그 있고, 건감간진손이곤태(乾坎艮震巽離坤兌)¹⁶³⁰ 선천팔괘(先天八卦)¹⁶³¹가 여그 있고, 불도(佛道)로 두고 일러도 감중련(坎中連)¹⁶³² 간상련(艮上連)¹⁶³³ 여그 있고, 육도(六道)¹⁶³⁴를 부러 대

북한어인 ‘엄지장가락’일 수도 있다.

1623)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 : 우주의 주장이 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1624) 지가락 : ‘집게손가락’의 평안 방언.

1625) 장가락 : ‘가운뎃손가락’의 강원 방언.

1626) 무명지가락 : ‘무명지’의 강원, 전남, 충남 방언.

1627) 소지(小指) : 다섯 손가락 가운데 다섯째 손가락. 가장 가늘다.

1628) 저릅기 : 짜릅기. ‘짚기’의 전라 방언.

1629) 자오묘유(子午卯酉) : 북(北)과 남(南)과 동(東)과 서(西)를 아울러 이르는 말.

1630) 건감간진손이곤태(乾坎艮震巽離坤兌) : 『주역(周易)』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쳐서 나타내는 팔괘의 상(象).

1631) 선천팔괘(先天八卦) : 팔괘(八卦). 중국 상고 시대에 복희씨가 지었다는 여덟 가지의 괘. 『주역(周易)』에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치어 여덟 가지의 상으로 나타낸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을 이른다.

1632) 감중련(坎中連) : 팔괘(八卦)의 하나인 감괘(坎卦)의 상형 ‘☵’을 이르는 말.

1633) 간상련(艮上連) : 간괘(艮卦)의 상형(象形)인 ‘☶’을 이르는 말.

장경(大藏經)¹⁶³⁵ 천지가 모도 일(一) 장중(掌中)이라. 니 아무리 많은들 사람 손을 당할쏘냐? 잔말 말고 너 죽어.”

[아니리]

“그저 죽고 살고는 내 수단에 있는 것이니, 내 등에 쉬나 좀 쓸어 주시오.” “글랑 그리 허여라.” 지 동지 수단 마리를 부르더니 쉬를 담뱃 쓸어 놓고 날아갔제. 토끼란 놈은 쉬 한 짐 짊어지고 죽은 듯이 엎졌는디, 때마침 초동(樵童)¹⁶³⁶들이 모두 아침밥 일찍 먹고 심곡(深谷) 심산(深山) 올라오며 시절가(時節歌)를 부르는데,

[늦은 중모리]

“어이 가리 넘차 어이 가리 넘차, 어이 가리 너 너화로구나. 태고(太古)¹⁶³⁷라 천왕씨[天皇氏]¹⁶³⁸는 목(木)덕(德)¹⁶³⁹으로 왕(王) 하였으니 낭기¹⁶⁴⁰ 아니 중힐쏘냐? 인황씨(人皇氏)¹⁶⁴¹ 아홉 형제 분

1634) 육도(六道) : 삼악도와 삼선도(三善道)를 통틀어 이르는 말. 중생이 선악의 원인에 의하여 윤회하는 여섯 가지의 세계이다.

1635) 대장경(大藏經) : 불경을 모아 엮은 여러 책.

1636) 초동(樵童) : 땔나무를 하는 아이.

1637) 태고(太古) : 아득한 옛날.

1638) 천왕씨[天皇氏] : 천황씨(天皇氏).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12 형제가 각각 만 팔천 년씩 왕 노릇을 하였다고 한다.

1639) 목덕(木德) : 오행설(五行說)에서 말하는 오덕(五德), 즉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 덕(德)의 하나.

1640) 낭기 : ‘나무’의 강원, 경상, 전남, 충남, 평안, 함경, 황해, 중국 길림

장구주(分長九州)¹⁶⁴² 마련할 제, 우리 곤(困)케 허였던가. 수인씨(燧人氏)¹⁶⁴³가 불을 내어 화식(火食)허게¹⁶⁴⁴ 헌 연후(然後)의 우리 곤케 허였던가.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삼태육경(三台六卿)¹⁶⁴⁵ 좋은 집에 부귀영화(富貴榮華)¹⁶⁴⁶로 잘사는디, 우리 팔자 어이허여 날이 새면 지게 갈퀴¹⁶⁴⁷ 짚어지고 심산구곡(深山九曲)¹⁶⁴⁸이 웬일

성, 중국 흑룡강성 방언.

1641) 인황씨(人皇氏) : 옛날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을 말한다. 천황씨(天皇氏)·지황씨(地皇氏)와 함께 삼황(三皇)으로 불린다. 보통 인류의 조상으로 일컬어진다. 처음 인황씨 아홉 형제가 태어나서 각각 중국 구주(九州)의 군장(君長)이 되었다고 한다.

1642) 아홉 형제 분장구주(分長九州) : 형제 아홉 사람이 구주에 나뉘어 군장 노릇을 하다. 『십팔사략(十八史略)』에 “인황씨는 형제 아홉 사람이 구주에 나뉘어 군장 노릇을 하여 그 기간이 무릇 150대에 걸쳐 도합 4만 5600년이다(人皇氏 兄弟九人 分長九州 凡一百五十世 合四萬五千六百年)”라고 한 데에서 보인다.

1643) 수인씨(燧人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으로, 불을 쓰는 법과 음식물을 조리하는 법을 전하였다고 한다.

1644) 화식(火食)허게 : 화식(火食)하게. 교인화식(教人火食). 불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다. 수인씨(燧人氏)의 업적을 가리킬 때 쓴다.

1645) 삼태육경(三台六卿) : 조선 시대에, 삼정승과 육조 판서를 통틀어 이르던 말.

1646) 부귀영화(富貴榮華) :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 온갖 영광을 누리다.

1647) 갈퀴 : 낙엽이나 곡물 따위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기구. 한쪽 끝이 휘어진 갈고리 모양의 대쪽이나 철사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든다.

1648) 심산구곡(深山九曲) : 심산유곡(深山幽谷, 깊은 산속의 으스스한 골짜기). 심산궁곡(深山窮谷,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

인그나. 집이라고 돌아가면 소탕¹⁶⁴⁹⁾ 빈 방안의 곱송그려¹⁶⁵⁰⁾ 새우잠¹⁶⁵¹⁾ 자니 초동 팔자(八字)¹⁶⁵²⁾ 가련지고, 여보소 친구들아 자네는 저 골로 들어가고, 나는 이 골로 들어가 떨어진 낙엽 부러진 가지를 힘끝대로¹⁶⁵³⁾ 몽똥그려 위부모(爲父母) 처자식(妻子息)¹⁶⁵⁴⁾의 극진공대(極盡恭待)¹⁶⁵⁵⁾를 하여 보세. 어이 가리 너 어 어이 가리, 어이 가리 너 너화로구나.”

[아나리]

이렇듯이 올라오다가 토끼 뒷 살펴보니 과연 한 마리 치엿제.¹⁶⁵⁶⁾
 “야 여기 좋은 것 있다. 거 모닥불 뉘라 이거 꺾¹⁶⁵⁷⁾ 먹고 올라가

1649) 소탕 : 소댕. 솥을 덮는 쇠뚜껑.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복판에 손잡이가 붙어 있다.

1650) 곱송그려 : 몸을 잔뜩 움츠려.

1651) 새우잠 :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을 의미한다.

1652) 팔자(八字) : 사람의 한평생의 운수. 사주팔자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을 간지(干支)로 나타내면 여덟 글자가 되는데, 이 속에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

1653) 힘끝대로 : ‘힘끈대로’인 듯. ‘힘끈’은, ‘힘껏’의 경기, 함경, 중국 길림성 방언.

1654) 위부모(爲父母) 처자식(妻子息) : 위부모보처자(爲父母保妻子, 아버이를 위하고 처자를 돌보다).

1655) 극진공대(極盡恭待) :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공손하게 잘 대접하다.

1656) 치엿제 : 치엿지. 뒷 따위에 걸렸지.

1657) 꺾 : ‘꺾’의 강원, 경상, 전라, 제주, 충청, 평안, 중국 길림성, 중국 요령성, 중국 흑룡강성 방언.

자.” 자세히 살펴보니 쉬를 잔뜩 쓸었것다. “아차 차차 우리가 이삼 일 전(前)에만 왔드라도 이놈을 무사히 꺾 먹고 갈 것인디, 여 쉬를 담뱃 썰었다.¹⁶⁵⁸⁾” 그 중 고기 욕심 있는 초동(樵童) 하나 썩 나서며, “야 요즘에는 내음만 없어도 먹는다. 코 뿔다 어따 쓸래. 좀 맞어 보라.” 이놈이 냄새를 위쪽에 대고 맡았으면 잘 꺾 먹고 올라갔을 것인디, 묘하게 그놈 아랫도리에다 코를 댔던가 보더라. 토끼 때는 이때다 하고 삼년 묵은 도토리 방구¹⁶⁵⁹⁾를 소리 없이 내어노니, “앗다. 그것 오장(五臟) 뒤집는다. 이런 것 먹다가 설사병(泄瀉病)으로 죽는다. 없애버려라. 아나 오작(烏鵲)구¹⁶⁶⁰⁾ 밥이나 되어라.” 뒷밭목 검쳐 잡고 싹 잡아 쏘아노니, 토끼란 놈 저 건너 깡짱¹⁶⁶¹⁾ 뛰어 나왔으며, “해해 사지(死地) 수궁 들어가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디, 무식한 너이들을 못 속일쏘냐!” 거기서 초동들 배 채우느라고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덜거리고 놀것다.

[중중모리]

관대장자(寬大長者)¹⁶⁶²⁾ 한고조(漢高祖)¹⁶⁶³⁾ 지혜(智慧/知慧)¹⁶⁶⁴⁾

1658) 썰었다 : 쓸었다. 슬었다.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깔기어 놓았다.

1659) 방구 : ‘방귀’의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충청, 평안 방언.

1660) 오작(烏鵲)구 : ‘오작구(烏鵲鳩, 까마귀 까치 비둘기)’나 ‘오작구(烏鵲鷗)’인 듯.

1661) 깡짱 : 짧은 다리를 모으고 가볍게 내뛰는 모양. ‘강장’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1662) 관대장자(寬大長者) : 너그럽고 후하며 점잖은 사람.

1663) 한고조(漢高祖) : 중국 한(漢)나라의 제1대 황제(기원전 247~기원전

많기가 날만 해, 소진(蘇秦)¹⁶⁶⁵, 장의(張儀)¹⁶⁶⁶ 구변(口辯)¹⁶⁶⁷인
 들 이내 말을 당할쏘냐? 삼국(三國) 시(時) 내 낳은들 공명(公明)
 선생이 나만 헐까! 전국 시 나 낳은들 김전이가¹⁶⁶⁸ 말을 헐까! 시
 리허고,¹⁶⁶⁹ 시리허다. 영산홍로[映山紅綠]¹⁶⁷⁰ 봄바람, 넘노나니 도
 화(桃花)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영(山影)¹⁶⁷¹ 수색(水色)을 그
 림 허고, 나는 나비 우난 새는 춘광(春光)¹⁶⁷² 춘흥(春興)¹⁶⁷³을 자

195). 성은 유(劉). 이름은 방(邦). 자는 계(季). 시호는 고황제(高皇帝). 고조
 는 묘호. 진시황이 죽은 다음 해 항우와 합세하여 진(秦)나라를 멸망시켰다.
 그 뒤 해하(垓下)의 싸움에서 항우를 대파하여 중국을 통일하고 제위에 올랐
 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206~기원전 195년이다.

1664) 지혜(智慧/知慧) :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
 하는 정신적 능력.

1665) 소진(蘇秦) : 중국 전국 시대의 유세가(遊說家)(기원전 ?~기원전 ?).

1666) 장의(張儀) : 중국 전국 시대 위(魏)나라의 정치가(기원전 ?~기원전
 309). 귀곡 선생(鬼谷先生)에게서 종횡(縱橫)의 술책을 배우고, 뒤에 진(秦)나
 라의 재상이 되어 연횡책을 6국에 유세(遊說)하여 열국으로 하여금 진나라에
 복종하도록 힘썼다.

1667) 구변(口辯) :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1668) 김전이가 : 미상(未詳).

1669) 시리허고 : 시리하고. ‘무성하고’의 울산, 진주 지역어. 『고향말여
 행.com』 참고.

1670) 영산홍로[映山紅綠] : 영산홍록(映山紅綠, 산에 붉고 푸른 것이 비치
 다). 조선 후기의 가객 안민영(安旻英)의 시조(時調)에 “영산홍록 봄벼름에
 황봉백접(黃蜂白蝶) 넘노는 듯”이라는 구절이 있다.

1671) 산영(山影) : 산의 그림자.

1672) 춘광(春光) : 봄철의 별. 또는 봄철의 경치.

1673) 춘흥(春興) : 봄철에 절로 일어나는 흥과 운치.

랑한다. 예 들던 청산 두견 자조¹⁶⁷⁴) 운다 각 새소리, 타향(他鄉)¹⁶⁷⁵) 수궁 갔든 벗님 고국산천(故國山川)이 반가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깡똥거리고 올라간다.”

[아니리]

이렇듯 거덜거리고¹⁶⁷⁶) 올라가는디, 이때어 난데없는 독수리 이삼일 주린 놈인디 어디로 가 이 주린 구복을 채우고 하고 날아다니는 판에 마치 요구감¹⁶⁷⁷)이 피작거리고¹⁶⁷⁸) 올라가니 우 하니 내려와 큰 쪽대¹⁶⁷⁹)로 콧 썰려노니,¹⁶⁸⁰) 이놈이 한 댕¹⁶⁸¹) 바뀌¹⁶⁸²) 궁글어¹⁶⁸³) 정신을 포로시¹⁶⁸⁴) 찾아 올려다본즉, 참 정떨어지게 생겼던가 보러다. 눈 오끔한¹⁶⁸⁵) 데다가 입뿌리¹⁶⁸⁶)가 낚시 뽀¹⁶⁸⁷)으로 생

1674) 자조 : ‘자주’의 경상, 전남, 충청 방언.

1675) 타향(他鄉) : 자기 고향이 아닌 고향.

1676) 거덜거리고 : 거덜피우고. ‘거들먹거리다’의 함남 방언.

1677) 요구감 : ‘먹잇감’의 뜻. ‘요구’는, ‘요기’의 강원, 경북, 전남 방언.

1678) 피작거리고 : ‘되작거리다’의 전라 방언.

1679) 쪽대 : 쪽대기. ‘죽지’의 경남, 함경 방언.

1680) 썰려노니 : 썰려노니. 썰리노니. ‘때리노니’의 경상, 전북, 충남 방언.

1681) 댕 : 댕. 다섯쯤 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1682) 바뀌 : ‘바뀌’의 경기, 경북, 충남 방언.

1683) 궁글어 : ‘굴러’의 경남, 전라 방언.

1684) 포로시 : ‘겨우’의 전남 방언.

1685) 오끔한 : ‘눈 주위가 움푹 들어가서 영큼하거나 성깔이 있는 듯한’의 전남 방언.

1686) 입뿌리 : ‘입부리(‘부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의 전북 방언.

졌난디, 천간¹⁶⁸⁸)이 녹을 지경이라. 독수리 또한 좋아라고 한바탕
노난디,

[늦은 중모리]

“얼씨구나 내 복이야.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을시고,
삼사 일 주렸더니 요구감을 얻었구나, 육진비¹⁶⁸⁹) 갓은¹⁶⁹⁰) 차
담¹⁶⁹¹) 이어서 더하오며, 홍문연(鴻門宴)¹⁶⁹²) 놓은 잔치 주물상(晝
物床)¹⁶⁹³)이 이 같으랴! 눈을 먼저 빼 먹을까? 코를 먼저 빼 먹을
까? 배를 갈라 간을 내어 식기 전에 먹어 볼까?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자화자자 좋을시구.”

1687) 뿐 : ‘본’의 경남, 제주 방언.

1688) 천간 : 미상. 사실에 따라, “옆구리 창이 나며 아끼든 간 다 녹난다”
(김진영·김현주 외 편저, 「박순호 소장 <수궁별주부·산중토처사전>」, 『토끼
전 전집』 3, 박이정출판사, 1998, 151쪽)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1689) 육진비 : ‘육진미(陸珍味)’나 ‘육진미(肉珍味)’의 변형인 듯하다. 사실에
따라, ‘팔진미(八珍味)’를 쓰기도 한다.

1690) 갓은 : 골고루 다 갓춘. 또는 여러 가지의.

1691) 차담 : ‘차반(맛있게 잘 차린 음식)’의 전남 방언.

1692) 홍문연(鴻門宴) : 중국 진(秦)나라 말에 산시성(陝西省)의 홍문(鴻門)
에서 열린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의 연회. 항우의 모신(謀臣)인 범증(范增)
의 계략으로 유방은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번쾌(樊噲)와 장량(張良)의 도움
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1693) 주물상(晝物床) :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간단하게 차려서 먼저 내오
는 음식상.

[아니리]

토끼 아무리 생각하여도 또 죽게 되었구나! 이놈이 또 한 피를 비
집난디, 거지¹⁶⁹⁴) 울음을 우는디.

[단중모리]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
고 내 팔자야. 나 죽기는 설참으나¹⁶⁹⁵) 내가 만일 죽게 되면 아까운
이사¹⁶⁹⁶) 줌치¹⁶⁹⁷) 무주공산(無主空山)에다 버려두고 임자 찾아 못
전혀고 이 자리에 죽게 되니, 이 아니 원통(冤痛)허오, 아이고 아이
고 내 신세야.”

[아니리]

독수리 가만히 말을 듣더니마는, “애 토끼야.” “예.” “그 의사¹⁶⁹⁸)
줌치가 무엇이간디, 니 죽기 보듬도 설참탄 말이냐?” “예, 장군님
의사 줌치 내력을 들어 보시오. 의사 줌치라는 보물(寶物)이 뒷인고
니 짝 피어 놓고 보면 일곱 궁기가 뚫퍼¹⁶⁹⁹) 있는디, 꼭 부채 뿐으

1694) 거지 : ‘거의’의 경북, 전남 방언. 사설에 따라, ‘거짓’을 쓰기도 한다.

1695) 설참으나 : 설참으나(‘설참으나’의 비규범 표기). 설지 았으나. 원통하
고 슬프참으나.

1696) 이사 : ‘의사’인 듯.

1697) 줌치 : ‘주머니’의 옛말.

1698) 의사 : ‘의사(意思)’인 듯하다.

1699) 뚫퍼 : 뜯퍼. ‘뚫러’의 전남 방언.

로 생겼죠. 한 궁기를 탁 탕기면¹⁷⁰⁰⁾ 도야지¹⁷⁰¹⁾ 새끼 나오너라 하면 한 번에 수백 마리가 나오고, 뽕아리¹⁷⁰²⁾ 새끼 나오너라 하면 일천오백 마리 아니라 일억 오천 마리가 꾸역꾸역 나오고, 개 창사¹⁷⁰³⁾ 노루 창사 나오느라 허면 그저 빨래줄¹⁷⁰⁴⁾ 나오듯 수백 발¹⁷⁰⁵⁾이 나오니 이런 보물이 어디가 있소. 헌디, 이런 보물을 저 바우¹⁷⁰⁶⁾ 틈 속에다 넣어 놓고 내가 이 자리에 죽게 되면, 그 보물을 누가 차지한단 말씀이오? 그러니 원통하기 짝이 없소.” 독수리 이 말 듣고 “거 좋은 보물 가지고 있구나! 그 좋은 보물을 어디서 냈느냐?” “예, 제가 일전에 남해 수궁 들어가 용왕한테 가리고 나왔지요.” “늑이 남해 수궁 들어갔단 말 얼핏¹⁷⁰⁷⁾ 들었다.” “그 용왕이 주신 보물인디, 그 보물을 뉘게 준단 말씀이오. 장군님 제발 덕분에 살려 주오.” 독수리가 이 말 듣더니 용심¹⁷⁰⁸⁾이 잔뜩 나것다. “이에, 토끼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니 그 의사 줌치라는 보물을 나를 도

1700) 탕기면 : ‘통기면’의 전남 방언.

1701) 도야지 : 돼지.

1702) 뽕아리 : ‘병아리’의 강원, 경상, 전라, 중국 길림성, 중국 흑룡강성 방언.

1703) 창사 : ‘창자’의 방언 경기, 경남, 전라, 충북 방언.

1704) 빨래줄 : ‘빨랫줄’의 경기, 경남, 전남, 충북 방언.

1705) 발 : 길이의 단위. 한 발은 두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 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이다.

1706) 바우 : ‘바위’의 강원, 경기, 경상, 전남, 충북 방언.

1707) 얼핏 : 얼푸시. ‘어렴풋이’의 경남 방언.

1708) 용심 : 남을 시기하는 심술궂은 마음.

라.¹⁷⁰⁹⁾” “아이고 장군님 생긴 것이 욕심(欲心/慾心)이 대단하여 줌치를 뺏고 나까지 잡아 잡수시라 그러시오.” “이야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 너와 나와 사촌(四寸) 의형제(義兄弟)¹⁷¹⁰⁾를 맺자.” “욕심 많은 장군님이 사촌을 아시리까?” “아이고 이놈아 너는 잠깐 요기(療飢)감밖에는 안 되고 그 줌치만 있고 보면 내 생전(生前)¹⁷¹¹⁾ 양식(糧食)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것구나! 그런 좋은 것을 준다면 내가 너를 어찌 잡아먹을 것이냐? 그러니 염려 말고 그 의사 줌치 날 닐다오.” “장군님 꼭 그럴 테면 저 건넌 바우 틈으로 갑시다.” 독수리 좋은 술병(瓶) 들 듯 토끼 두 귀 걸쳐 잡고 바우 앞에 다 내려노니 토끼란 놈 이놈 의심 없이 바우 틈으로 들어갈려고¹⁷¹²⁾ 하것다. “너 이놈 내가 니 발목 잡고 있을 테니 의사 줌치 가지고 나오너라.” “올체¹⁷¹³⁾ 그러시오 나 들어가오. 내 발목 잡으시오.” “오냐 잡었다.” “아이고 의사 줌치가 갈씬갈씬하오,¹⁷¹⁴⁾ 쪼끔만 놓시오.” “오냐 니 엄지발꾸락¹⁷¹⁵⁾ 잡었다.” “아이고 갈씬갈씬하니 쪼끔만 더 놓시오.” “오냐 너 발톱¹⁷¹⁶⁾ 잡었다.” “어허 조금만

1709) 도라 : ‘주라’의 옛말.

1710) 의형제(義兄弟) : 의로 맺은 형제.

1711) 생전(生前) : 살아 있는 동안.

1712) 들어갈려고 : 들어가려고.

1713) 올체 : 올제. ‘올지’의 전남 방언.

1714) 갈씬갈씬하오 : 겨우 조금 닿을락 말락 하오.

1715) 엄지발꾸락 : ‘엄지발가락’의 하동, 합천 지역어. 『고향말여행.com』참고.

1716) 발톱 : ‘발톱’의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방언.

더 놓으시오.” 이놈이 탁 차고 들어가 한가한 치¹⁷¹⁷)라고 시조 반(半) 장(章)을 썩 내놓는디,

[시창]

“반(半)나마¹⁷¹⁸) 늪었으니, 다시 젊기 어려워라!”

[아니리]

“네 이놈 토끼야. 그 한가한 치라고 진¹⁷¹⁹) 노래 허지 말고 어서 의사 춤치¹⁷²⁰) 가지고 나오너라. 내 일이 바쁘다.” “야 이놈 독수리! 죽게 된 내가 살았으니 이것이 의사 춤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무식한 놈아 어서 다른 데 가서 일 보아라.” 독수리 어이없어 내가 이리될 줄 알았지, 내가 욕심이 많으기에 이 분(憤/忿)함을 당하는구나! “네 이놈 토끼야, 너는 인자¹⁷²¹) 세상 구경 다했다. 네¹⁷²²) 가 너 굴 앞에 지켜 섰다가 나오기만 나오면 사지(四肢)¹⁷²³)를 쫓¹⁷²⁴)을 테니 그리 알아라.” “야, 이놈아 내 나이 팔십(八十)이 되

1717) 치 : ‘판’의 전남 방언.

1718) 반(半)나마 : 반 조금 지나게.

1719) 진 : ‘긴’의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제주, 충청, 함경, 중국 길림성, 중국 흑룡강성 방언.

1720) 춤치 : 주머니. 자질구레한 물품 따위를 넣어 허리에 차거나 들고 다니도록 만든 물건. 천이나 가죽 따위로 만든다.

1721) 인자 : ‘이제’의 경상, 전남 방언.

1722) 네 : 내.

1723) 사지(四肢) : 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었으니 어린 손자(孫子) 자식이나 봐 주고 수신제가(修身齊家)¹⁷²⁵⁾나 헐란다.” 독수리 더욱 기가 막혀, “예이¹⁷²⁶⁾ 빌어먹을 놈 잘 살 어라.”

[엇중모리]

독수리 하릴없이¹⁷²⁷⁾ 훨훨 날아가고, 그때 산신께옵서는 노퇴[老兔] 일(一) 수(首)¹⁷²⁸⁾를 보내어 대왕 병도 즉차 즉효 허고 태평가(太平歌)¹⁷²⁹⁾를 누렸더라. 어와 세상 벗님네들 이러한 미물(微物)¹⁷³⁰⁾들도 보국(報國)¹⁷³¹⁾ 충성(忠誠)을 다하거날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말을 즉히¹⁷³²⁾ 헐 수 있나, 나라에 충성허고 부모의게 효도허세. 그만 더덜 더덜.¹⁷³³⁾

1724) 찢 : 찢.

1725) 수신제가(修身齊家) :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리다.

1726) 예이 : 어떤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엇이 못마땅할 때 내는 소리.

1727) 하릴없이 :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1728) 수(首) : 닭이나 소 등의 일부 동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1729) 태평가(太平歌) : 아무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기뻐하여 부르는 노래.

1730) 미물(微物) : 인간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동물’을 이르는 말.

1731) 보국(報國) : 나라의 은혜를 갚다. 또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다.

1732) 즉히 : 사실에 따라, ‘족(足)히’를 쓰기도 한다.

1733) 더덜 더덜 : 더질더질. 판소리에서 끝을 맺는 말. ‘어질더질’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유튜브 『판찰라스(youtube.com/@판찰라스)』에서는 ‘더질더질’의 어원을 범어(梵語), Duh ‘Jiri(old age)’로 보기도 한다.

부록 - 차용 한시 모음(작가 가나다 순 - 작품 가나다
순,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차용 어구)

1.

1. 1. 시경(詩經) 대아(大雅) 생민지십(生民之什) 권아(卷阿) 9

鳳凰鳴矣(봉황명의) 봉황새가 울어대니
于彼高岡(우피고강) 저 높은 뫼이로다.
梧桐生矣(오동생의) 오동나무가 자라나니
于彼朝陽(우피조양) 저 별바른 양지쪽이로다.
莘莘萋萋(봉봉처처) 오동나무가 하 무성하니
雝雝喈喈(웅웅개개) 봉황새 소리 평화롭도다.

‘조양(朝陽)’은 산의 동쪽을 말한 것이며, 봉황은 어진 선비에, 오동은 밝은
임금에 비한 것이다. 이 시는 소공(召公)이 성왕(成王)을 따라 꼬부라진 언덕
에서 노닐 때, 성왕을 위하여 봉황 같은 현사(賢士)들을 널리 구하라는 뜻으
로 노래한 듯하다.

2. 고적(高適, 707?~765)

2. 1. 제야작(除夜作)

旅館寒燈獨不眠(여관한등독불면) 여관의 찬 등불에 홀로 잠 못 자나니

客心何事轉淒然(객심하사전처연) 나그네 마음 무슨 일로 점점 처연한가.
故鄉今夜思千里(고향금야사천리) 오늘 밤 고향 생각 천 리를 가고
愁鬢明朝又一年(수빈명조우일년) 흰머리로 내일 아침에 또 한 살을 먹겠네.

당(唐)나라 시인(詩人) 고적(高適)은 나이 50세에야 시를 짓기 시작했지만 재사(才思)가 특출했다고 한다. 자는 달부(達夫). 벼슬은 감찰어사·절도사를 지냈으며, 잠삼(岑參)과 더불어 변경(邊境)의 풍물을 읊었다.

3. 굴원(屈原, 기원전 340?~기원전 278?)

3. 1. 어부(漁父)

屈原既放 游於江潭 行吟澤畔 顏色憔悴 形容枯槁 漁父見而問之曰 子非三閭大夫與 何故至於斯 屈原曰 舉世皆濁 我獨清 衆人皆醉 我獨醒 是以見放 漁父曰 聖人 不凝滯於物而能與世推移 世人皆濁 何不淪 其泥而揚其波 衆人皆醉 何不餽 其糟而歠 其醢 何故 深思高舉 自令放爲 屈原曰 吾聞之 新沐者必彈冠 新浴者 必振衣 安能以身之察察 受物之汶汶者乎 寧赴湘流 葬於江魚之腹中 安能以皓皓之白 而蒙世俗之塵埃乎(굴원기방 유어강담 행음택반 안색 초취 형용고고 어부견이문지왈 자비삼려대부여 하고지어사 굴원왈 거세개탁 아독취 중인개취 아독성 시이견방 어부왈 성인 불응체어물 이능여세추이 세 인개탁 하불굴기니 이양기파 중인개취 하불포기조 이철기리 하고심사고거 자령방위 굴원왈 오문지 신목자필탄관 신육자필진의 안능이신지찰찰 수물지문 문자호 영부상류 장어강어지복중 안능이호호지백 이몽세속지진애호)

굴원이 쫓겨난 뒤 강가에서 서성이고 늪가에서 거닐며 시를 읊조릴 적에, 안색이 초취하고 모습은 수척했다. 어부가 그를 보고 물었다. “그대는 삼려대부(三閭大夫)가 아니오. 어쩌다가 여기에 이르렀소?” 굴원이 말했다. “온 세상

이 모두 흐린데 나만 홀로 맑고 모든 사람들이 다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어서, 이 때문에 추방을 당하였소.” 어부가 말했다. “성인은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과 더불어 옮겨가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흐리면 어찌하여 그 진흙탕을 휘저어 그 물결을 날리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취했으면 어찌하여 그 술지게미를 먹고 그 맑은 술을 마시지 않으시오? 무슨 까닭으로 깊이 생각하고 높이 행동하여 자신을 쫓겨나게 하였소?” 굴원이 말했다. “내가 들으니, 새로 머리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고, 새로 목욕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튄다고 하였소. 어떻게 자신의 깨끗함으로 상대의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 차라리 상수(湘水)의 물결에 뛰어들어 강의 물고기 배 속에 장사지내질지언정 어떻게 희고 흰 결백함으로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쓸 수 있겠소?”

漁父莞爾而笑 鼓枻而去 乃歌曰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遂去不復與言(어부완이이소 고설이거 내가왈 창랑지수청혜 가이탁 오영 창랑지수탁혜 가이탁오족 수거불부여언)

어부가 빙그레 웃고는 노를 저어 떠나면서 노래불렀다. “창랑(滄浪)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을 수 있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을 수 있다네.” 마침내 떠나서 더 이상 함께 말하지 않았다.

『중국의 명문장 감상』(김창환, 한국학술정보, 2011)을 참고했다.

굴원(屈原)은 전국(戰國) 시대(時代) 초(楚)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으로, 이름은 평(平)이고 자가 원(原)이다. 초(楚)나라 회왕(懷王) 시기에 좌도(左徒), 삼려대부(三閭大夫) 등을 역임하면서 제(齊)나라와 연합하여 진(秦)나라에 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경양왕(頃襄王) 시기에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쫓겨났는데, ‘어부(漁父)’는 이때 지은 글이다. 도를 지닌 채 은둔해 살고 있는 어부는 굴원에게 세상의 변화에 따라 더불어 살 것을 권했다. 이에 굴원은 자신의

고결함을 더럽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국 장사(長沙)의 역라수(汨羅水)에 투신하였다.

3. 2. 이소(離騷) 1

帝高陽之苗裔兮(제고양지묘예혜) 저는 하늘의 신 고양(高陽)의 후손이자

朕皇考曰伯庸(짐황고왈백용) 저의 태조는 백용(伯庸)이십니다.

攝提貞於孟陬兮(섭제정어맹추혜) 저는 인년(寅年) 정월,

惟庚寅吾以降(유경인오이강) 경인일(庚寅日)에 태어났습니다.

皇覽揆余初度兮(황람규여초도혜) 태조께서는 제가 갓 태어났을 때의 풍채를 살피시고

肇錫余以嘉名(조석여이가명) 점을 쳐 이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名余曰正則兮(명여왈정칙혜) 나의 이름을 정칙(正則)이라 하시고

字余曰靈均(자여왈영균) 자(字)를 영균(靈均)이라 하셨습니다.

紛吾既有此內美兮(분오기유차내미혜) 저는 이런 많은 아름다운 자질에

又重之以脩能(우중지이수능) 또 뛰어난 자태까지 갖췄습니다.

扈江離與闞芷兮(호강리여벽지혜) 강리(江離, 궁궁이)와 외진 곳에서 자라는 백지(白芷, 구릿대)를 들렀으며

紉秋蘭以為佩(인추란이위패) 가을 난초를 엮어서 노래개로 찻습니다.

汨余若將不及兮(울여약장불급혜)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빨라 따라잡을 수 없으니

恐年歲之不吾與(공년세지불오여)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朝搴阰之木蘭兮(조건비지목란혜) 아침에는 산비탈에서 목란을 꺾고

夕攬洲之宿莽(석람주지숙망) 저녁에는 물가의 모래톱에서 숙망(宿莽, 숙근초)을 꺾는다.

日月忽其不淹兮(일월홀기불엄혜) 해와 달은 한시라도 멈추지 않고,

春與秋其代序(춘여추기대서) 봄과 가을은 끊임없이 돌며 이어집니다.
 惟草木之零落兮(유초목지영락혜) 초목이 시들어 떨어질 것 생각하니
 恐美人之遲暮(공미인지지모) 아름다운 분 늙어 가시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不撫壯而棄穢兮(불무장이기예혜) 어찌 젊었을 때의 그릇된 행동들을 버리지
 않으십니까?
 何不改此度(하불개차도) 어찌 이런 모습을 고치지 않으십니까?
 乘騏驥以馳騁兮(승기기가치빙혜) 준마 타고 마음껏 달리십시오.
 來吾道夫先路(내오도부선로) 제가 앞에서 인도해드릴 테니.

『초사』(굴원·송옥 외 지음, 권용호 옮김, 글항아리, 2015)를 참고했다.
 「이소」의 의미에 대해 첫째 후한(後漢) 반고(班固, 32?~92)는 『이소찬서(離騷贊序)』에 “‘이’는 만나는 것이고, ‘소’는 근심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둘째 후한 왕일(王逸, 89?~158?)은 『초사장구(楚辭章句)』 「이소경서(離騷經序)」에서 “‘이’는 이별한다는 것이고, ‘소’는 근심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소(離騷)」는 굴원이 추방당한 후 유랑 중에 쓴 대표적인 작품으로, 모두 375개의 구에 2490자로, 그의 이상과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한편, 「이소경(離騷經)」이라 하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높여 부르는 이름이다.

4. 김정국(金正國, 1485~1541)

4. 1.

雨後清江興(우후청강흥) 비 온 뒤의 맑은 강의 흥을
 回頭問白鷗(회두문백구) 머리를 돌려 흰 갈매기에게 물으니,
 答云紅蓼月(답운홍료월) 대답하길 붉은 여뀌 달빛 아래
 漁笛數聲秋(어적수성추) 어부가 부는 피리 두어 소리 가을이어라.

김정국(金正國)은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1485~1541).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 중종 4년(1509)에 문과에 장원하고, 사간·승지를 지낸 뒤 기묘 사화 때에 삭탈관직이 되었으나, 그 뒤 병조 참의·공조 참의·형조 참판을 지냈다. 김굉필의 문인으로 학문과 시문이 뛰어났다. 저서에 “성리대전절요(性理大全節要)”,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 따위가 있다. 한편, 이 시를 무명씨(無名氏)의 작품으로 보는 이견(異見)도 있다.

5. 도연명(陶淵明, 365~427)

5. 1. 잡시(雜詩) 2

白日淪西阿(백일윤서아) 밝은 해 서쪽 언덕에 지고
 素月出東嶺(소월출동령) 흰 달은 동쪽 산에 뜨는구나.
 遙遙萬里輝(요요만리휘) 멀고 먼 만 리에 빛나는
 蕩蕩空中景(탕탕공중경) 넓고 넓은 공중의 경치로다.
 風來入房戶(풍래입방호) 바람 불어 방문에 드니
 中夜枕席冷(중야침석냉) 밤중에 베개와 자리가 차도다.
 氣變悟時易(기변오시역) 기후 변해 철 바뀐 것 깨닫고
 不眠知夕永(불면지석영) 잠을 못 이뤘 밤이 깊을 알게 된다.
 欲言無予和(욕언무여화) 말하려고 나와 어울릴 사람 없어
 揮杯勸孤影(휘배권고영) 잔 비우고 외로운 그림자에 술 권한다.
 日月擲人去(일월척인거) 해와 달은 사람을 버지고 가버리는데
 有志不獲騁(유지불획빙) 뜻을 품고서도 펼치지 못하는구나
 念此懷悲悽(염차회비처) 이 일을 생각하니 비참한 마음 들어
 終曉不能靜(종효불능정) 새벽 다가도록 내 마음 진정되지 않는다.

중국 남북조 시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는 도연명(陶淵明)의 작품이다.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자신은 이룬 것이 없다는 내용이다.

6. 두목(杜牧, 803~852)

6. 1. 박진회(泊秦淮)

煙籠寒水月籠沙(연롱한수월롱사) 찬 강물을 안개가 두르고 모래는 달빛이 두르는데

夜泊秦淮近酒家(야박진회근주가) 밤들어 진회에 배를 대니 술집이 가깝도다.

商女不知亡國恨(상녀부지망국한) 기녀들은 망국의 한을 모르는지

隔江猶唱後庭花(격강유창후정화) 아직도 강 건너서 후정화를 부르네.

진회(秦淮)는 유구한 남경 문화 중심지였다. 두목(杜牧)을 포함해 적지 않은 시인들이 이곳에서 명편을 남겼다.

7. 두보(杜甫, 712~770)

7. 1. 등악양루(登岳陽樓)

昔聞洞庭水(석문동정수) 예전부터 들었지 동팅호(洞庭湖, 동정호)의 물결

今上岳陽樓(금상악양루) 오늘에야 웨양루(岳陽樓, 악양루)에 오르네.

吳楚東南坼(오초동남탁) 오나라 초나라가 동쪽과 남쪽에 갈라섰고,

乾坤日夜浮(건곤일야부)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호수에 뜨네.

親朋無一字(친봉무일자) 친한 벗에게선 한줄 편지도 없고

老病有孤舟(노병유고주) 늙고 병든 몸만 외로운 배에 있네.
戎馬關山北(융마관산북) 관산 북쪽에선 전쟁 그치지 않으니
憑軒涕泗流(빙헌체사류) 난간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예전부터 사람들이 동팅호(洞庭湖, 동정호)의 기상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 왔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웨양루(岳陽樓, 악양루)에 올라 완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전쟁 통해 피난하여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웨양루에 올랐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서글픈 생각이 든다. 시 전반부의 장엄함이 마지막 구의 서글픔을 증폭시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8. 박문창(朴文昌, ?~?)

8. 1. 제곽산운흥관화병(題郭山雲興館畫屏, 곽산 운흥관에 있는 그림 병풍에 제하다)

萬頃滄波欲暮天(만경창파욕모천) 만경창파 푸른 바다 날 저물려 하는데
將魚換酒柳橋邊(장어환주유교변) 다리 걸선 물고기를 술과 서로 바꾸네.
客來問我興亡事(객래문아흥망사) 누가 와서 나에게 흥망의 일 묻기에
笑指蘆花月一船(소지노화월일선) 갈대꽃과 달 아래 배 웃으면서 가리키네.

한치윤(韓致胤)의 “해동역사(海東繹史)” 제49권에 실려 있다. “해동역사”는, 조선 영조 때에 한치윤이 엮은 사서(史書)이다. 우리나라의 것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역사책에서 단군에서 고려 시대까지의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을 뽑아서 엮었다. 70권.

9. 소식(蘇軾, 1036~1101)

9. 1. 전적벽부(前赤壁賦)

壬戌之秋 七月既望 蘇子與客泛舟遊於赤壁之下 清風徐來 水波不興 舉酒屬客 誦明月之詩 歌窈窕之章 少焉 月出於東山之上 徘徊於斗牛之間 白露橫江 水光接天 縱一葦之所如 凌萬頃之茫然 浩浩乎如憑虛御風 而不知其所止 飄飄乎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임술지추 칠월기망 소자여객범주유어적벽지하 청풍서래 수파불흥 거주축객 송명월지시 가요조지장 소연 월출어동산지상 배회 어두우지간 백로횡강 수광접천 종일위지소여 능만경지망연 호호호여빙허어풍 이부지기소지 표표호여유세독립 우화이등선)

임술 가을 7월 기망에 소자가 손과 배를 띄워 적벽 아래 노닐새, 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고 물결은 일지 않더라. 술을 들어 손에게 권하며 명월의 시를 외고 요조의 장을 노래하더니, 이윽고 달이 동쪽 산 위에 솟아올라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를 서성이더라. 흰 이슬은 강에 비끼고, 물빛은 하늘에 이었더라. 한 잎의 갈대 같은 배가 가는 대로 맡겨, 일만 이랑의 아득한 물결을 헤치니, 넓고도 넓게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 그칠 데를 알 수 없고, 가뭇가뭇 나무겨 인간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서, 날개가 돋치어 신선으로 돼 오르는 것 같더라.

於是飲酒樂甚 扣舷而歌之 歌曰 桂棹兮蘭槳 擊空明兮泝流光 渺渺兮予懷 望美人兮天一方 客有吹洞簫者 倚歌而和之 其聲嗚嗚然 如怨如慕 如泣如訴 餘音嫋嫋 不絕如縷 舞幽壑之潛蛟 泣孤舟之嫠婦(어시음주락심 구현이가지 가왈 계도혜난장 격공명혜소류광 묘묘혜여회 망미인혜천일방 객유취통소자 의가이 화지 기성오오연 여원여모 여읍여소 여음노노 부절여루 무유학지잠교 읍고주 지리부)

이에 술을 마시고 흥취가 도도해 뱃전을 두두리며 노래를 하니, 노래에 이르

기를 “계수나무 노와 목란 상앗대로 속이 흰히 들이비치는 물을 쳐 흐르는 달빛을 거슬러 오르도다. 아득한 내 생각이여, 미인을 하늘 한 가에 바라보도다.” 손 중에 통소를 부는 이 있어 노래를 따라 화답하니, 그 소리가 슬프고도 슬퍼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하는 듯, 여음이 가늘게 실같이 이어져 그윽한 골짜기의 물에 잠긴 교룡을 춤 추이고 외로운 배의 홀어미를 울릴레라.

蘇子愀然 正襟危坐 而問客曰 何為其然也(소자초연 정금위좌 이문객알 하위기연야)

소자가 근심스레 옷깃을 바루고 곧추앉아 손에게 묻기를 “어찌 그러한가?”하니,

客曰 月明星稀 烏鵲南飛 此非曹孟德之詩乎 西望夏口 東望武昌 山川相繆鬱乎蒼蒼 此非孟德之困於周郎者乎 方其破荊州 下江陵 順流而東也 舳艫千里 旌旗蔽空 釃酒臨江 橫槊賦詩 固一世之雄也 而今安在哉 況吾與子 漁樵於江渚之上 侶魚蝦而友麋鹿 駕一葉之扁舟 舉匏樽以相屬 寄蜉蝣於天地 渺滄海之一粟 哀吾生之須臾 羨長江之無窮 挾飛仙以遨遊 抱明月而長終 知不可乎驟得 託遺響於悲風(객알 월명성희 오작남비 차비조맹덕지시호 서망하구 동망무창 산천상무 울호창창 차비맹덕지곤어주량자호 방기파형주 하강릉 순류이동야 축로천리 정기폐공 시주림강 횡삭부시 고일세지용야 이금안재재 황오여자 어초어강저지상 여어하이우미록 가일엽지편주 거포준이상축 기부유어 천지 묘창해지일속 애오생지수유 선장강지무궁 협비선시오유 포명월이장종 지불가호취득 탁유향어비풍)

손이 말하기를 “달은 밝고 별은 성긴데, 까막까치가 남쪽으로 난다’는 것은 조맹덕의 시가 아닌가? 서쪽으로 하구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무창을 바라보니 산천이 서로 얽혀 뻗뻗이 푸르는데, 예는 맹덕이 주량에게 곤욕을 받은 데가 아

니던가? 바야흐로 형주를 깨뜨리고 강릉으로 내려갈 제, 흐름을 따라 동으로 감에 배는 천 리에 이어지고 깃발은 하늘을 가렸어라. 술을 걸러 강물을 굽어 보며 창을 비끼고 시를 읊으니 진실로 일세의 영웅이러니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나는 그대와 강가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며, 물고기와 새우를 짝하고 고라니와 사슴을 벗함어라. 한 잎의 좁은 배를 타고서 술을 들어 서로 권하며, 하루살이 삶을 천지에 부치니 아득한 넓은 바라의 한 알갱이 좁쌀알이로다. 우리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긴 강의 끝없음을 부럽게 여기노라. 나는 신선을 끼고 즐겁게 노닐며, 밝은 달을 안고서 길이 마치는 것은 갑자기 얻지 못할 줄 알새, 까치는 슬픈 바람에 부치노라.”

蘇子曰 客亦知夫水與月乎 逝者如斯 而未嘗往也 盈虛者如彼 而卒莫消長也 蓋將自其變者而觀之 則天地曾不能以一瞬 自其不變者而觀之 則物與我皆無盡也 而又何羨乎 且夫天地之間 物各有主 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 惟江上之清風 與山間之明月 耳得之而為聲 目遇之而成色 取之無禁 用之不竭 是造物者之無盡藏也 而吾與子之所共適(소자왈 객역지부수여월호 서자여사 이미상왕야 영허자여피 이졸막소장야 개장자기변자이관지 즉천지증불능이일순 자기불변자이관지 즉물여야개무진야 이우하선호 차부천지시간 물각유주 구비 오지소유 수일호이막취 유강상지청풍 여산간지명월 이득지이위성 목우지이성 색 취지무금 용지불갈 시조물자지무진장야 이오여자지소공적)

소자 말하되 “손도 저 물과 달을 아는가? 가는 것은 이와 같으되 일찍이 가지 않았으며, 차고 비는 것이 저와 같으되 마침내 줄고 늙어 없으니, 변하는 데서 보면 천지도 한 순간일 수밖에 없으며, 변하지 않는 데서 보면 사물과 내가 다 다함이 없으니 또 무엇을 부러워하리요? 또 천지 사이에 사물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어, 나의 소유가 아니면 한 터럭이라도 가지지 말 것이나,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에 띄이면 빛을 이루어서, 가져도 금할 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으니, 조물주의 다함

이 없는 갈무리로 나와 그대가 함께 누릴 바로다.”

客喜而笑 洗盞更酌 肴核既盡 杯盤狼藉 相與枕藉乎舟中 不知東方之既白(객희이소 세잔갱작 효핵기진 배반량자 상여침자호주중 부지동방지기백)
손이 기뻐하며 웃고,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드니 안주가 다하고 잔과 쟁반이 어지럽더라. 배 안에서 서로 팔을 베고 누워 동녘 하늘이 밝아 오는 줄도 몰랐어라.

이응백(李應百)이 읊긴 것에 기댔다.

호가 동파(東坡)인, 송의 문인인 소식(蘇軾)의 적벽부에 대해 『소동파 평전』(진영희 옮김, 지식산업사, 2012)의 저자인 임어당(林語堂, 린위탕)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우주 가운데 놓은 인간의 왜소함이 마치 산수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다. 산수화 가운데 깨알만큼 작게 그려진 두 사람이 달빛 아래 반짝이는 강 위에 조각배를 띄우고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독자들은 바로 이런 분위기에 빠진다.

9. 2. 징매역통조각(澄邁驛通潮閣)

其一

倦客愁聞歸路遙(권객수문귀로요) 고달픈 나그네가 귀로의 요원함 듣고 걱정하다

眼明飛閣俯長橋(안명비각부장교) 전망 좋은 높은 구각에서 긴 다리를 굽어보네.

貪看白鷺橫秋浦(탐간백로횡추포) 백로가 추포를 가로지르는 것을 정신없이 보다

不覺靑林沒晚潮(불각청림몰만조) 청산이 저녁 물결에 잠기는 것을 깨닫지 못

했네.

其二

余生欲老海南村(여생욕로해남촌) 남은 인생 해남에서 늙자구나 싶었더니
帝遣巫陽招我魂(제견무양초아혼) 하느님이 무양을 보내 나의 혼을 불러주네.
杳杳天低鵝沒處(묘묘천저골몰처) 까마득히 하늘이 내려앉고 송골매 사라진
곳에
靑山一髮是中原(청산일발시중원) 실낱같은 푸른 산이 바로 중원이라네.

‘무양(巫陽)’은 여자 무당의 이름이다. 『초사(楚辭)』 「초혼(招魂)」에 하
느님이 무양에게 명해 굴원의 영혼을 부르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청산일발
(靑山一髮)’은 푸른 산이 아주 멀어 마치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랗게 보이는 것
을 가리킨다.

10. 신광수(申光洙, 1712~1775)

10. 1. 등악양루탄관산용마(登岳陽樓歎關山戎馬)

秋江寂寞魚龍冷(추강적막어룡냉) 가을 강은 적막하고 물고기는 찬데
人在西風仲宣樓(인재서풍중선루) 사람은 서풍 부는 중선루에 있노라.
梅花萬國聽暮笛(매화만국청모적) 매화곡(梅花曲) 1만 나라 저물녘에 피리소
리
桃竹殘年隨白鷗(도죽잔년수백구) 도죽 지팡이에 의지한 늙은이 백구를 따르
노라.
烏蠻落照倚檻恨(오만낙조의함한) 해지는 저녁, 오만의 땅에서 난간에 기대니
直北兵塵何日休(직북병진하일휴) 북녘 전쟁은 어느 때나 그칠런가.

春花故國濺淚後(춘화고국천루후) 고향의 봄꽃에 눈물 흘리며 떠난 뒤
 何處江山非我愁(하처강산비아수) 어느 곳 강과 산이 나의 근심 아니리오.
 新蒲細柳曲江苑(신평세류곡강원) 새 부들, 가는 버들 늘어선 곡강의 동산
 玉露青楓夔子州(옥로청풍기자주) 옥 이슬, 푸른 단풍 기자의 고을이라.
 靑袍一上萬里船(청포일상만리선) 푸른 도포로 한번 만 리 뱃길에 오르니
 洞庭如天波始秋(동정여천파시추) 하늘 같은 동팅호 물결이 가을을 알린다.
 無邊楚色七百里(무변초색칠백리) 끝없는 초나라 경물 칠백 리
 自古高樓湖上浮(자고고루호상부) 예부터 높은 누각 호수 위에 떠있었다.
 秋聲徙倚落木天(추성사의낙목천) 가을소리는 낙엽 지는 가을에 윽아와 기대
 어
 眼力初窮靑草洲(안력초궁청초주) 청초호(靑草湖)를 끝없이 바라보노라.
 風煙非不滿目來(풍연비불만목래) 바람과 안개 눈에 가득 한없이 부는데
 不幸東南飄泊遊(불행동남표박유) 불행히도 나는 동남으로 떠도는구나.
 中原幾處戰鼓多(중원기처전고다) 중원 땅에는 몇 곳이나 전쟁이 잦은가
 臣甫先爲天下憂(신보선위천하우) 신하인 두보는 남 먼저 세상 위해 근심하였
 어라.
 靑山白水寡婦哭(청산백수과부곡) 푸른 산, 깨끗한 물가에서 과부는 울었고
 苜蓿葡萄胡馬啣(목숙포도호마추) 거여목과 포도 우거진 곳에 오랑캐 말도 울
 었다.
 開元花鳥鎖繡嶺(개원화조쇄수령) 개원 연간의 꽃과 새들은 수령궁에 갇혀서
 泣聽江南紅荳謳(읍청강남홍두구) 눈물을 흘리며 강남의 붉은 콩 노래를 들었
 어라.
 西垣梧竹舊拾遺(서원오죽구습유) 서원의 오동나무와 대나무는 옛 습유의 것
 이리니
 楚戶霜砧餘白頭(초호상침여백두) 초 민가의 서리 낀 다듬이소리 백발만 남았
 구나.

蕭蕭孤棹犯百蠻(소소고도범백만) 쓸쓸하고 외로운 배가 백만 지역으로 들어
가니

百年生淮三峽舟(백년생회삼협주) 백년 인생이 삼협을 지나는 배와 같구나.
風塵弟妹淚欲枯(풍진제매루욕고) 풍진 속에 오누이들 눈물이 마르려고 하고
湖海親明書不投(호해친명서불투) 호수와 바닷가 친구 소식마저 전하지 못하
는구나.

如萍天地此樓高(여평천지차루고) 떠도는 부들 같은 세상, 이 높은 누각
亂代登臨悲楚囚(난대등림비초수) 어지러운 시대 올라보니 초나라 죄수가 슬
퍼진다.

西京萬事奕棋場(서경만사혁기장) 서경의 온갖 일들이 한 바탕 혁기판
北望黃屋平安不(북망황옥평안부) 북으로 임금님의 안부가 어떠한지 알고 싶
도다.

巴陵春酒不成醉(파릉춘주불성취) 파릉의 봄술에 취하지 못하여
金囊無心風物收(금낭무심풍물수) 비단주머니에 풍물을 담을 마음이 없어진다.
朝宗江漢此何地(조종강한차하지) 조종강한, 이것들이 어떠한 땅인가
等閒瀟湘樓下流(등한소상루하류) 한가하게 샬오상(瀟湘, 소상)의 강물은 누대
아래로 흘러간다.

蛟龍在水虎在山(교룡재수호재산) 교룡은 물에 있고, 범은 산에 있나니
靑瑣朝班年幾周(청쇄조반년기주) 궁궐에서 조회하던 일이 몇 년이나 지났는
가.

君山元氣莽蒼邊(군산원기망창변) 차고도 아득한 돌레 군산의 원기가 서려있
고

一簾斜陽不滿鉤(일림사양불만구) 한 발 지는 해는 고리에도 차지 않는다.
三聲楚猿喚愁生(삼성초원환수생) 초나라 원숭이 세 마디의 우는 소리 근심을
불러와

眼穿京華倚斗牛(안천경화의두우) 두우성에 기대어 서울을 눈이 뚫어지게 바

라본다.

『석북시집·자하시집』(신광수·신위 저, 신석초 역, 명문당, 2003) 등을 참고했다.

신광수(申光洙)는 조선 영조 때의 문신. 자는 성연(聖淵). 호는 석북(石北)·오악산인(五嶽山人). 서화(書畫)에 뛰어났으며, 저서에 “부해록(浮海錄)”, “석북집” 따위가 있다.

이 시는 칠언배율로 과체시(科體詩)의 하나이다. ‘관산용마’로 약칭된다. 작자 신광수는 34세 때에 한성시(漢城試)에서 2등에 뽑혔다. 방이 나자 그의 시는 곧 널리 퍼져서 관현가사(管絃歌詞)에 올라 악원(樂院)과 기방(妓房)에서 200여 년 동안 불렸다. ‘등악양루탄관산용마’의 글제는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고사(故事)에서 나온 것이다.

‘등악양루탄관산용마’는 두보가 등팅호(洞庭湖) 웨양루(岳陽樓)에 올라 고향의 난리를 생각하며 ‘등악양루’라는 시제로 시를 지은 것을 주제로 한 것이다. 이 작품은 당시의 과시(科試)들과는 의취를 달리해서 오랫동안 폐습으로 소루하여진 공령시(功令詩)에 개혁을 시도한 것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등악양루탄관산용마’는 신석초(申石艸)의 번역으로 “석북시집(石北詩集)”에 원문과 함께 수록되어 있고, “송문연방집(崇文聯芳集)” 속에 들어 있는 “석북문집(石北文集)” 권10의 끝 여백에 필사하여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관산용마’는 가락에 맞추어 토를 달아 서도가요(西道歌謠)의 하나로 관서의 기생 사이에 널리 애창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encykorea.aks.ac.kr) 등을 참고했다.

11. 왕유(王維, 701?~761?)

11. 1. 송별(送別)

山中相送罷(산중상송파) 산 속에서 그대를 보내고 홀로 돌아오니
 日暮掩柴扉(일모엄시비) 해가 저물어 사립문을 잠그노라.
 春草明年綠(춘초명년록) 저 풀들은 내년 봄에도 다시 푸르겠지만
 王孫歸不歸(왕손귀불귀) 떠나간 그대는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왕손(王孫)이 여기서는 왕의 자손이라기보다는, 귀한 친구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 시는, 『초사(楚辭)』 「초은사(招隱士)」의 “왕손유혜불귀(王孫游兮不歸), 춘초생혜처처(春草生兮萋萋)”라는 구절을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12. 유우석(劉禹錫, 772~842)

12. 1. 추풍인(秋風引)

何處秋風至(하처추풍지) 어느 곳에서 가을바람 불어와
 蕭蕭送雁群(소소송안군) 쓸쓸히 기러기 떼 보내는가.
 朝來入庭樹(조래입정수) 이른 아침 정원의 나무에도 들어오니
 孤客最先聞(고객최선문) 외로운 나그네가 가장 먼저 들어라.

『당시별재집』 5(심덕잠 엮음, 서성 옮김, 소명출판, 2013) 331쪽 등을 참고했다.

유우석(劉禹錫)은 루양(洛陽, 낙양) 사람이다. 일찍이 왕숙문(王叔文) 개혁단체에 참가하여 환관·변진 세력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에 실패한 후, 낭주사마(郎州司馬)로 좌천되었다가 후에 연주자사(連州刺史)가 되었다.

가을이 되어 기러기가 남으로 내려온 데서 자신 역시 후난성(湖南省, 호남

성) 낭주(郎州)으로 내려와 있는 처지를 비유한 듯하다. 고적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13. 이공좌복(李公佐僕, ?~?)

13. 1. 목객(木客)

酒盡君莫沽(주진군막고) 술이 다했거든 그대여 다시 사 오지 말게
壺傾我當發(호경아당발) 병이 바닥이 나면 나는 곧 떠날 것이네.
城市多囂塵(성시다효진) 도시는 너무 시끄러우니
還山弄明月(환산농명월) 산에 돌아가 밝은 달이나 희롱하러네.

‘이공좌복(李公佐僕)’은, 이공좌(李公佐)의 종[僕]이다. ‘이공좌(770?~850?)’는, 당나라 농서(隴西) 사람. 전기 소설 작가. 자는 전몽(顛蒙)이다. 생애는 확실하지 않지만 9세기 전반에 활동했다.

14. 이백(李白, 701~762)

14. 1.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台)

鳳凰臺上鳳凰遊(봉황대상봉황유) 봉황대에 봉황새 노닐더니
鳳去台空江自流(봉거대공강자류) 봉황 떠난 뒤 누대 비고 강물만 절로 흐른다.
吳宮花草埋幽徑(오궁화초매유경) 오나라 궁궐의 화초는 외딴길에 묻혔고
晉代衣冠成古丘(진대의관성고구) 진대의 귀족들은 옛 무덤 언덕 되었네.
三山半落青天外(삼산반락청천외) 삼산 봉우리 반쯤이 푸른 하늘 밖으로 솟아

있고

二水中分白鷺洲(이수중분백로주) 두 강물이 백로주를 가운데 두고 나뉘어 흐른다.

總為浮雲能蔽日(총위부운능폐일) 온통 뜬구름이 해를 가리는지
長安不見使人愁(장안불견사인수) 장안이 보이지 않아 내 마음 저려 오네.

미련(尾聯)에서 뜬구름이 해를 가리듯 간사한 신하들이 천자의 총명을 가렸다고 하여, 국가의 사직과 자신의 행로에 대한 감회를 담았다.

14. 2. 등여산오로봉(登廬山五老峰)

廬山東南五老峰(여산동남오로봉) 루산(廬山, 여산) 동남의 오로봉은
青天削出金芙蓉(청천삭출금부용) 푸른 하늘에 깎여 나온 황금 연꽃 같네.
九江秀色可攬結(구강수색가람결) 규장(九江)의 빼어난 경색 한 손에 잡힐 듯
하니
吾將此地巢雲松(오장차지소운송) 나는 장차 여기 구름 덮인 소나무에 깃들려
네.

시성(詩聖) 두보와 함께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되었던 시선(詩仙) 이백의 작품이다. 루산(廬山, 여산)은 중국 장쑤성(江蘇省, 강소성) 규장현(九江縣, 구강현) 남쪽에 위치한 명산이다. 그중 제일 아름다운 봉우리가 남동쪽에 위치한 오로봉이다. 봉우리의 모양이 연꽃처럼 생겼다고 한다.

14. 3. 배족숙형부시랑엽급중서가사인지유동정오수(陪族叔刑部侍郎曄及中書賈舍人至遊洞庭五首) 1수

洞庭西望楚江分(동정서망초강분) 동팅호의 서녘 아득한 저기서는 초강(楚江) 나뉘고

水盡南天不見雲(수진남천불견운) 남쪽 하늘 물이 다하는 곳 아 한 점 구름도 없이.

日落長沙秋色遠(일락장사추색원) 해는 장사에 떨어지고 가을빛은 먼데
不知何處吊湘君(부지하처조상군) 어디서 상군(湘君)을 조문할까 모르노라.

『이백 오칠언절구』(이백 지음, 황선재 역주, 문학과지성사, 2006) 등을 참고했다. 제목의 뜻은 ‘숙부이신 이엽 형부시랑과 중서사인 가지(賈至)를 따라 동팅호(洞庭湖)에 논다’이다. 특히 가지는 시인으로서 저명한 사람이어서, 이 때에 쓴 시 1편이 전한다고 한다.

‘초강(楚江)’은, 장강을 가리킨다. 옛날에는 흐르는 곳이 초 지방에 속했으므로 초강이라 불렀다고 한다. ‘상군(湘君)’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수(湘水)의 신(神). 요임금의 두 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순임금에게 시집갔다가 순임금이 죽자 상수(湘水)에 빠져 죽어 신이 되었다고 한다.

14. 4.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

峨眉山月半輪秋(아미산월반륜추) 어메이산(峨眉山, 아미산)의 가을 달은 반월 형의 달인데

影入平姜江水流(영입평강강수류) 평강강에 비친 달 강물과 함께 흐르누나.
夜發清溪向三峽(야발청계향삼협) 밤에 청계를 출발하여 삼협으로 향하는데
思君不見下渝州(사군불견하유주) 그리운 그대 보지 못한 채 유주로 내려가네.

어메이산(峨眉山, 아미산), 평강강(平姜江), 청계(清溪), 삼협(三峽), 유주(渝州) 등의 고유명사가 많이 사용되었음에도 크게 어색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

다. 이 시는 고래(古來)로 명작으로 꼽힌다.

14. 5. 양양가(襄陽歌)

落日欲沒岷山西(낙일욕몰현산서) 석양이 현산 서쪽에 지려 하는데
倒著接羅花下迷(도착접리화하미) 술 취해 두건 거꾸로 쓰고 꽃 아래에 혼미
하네.

襄陽小兒齊拍手(양양소아제박수) 양양의 소아들 일제히 손뼉 치며
攔街爭唱白銅鞮(난가쟁창백동제) 길거리 막고 다투어 백동제 부르누나.
傍人借問笑何事(방인차문소하사) 옆 사람 무슨 일로 웃느냐고 물으니
笑殺山翁醉似泥(소쇄산옹취사니) 산사람 엉망으로 취한 것 우습다고 하네.

鸕鷀杓(노자작) 노자(가마우지)의 술 국자와

鸚鵡杯(앵무배) 앵무의 잔으로

百年三萬六千日(백년삼만육천일) 백년 삼만 육천 일에

一日須傾三百杯(일일수경삼백배) 하루에도 모름지기 삼백 잔은 기울여야 하
네.

遙看漢水鴨頭綠(요간한수압두록) 멀리 한수이(漢水, 한수) 바라보니 오리 머
리처럼 푸르러

恰似葡萄初醱醅(흡사포도초발배) 흡사 포도주가 처음 발효하는 것 같구나.

此江若變作春酒(차강약변작춘주) 이 강물 만약 변하여 봄 술 되게 한다면

壘麴便築糟丘台(누곡편축조구태) 쌓인 누룩으로 곧 조구의 누대 쌓으리라.

千金駿馬換小妾(천금준마환소첩) 천금의 준마와 소첩 바꾸고는

笑坐雕鞍歌落梅(소좌조안가낙매) 웃으며 금 안장에 앉아 낙매가 부르누나.

車傍側掛一壺酒(거방측괘일호주) 수레 곁에 한 병의 술 기울여 걸어놓으니

鳳笙龍管行相催(봉생용관행상최) 봉황 생황과 용 피리로 가면서 서로 재촉하
네.

咸陽市中歎黃犬(함양시중탄황견) 셴양(咸陽, 함양)의 시장에서 누런 개 한탄 함이

何如月下傾金疊(하어월하경금뢰) 어찌 달 아래에서 금 술잔 기울임만 하겠는가.

君不見晉朝羊公一片石(군불견진조양공일편석)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진나라 양공의 한 조각 비석이

龜頭剝落生莓苔(구두박락생매태) 용머리와 거북 좌대 깨져 떨어지고 이끼만 끼어 있네.

淚亦不能為之墮(누역불능위지타) 눈물도 또한 떨어뜨릴 수 없고

心亦不能為之哀(심역불능위지애) 마음도 또한 슬퍼할 수 없도오.

淸風朗月不用一錢買(청풍낭월불용일전매) 청풍명월은 일전도 주고 살 필요 없으니

玉山自倒非人推(옥산자도비인퇴) 옥산이 절로 무너졌고 사람이 떠민 것 아니라고.

舒州杓(서주작) 서주의 술 국자와

力士鎗(역사당) 역사의 술 양푼이여

李白與爾同死生(이백여이동사생) 이백은 이것들과 사생을 함께하리라.

襄王雲雨今安在(양왕운우금안재) 양왕의 운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江水東流猿夜聲(강수동류원야성)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원숭이는 밤에 슬피 우누나.

진(晉)나라 양호(羊祜)의 타루비(墮淚碑)가 ‘현산(峴山)’에 있다. 양호가 죽자 산 위에 비석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산간(山簡)이 술에 취해 다녔던 습가지(習家池)도 있다. 술 취해 ‘두건(接羅)’을 거꾸로 쓰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들 등을 시재(詩材)로 삼았다.

15. 이세귀(李世龜, 1646~1700)

15. 1.

錦水秋波涵白蘋(금수추파함백빈) 비단 같은 가을 물결이 흰 마름꽃을 적시고
鷄山紅葉勝三春(계산홍엽승삼춘) 계산의 붉은 잎은 이른 봄 석 달을 이긴다.

心遊靜界留前債(심유정계유전채)

手摘寒花送遠人(수적한화송원인)

滿案詩書皆益友(만안시서개익우)

隔林魚鳥亦芳隣(격림어조역방린)

煩君到地須勤學(번군도지수근학)

歲暮重逢趣更新(세모중봉취경신)

『양와집(養窩集)』에 수록된 시이다. 문집에 대한 한국학종합 DB(db.mkstudy.com)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 양와(養窩) 이세귀(李世龜, 1646~1700)의 문집이다. 저자의 유적은 소론의 중진인 아들 이광좌(李光佐)가 행록과 유사를 지어 가장하였고, 가화(家禍)의 영향과 후손의 영체(零替)로 인하여 저자의 문집이 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집은 전사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개인사본으로, 불분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세귀는 조선 후기에, 상의원첨정, 홍주목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수옹(壽翁), 호는 양와(養窩).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이며, 아버지는 성주목사 이시현(李時顯)이다. 박장원(朴長遠)의 문인이다.

편자의 능력 부족에 대해 너른 양해를 구한다.

16. 이하(李賀, 790~816)

16. 1. 장진주(將進酒)

琉璃鐘(유리종) 유리 술잔에

琥珀濃(호박농) 호박 빛깔 술이 짙으니

小槽酒滴真珠紅(소조주적진주홍) 작은 술통에는 술방울이 진주처럼 붉구나.

烹龍炮鳳玉脂泣(팽룡포봉옥지읍) 용 삶고 봉황 구워 옥 같은 기름 흐르고

羅屏繡幕圍香風(나병수막위향풍) 비단 휘장과 수놓은 장막에는 향기로운 바람 에워쌌네.

吹龍笛(취용적) 용적 불고

擊鼙鼓(격타고) 악어가죽 북 치니

皓齒歌(호치가) 하얀 이의 미인 노래하고

細腰舞(세요무) 가는 허리의 미녀 춤춘다오.

況是青春日將暮(황시청춘일장모) 더구나 화창한 봄에 해가 장차 저물려 하니

桃花亂落如紅雨(도화난락여홍우) 복숭아꽃 어지러이 떨어져 붉은 비 같구나.

勸君終日醕醑醉(권군종일명정취) 그대에게 권하노니 종일토록 실컷 취하라

酒不到劉伶墳上土(주부도유령분상토) 술은 유령(劉伶)의 무덤 위 흙에는 이르지 않나니.

‘팽룡포봉(烹龍炮鳳)’은 용을 삶고 봉황을 구운 것으로, 진귀한 안주나 호사스런 음식을 비유한다. ‘용적(龍笛)’은 용의 소리를 내는 피리이다. 끝줄, ‘유령(劉伶)’은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이다.

17. 장계(張繼, ?~?)

17. 1. 풍교야박(楓橋夜泊)

月落烏啼霜滿天(월락오제제상만천) 달 지고 까마귀 우는데 서리가 하늘에 가득하네

江楓漁父對愁眠(강풍어부대수면) 강가 단풍잎도 어부도 시름겨워 잠 못 이루는 나그네 마주하네.

姑蘇城外寒山寺(고소성외한산사) 고소성 밖 한산사

夜半鐘聲到客船(야반종성도객선) 오밤중 종소리가 객선까지 들려오네.

장계(張繼)는 753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시각, 청각, 촉각의 결과만을 묘사한 것 같으나 그 속에 나그네의 심정을 차분히 함께 담고 있다.

18. 잠삼(岑參, 715?~770)

18. 1. 태백호승가(太白胡僧歌)

聞有胡僧在太白(문유호승재태백) 듣자니 호승이 태백산에 산다는데

蘭若去天三百尺(난약거천삼백척) 절이 하늘에서 겨우 삼백 척 아래라지.

一持楞伽入中峰(일지능가입중봉) 한번 능가경을 들고 중봉으로 들어가서

世人難見但聞鐘(세인난견단문종) 세인들은 볼 수 없고 종소리만 듣는다지.

窓邊錫杖解兩虎(창변석장해양호) 창 앞에서 석장으로 두 마리 범 싸움 말리고

床下鉢盂藏一龍(상하발우장일룡) 상 아래 바리때에다 용 한 마리 잡아 두었다지.

草衣不針複不線(초의불침부불선) 풀 엮은 옷 바느질 않고 숨은 김지도 않았는데

兩耳垂肩眉覆面(양이수견미복면) 두 귀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눈썹은 낮을 덮

었지.

此僧年幾那得知(차승년기나득지) 이 스님 연세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마는
手種靑松今十圍(수종청송금십위) 손수 심은 푸른 소나무가 열 아름이라지.
心將流水同淸淨(심장유수동청정) 마음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맑고도 깨끗한데
身與浮雲無是非(신여부운무시비) 몸은 뜬 구름처럼 시비를 따지지 않는다네.
商山老人已曾識(상산노인이증식) 상산의 네 노인네인 줄 이미 알고 있기에
願一見之何由得(원일견지하유득) 나도 한번 만나 보고 싶으니 어찌해야 하는
가?

山中有僧人不識(산중유승인부지) 산중에 스님이 있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
니

城裏看山空黛色(성리간산공대색) 성안에서 부질없이 검푸른 산 빛만 본다지.

『조선 사람이 좋아한 당시』(이종묵 평설, 민음사, 2022) 474~482쪽에 기
뒀다.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序文)이 달려 있다고 한다.

“태백산(太白山) 중봉의 꼭대기에 호승(胡僧)이 있는데 몇백 살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눈썹이 몇 치 길이고 몸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고 풀과 잎
으로 엮은 것을 입고 있는데 늘 『능가경(楞伽經)』을 지니고 있다. 구름 덮
인 멀고 끊어진 절벽이라 인적이 거의 이르지 않는다. 일찍이 동쪽 봉우리에
범이 싸우는데 약한 놈이 죽게 되자 호승이 지팡이로 쳐서 구해 주었다. 또
서쪽 못에 악한 용이 있어 오래도록 우환이 되었는데 호승이 그릇을 만들어
그 속에 가두어 두었다. 상산(商山)의 조 씨(趙氏) 늙은이가 몇 년 전 복령
(茯苓)을 채취하려 태백산 깊이 들어갔다가 우연히 이 호승을 만났다. 그 후
나를 보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내가 늘 홀로 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
었기에 듣고 기뻐 노래를 짓는다.”(이종묵 평역, 『조선 사람이 좋아한 당
시』, 민음사, 2022, 476쪽)

19. 장지화(張志和, 730?~810?)

19. 1. 어부(漁父) 기일(其一)

西塞山前白鷺飛(서새산전백로비) 서새산 앞에는 백로가 나는데
桃花流水鱖魚肥(도화유수궤어비) 복사꽃 물에 떠서 흐르고 쏘가리가 살졌네.
青箬笠, 綠蓑衣(청약립, 녹사립) 푸른 삿갓 쓰고, 초록색 도롱이 걸쳤으니
斜風細雨不須歸(사풍세우불수귀) 비낀 바람 가랑비에 굳이 돌아갈 것 없네.

장지화(張志和)는 중국(中國) 당(唐)나라 때의 선인(仙人)이다. 물 위에 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술을 마시면, 그의 머리 위에서는 학(鶴)이 춤추었다 한다. 동양화(東洋畫) 화제(畫題)로 쓰인다. 은자로서, 벼슬을 버리고 강호에서 연파조수(烟波釣叟)라 일컬으며 어부로 살았다. 호 현진자(玄眞子). 이 시는 ‘어부(漁父)’의 기일(其一)로, ‘청약립녹사의(靑蓑笠綠蓑衣)’로도 불린다.

20. 전기(錢起, 722~780)

20. 1. 성시상령고슬(省試湘靈鼓瑟)

善鼓雲和瑟(선고운화슬) 운화산 나무로 만든 슬(瑟) 잘 탔다 하여
常聞帝子靈(상문제자령) 항상 상장강(湘江江, 상강강) 여신 얘기 들었다네.
馮夷空自舞(풍이공자무) 물의 신 풍이(馮夷)는 하릴없이 춤을 추건만
楚客不堪聽(초객불감청) 초객(楚客)은 감히 듣지 못하네.
苦調淒金石(고조처금석) 애처로운 가락은 구슬프게 악기로
淸音入杳冥(청음입묘명) 맑은 소리로 아득히 먼 곳으로 드네.
蒼梧來怨慕(창오래원모) 창오(蒼梧)의 원망과 그리움 다가오는데

白芷動芳馨(백지동방형) 구릿대 뿌리 꽃향기 퍼뜨린다네.

流水傳瀟浦(유수전소포) 흐르는 물은 샹오수이(瀟水, 소수)의 포구로 전해지고

悲風過洞庭(비풍과동정) 슬픈 바람은 동팅호를 지나가네.

曲終人不見(곡종인불견) 곡조 끝나자 사람은 아니 뵈고

江上數峰青(강상수봉청) 강 위에 두어 봉만 새파랗구나.

제목의 뜻은, 진사 시험 제목 ‘상수의 영령이 슬(瑟)을 타다’이다. ‘슬’은, 중국 고대 아악기의 하나. 앞은 오동나무로 만들고 뒤는 밤나무로 만들어 25줄을 매었다. 참고로, 『초사(楚辭)』 「원유(遠遊)」에 “사상령고슬혜(使湘靈鼓瑟兮) 영해약무풍이(令海若舞馮夷)”라는 구절이 있기도 하다.

21. 조조(曹操, 155~220)

21. 1. 단가행(短歌行)

對酒當歌(대주당가) 술잔을 대하고 노래 부르니

人生幾何(인생기하) 인생은 그 얼마인가?

譬如朝露(비여조로) 아침 이슬 아니린가

去日苦多(거일고다) 지난 세월 괴로움도 많았지.

慨當以慷(개당이강) 마음이 북받쳐 오르니

憂思難忘(우사난망) 근심을 잊기 어려워라.

何以解憂(하이해우) 어찌하면 이 근심을 잊을까

惟有杜康(유유두강) 오직 술이 있을 뿐이로다.

青青子衿(청청자금) 푸르른 그대의 옷깃

悠悠我心(유유아심) 아득한 내 마음이어.

呦呦鹿鳴(유유녹명) 사슴은 우우 울어 대며
 食野之苹(식야지평) 들판의 쭉을 뜯는구나.
 我有嘉賓(아유가빈) 나에게 좋은 손님 오셨으니
 鼓瑟吹笙(고슬취생) 거문고 타고 생황 부세.
 皎皎如月(교교여월) 밝고 밝은 달빛 같은 것이
 何時可輟(하시가철) 그 어느 때나 그치려나?
 憂從中來(우중중래) 시름도 이 안에서 나오니
 不可斷絕(불가단절) 끊을 수가 없구나.
 越陌度阡(월맥도천) 두둑 넘고 두렁 넘어
 枉用相存(왕용상존) 손님들 수고를 마다 않고 찾아오신다.
 契闊談讌(결활담연) 오랜만에 모여 잔치하고 즐기니
 心念舊恩(심념구은) 옛 은정 마음에 그려지네.
 月明星稀(월명성희) 달이 밝으니 별은 드문데
 烏鵲南飛(오작남비) 까막까치는 남으로 날아오누나.
 遶樹三匝(요수삼잡) 나무를 여러 번 돌지만
 無枝可依(무지가의) 의지할 가지 없어라.
 山不厭高(산불염고) 산은 높기를 마다하지 않고
 水不厭深(수불염심) 물은 깊기를 마다하지 않네.
 周公吐哺(주공토포) 주공처럼 수저를 놓으며 맞으니
 天下歸心(천하귀심) 천하가 한마음으로 돌아왔다네.

「대주당가(對酒當歌)」라고도 하는 이 시는 208년 조조가 오(吳)나라 손권(孫權)과 유비(劉備)의 연합군과의 적벽 전투를 앞에 두고 장강의 밤경치를 바라보면서 지은 것이다. 조조가 이 노래를 부른 후에 모두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는데 양저우(揚州) 자사 유복(劉馥)이 “달이 밝으니 별은 드문데 까막까치는 남으로 날아오누나. 나무를 여러 번 돌지만 의지할 가지 없어라”라

는 구절이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다. 흥이 깨진 조조는 그 자리에서 유복을 찢어 죽이고 말았는데, 다음 날 술이 깬 뒤 후회하고 유복을 후히 장사했다. 이 이야기는 『삼국연의(三國演義)』 제48회에 나오는데, 정사(正史) 『삼국지(三國志)』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다.

조조는 삼국시대를 풍미한 일세의 영웅일 뿐 아니라 중국의 문학사에 길이 남을 문인이었다. 그는 두 아들 조비(曹丕), 조식(曹植), 그리고 건안칠자(建安七子)와 더불어 당시의 건안 문단을 이끌었는데, 조조와 그의 두 아들을 통칭하여 ‘조 씨 삼부자’라고 한다. 그리고 당시 조 씨 삼부자의 막하에서 그들과 더불어 문단 활동을 했던 공융(孔融), 완우(阮瑀), 유정(劉楨), 진림(陳琳), 응창(應瑒), 서간(徐幹), 왕찬(王粲) 등 7인의 문인들을 건안칠자라고 한다. 이 시에 나오는 ‘두강(杜康)’은 하(夏)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자연 발효 현상을 발견하여 술을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두강’은 술의 대명사로 쓰이게 되었다.

『고사성어 대사전』(김성일, 시대의창, 2013)을 참고했다.

22. 주희(朱熹, 1130~1200)

22. 1. 순희갑진중춘정사한거희작무이도가십수정제동유상여일소(淳熙甲辰中春精舍閒居戲作武夷權歌十首呈諸同遊相與一笑, 순희 갑진년 중춘에 정사에서 한가로이 보내면서 장난으로 무이도가 십수를 지어 함께 노닐던 벗들에게 보여주고 더불어 한번 웃었다) 6수 오곡(五曲)

五曲山高雲氣深(오곡산고운기심) 오곡은 산은 높고 구름 깊은데
 長時烟雨暗平林(장시연우암평림) 오랜 시간 안개비로 평림은 어둡다.
 林間有客無人識(임간유객무인식) 숲 사이의 나그네를 알아보는 사람 없고
 欸乃聲中萬古心(관내성중만고심) 느리게 노 젓는 소리 속에 만고의 마음이

있어라.

이 시는 주희(朱熹)가 머물렀던 푸젠성(福建省, 복건성)의 무이산 무이정사(武夷精舍)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곳은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뜻깊은 공간이기도 했다. 시어 ‘평림(平林)’은, ‘평림도(平林渡, 평림 나루터)’일 수 있다고 한다. 주희가 지나야 하는, 무이정사의 초입이라는 말이다. 『주자 시선』(주희 지음, 심우영 옮김, 지식의만드는지식, 2014) 등을 참고했다.

원문은, ctext.org/library.pl?if=gb&file=78419&page=36(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누리집 ctext.org, 2023년 8월 22일 검색) 등을 참고했다.

23. 최호(崔顥, 704?~754)

23. 1. 황학루(黃鶴樓)

昔人已乘白雲去(적인이승백운거) 옛 선인 이미 황학 타고 가버리고
此地空餘黃鶴樓(차지공여황학루) 이 땅에는 공연히 황허루(黃鶴樓, 황학루)만
남아 있다.

黃鶴一去不復返(황학일거불부반) 황학은 한번 떠난 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白雲千載空悠悠(백운천재공유유) 흰 구름만 천년토록 여전히 떠 다니네.

晴川歷歷漢陽樹(청천력력한양수) 맑은 날 강에는 한양의 나무들이 뚜렷하고
春草萋萋鸚鵡洲(춘초처처앵무주) 봄풀들은 앵무주에 무성하다.

日暮鄉關何處是(일모향관하처시) 해는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일고
煙波江上使人愁(연파강상사인수) 강 위의 안개가 시름겹게 하노라.

황허루(黃鶴樓, 황학루)에는 전설이 있다. 황자안(黃子安) 또는 비문위(費文禕)란 신선이 황학(黃鶴)을 타고 이곳을 왔었기 때문에 황허루라고 했다는 설

이다. 이 시는 천고의 절창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24. 하지장(賀知章, 659~744)

24. 1. 채련곡(採蓮曲)

稽山罷霧鬱嵯峨(계산파무울차아) 안개가 걷힌 회계산 울창하고도 높고 험해
鏡水無風也自波(경수무풍야자파) 거울 같은 물 바람 없이도 절로 물결인다.
莫言春度芳菲盡(막언춘도방비진) 봄이 지나 화초의 방향이 없다 말하지 마오
別有中流采芰荷(별유중류채기하) 가운데 흐르는 물에 마름 연밥 딸 것 있단
다.

하지장(賀知章)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659~744)이다. 자는 계진(季眞)·유마(維摩). 호는 사명광객(四明狂客). 태상박사를 거쳐 비서감 등을 지냈고, 시인이백의 발견자로 알려졌으며 풍류인으로 유명하다.

25. 형가(荊軻, 기원전 ?~기원전 227)

25. 1.

風蕭蕭兮易水寒(풍소소혜역수한) 바람이 소슬함이며, 역수 물이 차도다.
壯士一去兮不復還(장사일거혜불부환) 장사가 한번 떠남이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도다.

형가(荊軻)는, 중국 전국 시대의 자객. 위나라 사람으로, 연나라 태자인 단(丹)의 부탁을 받고 진시황제를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26.

26. 1.

碧松亭下明倫堂(벽송정하명륜당) 벽송정 아래 명륜당 앞에는
槐杏雙雙儼作行(괴행쌍쌍엄작행) 회화나무와 은행나무가 짝지어 가지런히 늘
어섰네
黃金大字留華扁(황금대자유화편) 황금빛 큰 글자가 아름다운 편액에 남았으
니
筆法森嚴仰紫陽(필법삼엄양자양) 엄정한 필법 보며 자양 부자(紫陽夫子) 우
러르네

‘자양 부자(紫陽夫子)’는, 성리학을 확립하여 조선 시대 유학자들에게 공자(孔子) 다음으로 추앙받은 송(宋)나라의 주희(朱熹)를 가리킨다. 주희의 아버지 주송(朱松, 1097~1143)이 자양산(紫陽山 지금의 안휘성 흡현 소재)에서 독서하였는데, 뒤에 주희가 복건성 송안(崇安)에 살면서 집 이름을 ‘자양서실(紫陽書室)’이라고 지어 아버이를 잊지 않는 뜻을 담았다. 이 때문에 후인들이 주희를 ‘자양’으로 불렀다.

『무명자집(無名子集)』 시고 제2책 시(詩) 반중잡영(泮中雜詠) 이백이십수(二百二十首)에 실려 있다. 2014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의 강민정이 역(譯)한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0576A_0020_010_0160에 기뻐했다. 2024년 11월 25일에 검색했다.